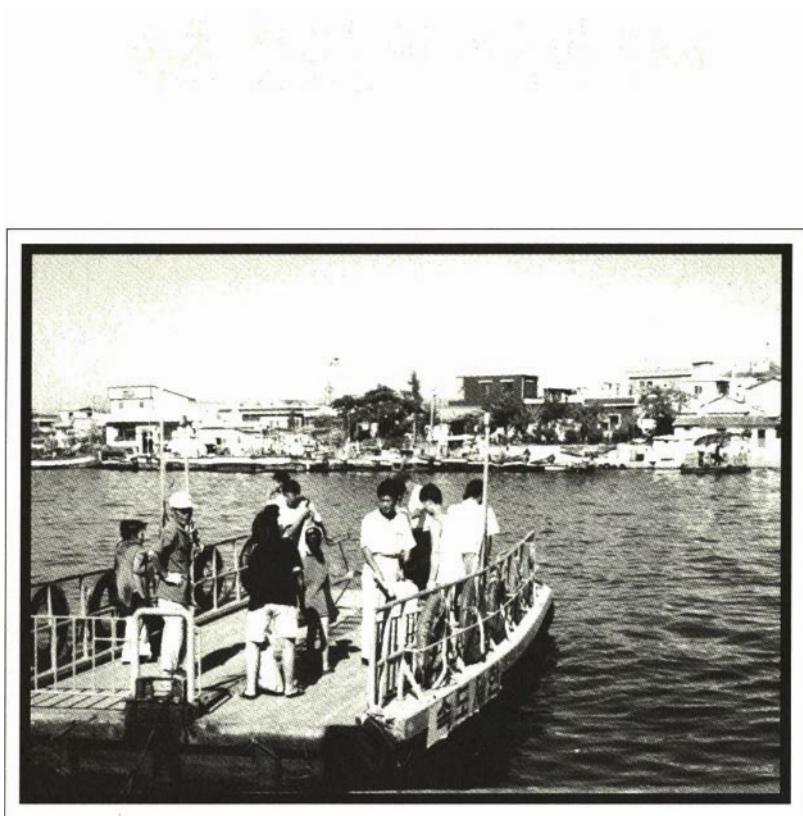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장정룡 · 김무림

속초문화원



1998
속초문화원

차 례

발간사 5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I . 연구목적과 범위	9
II . 청호동 변천사	15
1. 역사적 변천	15
2. 문화적 변천	23
3. 지리적 변천	28
III . 청호동 민속문화	33
1. 의례전승	33
1) 세시풍속	33
2) 통과의례	38
3) 상제례	45
2. 신앙전승	49
1) 성황제	49
2) 용왕제	53
3) 수살굿	57
4) 배성주제	59
3. 기예전승	65
1) 민속극	65

2) 민속놀이	85
4. 생활전승	90
1) 음식문화	90
2) 가옥구조	96
3) 어로생활	101
4) 사회조직	103
5. 구비전승	106
1) 청호동 개척이야기	106
2) 어업민요	137
3) 지명유래	149
IV. 청호동 언어의 특질	151
1. 머리말	151
2. 속초 방언의 위상	152
3. 청호동의 언어특징	154
4. 맷음말	183
V. 청호동 방언 조사자료	185
[참고문헌]	247
[부록1] 청호동 소재 특집방송	250
[부록2] 청호동 소재 문학작품	263
[부록3] 청호동 소재 사진	273
[발 문]	275

【발간사】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내년 9월이면 우리 속초 청초호변에서는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속초를 세계속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화랑도였던 영랑이 청초호와 영랑호에서 심신을 수양한 것은 자연환경적으로 이 지역이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수문화를 널리 선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악산으로 대표되는 산악문화도 금강산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 해양문화입니다. 일찍이 속초는 어항으로 유명했으며, 속초의 어로문화는 독특한 것이므로 문화원에서는 지난 해에 어로민속지를 출간했습니다.

청호동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 피난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함경남도 출신으로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실향의 한을 삭이고 있습니다.

이들 피난민들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분들로 통일이 되면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가기위해 속초에 모였던 것이고, 어로작업을 위해 청호동에 그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피난민들의 통일의 꿈이 응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피난민의 문화와 분단사를 기록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민족화합

과 통일한국의 의지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현재도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호동 피난민사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강릉대 장정룡 교수와 김무림 교수가 민속과 언어를 연구해서 훌륭한 책자로 낸 것은 피난민 문화 연구의 쾌거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호동 난민들의 민속과 언어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올린 것을 경하드리면서,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청호동이 새롭게 번창하여 민족분단의 아픔을 잉태한 난민의 땅이 아니라 통일세기의 전초기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8년 12월 25일



속초항의 50년대 겨울 모습. 수로건너 청호동에는 집이 몇 채 보이지 않고 나룻배로 왕래하고 있다.

I . 연구목적과 범위

이 책은 속초시 청호동 주민의 민속과 언어에 대한 연구서로서, 함경도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주지하듯이 청호동은 남북분단과 함께 수십년 동안 '떠도는 섬' 또는 '난민의 섬' 등으로 표현된 함경도 월남 난민의 집단 마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 마을이 기존의 집단거주 형태에서 청초호 수로가 확장되고, 조양동과 합쳐지는 등 지리적 행정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 해체상태의 시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날로 인멸되어 가는 민속과 언어관습을 정리, 자료로 남기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청호동의 전승민속은 이주민속과 토착민속의 습합현상을 보인다.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함경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속을 견지하고 있어서 속초의 토착민속과 이중적 구조를 띠는 특수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지역 민속중에서 청호동에 정착한 함경도 이주민 1세대의 민속현상 연구는 나름대로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현재 날로 줄고 있는 피난민 세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민속을 정리하는 잔존문화 중심의 민속조사이며, 피난민 세대간의 문화변동도 다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호동 민속조사는 통일이후 남북한 민속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청호동의 언어는 국어 방언의 차원에서 볼 때 강원도 방언구역에 위치한 언어섬(language island)으로 이해될 성격이므로 방언학적인 연구가치는 충

분하다.

특히 청호동은 1997년을 전후한 도시개발로 마을의 행정적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으므로 청호동 주민에 대한 방언학적 연구의 기회는 불과 몇 년 사이가 고비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언 연구를 통하여 함경도 언어가 강원도 방언 구역인 청호동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을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책은 청호동 민속지적 작업의 일환으로 민속과 언어분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민속문화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의 민속 조사와 연구에서 문화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언어분야가 누락된 점이 없지 않았다. 민속분야에서는 어촌마을, 난민마을, 이주마을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청호동의 변천사를 역사와 사회지리적 배경으로 다루고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함경도 민속의 민족분단 이전의 상황을 도출며, 함경도 이주 민속들이 차츰 정주민속 내지 습합민속화되는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방언 구획에서 동해안 지역은 일정한 공통 요소를 특징으로 내륙지방과 구별되고 있다. 이것은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이 주민 이동의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언어적 공통요소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 소이와 관련이 있다.

청호동 주민의 언어는 대방언권인 동해안 방언권 안에서 함경도와 강원도의 언어적 특성과 함께 그 변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청호동 주민 1세대 중에는 함경남도 북청군 주민이 가장 많으므로 북청 언어의 방언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면서 강원도 영동 방언과의 교섭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청호동 이주민의 제1세대는 90%정도가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1세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2세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면 방언 간의 교섭 현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호동은 민속연구상 표류도이며, 언어연구상 언어섬의 좋은 본보기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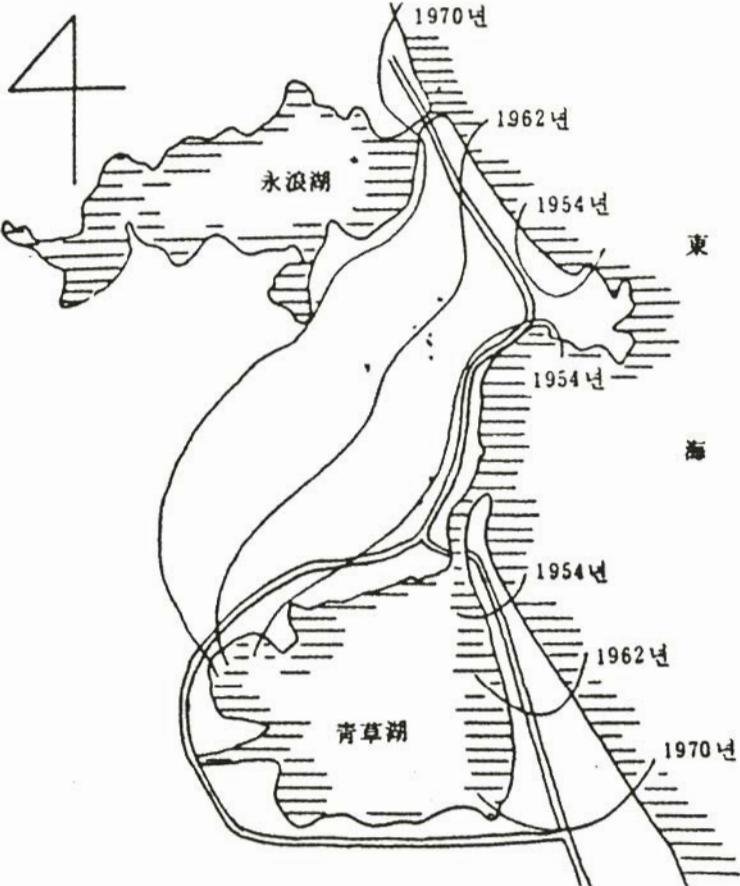
수 있다. 지금까지 청호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청호동은 도시개발과 주민이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이 지역적 기반을 잃을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집단이주민속과 언어권의 언어적 유형을 연구하여 기록에 남기는 것은 속초지역 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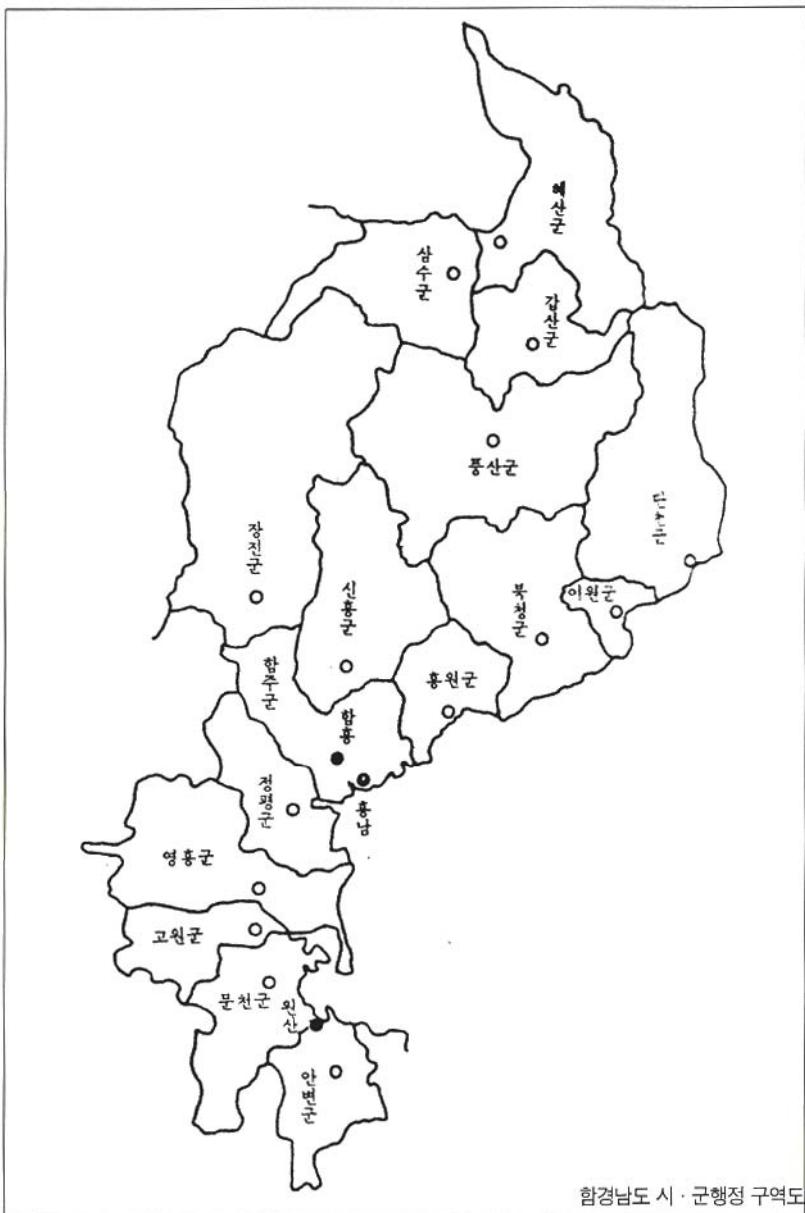
청호동 주변 고지도(여지도서, 1760년)



청초호와 설악산 주변 고지도(관동읍지, 1860년)



속초 난민취락의 확산과정



합경남도 시·군행정 구역도

Ⅱ . 청호동 변천사

1. 역사적 변천

속초시는 조양동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편이나 마제석검과 돌화살촉 등의 청동기 유적이 말해주듯이 수천년전부터 주민이 거주한 자연촌락이었다.¹⁾

속초시의 경우는 민족분단을 초래한 6.25사변 이후 북한거주 주민들이 해안가에 집단유입됨에 따라 청호동이라는 난민촌락이 형성되어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속초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이루고 있는 청호동 난민촌락의 형성과 특색에 관한 연구는 김형재의 논고²⁾ 이후 몇몇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³⁾ 대부분 청호동 주민들의 삶에 대한 기행 보고, 문학작품이나 실향민을 대상으로 만든 드라마, 사진 등의 영상물에서 다루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98년 청호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청초호 신수로 개발과 국제관광엑스포가 청초호변에서 열리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조양동과 합쳐졌다.

근래들어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동해상에 잠수함과

1) 강릉대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30쪽

2) 金炯在, 『東草市 越南難民聚落의 形成過程과 構造的 特色에 關한 研究』, 『地理教育論集』20집, 서울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1988, 22~42쪽

3)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속초시행정지도

무장공비를 침투시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유람선이 출항함에 따라 청호동 거주 난민들의 정신적 고통도 늘고 있다.

대부분 청호동 피난민들은 단순한 관광차원의 북한방문이 아닌 갈라진 혈육과의 상봉을 위한 북한방문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사로 공산치하를 벗어나 월남한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배려와 함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난민취락의 역사적·문화적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속초시 청호동은 조선시대 양양군 소천면에 속하였다. 「여지도서」(1760)에 의하면 속초지역은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으로 나뉘었는데, 소천면에는 논산리(論山里) · 부월포리(扶月浦里) · 속초리(東草里) · 속진리(東津里) 등 4개리가 속했다. 도문면은 상도문리(上道門里) · 하도문리(下道門里) · 물치리(勿繼里) · 대포리(大浦里) · 옹진리(瓮津里) · 신흥사(神興寺) 등 6개리로 편성되었다. 이 당시 현재의 조암동 일대인 부월포리에는 18호가



속초시 승격 경축 시기행진(1963년)

살았는데, 남자48명, 여자 38명이 거주하였으며, 청호동은 주민이 살지않는 백사장이었다.

일제하인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관한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바꾸고 11개로 편성하여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면세일반(面勢一班)」에 의하면 1907년에 면장 1명, 서기 5명, 면협의원 1명이 있었고, 도천면은 11개리로 구성되어 장항리 · 상도문리 · 중도문리 · 하도문리 · 내물치리 · 대포리 · 외옹치리 · 부월리 · 노리 · 속초리였다. 1937년 7월 1일 속초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도천면을 속초면(束草面)으로 개칭하고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속초는 해방이후 38이북에 속하여 공산치하에 들었으나 1951년 2월 11일 탈환하여 8월 18일 수복지구로서 군정치하에 들어갔다. 이때 많은 숫자의 이북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함에 따라 마을이 형

성되어 속초읍 5구로 설정되었다. 1951년 10월 양양군 토성면 장전리와 사진리를 편입하였다가 1954년 다시 토성면으로 넘겼고,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분리되고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피난민이 집단 이주함에 따라 청호동 5구와 6구로 늘어나고 1962년에 신흥리가 생기게 되었다.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전입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1.4후퇴 이후 전입한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⁴⁾

(단위:명)

	총 수			북 한		중 국		일 본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양군	52,346	28,864	23,482	28,823	23,460	17	18	12	4	12
8.15이후	3,619	1,932	1,687	1,896	1,665	16	18	12	4	8
6.25이후	1,180	604	576	603	576	1	-	-	-	-
1.4후퇴 이후	47,547	26,328	21,219	26,324	21,219	-	-	-	-	4

상기 자료에 의하면 해방기에 3,561명이 동란기에 48,722명이 양양군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55년 경에 월남난민 분포지였던 속초읍에 6.25이후 유입된 월남난민은 48,722명인 것으로 판명된다.

출신지별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함경남도가 92.9%를 차지하고 이들 가운데 어업종사자가 무려 68.6%로 가장 높으며 농업 종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호동 거주의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들로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 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었다. 1956년 12월 말 당시 양양군 속초읍이라 했는

4) 內務部,『大韓民國 第一會 簡易貿易 總人口調查報告』,1955, 1959

데, 양양면·서면·손양면·현북면·강현면·토성면·죽왕면이었고, 속초읍은 5,255가구에 22,567명이 거주하였다.⁵⁾ 1963년 1월 1일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당시에는 16개 법정리에 22개 부락과 312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인구는 10,864가구에 55,619명이었다. 당시 청호동 지역은 부월리 2구로 개칭되었는데, 1구에는 37개반 196가구, 970명, 2구에는 1,119가구에 5,927명이 거주하였다.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바뀌었다. 당시 부월리 2구는 청초호수에 접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서 청호동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부월리·온정리·논산리·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으로 정하고, 노리·도리원리·이목리·척산리·신흥리를 합쳐 노학동이라 불렀고, 대포리·외옹치리·상도문리·중도문리·하도문리를 합쳐 도문동,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바꾸어 12개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고성군 장전리와 사진리가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었다. 1950년대를 지나 비교적 정착단계에 들어간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 속초시의 인구변화를 살펴면 다음과 같다.⁶⁾

연 도	인 구 수		
	계	남	여
1966	63,100	31,849	31,351
1967	67,079	33,704	33,375
1968	71,033	35,741	35,292
1969	73,023	36,911	36,112
1970	73,096	37,097	35,999

5) 강원일보사, 『江原年鑑』, 단기 4292년도(1959)

6) 속초시, 『제9회 통계연보』, 1971

보다 구체적으로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청호동 연도별 인구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1966	1967	1968	1969	1970
인구수	6,981	7,348	7,526	6,902	6,969

이상과 같이 청호동의 인구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7천명 내외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들어 어업부진, 거주이전 등으로 3~4천명 내외로 줄어 들었다. 1966년부터 1986년까지 30년동안의 가구 및 인구의 변동사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구 분	가구수	인구수	가구당 평균인구수
1966	청호동 속초시	1,301 12,785	6,981 67,079	5.2 5.2
1976	청호동 속초시	1,262 14,801	6,153 72,042	4.87 4.9
1986	청호동 속초시	1,143 17,584	4,881 71,211	4.27 4.5

1996년도 속초시는 영랑동·동명동·중앙동·금호동·청하동·교동·노학동·조양동·청호동·대포동·도문동·설악동·장사동 등 13개 법정동과 행정동, 24개 자연부락, 25,753가구, 인구수 80,581명, 193개통, 984개 반이 되었다.

1998년 10월 17일 현재 속초시는 통폐합이 이루어져 청호동의 경우 조양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통폐합 이전의 청호동은 면적 총 0.3km², 1,178가구, 인구 4,572명, 10개통, 52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18개 통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1통에서 8통까지가 편입된 조양동 지역이며, 9통부터 18통까지 10개통이 기존의 청호동이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현재 청호동의 인구 및 세대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속초항 도면

청호동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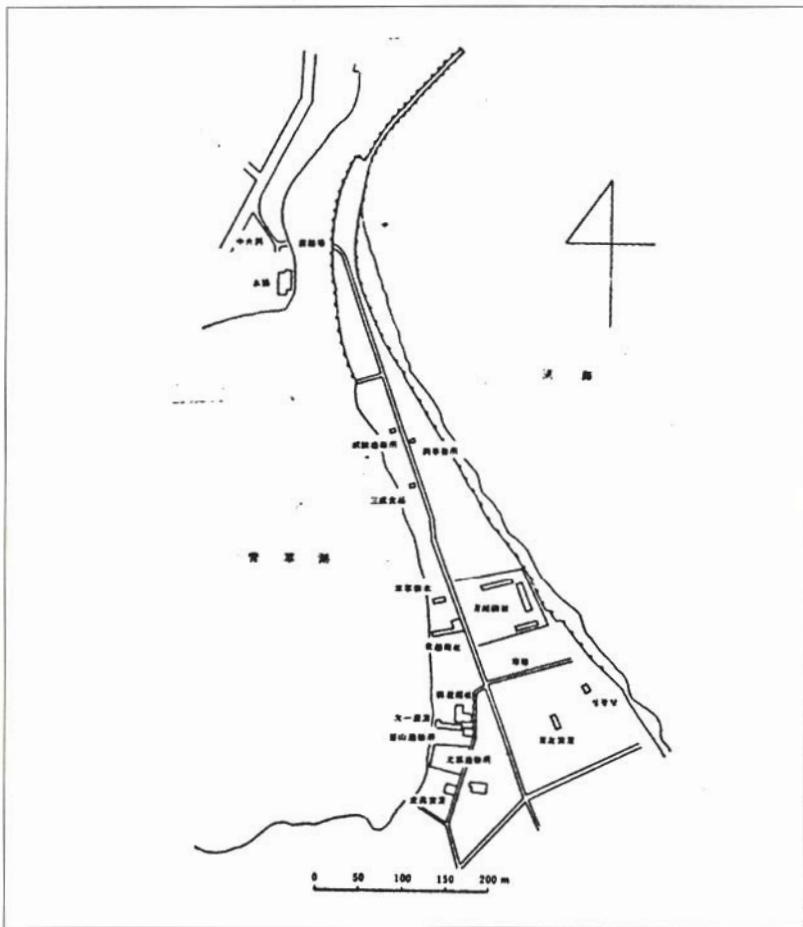
총세대수	2,152	총인구수	6,160	법정동수	2개
------	-------	------	-------	------	----

법정동명	세대수	계(%)	남	여
계	2,152	6,160(100)	3,099	3,061
청호동	1,083	3,117(51)	1,590	1,527
조양동	1,069	3,043(49)	1,509	1,534

청호동은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로문화가 일찍이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산업인 어업종사자가 60%를 넘고 있으며, 수산물가공 공장, 선박 조선소 등이 있다.

1996년 현재 어촌계와 종선협회에 가입된 어선은 163척, 어민은 370명 정도, 무동력선이 1척, 15톤 미만이 149척, 15톤 이상이 13척, 연승 54척,

유자망 13척, 머구리배 4톤급 1척이 있으며 여기에는 선장, 잠수부, 선원 등 3명이 승선한다. 해녀는 15여명이 홍합 등을 채취하고 있으며, 수협 주관하여 풍어제는 매년 또는 3년마다 지내고, 성황제는 어촌계에서 주관하고 있다.



청호동 시설배치도

2. 문화적 변천

속초시 청호동의 역사는 실향민의 정착과 삶이라는 남북분단사 내지 난민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이후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한 피난민과 6.25사변때 월남한 북한주민들로 인해 청호동이 생겨났다.

속초시에 정착한 북한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월남하였고, 청호동에 난민취락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생활한 것은 속초의 지리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속초정착의 실향민들은 이질적인 언어와 행동양식, 생활풍습 등으로 토착민과 융화되기 힘들었으나, 전쟁중에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제하에 대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심한 갈등을 겪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해변가 공지에 거주지를 설정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 마찰을 피했고, 경제활동의 경우도 대부분 바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특색이 강한 독자적인 '난민의 섬'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함경남도 영흥에서 피난 내려와 속초에 와보니까. 저짝 건너도 집이 불과 얼마 없었어요. 민간인들도 없었고, 여기가 청호동이라는 마을이 된 이유는 그때는 북진북진을 해서 고향을 가자해서 북진을 따라 동해를 따라 실향민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올라오다보니까 속초 이상 더 갈래두 들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 우리 실향민들이 땅이 있습니까? 뭐이 있습니까? 없으니 이 청호동 백사장에 그때 우리 실향민들이 집 한 칸 맨들래도 돈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다 편자를 사다가 각구목을 사다가 집짓는 것 이 돈이 제일 안들고 빠르구 헐했던 말입니다.

그때 또 여기 공터이고 지금은 시유지나 도유지지만 그때만 해도 군정하니까 누가 못 짓는다. 짓는다 하는 것도 없고. 실향민들이 각구목 이다를 사다가 그저 방한 칸 꾸려 이렇게 살다가 차츰차츰 이다 집을 늘궈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데없는 실향민들이 모여서 이 마을을 맹근기래요. 뭐 딴기 아니래요.

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청호동에 아마 대한민국 팔십프로가 한 동네에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일 겁니다. 실향민들이 모여서 청호동이라는 동이 생겼어요. 자꾸 따라 올라오다보니까 백사장 땅 밖에는 없고, 한 두 사람이 여기다가 판자집을 세우다 보니 뭐 옛날 말씀 한가지로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실향민들은 실향민들끼리 모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는 저짝 건너도 불과 몇 집 없었어요. 전부가 다 공지고, 집이란 건 없었어요. 사람이란 건 민간인들은 없었고, 차츰차츰 사람이 모여들다보니 그래가지구 민정에 이양되고 또 우리들이 몇 해 있다보니 명태라는 게 잘 나가지고, 속초에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가지구 결과적으로 시로 승격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제보자: 윤덕훈(남.76), 1990.11.16. 청호동 3통3반

대부분 타지역의 월남난민 경우는 대도시에서 소수 집단화로 바뀌었으나 청호동은 오히려 타지에 거주하던 난민들까지 합세함에 따라 남한 속의 북한주민 대규모 사회를 형성, 강한 귀속감과 결속력을 유지하게 된 점이 큰 특징이다.

1988년 출신지별 난민 가구를 조사한 김형재의 자료에 의하면 함경남도 출신자가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북청·영흥·단천·홍원·이원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함경남도의 해안지역 출신난민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주로 월남 직전 어업종사자가 응답자의 69.6%로 가장 높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외에 농업 2명, 상업 5명, 학생 9명, 공무원 2명, 기타 4명의 순이다. 따라서 청호동 지역의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단위:명)

도별	합 남								합복	미수복	계
	북청	단천	홍원	이원	원산	정평	홍남	소계			
난민 (%)	23 (33)	7 (10)	7 (10)	7 (10)	3 (4.3)	2 (2.9)	2 (2.9)	65 (93)	3 (4.3)	2 (2.9)	70 (100)

이들이 월남한 시기는 1.4후퇴때가 70명중 49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4후퇴후 휴전시 17명으로 24.3%, 6.25사변 발발시는 4명으로 5.7%이다.

또한 월남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90%를 넘고 기타 군트럭이나 도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선박 가운데 본인소유가 10%, 타인소유가 38%, 군수송선이 7% 소규모 민간인 선박인 '창의배'를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난민이라는 집단개성을 유지하여 경제활동과 사회문화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울러 어로작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적 안정감과 결속을 다지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1950년대 후반으로부터 어업의 호황과 이에 따른 속초시의 경기 호황에 따른 타 지역 거주의 난민들과 남한 지역 출신자들이 이주하고 자녀의 취학 등 타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난민촌으로서 청호동 인구 교류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월남후 최초 정착지를 속초로 정했다가 보다는 강원도 어항과 경상남북도 해안지역에 정착했다가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휴전선 근처의 고향에 인접한 속초어항으로 유입되었다.

실제로 유입인구가 늘어난 1953년부터 1년간은 난민집단들이 무작정 북상하였으며, 1955년 이후에는 난민 집단 거주지라는 귀속심리나 어업활황 등으로 청호동에 머물게 되었다.

난민 가운데 경제적 조건이 양호한 주민들은 차츰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경제력이 비슷한 주민들이 시유지에 집단 잔류하고, 일부 타지에서 유입됨에 따라 청호동의 사회적 위상은 상승되지 못하였다.

청호동으로 유입된 난민집단은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문화요소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정신문화나 생업문화는 속초의 토착

문화와 부분적으로 갈등양상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일부 선택 가능한 요소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택되지 않은 문화는 토착문화와 습합되거나 상당한 변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난민집단의 출신지역인 함경남도 해안과 속초 청호동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이들의 생계가 주로 어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므로 문화요소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호동의 문화는 함경도 이주문화와 속초해안의 정착문화가 서로 섞여서 전승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난민들이 전파한 문화행사로는 기예전승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있고, 신앙 전승으로 용왕굿·수살굿·풍어제·배성주신양 등이 있는데, 사자놀음을 제외하면 동해안에서 전승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례전승이나 구비전승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 함경도 난민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생활전승으로 언어·음식·주거·사회조직이라고 하겠다. 이들이 쓰는 일상용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관상의 언어 등에서 청호동 마을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주거형태에서는 아직도 난민취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함경도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지역별 군민회나 친모회를 구성하여 동향의식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청호동은 과거 함경도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여 소위 '아바이 마을'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진 것과 달리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인구의 전출입이 계속되고 난민들의 문화적 특성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음에도 난민 1세대가 노령화로 사망함에 따라 난민 2.3세대의 전출현상이 지속되면 그 특성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호동민의 삶의 민속과 언어생활은 분단과 실향이라는 아픔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북한주민이 월남하여 정착한 청호동 마을은 난민 취락(難民聚落, Refugee Settlement)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억압 내지 박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가오는 적을 피해 달아난 사람” “국내 피난,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온 종족집단” 등으로 정치적 사실, 기아, 홍수 등에서도 기인된다.

청호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6.25사변 이후 월남한 북한 난민들이 정착한 취락으로서 그동안 이동주민의 숫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출신지, 정착지 분포, 취락형성, 북한방언 등에 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나 문화, 언어생활 등에 대한 언어지리학, 민족생활학 등의 접근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구성된 청호동 거주 함경도 난민들의 생활과 언어를 통해 섬이 아니면서도 ‘떠도는 섬’인 청호동의 문화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쪽으로 월남한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토착문화와 융화되고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고립된 섬’으로서 날로 희석되어 가는 청호동의 함경도 북한주민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강원도 실향민 문화가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분단의 땅’인 강원도가 장차 ‘통일의 땅’이 되는 날 남북통합의 공간으로 청호동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지리적 변천

청호동은 속초시청을 중심으로 동남방향의 청초호수가에 접하고 있으며 동해안을 끼고 있다. 청호동의 위치는 속초시 동쪽끝으로 청호동 1348번지가 동경 $128^{\circ} 37'$ 이다. 서쪽 끝인 설악동 산41번지와 동서간 거리는 19km로써 북쪽으로 동명항, 남쪽으로는 조양동과 이어져 있다. 지역적 특성은 항만에 접한 소반도형으로 주민의 6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0%이상 실향민이 집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남쪽으로 월남한 난민들은 대부분 대도시 등으로 유입되어 93개 난민 정착촌을 형성하여 농업이나 노동으로 생업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호동에 정착한 난민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자신들의 임시 거주처를 만들었다.

청호동 지역은 본래 주민들이 살지 않았던 모래사장으로 6.25사변 이후 난민집단이 유입됨으로써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분단 50년이 된 현재까지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청호동 지역은 일제때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정어리 가공공장이 있었고 원주민 네 가구가 남단 구릉지 도로변에 있었으나 전란으로 모두 파괴되고 전쟁중에는 간이 비행장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때는 민간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북진북진하다보니까 속초에 고향사람이 많다. 실향민들이 처음에 정착한 것이 호수로 한 이백호 이쯤됐습니다. 그때는 청호동이 전부다 백사장입니다. 소나무가 요막씩하고 민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와서 내 땅은 아니지만, 오징어도 말리고 그랬지요. 학교 만들 때도 저거는 실향민 학교입니다. 속초시에 13개 동이지만 중앙동도 있고 금호동도 있는데 그 학교는 2개동이나 3개동을 합쳐 국민학교를 신설했지만 이 청호동만은 청호국민학

교는 실향민들이 빠아서 지은 집이라. 학교를 지을 때 모래위에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 집에 하나씩 이만한 하꼬를 만들어 지고 있고, 이걸 만들어야 내가 딴 일이라도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 실향민들이 나가서 이고 지고와서 학교터를 맨들고 학교를 만들었지요.

-제보자:조일랑(남.75), 1990. 11.17, 청호동 2통3반

그때는 청호동 여기가 5구 15반이 되었어요. 여기가 15반이 되었다가 차츰차츰 백여 호씩 늘어나니까 구를 맨들었지요. 5구라구. 구를 맨들어서 발달이 된 것이지요. 그때는 여기 집이 몇 집 없었어요.

전부 앵미리 갖다 널구, 물개불인데, 시방 학교 지은 데두 솔낭구가 가득 들어 찼어요. 그리고 실향민들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구. 학교가 들어서느라고 다 파가지구 해서 이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초소막이가 있어요. 거기는 간이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비행장이 있었구, 지금도 길이 쭉 깊습니다. 비행장 깥아놓고 끝에 양쪽에 보초서구, 그때는 마음대로 밤이면 못 냉겼어요. 군인들이 가라고 해야 가지 못 갔어요. 나룻배가 아니고 노를 저어 가지구 가는 배가 냉기구 그랬어요.

-제보자:이상직(남.74), 1990. 11.18, 청호동 8통2반

청호동은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 지역개발이 규제되어 발전이 침체되었으며, 도로가 좁고, 불량노후 임시주택이 밀집되어 버스 운행이 어렵다. 따라서 청호동의 명물로 널리 알려진 움직이는 다리 '갯배'가 운행하고 있으며, 조양동 진입로가 생겨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다. 속초시 청호동은 동해안을 접하고 있어 어로문화가 일찍이 발달했으며, 남북분단 이후 실향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난민취락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해안선은 석호와 사빈해안으로 사빈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해빈이다. 해빈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 조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을 말한다.

청호동은 중앙동과는 항로로 분리된 모래섬인 사주(砂洲)로 고도는 10m 이하, 광폭은 300m, 연장 1,000m에 이르는 남북으로 긴 지형이다. 남단 구

릉지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며 전체 지표가 모래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

지하수면이 얕고 염분이 많아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 부월리에서 떠다 먹는 등 자연발생적인 취락형성의 조건이 열악하였고, 청초호와 동해에 노출되어 바람과 파도의 피해가 빈번하여 마을 전체가 파도에 휩쓸리는 등 어촌의 입지로서도 좋지 않은 편이다.

취락 입지상 원주민이 살기는 적합치 않았으나, 기초시설이 구비된 항만, 사람이 없는 공지라는 점, 해안이라는 입지조건과 피난민들이 함경도 어민 출신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내려왔다는 점 등이 거주지로 선택되었다고 하겠다. 청호동에 정착한 난민들의 대부분이 여수, 거제, 구룡포, 후포, 울진, 죽변, 묵호, 주문진, 양양, 아야진, 대포 등을 거쳐 이 지역으로 재이동하여 정착하였다.

이들은 휴전 직후 청호동의 북부쪽에 가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항구입구와 도선장이 인접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착 초기에 형성한 난민집단의 가건물은 지형상 고립된 '난민의 섬' (Refugee island)이라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58년 청호국민학교가 설립되고, 미을의 성황당, 5구 시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차츰 타 지역의 난민이 늘어나고, 취락의 규모도 증대되었다.

1963년 시의 승격과 함께 수해방지를 위해 방파제가 건설되었고, 이 지역의 남단 구릉지와 청초호 안에 인접한 어류 가공공장, 제빙공장, 어류건조장 등이 집중 형성되었고, 시장과 도로변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기능상으로 어업 도시의 성격을 띠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남수(宋柂壽)의 『해동산천록(海東山川錄)』(1662)에는 청초호를 쌍성호라 기록하고 “양양부 북 사십리에 있는데 둘레가 수십리다. 호수의 좋은 경치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다”(雙成湖 在襄陽府北四十里 周數十里 湖之形勝 優於永郎)며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1751)에서 청초호를 마치 “그림경대를 열어둔 것 같다”며, 관동팔경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흡곡 시중대, 통천 통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이 팔경에 들었다.

청초호는 영랑호와 마찬가지로 석호로서 바다와 격리되어 있는데,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고, 좁은 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유출된다. 파랑이 세지면 모래가 대량 운반되어 석호의 수로가 막히고 바닷물이 유입된다. 따라서 염분 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다.

현재 청초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호수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옛날 5구 도선장이 있는 북쪽의 신포마을이 독립되고, 수로에 있던 주민들은 새 택지로 옮기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 이전과 함께 조양동과 통합, 엑스포 개최 등으로 인해 청호동의 옛모습이 변화되고 있다. 아울러 함경도 주민들로 구성된 난민취락의 모습도 부득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호동 난민취락의 일부를 보존하여 민족분단의 실상을 후손에게 알리고, 청호동 주민들의 삶의 역징을 보여줌으로써 실향민의 아픔을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함경도 민속을 재현해 놓음으로써 한민족의 분단문화를 실증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姓氏	本府	金李孫朴河鄭	張林尹	通 洞
山川	雪岳	在府西北五十五里鎮山極高峻仲秋重雲疊嶂	所冬羅	
山	朴金崔李陳	在府西壯六十里重嶺雪至夏而消故名	嶺	在府西壯五十里
山	五峯山	里或稱洛山	城隍山	在府北二十五里
山	草津山	在府南二十九里東麓四十四里	籬山	在府北六十三里通湖西即大橫
山	東支也	有奇峯巒橫如設藩故名俗云蔚山	陽野山	在洞山縣南十里
山	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東郡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	鼎足	變稱湖西即大橫
島	南大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海	在府東十三里祀典神東海神子此載中
島	島	在府南四十五里觀瀾亭前滿島皆蒼竹島下海濱有石如磨礪巧刻凹中有小圓石讀傳固石控轉其中唐而改矣	山	在府北二里
味子	紫草	出西漢寺	南	出竹
味子	人參		大	
地黃	海松子		川	
茯苓	蜂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쌍성호(청초호)

Ⅲ. 청호동 민속문화

1. 의례전승

청호동의 의례전승은 한 해 동안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습인 세시풍속과 한 평생 동안 통과하는 의례인 통과의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청호동 주민의 의례(儀禮)는 속초의 어촌과 함경도 어촌지방 전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강원지역 의례와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들만의 정신적 결집의식이 의례에서 강조됨을 알 수 있다.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한 해와 네 계절에서 특정한 때에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풍속이다. 여기에는 자연신앙이나 조상숭배, 종교 주술적인 행위, 놀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세시풍속이 외래적인 세시풍속과 습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미풍양속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청호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호동은 농촌이나 산촌이 아닌 관계로 어촌 세시풍속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천체의 운행법칙에 따른 자연력과 생산주기의 생업력이 강하고, 전통적인 의례력은 함경도 세시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하고 청호동은 다른 데요. 우리 함경도에서는 제일 명절은 정월 초하루를 치고,

제이가 단오, 제삼이 팔월 추석입니다. 우리 살던 곳에서는 그렇고 함경도 곳곳이 풍속에 따라 달라요. 여기 나와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정월 초하루를 제일로 치고 제이로 팔월 추석을 치더군요. 대개 이북에서는 정초를 제일로 치고 단오를 크게 쳐요. 추석은 강원도 사람이나 산에 땅기지, 함경도 사람은 산에 땅기지 않아요. 안가고 한식때는 가서 메를 올렸지요. 추석보다 한식을 더 중하게 생각했지요.

-제보자:윤덕훈(남.76), 1990.11.17, 청호동 3통3반

우리 이북에서도 추석을 크게 쳤습니다. 팔월 추석에는 곡식들을 거둬들입니다. 조상한테 햅곡식으로서 편을 해놓든지, 뼈를 해놓던지 하고, 고 다음에는 구정 음력 설을 쉽니다. 다음에 단오도 크게 쇠지요. 단오라 하면 농번기지만 이북에서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씨름대회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운동을 주로 하지요. 대개 이 청호동에서는 추석하고 설을 가장 크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보자:조일랑(남.75), 1990.11.17, 청호동 2통3반

이북에서는 설날에 떡두 해먹고 세배도 하는데 여기나 한가지지요. 우리가 아이들 때 기억나는 것은 세배를 정월초하룻날 한 것이 아니라 설달 그믐날에 땅기문 했어요. 저 12월 29일날 밤에, 우리 아이들때는 저녁에 했구. 설날 안날에 노인들 한테 가서 절을 하면 노인들이 그때 돈으로 십원짜리도 주고, 일원짜리도 주고, 여기와서는 설날에 아들이나 손자들이 많이 세배하지요.

제보자:김태수(남.79), 1998.11.20, 청호동

청호동 지역의 특징적인 세시풍속만을 선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월달 뱃고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정초무렵이 되면 청호동에 거주하는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뱃고사는 배안에 모신 성주신에게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다.

대체로 무당에게 부탁하여 날을 받거나 택일을 하는데, 정월보름전에 고사

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고사를 지낼 때는 주과포는 물론이고, 그 해 들어 처음 잡은 생선을 말렸다가 쓰거나 가장 큰 생선만을 골라서 제물로 쓴다. 이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어부들은 “잘되면 복치고, 안되면 가슴친다”고 할 정도로 만선에 대한 기대감을 벳고사때 기원한다. 배에 성주를 모신 선주들은 마을 성황당에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자신의 배에 가서 고사를 올린다. 선주들은 복조리를 설날이 지나고 첫 번째 개시되는 장터에 가서 사다가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이 풍속도 사라졌다.

(2) 정월 첫째 뱀날풍속

정월들이 첫 번째 드는 뱀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 하는데, 이 날에는 출어를 하지 않는다. 이 날을 특별히 꺼리는 이유는 배가 출어하면 뱀처럼 미끄러져 전복된다고 하는데 뱀의 표피가 미끄러운 것을 연상한 풍속이다. 요즘에는 이것을 미신이라 하여 믿는 사람이 적다. ‘유모일(有毛日)’은 12띠 중에서 털이 있는 짐승의 날로서 이 날 출어를 하면 풍어가 된다고도 한다.

(3) 달점치기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침에 부럼을 깨물어 몸의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약밥을 한다. 약밥을 찔때 해초를 넣기도 하고 동치미 국물과 명태젓갈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저녁이 되면 성황당이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 누구보다 먼저 달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 달빛으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달이 뜨면 아이들은 바닷가로 나가 광솔불을 피워 쇠통에 넣고 빙빙 망우리를 돌린다. 이렇게 망우리로 달맞이를 하면 아이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믿는다.

(4)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날까지 연을 날리는데 바다쪽을 향해서 띄운다. 참나무 껍질로

손바닥만하게 배를 만들어 띄우고 거기에 연줄을 묶는다. 이렇게 참연(방폐연)이나 가오리연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다가 연 밑에 쪽을 묶어서 불을 붙이면 줄이 끊겨 연이 하늘로 난다. 이것은 자신의 액을 멀리 보내는 것이라 하고, 보름이 지나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5) 봉숭이밥싸기

정월 보름날에 자기의 나이 수대로 약밥을 싸서 '봉숭이밥싼다'고 하여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의 일종으로 한자로는 어부시(魚鳧施)라 쓴다.

(6) 귀신날

음력으로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귀신에게 홀린다고 배를 띄우지 않는다. 어부들은 출어를 하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쉰다. 머리카락, 고추씨를 태워 잡귀를 막기도 한다.

(7) 바람님날

2월 초하룻날을 '바람님날' 또는 '영등할머니날'이라 하여 '영등신' 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 어민들은 비바람에 따라 출어가 정해지므로, 바람에 특히 신경을 쓴다. 따라서 70년대초까지도 영등날에 바람님을 잘 모셨는데, 근래들어 이 신을 모시는 가정이 드물다고 한다. 영등신은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모시는데, 이 날 정화수를 떠놓고 비린내 나지 않는 명태로 찌개를 끓이고, 잡곡밥, 나물, 떡, 술 등을 놓고 가정의 안녕과 어업의 무사, 풍어 등을 빈다. 영등신을 잘 모시는 가정에서는 음력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기간동안 색깔있는 옷을 입지 않고, 상가집을 가지고 않고, 흥한 일을 꺼릴 정도로 근신을 한다.

영등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무서운 바람인 '서마나울'이나 '원산내기' 매

서운 바람이 불어서 해난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호동 선주들은 이 날이 되면 아침에 해뜨기 전에 나와서 배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빈다. 선주들은 그 해 운이 나쁘다 싶으면 별도로 배성주에게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제물을 차려 빈다.

(8)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초호가 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복판만 갈면 이듬 해는 풍년,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용경으로 청호동 주민들이 점을 치는데, 영랑호와 청초호에는 암룡과 수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러한 용경풍속은 조선시대 읍지나 동국세시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청호동 주민들은 용이 밭을 가는 동지무렵이면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증언한다.

2) 통과의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북쪽 지방은 상례에 밝고, 남쪽 지방은 관혼례에 밝다고 한다. 통과의례는 개인이 한 평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이다.

흔히 4례라 하여 관혼상제를 뜻하기도 하는데, 관례는 요즘에 성년식으로 대체되었고, 혼상제례만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섞여서 전승되고 있다. 통과의례에는 인생을 살면서 출발과 종착점인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호동의 경우는 함경도 출신 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함경도 풍속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임신과 출산

「태교신기」(1877)에 의하면 '스승 십년이 어미 열 달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이나 가문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기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습속을 산속(產俗)이라고 하는데, 통과의례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출생의례이다.

오늘날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므로, 고유한 산속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산속은 자식낳기를 바라는 기자속, 출산을 전후한 산전속과 산후속 그리고 육아속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책 (산속편, 하권, 1994)을 참고하였다.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출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보자: 김순녀(68), 청호동 3통6반
- 조사일: 1992년 10월 12일
- 본적: 함경남도 원산시, 24세에 월남, 5남매를 둘.

- 제보자:김옥남(74), 박금순(65), 청호동 2통5반
- 조사일:1992년 10월 11일
- 본적:합경남도 홍원군, 김여인은 31세에 월남, 박여인은 23세에 월남, 각기 4남매 와 3남매를 둠.

- 제보자:이분이(75), 청호동 5통2반, 이월계(72), 청호동 5통2반
- 조사일:1992년 10월 10일
- 본적:합경남도 이원군, 이분이 여인은 33세에 월남 4남매, 이월계 여인은 29세에 월남하여 12남매를 둠.

(1) 기자속(祈子俗)

-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에게, 어떻게 기원하는가?
 - 산에 가서 빈다. 삼신께 빈다. 바위에 가서 빈다. 칠성께 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용왕님께 빈다. 서낭님께 빈다.
- 산월에 임부는 어떠한 음식을 가리며, 또 먹으면 어떻다는 것인가?
 - 토키고기, 오리고기(발가락이 붙는다), 닭고기(닭살이 된다), 상어고기 (피부가 거칠다), 개고기(아이가 사람을 문다), 문어고기(머리에 부스럼 생긴다), 오징어(빼없는 아기를 낳는다)를 먹지 않는다. 상가(喪家) 음식은 먹지 않는다.
- 임태 후는 물론 산월이 가까워지면 산모가 금기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고,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아궁이 수리를 않는다. 문구멍을 바르지 않고 굴뚝을 고치지 않는다(코 가 막힌다, 손가락 없는 아기를 낳는다), 소고삐를 넘지 않는다(열 한달 만에 아기를 낳는다), 귀퉁이나 마루에 걸터 앓지 않는다. 산소에 가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을 보지 않는다.(불부정은 큰 부정이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먹지 않고 가리는 음식은 없는가. 또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고기, 상가음식을 먹지 않는다.(부정탄다)
- 신생아를 위해서 가족들이 금기하는 일은 없는가. 만일 범하면 어떻다는 것인가?
- 개, 닭, 돼지같은 것을 살생하지 않는다. 상가에 가지 않는다.
- 뱃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에 어떻게 해서 미리 아는가?
- 아기가 올려 붙으면 딸, 내려붙으면 아들이다. 뒤에서 불렀을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다. 먼저 난 아이가 안길 때 궁동이를 들이 밀고 안기면 아들이고, 앞으로 안기면 딸이다. 산모 배꼽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들, 오른쪽에 아기가 있으면 딸, 왼쪽이면 아들이다. 신랑과 신부가 나이를 합해 짹수면 딸, 홀수면 아들이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해 문살을 세었을 때 문살에 맞으면 아들, 창호지에 맞으면 딸이다. 산모의 궁동이 모양을 보아서 뒤로 빠지면 딸이다. 먼저 낳은 아이가 홍두깨를 집으면 아들, 주걱을 집으면 딸이다.
- 아기를 낳을 날짜를 미리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 경도를 보아서 알 수 있다.
- 난산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순산할 수 있는가. 또 안산(安産)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미역국과 쌀로 죽을 쑤어 마당이나 뜰에 뿌린다. 순산한 여자의 치마를 입거나 허리띠를 두른다. 피마자 기름을 먹는다. 은가락지를 삶은 물을 먹는다. 한약을 먹는다. 굴뚝밑에 밥을 해놓고, 바가지를 엎어놓고서 빙다. 아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치마로 허리를 묶는다. 남편이 허리를 타 넘는다. 삼신께 백일치성 드린다. 돌바위에서 정성을 드린다. 농문, 대문, 솔뚜껑 등 모든 문은 다 열어 놓는다.

- 아기가 유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심한 일을 하지 않는다.
- 태몽에 아들과 딸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태몽은 적중하는가, 믿지 못할 것인가?
- 흰구렁이, 붉은 고추, 고구마, 호랑이, 밤, 배, 용은 아들, 파란고추, 또아리, 호박, 꽃, 가위, 실은 딸이다.

(2) 산후속(產後俗)

- 아기를 출산한 후 삼가는 음식은 무엇인가?
- 김치, 과일, 호박, 무, 매운 것을 먹지 않는다(치아가 상한다). 상가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다.(부정된다)
- 출산후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첫날부터 3·7일까지 식사는?
- 첫칠일까지 미역국과 밥을 먹는다. 세칠일까지 먹기도 한다.
- 아기를 낳은 직후 금기하는 일과 이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아기를 업지 않는다. 상제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 맷돌이나 절구질을 하지 않는다.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맷돌에 앉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물동이를 들지 않는다(밑이 빠진다), 못을 박지 않는다(눈에 삼이 선다). 상가에 출입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난 곳에 가지 않는다. 삼칠일까지 이러한 것을 지킨다.
- 신생아를 위해 가족들이 가리는 일은 없는가.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 상가에 가지 않는다. 개나 닭을 잡지 않는다. 산모가 금하는 것과 일치한다. 뺨래를 하지 않고 기름에 튀기지 않는다.(몸이 홍역한 것처럼 된다)
- 아기의 태는 누가 무엇으로 가르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산파할머니, 본인, 남편이 가위, 수수대, 이빨 등으로 가른다.

- 아기의 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돌을 달아 바다에 띄운다. 태워서 뒷간에 버린다. 산에 묻는다. 아궁이에서 장작불에 태운다. 말렸다가 태열이나 경기를 할 때 아기에게 달여 먹인다.
- 아기를 낳는 방은 어디로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따뜻한 안방.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산후통이 온다.
- 같은 해나 같은 달에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출산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가축과 같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 한 해, 한 집에서 두 명이 출산할 때. 한 사람은 다른 집에 가서 낳는다. 외가에서 낳았을 때는 손없는 날에 집으로 온다.
-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 원새끼로 꼰 금줄을 대문에 맨다. 소아피(솔가지)를 섭찌질(대문간)에 건다. 아들은 숯, 고추, 솔가지를 달고 딸은 숯과 솔가지를 단다. 삼칠일이 되면 대문 한 쪽으로 밀어 놓는다.
- 삼신을 모시는 곳과 표식 등은 어떻게 하는가?
 - 아기 머리맡에 모신다. 세 분을 모신다. 3·7일 동안 모신다. 시어머니가 모신다. 미역국과 메 한그릇, 수저 3개를 상위에 차린다. 바가지에 쌀을 넣어 벽의 구석에 모시고 한지도 매단다.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 아기 등 국과 메를 모두 3개씩 차린다. 아기 낳고 3일만에 모신다. 첫칠일, 두칠일, 세칠일, 백일, 돌에 모신다. 주머니에 쌀과 실, 고추를 넣어 벽에 건다. 밥과 국, 물 한그릇, 실 한타래를 상위에 놓고 촛불을 켜놓고 시어머니나 무당 할머니가 빈다.
- 아기의 옷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 주로 할머니나 어머니가 흰색으로 만드는데, '배내저고리' '첫저고리' '배안옷'이라 부른다. 첫아기의 것을 두었다가 입히는데 융으로 만든다.

실이나 끈으로 옷을 묶어준다. 포대기도 미리 만드는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된다.

• 산파는 누가 맡는가?

-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복많고 자손많은 이웃할머니, 순산한 여자, 본인이 한다.

• 산파에게 사례로 무엇을 주는가?

- 옷 한벌, 벼선, 신발 등을 해준다.

• 아기의 장수와 다복을 위하거나, 딸일 경우 그만 낳으라고, 천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예가 있는가?

- 개똥이, 오쟁이, 마당쇠, 바위, 부엌쇠, 정낭쇠, 서낭쇠(서낭에 팔았다는 뜻), 칠성바위, 돌바위, 정성이, 뒷간쇠, 딱막이, 광주리, 부엌띠기라고 짓는다.

• 배내머리는 언제, 누가 깎아주는가?

- 세 달 후에 자른다. 그냥 놔두면 죽을 고비를 세 번 넘진다고 그냥 놔두었다가 아주 길면 자른다. 날을 받아서 어머니가 머리꼭대기를 남기고 자른다.

• 아기의 손톱과 발톱은 언제 누가 무엇으로 자르는가?

- 아무때나 잘라준다. 치아나 가위로 어머니가 자른다. 백일전에 자른다.

• 아기의 목욕은 언제, 어떻게 하는가?

- 배총이 떨어지면 매일 씻긴다. 하루 걸러 씻긴다. 머리부터 씻긴다. 하루는 치씻기고, 하루는 내리 씻는다.(살이 골고루 불고 잘자라라는 뜻이다)

• 아기의 돌잔치는 어떻게 하는가?

- 백일에는 밥과 국을 해서 동네사람과 먹는다. 수수떡과 백설기, 수수팥 떡을 하는데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눠먹으면 좋다고 한다. 수끼떡(수수

떡)은 바람을 물리치라고 만든다. 돌상에는 책·연필·돈·쌀·방망이, 실, 붓 등을 올려놓고 아기가 무엇을 집는지 보아 미래를 점친다. 이것을 '돌잡힌다'고 한다. 아기를 낳은 자리에 짚을 깔고 국밥을 올려놓고 삼신께 빈다.

- 아기의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가?
 - 배꼽을 두었다가 태열이 있거나 경기를 할 때 태워서 기름에 개어 아기에게 빌라준다. 바람막이로 아기 머리에 영사를 바른다.
-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 돼지족을 삶아 먹는다. 까치고기를 먹는다. 가물치 고기를 우물가에서 먹는다.
- 아기가 첫나들이 하는 때와 외가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 첫나들이 할 때 아기가 올면 자리도움을 하는 것이므로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 외가에 갈 때는 저고리 안섶에 바늘을 꽂고, 깃고대에도 바늘을 꽂고 변소에 들렸다가 들어간다. 아무렇게 하고 외가에 가면 아기가 아프다.
- 그밖에 출산에 관한 관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아기를 출산한 방은 짚을 깔고 난 후에 3일이 지나 거둬서 태운다. 산모가 목욕재계하고 나면 방을 청소한다. 산모는 쑥을 삶은 물로 쑥찜을 한다.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산모의 젖이 많으면 짜서 반드시 굴뚝에 버린다. 아무데나 버리면 나쁘다.

3) 상제례

상제례(喪祭禮)는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청호동의 경우 혼례문화는 현대화되었으나 상례와 제례는 아직도 북한 지방의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정착한 청호동 실향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제례를 통하여 자신끼리 정신적으로 결속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함경도의 상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3일장을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오일장이나 칠일장, 십일장 또는 십오장도 지낸다고 한다. 청호동에서는 보통 삼일만에 내 간다고 한다.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 염습, 성복, 문상, 치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종 즉 초종을 맞게 되면 자손들이 지켜보는데 숨을 거두는 것을 행복한 임종이라고 한다. 이때 초혼 즉 고복을 하는데, '흔부른다'고 말한다.

남자의 경우 '아무개생 아무개 복 복 복' 이렇게 외치고, 여자의 경우는 아무개 부인이라고 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걸음'을 하는데 손을 펴서 배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 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세 번 두르거나 베로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다.

이것이 끝나면 역복을 하는데 상주들은 직령으로 갈아입고 남좌여우라하여 남자가 돌아갔을 경우 왼쪽 팔, 여자의 경우 오른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호상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 염습은 습과 소렵으로 구분되나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이다. 소렵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렵은 아주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수의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생시에 마련해 둔 속옷, 중의, 바지, 속적삼, 적삼, 저고리, 덧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반함이라 하여 쌀을 불려 시신의 입에 떠넣는 것이다. 저승갈 때 식량이라고 한다. 반함은 세 번 하는데, '천석이오, 만석이

오'라고도 하고 동전을 같이 넣으면서 저승가는 노자로 쓰라고 '백냥이오, 만냥이오'라고도 한다.

다음에는 교포를 쓰는데, 시신을 묶은 다음 입관하고 천금을 덮는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결관을 한다. 관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이 과정인 염습이 끝나면 성복을 한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여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을 한 후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데 이 과정이 끝나는 3일 장이나 7일장후에 치장을 한다.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를 지낸다. 청호동의 경우는 함경도 각지역 도민회에서 마련한 장지가 있으므로 그곳으로 향한다. 이후 치장을 하는 과정은 줄인다.

제례는 차례 또는 차사, 절사라고 하는데, 전에는 설, 대보름, 한식, 추석, 동지 등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청호동에서 설과 한식, 추석차례를 지내고 있다. 초저녁 제사는 없고, 주로 새벽 서너시에 지내고 있다. 조상제례는 시제, 기제, 묘제 등이 있는데, 사당제는 거의 없어졌고 청호동에서는 임시 가옥들이므로 사당이 설치된 곳을 볼 수 없다. 기제는 삼 년이상 지난 망자의 죽기 전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개 고조까지 지내고 그 위는 시제나 절사만을 지낸다. 절사는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낸다. 제의 대상은 직계조상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치' 자 들어간 생선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도치를 싱어, 새치를 임연수라 하여 제물로 쓴다.

제사 음식의 그릇수는 반드시 홀수로 장만하며, 날회는 쓰지 않으며, 김치는 셋어서 담는다. 닦은 대꼬치에 꽂아서 굽고, 무숙채는 반드시 만들어 올린다. 떡은 편틀에 고여 담는데, 제편, 약계, 중계, 인절미, 절편, 솔편, 웃지지 순서로 고인다. 떡에는 차좁쌀로 만든 조찰떡을 비롯하여 시루편, 자바귀 등이 있는데 자바귀는 찰떡을 쳐서 밀대로 밀고 썰어서 기름을 치고 번철에서 구워내서 물엿을 바른 떡이다. 제사에 쓰는 과자는 찹쌀로 큼직하게 만든다. 대체로 크게 만들어 높이 고이며 젯상에는 붉은 빛은 안쓰고 하얗게 만든 것

만 쓴다. 청호동 거주 함경도 주민의 상제례 풍속을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향 떠난지가 사십여년이 됐는데, 함경도에도 풍속이 다 다른데, 관혼상제에 대한 모든 예절법이라든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하던 대로 고대로 합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맞지 안해요. 상례법에 대해 소개 이야기 하겠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삼년 지나면 기일제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친이 돌아간 날짜에 삼년이 지나면 기일 제사라 하는데, 기일제사도 반드시 지방이 들어갑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지방을 적어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출세한 분은 관직도 넣고, 출세 아니했다하면 거저 '현고학생부군신위'라고 써서 제사를 지내는데, 강원도에 와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백종이는 종이인데 단 외장이란 말입니다. 축문만 하게 오려서 사전에 붙여놓고 그 위에 판종이를 덮어 놨어요. 어째서 저렇게 되었을까.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할텐데, 지방을 몇 년이라도 그냥 쓴단 말입니다.

우리 함경도에서는 제사 지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방을 소각시킵니다. 지방을 태우거든요. 없애는데, 제사 지내고 나면 덮었던 종이를 그냥 내려 놓는단 말입니다. 지방을 소각 안시키고,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이야기를 못하고, 며칠 뒤에 공회당에 가서 물었지요. 그러니 "함경도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장지를 사다가 말이요. 팔목을 접어 가지구 거기다가 써서 지적을 모셨다가 제사 다 끝나면 태운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걸 원칙으로 하지 않고 그전에 학자가 써준 걸 고대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지방을 쓸 사람이 없겠습니까만 남의 손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삼년 전 것을 그냥 붙여 쓰는 걸 보니 우리 마음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뿐을 안 받고 고향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요.

고향하고 다른 게 있지만 다 개조가 되었어요. 제사도 그전에 지내던 옛법을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함경도에서는 나이 삼십을 먹었다 하면, 장가를 못가면 비향동원입니다. 그러나 열 다섯 먹은 아이가 장가를 가면 부락에서 향동원이라 합니다. 부락에 사는 명단에 들어갑니다.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장가를 안가면 죽어도 향동원이 아니라고 해서 삼일만에 땅 속

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동원은 삼일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빠르면 오일. 그 렇잖으면 칠일, 구일, 십이일씩으로 하고, 짹 맞춰나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걸 볼 수도 없지요. 살아가는 형편이 곤란한데 삼 사일 이상 집안에 모셔놓구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합경도 식으로 솔직히 하기 어렵고, 지금은 고대광실이 있더라도 삼 일만에 땅속으로 가게 되었고, 옛날에는 귀한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아까워서 구일이나 칠일 이전에는 못나갔어요. 집에 다 모셔놓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결루 다 멀어져 갔습니다.

정초 아침에 차례 지내는 것도 우리 고향에서는 첫 닭이 올 때 세시나 네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는 날이 세서 해가 떠야 차례를 지내지요. 그기 다르지요. 우리 차례 지낼 때는 남의 집에 아무나 발자국이 문 앞에 지나가기 전에 차례 지내지요. 여긴 그렇지 않구. 청호동도 그런데 우리 실향민들은 안그래요. 실향민들은 해가 뜨기 전에 끝내지요.

-제보자: 윤덕훈(남.76), 1990.11.17. 청호동 3통3반

차례라는 것은 지방이 만들어가신 것이 차례거든요. 구정 음력설에 산 사람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니 돌아가신 망령에게도 보내야 하니 차례를 지내지요. 대개 시간은 새벽 3시 이내에 지내요. 세 시에 상을 차려 가지구서 모두 집안 식구들이 망령한테 절하고 차례를 지내지요. 하여간 해뜨기 전에 차례를 다 지내요.

-제보자: 조일랑(남.75), 1990.11.17. 청호동 2통3반

2. 신양전승

민간신앙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민속으로 집안에서 신봉하는 것,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 무속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으로 나뉜다. 청호동의 경우 마을단위의 성황제와 무속제의인 용왕제 및 풍어굿, 수살굿 등이 있고,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배성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역은 신양전승은 주로 어로신앙이 중심을 이루는데,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위하여 전승시켜온 민속이다.

1) 성황제

청호동 성황당은 마을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청호동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 청초호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본래는 백사장이었다. 그러다가 실향민들이 이곳에 모여 들면서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 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주하여 속초리 5구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통제 실시에 따라 청호동이 되었는데, 1통은 심포마을, 3통을 영홍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사람 허리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창문과 출입구만 지상으로 내놓은 토굴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해일만 일면 마을이 휩쓸려 갈 정도였는데, 이러한 피난민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분적인 개축이 허용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항지구이므로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 노후주택들이 들어



청호동 성황당

서 있어 아직까지 피난민촌의 인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년전 해일피해로 방파제가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시에서 부월리에 연립주택 400여호를 지어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다. 청호동은 함경도 어민들이 주로 월남하여 형성되었으며 어로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항만에 접한 작은 반도이므로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남하한 실향민의 70%가 집단 정착하고 있으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상 규제가 많아 계획도시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동에서 무동력 운반선인 갯배를 이용하였다.

청호동의 상징물인 이른바 '5구도선장'은 실향민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 날랐다고 할 수 있는데, 함경남도 해안가 주민들이 배를 타고 월남하여 지금도 '북청상회' 등의 상호명을 볼 수 있다. 북청군민들은 수복후

1958년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으로 실향의 한을 달래며 통일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속초문화원 이사인 김철섭 씨의 부친 김윤삼 씨도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였는데,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 친목계가 속초에 결성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자놀음을 전승했다고 한다. 1944년 통계를 보면 당시 북청군민이 총 28만 4천여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4만명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속초에는 300내지 400가구가 모여 살았다.

성황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낸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므로 해성황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성황당은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길목 야산에 있어 동해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대략 40년전에 선주들이 풍어와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내던 곳이다.

제당은 외벽에 '城隍堂'이라고 고딕체 한자로 써서 걸었으며, 건물은 시멘트로 가로와 세로 3m 정도의 넓이로 한 칸 건물을 지었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를 얹었으며, 시멘트로 담장을 쳤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성황신 화상이 걸려 있으며,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남성황신은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이며, 여성황신은 족두리를 쓴 여인 모습이다. 제단위에는 촛대와 연꽃 지화가 양쪽에 있고, 벽에는 오색 예단을 걸어놓았다. 또한 우측에는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오방기를 보관하고 있고 벽에는 청호동 수산협동조합원 명단을 붙여 놓았다.

청호동 성황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제물은 삼색실과, 어물 등을 장만하여, 이외에도 소머리를 반드시 쓴다고 한다. 마을 제사 때 제관은 고령자 중에서 부정함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며, 제사를 진행한다. 선주들은 성황제때 이외에도 정초에 첫출어를 할 때나, 어로작업이 부진할 때 성황당에서 기원을 하고, 객지에서 이쪽으로 고기잡으러 온 어부들도 풍어와 안녕을 빌고 있다.

성황당은 새로 잘 지었는데, 주로 선주들이 가고, 선원들 중에서도 배를 새로 사면 가서 제사지내고, 또 객지 사람들이 남바리 와서, 장기간 한 달이상 배를 대고 조업을 하면, 제일 먼저 성황당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성황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그리고 조업을 한데요. 풍어가 되게 해달라고. 사고 안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위치가 바다가 보이는 명당이예요. 해골동네가 그 성황당 뒤쪽이지요. 성황당 바다쪽 우측 마을을 속칭 해골동네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제보자:김철수(남.43), 1998.11.21, 조양동장(전임 청호동장)

옛날에 도감도 맡아보았는데, 옛풍습에 의하면 성황제라 하면 주로가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 하는기 원칙이지마는 여기에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돈을 내고, 제물을 갖추고 굿도 하고 소도 잡고, 옛날에는 두 마리씩 잡고 했는데, 그기 동전체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냈지요.

-제보자:황화수(남.75), 1998.11.2, 청호노인회장

이밖에도 청호동에서는 3년이나 5년마다 풍어제와 용왕위령굿을 어촌계 주관으로 거행하는데 풍어제는 만선을 기원하는 것이고, 용왕 위령굿은 수살굿 계통으로 어로작업중 희생된 어부들을 위한 영혼위령굿이다.

2) 용왕제

청호동에서는 선주들이 각자 용왕제를 지내기도 하고, 어촌계의 주관으로 3년마다 용왕제를 공동으로 지내는데 이것을 '배신굿'이라고도 말한다.

용왕제는 풍어굿을 겸하는데, 첫째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의 성격이고, 둘째는 바다에 나가서 사고 없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의 성격이 있다. 용왕제때 행해지는 굿은 풍어굿과 수살굿으로 나누며, 풍어굿은 만선을 기리는 축원굿 계통이고, 수살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오구굿 계통이다.

속초 청호동 용왕제에 대한 설명과 사설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우리가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테 빌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왔다” 어떤 것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지 없다” 이러면은 혼은 들어와도 물밑에 있고, 안들어와도 물밑에 가라 앉아 고기가 다 뜯어 먹어도 물밑에 혼이 있고, 그럴 때는 용왕님한테 비는 거야

아무개 김뭐이, 최뭐이 이름써서 산닭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 달라고 그것을 사해용왕님에게 비는 거지 뭐. 육지로 환생해 달라고 그저 비는 거여. “어찌든지 좋은 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을 넣어야 돼요. 닭을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와. 또 해야되고 하니, 죽은 것은 넣지 말고, 산닭을 넣어야 돼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매어서 끄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발을 묶어 가지고 질게 해서 똑같이 남자들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막 혼을 부르는 거야.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는지, 용왕님 앞에 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중생 혼을 좀 육로로 환생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닭이 물에서 휙 땅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그 혼이 또 오는 거야. 그거 안 넣으면 혼이 나올 수가 없어. 또하고 또 해야돼.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닭을 끄집어 내다가 땅을 파고 묻어. 손없는 방우(방

위)에 삼살방우, 나쁜 방우에다가 묻으면 안되고, 손없는 그 해 손없는 방우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닭을 묻지. 땅에 묻어.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오는 거지.

물밑에 고사는 안하지. 물에 죽은 사람은 그래 굿을 해주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으면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있는 사람이나 배타는 사람은 바다에 용왕에 나가 잘 차려서 나가서 물결치고 바람 불더라고 아무 탈없이 무사하기를 빌지. 그 다음에는 좀 먹고 살게 용왕님께 재수 있게 해달라고 빌지.

-제보자:정춘자(여.63), 1997.11.27. 청호동 거주

모시자 모시자 용왕님네를 모시자
남선부중왕에 용왕님을 모시자
강원도 이십육관
시는 속초시고 동으는 청호동
삼년마다 용왕제를 올리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법을 아니내고
옛법을 버리지 않는 오늘날
청호동 대동안에 이 정성을 드립니다
동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남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서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북해안 바다에 용왕님네요
사해팔방 용왕님을 모시고
물밑에는 옥녀당 용왕님네여
물위에는 거북당 용왕님네여
수천당아 용왕님을 모시고
청호동 각성밭이 육성밭이 자손들
어깨위에 불궈주시는 용왕님네

용도용도 용신님네
당신은 무얼 불과줬나
심을 망자도 불궈주고
그를 망자도 불궈주지
이리가도 미나발
저리가도 미나발
뻔뻔뻔 대주여
어서옵셔 옵셔 대주
남해안바다 용왕님네여
당신은 무엇을 불궈줬나
동해안 바다고기 불궈줬지
울고간다 우래기도 불궈주고
해망화 소망화 불궈줬지
대명태 소명태 불궈줬지
이리가도 미나발
저리가도 미나발
뻔뻔뻔 대주여
어서옵셔 옵셔대주
서해안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엇을 불궈줬지
청호동 대동안에
각성받이 고기잡이를 불궈줬지
동지설달 널꽝어
오동통통 복쟁이
대문어 소문어도 불궈주고

대이까 소이까도 불궈줬지
이리가도 미나발
저리가도 미나발
어서옵셔 옵셔대주여
북해안마다 용신님네야
당신은 무엇을 불가줬소
청어붕어 남녀노소
온갖 자손들 고기잡이 마련하고
어깨 이끼도 불궈주고
우물배도 불궈주고
잠수배도 불궈주고
큰배 작은 배도 불기겼지
어장배도 봉어배도 불궈주고
이까산 산마일도 불궈줬지
이리로 가도 미나발
저리로 가도 미나발
빤빤빤 대주여
어서옵셔 옵셔대주
청호동 대동안에
각성 육성받이 자손들
명다 갚고 축원공덕 올습니다

-제보자 : 빈순애 (여,39), 1997.11.28 청호동 4동1반

3) 수살굿

청호동 무속굿은 풍어굿, 성황굿, 수살굿이 주류다. 무속굿에는 개인가정굿과 마을공동굿이 있는데, 공동굿에는 별신굿과 풍어굿이 있다. 굿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망자굿, 세존굿, 오구굿, 별상굿, 대감굿, 말명굿, 칠성굿, 산신굿 등이 있다.

수살굿은 어촌굿으로 지역성이 강조된 예로 청호동에 거주했던 빈순애 무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청호동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업중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정이 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닿아 몸이 아프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 버리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다.

수살굿의 절차는 먼저 '혼부름'이다.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닭 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이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서 같이 던진 다음, 남자 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흔'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개 영가'라고 망자를 세 번 부른다. 이러면 배에 있는 상주가 대답을 한다.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 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지환생하옵소서"라고 고축을 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흔대를 몇 차례 더 휘두른 다음에 내려 놓고 닭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올라온 닭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뜻자리와 위패는 굿당으로 모신다.

다음은 '수살잡귀구축' 인데 죽은 닭은 곧 망자의 육신을 상징하며 여기에 혼백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혀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당에서 혼실을 건져 싸고, 가지고 온 뜻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뜻자리로 덮어준다.

무녀는 복숭아나무를 가지고 뜻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 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많고 원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들 물러가라” 하며 수살잡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해야 미망인이 제 정신이 들고 아픈 몸이 낫는다고 한다.

다음 절차는 '길가름'으로 미망인이 혼백을 길가름하는데, 이는 혼백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뜻자리와 혼백상자를 안고 춤을 추면서 광목천을 가른다. 무녀가 천을 가르면 길가름을 하면서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갈 때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을 놓는다. 천을 갈라 두 갈래가 되면 이를 잡고 극락춤을 춘다.

마지막은 '극락춤'인데 무녀가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소리를 하면 상주들이 뒷소리를 부른다. 이 모습은 발인과정으로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가정의 태평과 안일을 기원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 아니라 평소에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망자의 혼백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굿 의식이다.

4) 배성주제

배성주제는 '배서낭제'라고도 부르고 흔히 '뱃고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올리는 것인데, 집안의 성주신과 같이 배를 집으로 여겨 성주신을 봉안한 것이다. 배성주에게 치성을 올리는 경우, 배로 새로 만들었을 경우,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획시, 흥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하다.

제의 형식은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 편이다. 배성주의 신체를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길지형(吉紙形)이라 부른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길지형 이외에도 무신체형, 지방형,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합형 등이 있으나, 청호동은 길지형이 많고 뱃기형도 더러 있다.

선주들이 처음에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 떡, 술 등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절을 하고 축원을 한다. 다음에 배성주의 신체로 한지를 걸게 되는데 이미 달아놓은 배성주 신체는 불에 태운다.

제물로 쓰는 메는 남자나 여자 성주를 한 분씩 모시고 있으므로 한 그릇을 놓고,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에도 한 그릇을 놓는다. 배에는 배성주기와 만선기를 싣는데, 배성주기는 상단에 청색, 하단에 흰색으로 만든다. 배성주의 신체는 남녀로 구분되는데 성별의 구분은 선주의 생기를 맞추어 무녀가 정한다고 하며, 무녀들의 경우 배에서 굿을 하면 신의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게 되므로 그때 정한다고 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성주가 나타나면 알게 되는데, 남자 성주는 한지만 매달고, 여자 성주는 삼색천을 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 성주가 많다고 한다.



청호동 배성주

배에다가는 옛날에 성주를 모시는데, 남성주 있구, 여성주 있구 그래요. 여성주는 이 색깔을 많이 빛 다르게 하고, 노란 거든지, 붉은 거든지 여러 색깔이 하고, 남성주는 거저 한 가지로 흰색으로 하고, 한지는 여성주도 매고, 여성주도 매구. 남성주는 거저 한지를 한 두가지 매고요.

-제보자:김태수(남.79), 1998.11.20. 청호동

여기는 여자 성주가 많고요. 배를 만들어 배 내릴 때 고때 성주를 모셔놓고 술 한잔씩 올리는 거지요. 그거는 항상 비는 것보다 마음으로 성주앞에 배에서 술한잔이라도 할 때는 성주앞에 올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마음으로 모시는 거지요.

첫 설망할 적에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그걸 성주님한테 모시지요. 일년에 한 번씩 갈지요. 그전에는 명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오징어가 많이 잡하니까 오징어를 올리지요. 성주는 실하고 한지로 모시지요. 육지나 바다나 모시는 거는 한가지요. 함경도 단천에서는 단지귀신모시지요. 귀신 끓어서 단지에다 싸 가지고 집뒤에다 모시지요. 무당들여놓고 귀신을 잡아서 모셔놓지요.

-제보자:이학주(남.63), 1998.12.20. 청호동

여긴 대부분 여성주예요. 성주한테는 자기가 마음이 이상하다 하면 밥을 해서 술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집에서 하는 대로 고대로 하고 절도 하고 그러지요. 바다에 나가서 일기가 나쁘면 성주가 운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는 배가 작아서 그런 경험은 못했어요. 배성주는 한지에다 실을 묶어서 매년 정초에 달아요.

-제보자:남원춘(남.64),1998.12.20,청호동 2통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살면 토신이라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모셔놓는데, 배에 두 배를 지키는 수호신이지요. 그런 성주를 모셔요. 대개가 보면 한지에다 실을 한태 감고 그러구 혹시 빨간 천 같은 거, 비단천 같은 거, 천조각을 묶어서 좋은 배들은 가미 다마 같은 신당을 맨들어서 고기다가 넣구요. 대개 목선들은 그냥 어느 한쪽에다 모다 구 치구 걸어요.

-제보자:박수길(남.77),1998.11.1, 청호동 3반

일반적으로 배성주 성별을 나누는 방법으로 무당에 의한 결정, 현몽, 마을 성황신의 성별에 따르는 경우, 배만드는 목수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배성주제는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인 설망시에 소나 돼지를 잡아서 지낸다. 배성주에게는 초하루나 보름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기와 메를 바치고 향과 초를 피우고 빈다. 배성주에게는 첫 날 첫 낚시하여 잡은 생선을 반드시 바치고 화장(배에서 밥하는 사람)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용왕님 잡수십시오”라고 빌면서 바다에 던진다. 설망시의 배성주굿은 다음과 같다.

어널러에 어널너에-에레에 어널널러 널-러

어널- 널-러 상사지야

청호동 대동안에

성주나무 비러가자

성주나무 비러가자

성주나무 비러 갈적에

성주등불이 어디겐고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을 찾아가야
제비원으로 찾으가서
솔씨를 한 말을 얻어다가
대명산천에 뿐였더니
밤이면은 이슬을 맞고
낮이면은 햇볕을 맞아들고
삼저능성이라 물을 주고
두 판석을 가꾸어 낸다
그들이 점점 자라나니
낙락장송이 벌어졌네
큰 나무를 비어다가
각성받이 성주를 모시자
육성받이 성주를 모시자
와가성주를 모십니다
초가성주를 모십니다
치어다 보니 상량성주
내려다 보니 중량성주
아버님은 몽주성주
어머님은 지호성주
임금왕자는 봉황성주
성주나무를 비어다가
청호동 대동안에
각성받이 성주님네
육성받이 성주님네

집을 지어서 성주주고
배를 타도 성주
잇물에 공성주
사공에는 임성주
각성받이 육성받이 성주를 모셔놓고
성주나무를 비어다가
여러 대목이 다 나온다
앞집에 암대목
뒷집에 이대목
버들유자 유대목
편안안자 안대목
뗏목으는 임대목은
연장없이 어이할꼬
뒷동산에 올라가서
매치기를 걷어놓으니
걷고노니 연장망태
연장망태를 걸어쥐고
만호초 산호초중에
유대성을 당도한다
오늘날 청호동 대동안에
자리잡으신 성주님네
아버님 성주님은 옥황상제이고
어머님 성주는 옥주부인
아드님 성주님은 토지지신이고
며느리 성주는 조왕각시

성주구룡을 모시자

치어다 보니 상량성주

상량성주를 모시자

-제보자: 빈순애(여.34), 1991.4.25, 청호동 4통1반

3. 기예전승

1) 민속극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자들이 1950년대 초반에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면서 속초사자놀이가 되었다. 함경도 사람들이 점차 집단화되자 1958년 청호동에 거주하던 김수석 씨가 처음 사자탈을 만들었으며, 1959년 5월 2일 속초에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청도청 계칙 및 계원명단의 계요는 다음과 같다. 계칙은 전체 8장 23조로 되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장 조직에서는 계원자격으로 당시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으로 하고 계원수는 36명으로 정했다.

3장은 권리와 의무로서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갖는다고 하였고, 4장의 역원에서 계장1, 부계장1, 총무1, 재무1, 서기1, 간사1, 의식부2, 연예부2, 장의부2, 고문 약간명인데 중요한 것은 연예부에서 북청사자놀음에 관한 공연계획을 주무로 한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3월 20일, 월례회는 매월 20일로 정해 고령자 순위로 자택에서 소집했다. 6장은 부조사업, 7장은 자금 및 운영, 8장은 상벌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9년 당시 계원명단의 나이 주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李貞基(63.북청읍 외서리), 吳景昌(59.내리), 金南龍(54.남리), 金壽石(52.죽평리), 李昌熙(52.거산면 평리), 李浩永(51.북청읍 외서리), 全三默

(49), 方鶴福(48.북청읍 서리), 朴鎮漢(48.신북청면 신상리), 李在燮(47.신포면 육구), 崔舜在(47.하차서면 상신리), 李泌泳(48.북청읍 상동리), 李完燮(46.남리), 朴成哲(46.서리), 方錫洪(45.서리), 梁桂乾(45.덕성면 동압내리), 金河倫(45.신북청면 양가리), 魯允武(45.덕성면 동압내리), 朴庚亨(43.상차서면 방촌리), 劉弘烈(43.덕성면 주의동리), 李鍾旭(43.상차서면 엄동리), 方錫在(43.북청읍 서리), 李鍾俊(42.상동리), 魚重龍(42.날미), 馬房燮(41.가회면 봉의리), 金洪川(40.가회면 봉의리), 李鍾浩(40.북청읍 서리), 閔丙國(39.거산면 하입석리), 崔乘潤(39.건자포), 金孝煥(38.신포면 신포리), 金先川(38.북청읍 상동리), 李奧燮(38.서리), 吳東述(36.죽평리), 申謙(36.죽평리), 馬裕得(34.가회면 봉중리), 林龍泉(33.북청읍 북삼리) 등이다.

참고로 1943년도 통계에 의하면 북청군은 총 38.916호에 총인구는 224.027명이었고, 8.15 당시에는 약 28만명의 인구로 늘었다. 당시 북청군은 3읍 11면 123리였다. 참고로 상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함경남도지, 1988, 증보판, 901쪽 참조)

- ① 북청읍:내리, 남리, 동리, 죽평리, 동홍리, 남홍리, 중평리, 당포리, 북상리, 불리, 장항리(12개리)
- ② 신북청면:신북청리, 동중리, 동상리, 신상리, 무우대리, 하호리, 양천리, 초리, 보천리(9개리)
- ③ 신창읍:신창리, 만춘리, 경안대리, 승평리, 토성리, 덕음리, 신풍리, 보청리, 장호리, 예원리(10개리)
- ④ 가회면:중리, 나홍리, 마산리, 봉의리, 초리(5개리)
- ⑤ 하차서면:상신흥리, 월산리, 덕우대리, 하신흥리, 월근대리, 임자동리(6개리)
- ⑥ 상차서면:상돌리, 신태리, 중돌리, 하돌리, 수서리, 엄동리(6개리)

- ⑦ 거산면: 평리, 상입석리, 상세동리, 포항리, 하입석리, 하세동리(6개리)
- ⑧ 후창면: 통이리, 오평리, 당우리, 일리, 이리, 동평리, 부동리(7개리)
- ⑨ 성대면: 창성일, 수서리, 조양리, 양평리, 보성리, 칠동리, 평리(7개리)
- ⑩ 이곡면: 초리, 제초리, 제중리, 제상리, 중리, 인동리, 상리(7개리)
- ⑪ 신포읍: 신포리, 문암리, 중홍리, 석정리, 연호리, 도서리, 토성리, 육대동리, 육대서리, 중보주리, 상보주리, 신호리, 노평리(13개리)
- ⑫ 덕성면: 수동리, 서장내리, 동장내리, 만항리, 수서리, 니망지리, 서홍리, 어은리, 주의동리, 죽전리(10개리)
- ⑬ 속후면: 서호리, 창성리, 오매리, 간평리, 남호리, 서원리, 현금리, 강상리, 의호리, 서도리, 상창리, 하천리, 나호리, 연주리, 광천리, 용전리(16개리)
- ⑭ 양화면: 유후리, 모가대리, 창상리, 후호리, 호만포리, 부창리, 양화리, 남안대리, 동리(9개리)

위에서 북청동향친목계에서 나타났듯이 함경도 피난민들에 의해 북청사자 놀음이 재현되었는데,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13세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원성을 잘 불렀던 죽평리 출신 김수석 씨가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북청군민회에서는 이 분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한에서 공연되었고, 속초에서는 구체적인 전승을 위해 북청도청을 만들었고 당시의 친목계 36명이 참여하였다.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날 김수석 씨가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는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약 10일동안 걸립했는데 북청군민과 지역 독지가로부터 거둔 기금과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도청을 건립하였다. 이와같이 속초에서 북청도청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재현되자 이북5도청에서도 1960년 서울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갔다.

1966년 10월 24일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등이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북청면지』(1986.156쪽)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사자놀음이 8.15해방과 1.4후퇴 후에 남한에서 북청의 민속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게 된 때부터였다. 당시 본면 東中里 출신 趙瑞喜씨가 북청군민회장과 초대 북청명예군수를 겸임하면서 북청사자놀음을 무형문화재로 문공부에 등록시킬 것을 결심하고 함경남도지사 徐南龍 씨와 의논한 바 서지사의 찬동을 얻었다.

연후에 개최된 함남 명예시장 군수회의에서 북청사자놀음을 함남무형문화재 민속예술로 지정하여 문공부에 등록시키는 모든 업무를 조서회 군수에게 일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군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기능보유자의 인선문제와 경비지출 문제는 북청군민회 총무부장인 본면 출신 조하립 씨에게 일임시켰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에서 邊永鎬·全仲植·金三龍·董誠英·董泰善·李根花善·田光石, 경기도에서 尹迎春·馬厚燮, 강원도에서 金壽石·吳東述, 부산직할시에서 馬義秀를 기능보유자로 선정하여 약 일개월간 피나는 연습으로 마침내 1967년 2월 25일 시민회관에서 발표공연을 하여 심사에 합격되어 북청사자놀음이 함남무형문화재로서



김수석, 장정룡, 이교우(1991. 7. 16)



김수석, 김하룬 제보자

제22호로 지정, 문공부에 등록되었다. 총 12명의 기능보유자중 신북청면 출신이 12명 중 5명이나 되는 사실만으로도 본면에서의 사자놀음이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속초에서 연희된 1957년 초창기의 북청사자놀음 연희자는 다음과 같다.
사자:김수석(앞채, 애원성), 오동술(뒷채), 양반:이종욱, 꼭쇠:양제건, 사당춤:박씨,
위원:장남우, 승무:김봉수, 총각:김원사, 곱추:마유득, 도깨비:김효환, 중국인:이종호,
악사: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
(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여러 명이 참가함.

필자가 김수석, 김하륜 응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희시기: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② 연희장소:도청마당, 가가호호 방문
- ③ 등장인물: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 춤 2명, 거사춤 2명, 사당춤 2명, 칼춤 2명, 무동춤 4명, 품새춤 2명
- ④ 가면:양반, 꼭쇠, 사자탈(종이탈)
- ⑤ 악기:통소 3~4개, 팽파리, 장고, 북, 징
- ⑥ 연희소요시간:40~50분, 사자춤 5~10분
- ⑦ 연희내용:벽사진경
- ⑧ 연희마당:아홉긋거리 열 두마당
 - 아홉긋거리-입장곡, 애원성곡, 애구 내딸 봉섬이, 연풍대,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자유곡
 - 열 두마당-양반 꼭쇠의 해학마당정리, 애원성노래, 사당춤, 무동춤, 품새춤, 칼춤, 사자춤 초장, 중장, 말장, 승무, 풍자, 군무
- ⑨ 사자탈:1958년 제작된 사자탈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이다.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

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 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을 칠했으나 종이로 만들고, 텔은 그물에 색칠을 함.

이상과 같이 탈을 만들고 연회가 진행되었는데,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청사자놀이가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 말이 그렇잖아요. 북청사자놀이,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안합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자면 섭끼로씩 가야되지요. 벌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오백년된 토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라 임금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등이 있는데, 일제때 충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이 있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서 '북청사자놀음이다' 하지요. 우리 고장에서 사자놀이가 처음 발족해서 딴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을 받아서 딴 부락에서 하고, 딴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이란 말이 나왔지요.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로 만든 숫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을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살에 나왔으니. 일제때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내줘요.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백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날로 해가지구 하는데, 사자놀음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 사자놀음하는 걸 이북에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놀음할 때에는 소나발이라구 그걸 불면 '쌩' 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는데요. 그리구 피리불구, 요만한 생황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성리 사람들이 사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 받아하지마는 원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제보자: 조일랑(남.75), 1990.11.17. 청호동 2통3반

장정룡: 사자놀음 중에 무동춤, 사당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라 부르는지, 아니면 첫째마당, 둘째마당 그럽니까?

김수석: 그러니까 사당춤, 칼춤, 뭐 꼽새춤 그 다음에 애원성춤, 그 다음에 그기 사자놀이 마당이지요.

장정룡: 다 함께 추는 춤도 있겠죠?

김수석: 예, 그건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던.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 사자도 놀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춤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뭐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래 그 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 적에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이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장정룡: 존위요?

김수석: 존위라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 쫓구 있지요. 그리고 있지요.

장정룡: 놀이가 끝나고 나서 마을의 어른인 분이 나와서 축문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게 없습니까?

김수석: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렇지만 이북에 거기 놀적에 거기 좀 안직 있었어요. 이북에서 할 적에 말이요. 이제 사자가 이북에서 정월대보름날 놀지 안이요? 대보름날 달이 밝아 이제 노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부락에 스무집, 집이 스물이면 다 들어가요. 사자가 집안을 한바퀴 돌고 나오다이. 그 돌고 나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믄, 사자가 한바퀴 돌고 나오면 “그 일 년은 집안이 아주 재수있고, 아주 뭐 참 무사히 난다” 그래서 사자가 돌고 나오다이.

돌고 나오면 그 집에서 어떡하는고 하면 이제 쌀을 한 말 정도 주는 집이 있고, 그 때는 술 댓병을 서너되 받아서 주는 집도 있고 말이요. 그래 그 놈의 것을 며칠을 다녀서 그 부락을 다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지. 결산을 하게 되면 “돈이 몇 만원이다” “쌀이 몇 섬

이다”하게 되면 말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말이요. 쌀도 그때 몇 섬 두어 섬씩 주고 말이요. 또 저기 가게집에 팔아 가지고, 그때는 고학생이 많았어요.

일본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말이야. 이랬지 뭐. 그리고 또 원래 북청 알지만, 북청물지계가 유명하제이요. 이북이 교육열이 참 세지요. 이북에 들어가면 말이요. 이북에 하여튼 들어가믄 어떤 여자든 편지 못쓰는 여자가 없고 편지 못보는 여자가 없다이.

장정룡:그 마을에서 행해질 때는 그 곳에서도 북청마을, 북청도청에서 모여가지고 놀았겠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돌고 와서요. 그때는 사자만 집집마다 들어갈 게 아니예요?

김수석:아. 사자만 돌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장정룡:그리고 마당에서 놀겠지요?

김수석:아. 그렇지

장정룡:정월 대보름날. 그러니까 15일날 밤에만 노는 거예요?

김수석:아니요. 그 때는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장정룡: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김수석:그렇지.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장정룡:그러니까 14일도 하고, 16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하셨어요. 북청 현지에서는 언제부터 행해졌는지요?

김수석:현재 북청에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요. 아까 내가 그랬지요. 하여튼 내가 열 두 살때부터 열 두 살에 서당에서 서당마당에서 사자놀음 한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노는 것 보니까 아무개 아무 사람이 놀드라 그랬지요. 언제부터인가 그건 잘 모르지.

장정룡:등장인물이 여럿 있잖습니까?

김수석:악사가 신이 들려 악사가 치는 게 말이요. 사자가 저기 뭐야 초장, 중장, 말장이라 그러지요. 초장이 치는 게 다르고, 중장이 치는 게 다르고, 말장이 치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 악사는 꼭치던 사람이 나와야 되요.

장정룡:아까 통소를 부셨는데요. 그게 애원성 춤의 반주악기로 들어가죠.

김수석:아. 그렇지요.

장정룡:그거 애원성에 맞추는 가락이랑 사자춤에서 맞추는 가락이 틀리겠죠?

김수석:그럼, 다 틀리지요. 칼춤 추는 것도 다 틀리고, 무동춤도 다 틀리고, 다 제가

락 쓴다이.

장정룡:연풍대라는 게 뭐죠?

김수석:연풍대는 우리 고향에서 말이요. 하여튼 명절에 말이요. 한 삼백호나 이백호씩 사는데 한 부락에 말이요. 명절이면 하여간 서당이라는데 그저 한글을 배워주는데, 그 서당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오늘이 설날이다 하믄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서 싹 건너와서 서당에 모이거든. 서당에 모여 가지고 서당 마당이 여간 너르지 않지. 여간 너르지 않다이. 거기선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지. 사자가 그 마당에서 놀고 이제 그 사자가 끝나게 되믄 전부 그 방안에 들어가서 방안을 싹 메운다이. 방안에 양짝 이리 갈라 앉아 말이여. 한쪽에서 악사들이 징을 치미. 통소를 불미. 북을 치면서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술먹이면서 냅다 춤을 추킨다이.

장정룡:지금 불편하시더라고 그때 추던 사자 앞머리 하시던 동작을 취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수석:그러지. 무동. 무동있다이. 아니 뒷사자하는 여기. 이 무동한다이. 거길 앞을 든단 말이여. 나를 들거든. 뒷사자가 말이여.

장정룡:가장 기본되는 반주는 통소가락에서 모든 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수석:그렇죠. 통소 그러니까 북, 팽과리, 장구, 고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고개 맞아야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쓰고선 아무 것도 안보는데서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 장단이 조금 틀려도 말이여. 사자가 지 멋대로 못논다이.

장정룡:모두 달을 쓰고 놔니까?

김수석:꼽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장정룡: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입니까?

김수석: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쓰고.

(녹음된 통소 음악에 맞추어 앞사자춤을 추다)

장정룡:초장, 중장, 말장의 춤동작이 다 틀립니까?

김수석:다 틀리지요.

장정룡:사자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여자들은 못 만진다는 그런 얘긴 없습니까?

김수석:그런 것들은 없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털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얘기 기저귀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건 많지요.

장정룡:사자털의 색깔이 여러 가진데 뭐뭐 쓰입니까?

김수석: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 가진지 여섯가진지 그래요.

(제보자는 계속하여 이북에서 북청 공립보통학교를 나왔고, 혼자 1.4후퇴때 월남했다고 함. 그는 7대 독자로서 이북에서는 14세에 장가를 갔으며, 네 명의 자식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장정룡:지금 후계자로 누굴 꼽고 있습니까?

김수석:여기 속초에서는 없지요. 서울엔 지금 애들이 여럿이 있지요.

장정룡:저, 이런걸 가르쳐 주어야 할텐데. 속초에서도…

김수석:그러게 말이오. 애들만 나오는 게 있으면 말이야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 나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올 애들이 없다이. 여기 전문대 애들은 몇 해전에 일주일씩 가르쳐 봤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애들은 말이요 졸업하고 다 집으로 가버리니 소용이 없어요. 여기 속초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정룡:그러니까 사자놀이를 이제 속초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한다면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석:여기가 원래 사자놀이 본부인데, 여기서 하여튼 서울 사람들 한데 뺏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단은 자본도 있어야하지만, 자본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허자면 돈을 만들어 나서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여기서 알기를 우수이(우습게) 알았단 말이야. 그 때는 문화재를 아주 우수이 여겼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사람들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장정룡:앞사자를 할 경우에 춤사위 모양이 “어떤 춤이다, 어떤 춤이다” 하는 명칭이 있습니까?

김수석:명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요.

장정룡:사자가 앉아 있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던데요?

김수석: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혼들 때도 있고, 서서 혼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장정룡:두 마리가 나오면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김수석:싸우지는 않지만은 서로 놀고 관람자들을 아주 좋게 할려고 말이요.

장정룡:보통 전체 놀이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석: 놀이시간이요. 오래 못놀지요.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 분, 오십 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서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있제이. 그러니까 삼장이지. 사자는 삼장에서 이제 노는 거지. 그거 애원성춤이다. 꿈새춤이다. 칼춤이다 그러지.

장정룡: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탈놀음 잘해서 대접을 잘 받으셨다든지?

김수석: 아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었는데. 뭐 실물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고 막싸워 가지고 여기 들어와 확인을 다 해보시고 그랬어요.

장정룡: 춤마당있죠. 지금 아홉마당으로 나뉘지고 있잖습니까?

김수석: 그기 두 마당 아홉 거리라 그랬지요.

장정룡: 두 마당 아홉 거리가 확실한 가요?

김수석: 그렇지. 다른 춤은 안 들어가요. 두 마당 아홉 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 가지가 나오는 기지.

장정룡: 크게 마당으로 나뉘지는 것은 뭡니까?

김수석: 애원성 마당, 사자춤 마당

장정룡: 선생님이 만든 사자탈과 지금은 다릅니까? 사자 머리모양이…

김수석: 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옮겨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꿀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망글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꿀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여기 만든 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가리가 참 보기로 좋아요.

(현재 이 탈은 속초문화원 향토사료관에 보관하고 있다)

장정룡: 옛날에 만든 거예요?

김수석: 예. 제가 망근 기요. 거기 있습니다.

장정룡: 사자탈은 피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김수석: 아니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장정룡: 꼭 해주고 싶은 얘기해 주세요?

김수석: 내가 지금 애원하는 거는, 내가 하여튼 여생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하여튼 나는 언제든지 속초에다가 이 사자를 좀 후배를 망글어 놓자하는 이런 기

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나오는 학생들만 모조리 해주면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말이요 아즉까지는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매일 매일 가르칠 수 있다아.

-제보자:김수석(남.84), 1991.7.16. 속초시 영랑동 8통5번

필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사자앞머리) 기능보유자였던 김수석 씨(1907.7.19)를 1991년 7월 16일 만나서 조사를 하고 다방면에서 이 탈놀음을 복원시켜보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놀이가 복원되고, 사자탈이 제작되어 속초의 사자놀음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던 중 1997년 10월 19일 김수석 보유자의 타계소식을 들었다. 북청읍 죽평리에서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고, 타계하실 때까지 북한에 두고온 처자식 생각에 독신으로 지내신 모습을 다시 생각하며 한 편의 글을 써 보았다.

북청사자 아바이 김수석

장 정 통

“무스그, 고향?

함경남도 북청읍 죽평리, 열 댓살 때
앞사자 하다가 서리 피난 나왔지비.”

1997년 10월 19일

오늘 그는

유난히 기침이 심해

손때 절은 갯배 머리에 등을 대고 말았다
오십년간 오뚝하게 건너던 갯배

지독한 현기증에
초중종장 사자놀이도 끝났다.
청호동 아바이 그는
날머리 백사장에 판자로 벽을 붙이고
고향 이바구로 도배하고 살았다
안방 문밖 바로 큰 길가
언제든 맨발로 고향 달려갈
꿈길 가까워지리니
떠나올 때 묻혀온 흙내음
한 몸 뺏가루 바다에 뿌릴 때 섞어주시게
애원성 소리 끌자락
통소 구멍속에 흘어지는 아픔을
돈돌라리, 돈돌라리
다시 돌아와 살아날 때 불러주시게
“나는 북청사자다”
그는 포효도 없이
어디서도 제대로 놀지 못한 채
떠나올 때 처럼 혼자서
우리 곁을 떠났다.
1907년 7월 19일생
중요무형문화재 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김수석 기능보유자와 함께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을 이끌어온 분이 김하륜씨다. 이 분의 역할은 통소를 부는 것인데, 북청도청을 운영하면서 사자탈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정룡: 회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하륜: 올해 야튼 뭐 십오년 계속, 뭐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맞게 되니까.

장정룡: 함경도에서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김하륜: 북청읍 신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 사 후퇴때 나왔어요.

장정룡: 북청동향친목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하륜: 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김수석 이 형님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이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 가지고 셋어 가지고 바다에 셋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 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 날을 해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로 노놔주고, 돈도 노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사는 사람은 한 천원 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

장정룡: 그럼, 그게 몇 년도 입니까?

김하륜: 그러니까, 그게 햇수로 삼십 삼년됐지.

장정룡: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시작하셨습니까?

김하륜: 우린 고향서 고향민속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 북청이. 북청군이 3개읍이거든. 북청이 큅니다. 3개읍 17개면이거든. 그럼 각 면면이 달라요. 제일 저 무식한 말로 억세계 사자놀이 하는 데는 이 큰꼴이라는데. 대꼴. 북청을 죽평리. 거기서 제일 잘 놀고. 우리 양가하는데 양가는 신북청에서 북청을 넘는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제일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서 그때 그걸 몰랐지. 하야튼 왜정 때 그 일본 놈의 새끼들 하튼 개지랄 하는 것도 기어코 시내에서 보름에 밤새도록 놀았단 말이요.

장정룡:왜 못놀게 했습니까? 일본사람들이.

김하륜:그리니까, 그 첫째 기초가 그 돈돌라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나는가 하니. 저 삼월 한식날 각 저 다리밑으로 가거든. 모래사장. 거기서 처음에는 “달래 캐러 간다” 한식때니까. 그래서 집에서 바가지 꺼내 “달래 캐러 간다” 그기 비밀이지. 그래가지고 어느 다리밑, 어느 강가, 머래장 거까지. 신구다리밑으로 이제 돈돌라리 부르면서 달래캐러 간다 하지, 그 돈돌라리 부르는 의미가 거기서 우리 조선이니까, 돈돌라리로 서로 암호로 연락하는 기야. “이 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그래해요.

장정룡:여기 나오셔서 가담하신 역할이 있으신지요?

김하륜:여기 와 주로 사자놀이 애쓰고, 이 형님(김수석)과 둘이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 앓으면 통소불고, 그래서 전문대학 학생들을 몇해 길러 봤어요. 그래서 문화원장 김종록 씨 할 적에 그 분이 계속하셨으면 어느 정도 발전이 됐을 거요. 내 지금도 통소 하루에 한 번씩 불어요. 난 아직 문화재는 못됐소.

장정룡:통소는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까?

김하륜: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가지고 구녕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선 무스할까. 서울서 본부에서 만든 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십년 전 일이야. 한 삼년 놀았거든. 가서 저 사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가서 한 삼년 대녔어요.

그런데 서울서 가뜩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섭섭한 건 가을 시월에 오징어가 날때거든. 바쁠 때 우릴 와서 모셔 올라가야지. 가면 또 여관비 줘야지 돈 농가 줘야지. 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년 다니고 등록 난 다음 자기네, 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지틀이 맞지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체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기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 저기 진짜기. 거내 하도 무속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그 원형도 변한단 말이요. 몸통이 새빨갛지. 그리고 털이 질구. 털이 암만 질구 그 다음 음악도 판이 다릅니다. 지금.

장정룡:지금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김하륜:내 불긴 부는데 가사는 한가지지. 내용은 한 가진데, 음악은 옴프는 틀려요. 통소를 녹음하는데 입장곡부터 입니다.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이 김하륜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 등록 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불어요. “에~해 에~해 우수경

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해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해 태산에 붙는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해”

이 가사의 의미가 있는지야. 그리구 사자놀이 “에구 내 딸 봉섬이”란 게 있어요. 그 봉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예뻤던 모양이지요.

장정룡:이 통소소리는 무엇입니까?

김하륜: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 타령 부르고, “에구 내 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연풍대라는 기요. 이번에는 칼춤 나와요, 칼춤 잘춰요.

장정룡:“에구 내 딸 봉섬아” 그게 사당춤입니까?

김하륜:그게 사당춤이요.

장정룡:연풍대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김하륜:그 춤 가락을 다르게 하는데. 입장곡이 다르고, 모르는 사람은 다 한가지로 부르는 것 같애도. 입장곡이 다르고, 애원성 음악이 다르고, 연풍대 음악이 다르고. 그 다음이 “에구 내 딸”이요. 이가 칼춤도 했잖소.

장정룡: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김하륜: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 타령. 그 다음에 “에구 내 딸 봉섬아”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하면서 꼽새춤 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 적에 그때 두 추는데. 여기도 춤추는 사람이 서넛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이들이 이 옛날 머리쓰게 머리 수건을 이렇게 쓰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장정룡:칼춤이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김하륜:마지막, 이제 칼춤이 끝났소. 이제 사자놀이를 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장정룡:초장, 중장, 말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하륜: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 사자놀이는 아홉곡이야.

장정룡:두 마당 아홉 거리가 아닙니까?

김하륜:두 마당 아홉 거리요? 아니요. 아홉 굿거리 열 두 마당이야. 열두 가지 했거든. 열두 마당. 여태까지 논 게 꼽새춤이고. 아홉 굿거리 열 두 마당. 그거 알아야 돼요. 음

악은 아홉가지구, 그 다음에 노는 건 열 두가지로 노는 거란 말이지.

장정룡: 그러니까 처음 등장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김하륜: 그게 다 들어가서 그것까지 열 두 마당이야. 열 두 가지.

장정룡: 춤추는 순서는 늘 똑같이 합니까?

김하륜: 다 다르지. 열 두 마당 다르지. 칼춤이 다르고, 꼽새춤이 다르고, 사당춤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마당 춤이 다르고.

장정룡: 그럼 북청사자놀음에 악기는 뭐이 등장됩니까?

김하륜: 통소는 서이 일때도 있고, 너이 일때도 있고, 복이 있고, 큰 북 둘, 작은 북 두 개요. 그리고 장고 하나, 징, 팽과리 하나.

장정룡: 그럼 통소가 제일 많군요?

김하륜: 그전엔 둘이 불었지만, 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부는 사람이 적으면, 둘 들어가고, 어떡허든 둘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맞지. 둘이 들어가야 소리를 맞추거든. 하난 들어가든 소리가 상당히 약하고.

장정룡: 양반은 보니까 정자관 비슷하게 점잖은 탈을 쓰고 있던데요?

김하륜: 손에는 담뱃대하고, 부채를 들고, 옷은 도포 관복이지요.

장정룡: 탈은 나무탈입니까. 종이탈입니까?

김하륜: 아, 종이로 한 거예요.

장정룡: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꼭쇠지요. 꼭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김하륜: 그게 양반의 하인이지요. 양반이 꼭쇠를 잡고, 뭐 시키다든지 불들어 매놓고는 뭐해라 뭐해라, 뭐. 양반은 수염이 근사해요. 수염이 길쭉하게 나오고요. 머리에는 흰색 관을 쓰고요.

장정룡: 꼭쇠 옷은 어떻게습니까?

김하륜: 꼭쇠 옷은 일색으로 하는 게 아이라 여기 저 무당옷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 쪽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팔을 뻘건거나 검은 거 하고, 팔이 때기 절반은 뻘건거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여. 얼굴에는 탈을 써야 된다이. 신발은 짚신, 행 전치고, 머리에 고깔쓰고.

장정룡: 승무도 나오고, 사당춤은 둘이 나오지요?

김하륜: 사당춤 둘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지요. 사자가 거꾸러졌을 때 스님 나오고, 그 전에 의사가 나왔는데, 안 나오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고 허니. “사자가 허기증이 났

다. 병이 났다.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 먹이다. 사슴을 잡아 먹인다” 했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은 염불합니다.

장정룡: 그러면 사자가 되살아 납니까?

김하륜: 그렇지요. 그럼 살아나거든.

장정룡: 무동춤에 남녀가 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하륜: 요즘엔 안나와요. 본래 원숭이도 있었는데, 몇 해 전엔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 거 없다이. 그게 있으면 아주 희극도 많이 되구, 이런데 요즘은 안해.

장정룡: 그 이 장사 설화가 있잖습니까. 범을 잡은 삽사리 마을의 이 장사 이야기 있잖습니까?

김하륜: 사자 색깔이 왜 호랑이 색깔과 같냐면 내가 말하면 알아 들을 기요. 사자 색깔이 왜 범색깔이냐? 어느 옛날에 장군이가 이 장사가 부인이 예뻤데. 그러니까 일본아들이 뺏어 갈리구 해서, 그래 산중인가 어디로 도피를 해서 갔데. 도망을 해서 갔는데, 그 어떡하다 걸렸단 말야. 그래 그 일본아이들 한데 부인을 뺏끼고서 그 다음에 일본 아들이 굴안에 집어 넣었거든. 굴안에. 그래 원래 장군이니까 굴안에 들어가면 죽을까 하고 방심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기 살아 나갔단 말이야. 그래 몇 해 이거 자기 부인을 빼내 와야 하는데, 할 새가 없어. 이웃 노인이가, 그래 이 놈들은 남의 부인을 갖다 훔쳐 놓구 선 앞에 사자를 먹이거든.(조사자: 호랑이 새끼를 잘못 구연한 듯하다)

사자를 길러, 사자새끼는 뭐가 들어오든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해. 사자의 이 앞다리가 대문안에 놓이는데, 아무 사람이 접근을 못하거든. 그때 이웃 노인이가 이 장사를 보고 “야. 니가 거길 들어갈려믄 사자 형용을 해 들어가야 한다” 거 사자새끼 있거든 사람만 접근을 하자믄 막 소리를 치고, 물을라고 덤벼들거든. 그래 가만 물어서 사자색깔처럼 망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자 색깔을 범처럼 하느냐 그래서 하는기라. 이 장군이 그때 당시 그래 가지고 호랑이 색깔을 해 가지고, 호랑이처럼 망글어. 그래서 사자 색깔이 호랑이, 범색깔이랑 똑같아. 내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장정룡: 사자놀음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김하륜: 내 아까 할 적에 고향서 집에서 선조들이 하던 대로 했거든. 정월 대보름날 집집마다 맹기문서 이 사자놀이하믄 “악도 빼고 복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집집마다 어떤 집은 오란 집도 있어요. 대부분 요청하지요. 사자놀이 나왔다 하믄 “우리집 와라” 요청하지요. 그래서 그거 하믄 쌀내놓고, 또 축원해요. “우리네 가족 건강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고.

장정룡: 도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김하륜: 도청이라 하는 기 모두 도(都)자 도청이 있고, 서댓방(서당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네 열 집이 살아도 그거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는 배를 끓고 먹을 것 못먹고 그래도, 산을 허물어서 도청을 지었던 말이오.

그래 사자놀이 할 도청을 지으니 여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먹고 도청은 짓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공회당이라 그러거든. 거 무슨 회관이라 하지, 그래서 그기 있는데, 서댓방, 여기 도청방, 그리고 노인들이 앉는 곳은 칸을 막아요. 미닫이를 해가지고, 그때 이 시내에 학교 땅기는 사람들이 서댓방에서 공부를 하거든.

그 한문, 거기 특수한 기 명절날 같은 때 놀거든. 그럼 이 서댓방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앞으로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미리 휴가를 주면 거 노는 데는 이런 걸 한단말야. 사자놀 이를 하는데, 더 억세게 해야 이 동네 뉘 집 처녀나 며느리들이 우리 동네가 잘 못놀고, 남의 동네가면 회야거시 받게 되거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아주 잘하거든. 그때는 이 아래위에 문을 턱 터요. 거기서 씨름하는 식으로 특수해요. 거기서 서리 승압적으로 “어는 동네가 불리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자놀이가 더 억센 것 같아요.

장정룡: 사자놀이에 여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하륜: 그럼, 여자도 춤추지. 승무출 때 들어가고, 사당춤 출 때,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또 지금은 할머이들이 뭐 서이고 너이고 옛날 머리쓰개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춤을 춰요. 지금도 사자놀이해도 할머이들이 춤을 춰요.

-제보자: 김하륜(남.76), 1991.7.16, 금호동 10통1반

처음에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된 것은 그 당시에 북청사람들이 주동이 되었거든요. 그 분들이 한 오년되니까 후원자도 없고 병이 들고,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뿔뿔이 헤어지고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친척 찾아 가고 먹고 살기 위해 단원이 자연 해산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북청도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청이란 것이 강원도 도청하는 길도(道)자가 아니고, 도시라는 도(都)자입니다. 거길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되었거든요. 50년대 후반 56년이나 57년쯤 되었어요.

-제보자: 김호웅(남.66), 1998.11.1, 속초문화원 전 사무국장

2)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즐기던 놀이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향유한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담긴 것이다. 청호동의 민속놀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논뫼호 불꽃놀이

청초호를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하였는데 이곳을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았다. 청초호는 지역에서 '논뫼호'라 불렀는데, 논뫼는 논산리를 뜻하므로 논산리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이곳 청초호에서는 낙화유(落火遊)라 부르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전하는 말로는 조선 숙종때부터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뫼호에 꽃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한다. 이때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널빤지에 솟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불꽃놀이를 할 때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뜻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불꽃놀이는 지방민들이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청초호는 호수 둘레가 수십리로 경치가 영랑호보다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하고 있다. 이곳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조 말엽으로 불꽃놀이중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2) 나룻배싸움놀이

구비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다고 한다.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면서 지냈는데, 어

느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이 불에 탔다고 한다.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청초호의 수룡이 죽고 말았는데,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노하여 이 지역에 기뭄과 흉어를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에게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에서는 이긴 마을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긴 마을은 풍어를 거둔다고 믿으며 하루종일 춤을 추면서 놀았다고 한다.

지금의 청호동 갯배나루는 90m나 되지만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대포동에 이르렀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시작되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신제를 올릴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와 제관은 목욕제계를 하고 부정을 금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용신제를 올리게 된다. 이들은 풍년과 풍어, 마을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뿐이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운 다음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승패에서 패자가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고, 막대기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 받는다고 한다. 나룻배싸움놀이로 승패를 정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펼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으며, 푸짐하게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배싸움에 몰두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했는데, ‘흔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나룻배싸움때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집안의 장정들을 뽑아서 참여시키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룻배싸움은 결국 암수용이 결국 하나로 합하는 절차로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나룻배싸움놀이는 일종의 용선희(龍船戲)로서 해양민속놀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초호에는 겨울에 얼음이 얼면 용이 밭을 갈아놓은 것으로 점을 보는 용경풍속이 전하고 있다.

(3) 든대질놀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 등은 날바리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옛날부터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리는데, 1950년대 초기의 청호동, 장사동에서는 날바리땅이었다. 날바리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시에 사람들은 '배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솔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빈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 등이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낸다. 동해안에서는 이것을 '설망'이라고 한다. 설망을 하는 날은 택일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에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돈과 청홍실을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큰대명' (고기를 잡아서 담아두는 곳)에 모신다. 배성주신을 모실 때는 제물로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쓰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사의 주인이 되면 도사공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들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로 배가 물에 닿게 되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뜻을 옮겨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벳전을 돌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에 바다에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를 하는 것인데, 삼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이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이것은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든대질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주기(만선기)-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고,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 ② 고사-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 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 ③ 액막이-이것은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면서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주술적인 행위를 말한다.
- ④ 비나리-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면서 기도를 드린다. 이때 쾌자는 입지 않는다.
- ⑤ 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 이 선소리와 뒷소릴 부르면서 배를 물에 내린다.
- ⑥ 설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면서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 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풍어를 빈다.
- ⑦ 풍물-주민들이 팽과리, 징 등을 울리고, 걸립시에 무녀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4. 생활전승

1) 음식문화

청호동 주민의 음식은 함경도의 풍습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해산물로 만든 음식이 풍부한 편인데, 음식의 간은 짜지 않고 담백하지만 마늘, 고추 등 양념을 강하게 쓴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김치류나 떡, 장류에 있어서 검소하고 소박한 음식문화를 보여 준다.

청호동은 해물이 주요찬물이고, 해물요리는 대부분 지지는 조리법을 쓰고 있고, 물좋은 생선으로 얼간생선을 만들어 이것도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이 보편적이다. 물론 신선한 어물이 많아 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매운탕도 다른 해안처럼 많이 만들어 먹는다.⁷⁾

청호동 사람들이 즐겨먹는 함흥냉면은 가자미 생선회를 맵게 비벼먹는데, '다네기'라는 말도 함경도에서 나온 말로 고춧가루 양념의 별칭이다. 옛날에는 함경도에서 좋은 고구마가 많이 나서 그 녹말을 썼으나 남쪽으로 이주한 함경도 주민들은 감자녹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겨울에는 녹말만으로 국수사리를 빼고, 여름에는 밀가루를 1할정도로 섞어서 만든다. 녹말을 익반죽하여 국수틀에 넣고 눌러 끓는 물에 삶아진 것을 건져 찬물에 쟇는다. 이렇게 만든 사리는 국수양념을 하여 큰 대접에 담는다.

손바닥만한 참가자미는 맛이 좋아 회냉면에 주로 썼고 가자미식혜도 유명한 음식인데, 가자미가 귀해지자 가오리나 명태를 냉면에 넣기도 한다. 명태

7) 윤서석, 『식생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8책,(강원도 편),1977, 419쪽

를 이용한 순대인 '통심이'가 유명하고, 식혜도 많이 해서 먹는데, 청호동에서도 이북식으로 해서 먹는다.

운단절임은 특별반찬인데 날로 양념하여 무치고, 매운탕은 고추장과 간장으로 간을 하고, 갓 잡은 작은 고기에 조개를 넣고 무나 호박 등의 채소를 넣어 끓여 먹는다. 또한 얼간고등어는 청호동의 명물로 싱싱한 얼간 고등어를 양념하여 밥에 찌서 먹거나 간장에 조려먹는 조리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귀한 생선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값싼 생선이었던 도루묵탕도 별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속초수산시장에서 도루묵알을 덜 쪘서 팔았다. 덜깎아 톡톡소리도 있는데, 그것은 한 입안에 넣고 터뜨리면 재미도 있고, 맛도 고소했던 기억이 난다. 겨울철에 수확량이 많은 알을 벤 양미리는 구워서 먹는다.

김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젓갈을 많이 넣지만 김치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는다. 젓갈의 종류는 명란젓, 서거리젓, 창란젓, 바다게젓 등을 많이 하며, 요즘에는 멸치젓과 새우젓도 많이 쓰고 있다.

청호동의 함경도 사람들은 해우고기를 넣은 김치를 먹는데 봄에 먹으면 다섯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한다. 국은 미역으로 된 장국을 먹고, 밥은 잡곡밥을 주로 먹는다.

음식의 모양은 큼직하게 대륙풍으로 만들고 시원스럽고 장식도 단순하여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성품이 활달한 것처럼 야성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성이 청호동의 음식문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차림에 있어 어물의 산출이 많으므로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제물로 어물로 만든 적을 쓰고 생것보다 말린 포를 이용하여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떡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소박하고 큼직하게 만들어 구수한 편이다. 찰떡인 절미, 달떡, 오그랑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을 만들어 먹는다. 폐백음식은 대추에 술을 뿌려 홍실에 길게 페어 고이고, 쇠고기 산적, 닭

산적 등을 쓰기도 한다. 절편이나 인절미를 크게 만들어 함지에 가득 담고, 돼지머리를 삶아 가지고 가거나 시루떡을 함지에 가득 담아 가지고 가는데, 격식보다는 대체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한다.

큰상에는 귀주떡, 절편, 인절미 등을 크게 만들어 수복하게 고인다. 돼지고기 삶은 것, 쇠고기 삶은 것, 생선을 반쯤 말려 굽거나 찐것도 쓴다. 과일이나 과즙 등을 높게 고여 담아 큰상을 꾸민다. 신랑과 신부 앞에는 장국상을 차려놓는다.⁸⁾ 주민들은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고향이 북청군 만춘리인데, 거기서는 명태순대를 통심이라 해서 별미로 먹었어요. 창자를 빼고 녹두, 두부, 돼지비개를 버무려서 넣고 짜먹으면 아주 맛있지요. 북청사람은 '덤배북청'이라 해서 서두르는데, 통심이는 열심히 잘만들어 먹지요

-제보자:김철섭(남.60), 1996.11.29. 대청산악회

청호동에서는 꽁치, 고등어, 새치 회를 해서 먹지요. 이북에서는 먹지 않았구요. 그리고 명태를 많이 잡으면 백바리떡이라고 해서 떡을 해주지요.

-제보자:김선옥(여.55), 1998.11.21. 청호동

합홍냉면은 가자미식혜를 넣어서 먹는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오. 헷떡이식혜, 잡곡밥을 먹는데, 이북음식은 짜서 먹는 것이 많고, 찰떡을 좋아하제이요. 수수로 만든 오구랑을 넣어 먹고, 시루떡도 크게 만들어 먹지요. 함지에다 찰떡을 넣고, 바다풀인 뜰북이를 가루로 짜서 먹었는데, 오징어순대는 배고파서 먹던 음식이오.

-제보자:박춘원(남.75), 1998.11.21. 청호동 함경조선소

여기 나와서 사는 게 주로 모두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별로 다른 게 없지요. 그저 그대로 살지요. 반찬담아 먹는 다든가, 식혜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남에는 식혜같은 걸 잘 안하지요. 그러구 회를 생선회를 하는데, 이북에서는 주로 양념해서 생고

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5책, 향토음식, 1984, 392쪽

기를 썰어가지구 버무려 먹는데, 부산등지부터 딴 데가보니 양념해서 고기를 버무려 먹지 않고 찍어 먹습니다. 그런 풍속이 좀 다르더구만요.

김치는 이북에서는 젓같이 좀들어가지요. 이남에는 며루치가 많잖아요. 북에는 며루치가 없구, 젓갈을 하는 게 정어리, 고등어 간 해가지구 그 물을 주로 많이 쓰지요. 그런데 내 나와보니까 김치같은 게 음식이가 남으로 나올 수록 짜게 먹어요. 이북은 좀 싱겁지요. 그런데 추운데에서는 김치같은 걸 싱겁게 하는데, 더운데는 좀 짜게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싱겁게 하면 인차 시어지니까. 그리 많이 다릅니다.

-제보자:박수길(남.77),1998.11.1. 청호동 노인회관

음식으는 오랫동안 전승해 내려왔지요. 우리이북에서는 말이지요. 예 잡곡식을 많이 먹었지요. 이북쪽에서는. 주로 조, 수수, 그리구 저 산골짜에는 옥수수같은 거를 먹지마는 우리는 해변가에 있으니까 주로 조, 수수. 이런 걸 기장, 꾀쌀 그런 잡곡을 먹고, 이 팝을 좀 먹을라면 생일때나 명일때나 차례지낼 때나 먹었지요.

그때 어릴 때 들을 때는 강원도 사람들이 장작불에 이팝해 먹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나와보니 잡곡이 별루 없어요. 동지날 팔죽을 먹을 때 오구랑 넣는 것도 있고. 이북에서는 사투리로 오구랑이 하지요. 제사지낼 때는 팔죽을 올리지 않아요. 설날에는 가래떡을 상에 놓지요.

-제보자:여석창(남.72),1998.11.1. 청호동 9통1반

함경도 음식은 송편은 크고, 찰떡도 크게 잘라요. 뛰이든지 주먹보다 더 크지요. 구정 때는 명태순대를 많이 하거든요. 명태를 아주 큰 놈, 대구만한 것, 거기다가 뱃속에다 두부도 넣고, 김치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지요. 구정때 해서 먹지요. 진미예요. 만들어서 얼궈요. 문밖에 놓아 얼리지요. 명태 창자속을 빼고, 거기다가 넣지요. 아가미 창자 다 빼고 거기다가 창자대신 양념을 넣고, 밖에 걸어놓으면 얼어요. 한 보름전에 만들어서 걸어놓게 되면 마르는데, 완전히 마르지 않아요. 그래 그걸 명절 때 썩어서 먹지요.

떡을 찰떡을 크게 해놓지요. 찰떡을 좋아해요. 여기는 조그맣게 하는데, 큰 합지에다 놓고 써는데, 크게 만들면 몇 개 못먹어요. 팔에다 찍어 먹고, 송편도 몇 개 못먹어요. 돼지고기도 많이 먹지만 순대를 즐겨요. 동지때는 수수로 만든 오그랑팔죽은 작게 만들

어 먹지요. 그리고 명절때는 시루떡도 두껍게 해서 먹고, 찰떡도 많이 먹고, 송편. 그리고 수수떡도 해서 먹지요. 수수떡을 벌겋게 해서 먹지요. 오징어 순대는 이촌에 흥년이 자주 들었거든요.

속초뿐 아니라 동해안에, 생선먹고 요기가 잘 안되요. 그래가지고 요기되는 것은 해조류는 되니까. 뜰북이 같은 걸 말려서 써서 먹는 바다풀이 있지요. 이북은 써서 먹는게 많아요. 밥위에다 놓고 써서 먹지요. 그래 흥년이 되면 산나물 캔단 말이요. 막장에다가 산채에다가 비벼서 오징어 뱃속에 넣어서 먹으면 든든해요. 그기 오징어 순대의 시초예요. 배고파서 먹은 게 생긴 시초예요. 그냥 먹으면 요기가 안되니까 그기 발전해서 관광지 상품이 되었지요.

물회라는 것도 고추장 이런 기 귀하니까 가늘게 썰어서 막장에다 풀어가지고 된장물만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요. 된장물에 가는 하얀 국수같은 게 들어가니까 배고픈 걸 덜어주지요. 물회하고 오징어 순대 시초는 어부들이 배고파서 허기 채우기 위해서 먹던 음식이라. 보릿고개 넘기는 식으로 말이지요.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고기만 먹으면 요기가 안 되요. 청호동에서도 오징어 순대 많이 해먹었지요. 집에서 차례 지낼 때는 가재미하고 명태를 제물로 많이 써요. 다 써가지고서 올려 놓지요. 명태는 안 들어가면 안되지요.

-제보자: 김호웅(남.66), 1998.10.3. 속초문화원 전 사무국장

합경도 사람이 청호동에 많이 사는데 매운 것, 자극적인 음식을 합경도 사람이 많이 먹는다 말이요. 그러니까 식혜, 가자미 식혜 먹고, 합홍냉면도 매운 거란 말이요. 평양냉면은 싱겁단 말이요. 그래 상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청호동의 특색이 됐단 말이요. 아직까지 유지되고 그것이 상당히 보급이 됐단 말이요. 가자미 식혜, 헷떡이 식혜, 헷떡이 식혜가 유명해요.

남한 사람들한테 합홍냉면을, 어디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가자미를 넣어서 먹는 게 진짜지요. 이북에는 잡곡밥이 많지요. 콩, 조, 감자 그런 걸 많이 먹지요. 이북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왜 많이 먹느냐 하면 기후가 추우니까 그럴 거예요. 원래는 냉면은 가오리를 넣는데, 가오리가 없으니까 가자미를 넣지요.

-제보자: 최용문(남.65), 1998.10.3. 속초문화원 원장

청호동에서는 헷떡이 식혜를 담궈먹는데, 가시가 많아요. 식혜도 담가서 먹고, 소금국

을 젓물이라고 해요. 그걸 지리국이라고 하는데, 헷떡이 지리를 이북사람들이 많이 해 먹고, 식혜도 많이 담가 먹지요. 이북사람들은 젓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명태지도도 많이 해먹지요.

청호동 사람들은 명절 때 이북 사람들 고향 마을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집단으로 세배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북 찰떡은 이만하지요. 한 입에 못 먹을 정도로 손바닥만 해요. 이것을 서너 토막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합경도 할머니가 양꼬모치를 많이 해서 그걸 돌려 먹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런 걸 안하더군요. 여기 찰떡은 아주 소문이 났어요. 손바닥만 한 게 먹음직하지요. 명태순대는 명절이나 잔치때 해서 먹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함흥냉면에는 가오리하고 노란가재미 참가재미를 꾸미를 해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냉면이나 국수를 삶아먹을 때는 물 가재미말고 참가재미를 넣어서 먹지요.

-제보자:김철수(남.43), 1998.11.1, 조양동장

2) 가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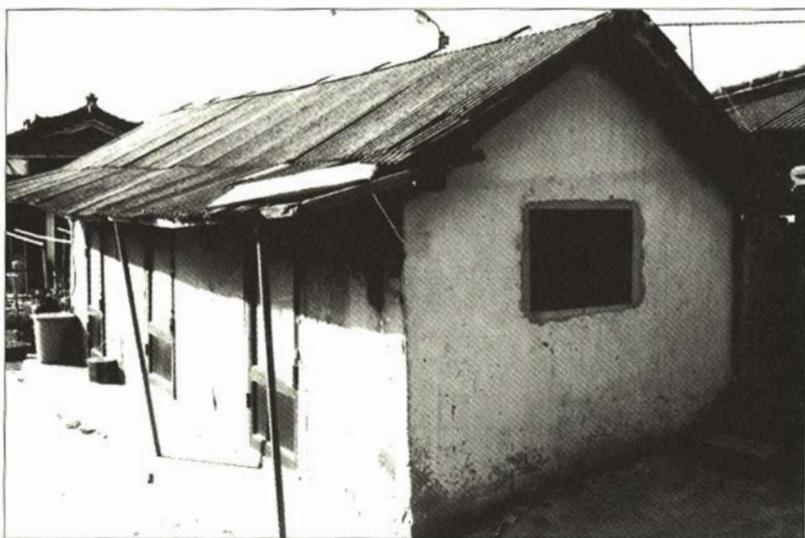
가옥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요소로 청호동은 특색있는 가옥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가는 방이 단열로 병렬된 단열형 민가(홑집)와 방이 복열로 배열된 복열형 민가(겹집)으로 양분 할 수 있다. 일자형 민가는 한반도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른바 초가삼칸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일자형의 몸체는 부엌, 큰방, 작은방 등이 단열로 병렬된 구조이다.⁹⁾

영동 북부지역의 토착민 가옥은 대들보 아래 방을 2열로 배치한 복열형 가옥이 대부분으로서 관북형 가옥구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호동은 영동 북부 형이나 함경남도형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난민집단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남향의 일자형 가옥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부엌이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연중 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호동 가옥 중 가장 단조로운 기본형은 2칸 구조로 온돌방과 부엌으로 규모가 지극히 작은 편이다.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 된 것이 많은데, 여기서 발전한 형태가 3칸구조로서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한 (ㄱ)형이다. 이 3칸구조는 유형상 다양한데 부엌을 서쪽에 고정시키고 2개의 온돌방을 나란히 병치한 경우가 (ㄴ)형이 있고, 세 번째 형태는 두 번째 구조에 방전면에 좁은 마루를 설치한 형태로 방과 방 사이에 미닫이로 개방된 (ㄷ)형태가 있다.

첫째와 둘째의 3칸 구조는 동일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의 통합과 타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세 번째 구조는

9) 장보웅, 「한국의 민가형 분포와 문화지역구분」, 『지리학』 22호, 대한지리학회, 1980,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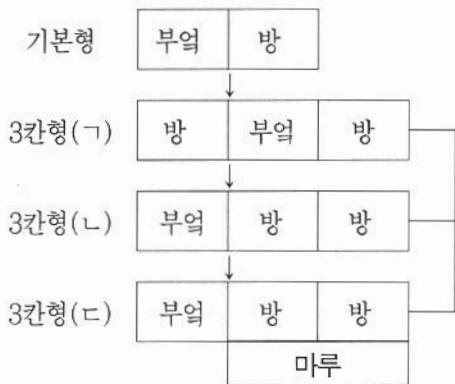
청호동의 기옥



청호동의 기옥

두 번째 구조보다 공간이 확대되고 재료도 양호하다. 이것은 정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은 후에 증·개축한 것으로 김형재의 논문에서 는 이것이 청호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다.¹⁰⁾

(청호동 가옥의 구조적 변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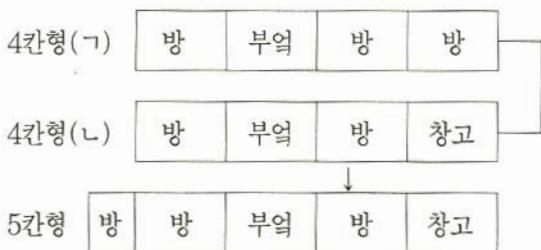


3칸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것이 4칸구조다. 이것은 부엌을 중심으로 서쪽에 온돌방 1칸 동쪽에 방 2칸만을 병치한 (ㄱ)형이 있다. 또한 창고 등을 설치한 (ㄴ)형이 있는데, 이것은 3칸구조 유형에 동쪽에 방이나 어물 창고 등을 증축한 것이다.

이밖에도 4칸형에서 방을 한 칸 확보한 5칸형의 구조도 있는데 이것은 드문 편이다. 대체로 가족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호동 가

10)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지리 교육논집』 20집, 서울대지리교육과, 1988, 36쪽

옥은 2칸구조가 5칸구조로 늘어나는 것은 토지공간의 협소와 가족 구성원의 증가, 이입주민의 증가 등에 의하여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창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이어붙이는식'의 증개축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질의 다양성으로 인한 변형이 계속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한 편이다. 또한 좁은 골목과 도로, 양방의 작은 규모 등은 난민생활의 잔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옥의 재질도 다양한데, 정착초기에는 벽면을 판자로 붙였고, 귀틀집형식으로 전흙으로 벽을 빌랐다. 지붕은 레이션박스, 판자나 루핑, 드럼통등으로 만들었으며 온돌은 드럼통을 펴서 이용하였으나 60년대 들어 대부분 철거되고 벽돌과 기와로 개조되었다. 청호동 초창기 주거형태와 생활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

내 손으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역사가 있어요. 축항너머 아침에 가면 휘발유 도라무가 대여섯개씩 축항에 와서 부딪치며 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때는 난 혼자서 살고 사람도 워낙 없으니 가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탁 찍어서 기름을 싹 빼내버리고 빈 도라무만 구불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가리를 째가지구 하꼬방을 지은데 지붕을 이은 거예요. 지붕을 잊고, 구들놓을 때 구들도 하고, 오일통 요막씩한 거 들어오는 거는 턱파서 기름을 싹 빼내버리고 위를 폐내고 물통을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물은 부월리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나룻배가 있으니

건너 물도 길어다 먹고 그랬어요. 피난민들 아주머니들이 참 유헷어요. 얘기업고 빨리
는 온정리 더운물 나오는데 거기 가서 했어요. 집에는 연탄을 땠는데, 앗셈부리 연탄이
지워. 청호동 땅이 백사장이 연탄재로 묻은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연탄재를 묻었어요.
“한 집에서 연탄재를 다섯 개씩 가져와라” 그러면 학생이 천이백명까지 있었는데. 한놈
이 다섯 개씩만 가져오면 많지요. 한달에 한 서너번씩 가져와서 메워놓고 그랬지요.

-제보자:여석창(남,72), 1998.11.1, 청호동 9통1반

현재 청호동의 가옥은 대부분 담이 없는데 그 이유는 집들이 밀접되어 있
으므로 담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을 쳐
놓을 공간에 철조망을 쳐서 오징어 등의 건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호동의 가옥구조는 담이 없는 형태가 많은데, 다른 집의 벽과 벽이
맞닿아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3) 어로생활

청호동 주민의 대부분은 어로작업과 관계된 일을 한다. 주로 건조업에 종사하거나 배를 타고 나가서 조업을 한다. 또는 배를 만들거나, 어획물의 판매, 운반, 저장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므로 청호동이 어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던 실향민 1세대가 함경남도 해안마을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들의 생업은 어로작업과 관련된 것이다. 2세대, 3세대 역시 해산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청호동의 생업이다. 청호동에는 비법인어촌계로 청호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다. 비법인 어촌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장을 관리하거나 생산된 어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청호어촌계에는 163척의 어선이 있는데, 어민은 370여명 정도다. 어선구성은 무동력선이 1척, 15톤 미만 149척, 15톤 이상이 13척, 연승 54척, 유자망 13척, 머구리 배 4톤급 1척이 있고, 해녀는 15명 정도다.

배의 명칭이 있는데 창의배, 이물이란 거는 앞이 이물이고, 한창이라는 거는 한판을 말하고, 뒤는 도모라 하고, 그건 일본말이야. 그런데, 일본말인데 그걸 잊어안먹고 꿩무는데, 바람은 원산내기도 무섭고, 그런데 바다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일 무섭지요. 바닷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북동풍이라고 그러는가. 북동풍이 제일 무섭고, 원산내기는 크게 무섭지는 않고, 알기는 산, 그 표시인데, 그거는 우리들이 배탈 때는 시방처럼 기구없으니까 그거 잘 보지 못하믄은 그물을 어디메 놓은지 모르고 잊어먹는 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도모에 서서 선장하는 사람이 정신을 거기다 넣지요. 정신을 아니 여른 선장 때문에 그물을 다 잊어먹지요. 바다밑에 바위를 성애라 그러구 모래를 써래. 갈매는 모래에 쑥쑥빠지는 것, 모래마구라 그래요.

만선이 되는 꿈은 고기잡다보면 이상한 꿈도 꾸는데, 송장보는 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책임자를 한 오십년했는데, 죽은 사람을 주무르는 거이 이튿날 가면 만선하더라구



1960년대 청호동 미역건조 장면

요. 어떤 사람은 돼지꿈이 좋다 소꿈이 좋다고 하는데 난 사람 죽은 꿈이 좋더라고요.

-제보자: 김태수(남.79), 1998.11.20. 청호동

북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선원이가 그 배를 타다가 만약에 자기집에 이런 상고가 나면 그 사람을 하선을 시켜요.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데 남에 나오니까 사람이 죽은 거는 하선을 안시키고, 애가 낳다하면, 배타는 사람의 처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하선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하고 그런 풍속이 정반대 더구만요. 그것이 풍속이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씩 배고사 지내는 게 무당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무당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장이 그저 빌기도 하고, 제물은 주로 명태나 가재미 같은 거나, 매를 하나 놓고 간단히 해요. 우리는 하나를 놓았는데, 지방에 따라 조금도 달라요.

-제보자: 박수길(남.77), 1998.11.1. 청호동 노인회관

4) 사회조직

(1) 도민회

영북지구 함경남도민회는 1.4후퇴시 국군을 따라서 월남한 도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950년 12월 하순 국군을 따라 남하했다가 1951년 국군을 따라 다시 고향땅을 밟겠다고 속초, 고성 등 영북지역에 왔던 피난민들이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고향을 갈 수 없자 이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속초지역에 정착한 함경남도 도민들은 1954년 3월 영북지역 함경도민회를 조직하였고, 그후 함경남도민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함남군민회를 1959년 4월 10일(초대 회장 신성철, 1959~1964) 속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도민회에서는 자체 기금을 조성, 장학회를 만들어 함남도민의 후진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호동 주민에는 함남출신들은 지금도 도민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2) 시·군민회

청호동에는 함경남도 출신자가 많으므로 결속과 상부상조, 친목을 위해 시군민회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상을 살펴보기 위해 속초지역의 시군민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흥시민회는 1977년 7월 10일 창립되었는데, 초대회장에 이시곤 씨를 선출하였다. 1.4후퇴 당시만 해도 함흥시민은 속초에 100세대가 거주했으나 휴전후 각지로 전출되고 50여세대만 남았고, 청호동에도 일부 함흥주민들이 살고 있다. 매년 9월 9일을 망향제날과 시민총회날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원산시민회는 1959년 5월 31일 원산시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남수악 씨를 선출했다. 이들은 매년 망향제례와 경로잔치를

열고 청년회도 결성하였다.

홍남시민회는 1975년 5월 4일 서호천목회를 결성하였고, 1978년 5월 10일 홍남시민회를 발족하여 망향제를 거행하고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여 고향의 선영을 모셨고, 한식과 추석절에 동향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함주군민회는 1973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신주균씨를 선출하였다. 1977년 9월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망향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망향탑도 세웠다. 선천면 출신들이 1970년 12월에 정심회를 결성하여 경조사에 상부상조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주군민회는 1952년 정평향우회를 발족하였고, 1976년 군민회로 발족하였다. 초대회장은 한성익 씨가 맡았다. 1977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묘원을 조성, 망향의 동산을 만들었다.

영홍군민회는 1951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김치룡 씨를 선출했다. 청호동에는 영홍군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을 '영홍마을'이라고도 부른다. 고원군민회는 1954년 5월 창립총회를 갖고 서창하 씨를 초대회장을 선출하고 묘원을 조성했고, 문천군민회는 1957년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정기수 씨를 선출했다.

홍원군민회는 1950년 무렵 속초지역에 200여세대나 정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78년 5월 27일 발족하였다. 초대회장에 한진수 씨를 선출하고 1979년 조양동에 묘원을 조성하고 한식과 추석에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청호동에는 '홍원마을'이 지금도 있다.

북청군민회는 1957년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고병걸 씨를 선출했다. 1987년 통계에는 900여세대 3,000여명의 북청주민이 속초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북청도청을 운영하면서 이정기 용이 주축이 되어 북청사자놀음을 재연하였다. 북청군민회산하에는 신포읍민회와 양화면민회가 결성되어 있다. 신포읍민회는 1965년 3월에 창립총회를 열었고, 1969년

장사동에 묘원을 조성했으며, 양화면민회는 1981년 5월 창립총회를 가졌고, 1985년 4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에 묘원을 조성하였다. 청호동에는 '신포마을'이라하여 신포출신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다.

이원군민회는 1953년 5월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박성주 씨를 선출하였다. 1979년 10월 고성군 토성면 인홍리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고 이원공원묘비를 건립했다. 매년 추석때 망향제례행사와 군민회총회를 개최하여 향수를 달래고 있다.

단천군민회는 1957년 10월 군민회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강석창 씨를 선출하였고 영랑호반에 단천군묘원을 조성하였다. 이후 제2동산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조성하고 1982년 5월에 단천동산망향비도 건립했다. 한식 절에는 제1동산, 추석절에는 제2동산에서 군민들이 모여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협정이 체결될 무렵에 속초에는 단천군민이 약 300가구가 모여 살아서 동명동 일대를 '단천마을'이라 부렀다.

신홍군민회는 1962년에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주치돈 씨를 선출하였고 갑산군민회는 숫자가 많지 않으나 1977년 4월 10일 속초, 양양,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50여명이 군민회를 만들었으며, 초대회장에 김절형 씨를 선출했다.

이밖에 청호동에 거주하는 피난민 3.4세대들이 청호청년회를 만들어 상부 상조하며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15일 제1회 함경남도 청년회 체육대회를 청호초등학교에서 개최하여 2세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구비전승

1) 청호동 개척이야기

【이야기1】

고향은 함경남도 단천인데, 1.4후퇴때 가족하고 같이 창의배를 타고 왔지요. 창이배라고 그러지요. 함경도 사람들은 찬이배라 하니까 이옹(ㅇ)도 아니고 니은(ㄴ)도 아니고 중간발음이지요. 그거는 함경도 사람이 아니면 그 발음 못내잖아.(하하) 우리가 고향떠난 것은 50년 12월 중순 쯤이오. 그때는 말하자면 내가 열다섯살의 나이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요즘 같이 기록성을 가졌으면 다 적어놓지.

우리 고향은 바닷가에서 한십리 떨어진 농촌에서 살았거든. 함경남도 단천군 복귀면 용포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의 동갑계원인 김용홍씨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요. 그래서 친구다 보니까 우리 직계가족은 다 나왔고, 그 분은 3월에 들어간다 하니까 자기 직계가족은 하나도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 형제들이 6형제가 그 배 선원인데 하나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없오. 그래서 아버님 친구인 그 분이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는 돋지는 못했지만 가끔 오시면, 우리 집사람이 뭘 좀 조금씩 보태드리고 담배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도 안계시고 오래 못살다가 속초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지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나의 경우는 그때 한 사오일 항해를 했나 그래요. 그때 나올 때 장전항 내항에 들어가 하루 자고, 그때는 이기 장전항이다 그러니 알고, 그담에는 출항을 해서 바람이 거세게 불지도 않고 해서, 어디와서 닻을 놓고 하룻밤을 지냈는가 하면 기사문리 섬안쪽에서 둛대를 눌하고 이제 하룻

밤자고 그 이튿날 나간 것이 정오경에 주문진 항구에 입항해서 거기서 며칠 주문진 등대밑에 합씨라는 영감님네 집인데, 방을 하나 얻어서 우리 여섯가족이 살다가 국군이 후퇴하니까 거기서 삼척 정라진까지 그 배를 타고 가서 내려서 그 담에는 또 이제 37도선까지 중공군이 계속 내려와 인민군이 “온다온다” 하니까, 계속 내려가가지구 울진 매화리를 거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럴 바에는 아주 가자” 그래가지구 육로로 계속 걸어가지구, 지금 생각하면 아득한 일이지.

그래서 거제도 갔다가 거기서 한 보름도 안되고 이 주일도 채 못되서 부산 국제신문, 내가 기억하기는 타블로이드판이야. 거기에 국군이 북진한다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전부 솔가를 해 가지고 “아, 고향 빨리가야 한다”고 그래서 오던 길로 해가지구 계속 이제 와서 봄에 주문진에 다시 올라왔지. 주문진까지 오는데 두 달 넘어 걸려가지구, 주문진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는 떨어지고, 내 동생데리고 나하고 51년도 주문진에서 오징어 말리고 뭐 아래가지구 살다가, 그때 돈이 있나? 11월달에 속초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구 양양 고댕이에서 적십자병원 소속 트럭 뒷꽁무니를 겨우 얻어 탔어요. 내가 보면 11월 하순쯤 될거요. 이 차가 쭉 오다가 세우더니 “내리라”이기야. 겁이 덜컥 나네요. “왜 내리라 그러나?” 하니까 “여기 3.8검문소는 민간인 싣고 못통하니까 요령게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데로 가야”이기야. 내가 동생 문규하고 아홉 살차인데, 동생 손을 끌고 오일통하나를 매고, 생활도구라는 거는 그거지. 아무 것도 없지. 이부자리 그런 것도 없지.

그래가지구 3.8선 넘어서 북쪽으로 오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광정리, 하조대 그쪽이야. 그 길따라 북상하는데 추위, 그래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미군차야. 그래 무조건 세웠지. 흑인 병사야. “오케이오케이” 하더니 차를 세우더니 “타라”고 해서 밀고 당기구 해서 타고 한참 가다가 세우더니, 담요를

갖다 준단 말이야. 춥다구. 이걸 뒤집어 쓰라고 그래 한 두어시간 왔을까, 산굽이 돌아서 속초라는데는 초행길이니까, 그 담에 내리라 이기야. 물치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미군차야. 그래 거기서 철로를 따라서 빙돌아서 들어왔지. 그때는 철로가 다 있었어. 51년 11월달에. 그때 그기 철판비행장같아요. 수송기일거요. 중부전선에 차가 미처 투입되지 못한 곳에 들어갔을거요.

그래 철도를 따라서 어디를 왔는가 하면, 동명동 중앙오토바이자리야. 바로. 거기 우리 고향분들이 배타고 나온 분들인데, 그분은 일본 만주 육군에서 제대한 분인데, 일본 군사 훈련시키던 분이야. 목소리도 우람한데, 그 분을 찾아간거야. 인정이 있는 분이래서 “우리 이 방에서 기거하라”고 그래서 속초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가 11월 하순께인데 어디가서 뭘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거기서 조금 오면 로타리 거기 옛날에 간장공장이었는데, 그 옆에 여기 속고5회 임호성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뒤에 왔는데, 폭격맞아 집이 엉성하고 서까래가 보이는데, 한국부대 쌀가마니를 뜯어가지구 지붕을 덮고 우리가 독살암을 났지.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양양수산관리소라고 지금 수협 전신이야. 거기가니까 급사를 구한다구 그래서 “내가 급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하니까 “집이어디냐?” 그래서 “주문진에서 내가 갔들어왔는데, 급사를 좀 써주시오.” 하니까 “심부름시키면 잘하겠나?” 그래서 “아 하구 말구요.” 그래서 되었지. 그 무렵에 수산관리소를 짓기 시작해서 옛날 동명동 구청사 그 자리에 지었지요.

그때 운이 좋아지요. 겨울에 양미리 후리, 장사동 앞바다에서 하잖아. 출항계를 아침에 떼려 온단 말이야. 양미리 후리때는 가마니를 가져가면 떠 주면 그걸 말려서, 명태도 가져다가 말려가지구 그기 우리 생계밑천이 된거지요. 내가 대체로 51년 11월에 들어왔으니 빨리 들어온 편이오.

난 1군단 문서체송원으로 한급 올라가서 군복착용하고 위카를 신고, 문서최송이 왜그런가 하면, 그때 잡아온 어물은 60%는 군수용으로 군대 부식품

으로 조달하고 40%는 민수용인데, 이걸 가지고 중매인들이 서울에 군대차를 정발하여 파는 거지요. 민정이 이양되기 전에 속초어업조합이 되어서 그만 두었지요. 휴전이 되고 나서 속중에 편입했지요. 그래 가지구 어렵지만 공부를 시작했구, 그 당시는 여기 3구 이쪽은 갯가라 그랬지요. 5구는 청호동이고.

속초의 초기 어업이라는 것이 청호동에 와서 수산관리소 급사로 다니면서 이제 덴마로 저 너머가 보면, 옛날에 시멘트 탱크들이 많았어요. 갯배 건너 거기에 옛날에 지었던 함석집이 하나 있었고, 개 이쪽 호텔이 서 있는 거기에 전주대를 엮어서 세워놓은 것이 있었지요. 그때는 갯배가 없었고 덴마로 왔다갔다 하고, 전부가 모래벌판인데 덴마는 전쟁때니까 이 앞바다에 미군 수송선 용역배지. 기름을싣고 위에다 널빤지나 스기목을 깐다고. 배가 기름을 다 부리고 갈때는 바다에 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덴마도 만들고 소형 어선도 만들고 생계 기반이 되었지.

휴전이 되니까 그런 물량이 줄구. 이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땅을 한 절반과고 돌과 흙을 이겨서 이렇게 쌓고 위에다 흙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는 전부 시레이션 박스로 지붕을 만들었지요. 시레이션이 기름을 먹어 있기 때문에 몇 년가도 비가 안 센다구. 그 이후에 드럼통으로 이었고. 생계수단으로 처음에 덴마를 해가지구 이 사람들이 주낙. 그때는 나이론 사가 있나. 전부 면사 아니나. 거기다 이제 명태낚시 같은 거 끼워가지구. 저기 속초 섬밖에 나가서 배를 띄우놓고 낚으면 이튿날 아침은 우러기 이런 고기가 한 배 출렁출렁 채워가지구 들어온다구. 전쟁하느라고 고기를 안잡아오니까. 그런 고기는 이제는 없지요.

그래 생계수단 하다가 배가 차츰 커지고 창의배는 이 지역에서 쓸모가 없단 말이오. 수심이 깊고 하니까. 창의배는 이북에서 쌍돛을 걸고 이 바다밑에 저인망으로 명태를 끌어 올리는 배이니까 여기는 수심이 깊고 암초가 있어서 걸리니까 그 배는 불때서 없어졌지요. 그래서 적은 목선으로 개량했다가

1950년대까지는 전부가 목선이고, 60년대 오면서 발동선이 생겼지요. 55년 이후부터는 풍에서 기동선으로 바뀌지게 되었지요.

단천사람들은 동명항을 근거로 했지요. 청호동은 처음부터 도선장에서 시작해서 올라갔지요. 신포 그 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배들이 있으니까 거의 다 빠져 나오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피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원자폭탄이 무서워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요. 그리고 수복이후에 수산업 초기 방법은 동명항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남아있는 본토백이들, 전기회사 골안에 있던 사람들, 몇 가구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중앙동 바닷가나 금호동, 청학동, 교동 나룻가 임해지역, 그리고 청호동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지요.

청호동이 더욱 좋은 것은 옛날에 호수를 열어서 수로를 했으니까 천연항이오. 소형어선이 조업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마춤이오. 암만 바다가 뒤집혀도 개안에만 배를 넣으면 꺼먹없거든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바다쪽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직업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륙지역에서 와서 빨리 가려고 하던 사람들은 가만히 형편을 보다가 뜯 사람도 많고, 초기 인구유동은 그러한 의미가 많고, 60년대 오징어, 명태, 꽁치가 호황을 이뤘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경상도에서도 오고, 기호지방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배타러 온 사람들 많지요.

수산인구 변동에는 내 학위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만 속초가 70년대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어획고가 1등항구요. 그러다가 바다자원이 고갈되고 잡기만 하고, 어군탐지가 발달되고, 어구가 현대화되니까 고갈되는 거는 불을 보는 것은 빤한 이치지요. 청호동은 50년대 중반까지 함경도 사람들이 바닷가로 내려온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60년대에는 내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떠서 갔고, 그 후속타를 이은 것이 속초가 바다경기가 좋다고 할 때 경상도 사람이오. 5.16이후에 주로 해안가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 이후 전라

도, 충청도 사람들이 왔지요.

청호동 인구가 갑자기 늘고, 1954년 55년 이후 고성서 나온 조막손이 영감, 김만수의 아버지가 갯배를 만들어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타고 오는 것보다 그쪽에서 넘어오는 생선 물량이 엄청나서 갯배 수익이 많았지. 지금은 갯배가 노는 것이 그쪽에 덕장도 없고, 옛날에 마른 명태 뭐 중간쯤 한거. 그런 거 리어카 경기요. 리어카 한 대에 사람이 세 명이상의 공임을 받으니까요. 1954년인가 55년인가 했는데, 직접 그 양반이 운행을 했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공직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청호동은 배타고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데는 안성마춤의 고장이지요. 풍랑이 암만 있어도 안에다 배를 매놓으면 괜찮고 이런 자연조건을 가진 곳이지요. 이제는 청호동이 피져나가서 조양동하고 맞붙고, 이번에 청호동 이름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8개통이 이쪽에 와서 붙었지요.

청호동 이름은 없애면 안되지요. 앞으로도 중요한 부지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속초하면 청호동을 떠올리고, 속초자체가 실향민들이 와서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면서 뿌리를 내린 곳이라는 인식은 깊이 갖고 있지요. 속초에 대개 피난을 때는 대부분 석달이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꽃피는 춘삼월이면 간다고 했지요. 우리 고향같은 데서 좌우의 싸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동네에서 우익인사를 세 사람을 학살했는데, 국군이 들어가서는 빨갱이를 잡아다 총살시켰어요. 좌우의 관계는 격돌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제 청호동은 팔도민국이오. 그래도 아직은 1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60% 정도까지 함경도 사람이라고 보면 되요. 청호동은 우리말로 때뭍은 곳이라고 해서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또 여기서 어디를 가느냐 해서 함경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요. 그런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동 새마을에 간 사람들이 68년 10.24 해일 때 물이 넘치고 집이 깨어져서 옮긴

사람들이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청호동하고 통합이 되었지요.

-제보자:동문성(남.63), 1998.12.23, 속초시장

【이야기2】

일사후퇴때 시방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이남에 방위군이 원산 나왔다가 원산에서 배를 갖고 나왔어요. 창의배를 타고 나왔어요. 가족은 못오고, 원산에서 나왔지. 창의배로 원산에 장사를 나왔겠는데, 우리 고향사람 다섯이 같이 나왔지. 부산꺼지 갔다가 거제도까지 갔지요. 거제도는 부산가니까 그때 거제도로 피난갔지요. 부산까지 갔다가 한 이삼년 거기서 이태 지나간 다음, 50년 11월 2일인데, 53년 가을에 여기와서 살았어요. 여기왔을 적에는 그때는 배를 가지고 그걸 운영해서 먹구 살았지요. 고향이 영홍이지요. 함경남도 영홍군 억기면이 고향이예요. 영홍분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에 여러 분이 왔어요. 한 삼십세대 그렇게 나왔어요. 53년에 나와서 여기에 살아요. 그때 나오니까 벌이가 많아요. 돈벌이가. 배하나 지어서 고기잡이를 해서 수입을 많이 봤어요. 나, 이북에 살다가 혼자 나와서 처하나 얻었다가 돌아갔지요. 자식은 못낳았지요. 이북에 자식이 육남매요. 딸 삼형제, 아들 삼형제, 영홍사람들이 많지만 외로워요. 여기 그때는 명태도 많이 잡히고, 오징어도 많이 잡히고 꽁치도 많이 잡히구,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부두에 풀 데가 없어서 주문진까지 갔어요. 그때 바다에 꽁치가 꽉찼어요. 그때 배가 15톤까지 그런거 하나 가지고, 동력선 가지고 잡았어요.

갯배가 있었는데요. 엔 첫 번부터 있었어요. 왔을 때 지금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시방 배를 잘 지었지만, 그때는 허름한 게 사람 몇이 타구. 그때는 사람두 많이 안 댕겼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집은 엔 첫 번에 왔을 때 없었수다. 저 갯배머리에 서너 너더채 있었구, 오구. 여기는 공장지대가 됐더랬어요. 정어리 공장이 있던데예요. 난 배를 만들어 가지구 선주가 되고, 딴 사

람들 많이 시켰가지구. 그때는 고기가 많이 나서 꽁치두, 명태두 많았어요. 영홍도 바다를 끼었어요. 피난 나왔을 때 한 오십세 되었어요. 이북에서는 괴기잡이도 하고, 원산이 가까우니까 장사를 많이했지요. 영홍이 쌀고장이예요. 쌀장사도 하고. 처음에는 저짝 6구에 있다가서 이짝에 건너왔지. 주인 노친네 얻어갖구. 저 위에가 신포마을이고. 이쪽 마을은 고향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본토백이가 이쪽으로 많구요. 그 당시에 부월리라고 했지요. 당국호 마을이란 거는 배이름이예요. 배임자네 집을 불러서 당국호 마을이라 했지요. 배가 십 오톤정도 되는데, 배이름이 당국호니까 그렇게 불렀지요. 배를 타던 분들중 웬만한 분들은 다 돌아갔지요.

-제보자:이춘섭(남.96), 1998.11.20, 청호동

【이야기3】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가 고향이예요. 육이오때 일사후 때 피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경상도에서 한 삼년나마 살다가 아군들이 북진한다 하니까 이내 따라 올라와서 어디갔나 하니까 주문진에 와서 한 이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기 모두 백사장이구. 솔이 모두 낭구 요막 씩한게 있을땐데 실향민들이 들어와서네 아군들이 올라간다구 해서 뒤쫓아와서 빨리간다구 여기와서 정착한 기 어전은 사십여년이요.

고향에서 배타고 모두 내려왔어요. 집이가 한 칠십호 됐는데, 한 집이가 인민군대간 아들이가 둘이 있으니까 고, 하나만 아니 나오고 칠십호가 몽땅 다 나왔어. 처음에는 신포마을에 살았어요. 지금으는 청호동사무소 바로 옆에 사는데, 첫 번에는 저 신포마을에 살다가 축항이 좁으니까 넓게하여 배가 들어오게 하느라고 일차, 이차, 삼차까지 하니까, 다 헐어서 나도 여기 나와서 집을 네 번 옮겼어요. 나도 집을 많이 옮겼어요. 저기서 한 삼년 살다보니 여기 또 헐린다네. 그거 알았으면 객지 어디 멀리라도 갔을텐데. 모르니까.

여기는 또 아바이동네라고 함경도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데 가기 싫으해니까. 모두 사투리가 그만 딱 똑같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우리 함경도 사투리하고 들으면 다르니.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틀리니까. 여기와서 살으니까 아바이동네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이들 때 보름날, 설쉬고 대보름날 사자놀음을 하거든요. 북청사자놀음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지요.

나도 한 삼십살 때 피난나왔는데. 결혼하고 가족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거기서 뭐라고 했나하믄 '이십일 피난'이라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재산이 좀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희만 갔다오너라" 해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못갔지요.

우리가 북청에서 떠나서 후포라는 데 갔어요. 옛날에는 강원도 땅이예요. 고향에서 떠났는데, 한 사십리 나오면 전방 어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칠십호 됐는데 배가 많았다고. 옛날에 이북에 '창의배' 라구 들어본 예가 있어요. 그따위 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사람 칠십호가 거반 다 나오구 몇몇 기관에 있는 사람이구 뭐이구 거반 다 싣고 나왔어요.

배가 원체 크구 많으니까. 배가 여섯 척이 나왔는데. 여섯 척에 그렇게 많이 싣구 나왔다구. 우리는 창성리 2구에 있구. 요기 1구는 북조선 모범부락이라고 나라 정자쓰는 사람들 여러 가구가 사는데 거기는 타성이 들어못가요. 전방 집단적이기 때문에 타성은 일절 그 사람들 부락에 들어가 살지 못해요. 아주 진짜 빨갱이지요. 불들어서 인민군대에 데려가니. 우리두 그 사람들 창한테에 여러번 쳤렸어요. 대나무를 깎아가지구 한 이십명이 다니면서 그러니. 이래두 죽구 저래두 죽구 하니. 고향사람들은 살래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 하나라도 불들리면 살 수가 없어요.

-제보자: 김태수(남.79), 1998.11.20. 청호동

【이야기4】

과거 초창기에는 피난민들이 6~70% 그런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락이. 그래, 한 4~50년 살아오는 과정에서 각 처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보니 이제는 반반도 되나마나 해요. 알아야 할기 이제 1세는 거의 다 가고, 2세도 점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이제 3세가 거의 빼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낳은 애들은 고향 개념이라는게 없어요. 뭐 고향가겠다든가, 귀향 그런 뜻이 없고, 생활터전이 여기니까요.

나는 고향이 함경도 신포입니다. 신포마을이 바로 여깁니다. 여기도 수로 화장공사로 떨어져 나오고, 더러 이주해 나가고 여기 신포사람이라 해도 몇 사람안되요. 여기에 한 열집 내외가 되요. 과거에 말하던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는 신포마을, 홍원마을, 짹꼬치마을, 영홍마을 이런식으로 집단으로 모아서 집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쫙꼬치 마을은 신포에서 북으로 들어가서 속후면 창성리라는 마을을 짹꼬치마을인데 창성리지요. 옛날에 부르던 지명이지요. 그밖에 이원마을, 원산마을, 문천마을, 정평마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마을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북쪽의 거의 해변지역 행정구역단위인데, 이 사람들이 피난 내려와서 각지에 흩어져 와서 살다가 수복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의지할 때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사람들이 사는데 가는 의지해 살다보니 집단마을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여기와 사니까, 내 고향 올라온 사람들, 인근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정착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포마을이 형성되는 거지요. 또 홍원사람들이 살면 그 사람 의지해서 와서 사니까 집단이 되니까 홍원마을 집단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집단이 된 겁니다.

내가 스물 네이에 넘어왔어요. 여기가 최전방이었어요. 내가 군속으로 있었는데, 행정이 주문진까지 들어왔어요. 기능이. 우리가 그때는 기류계 그런 거 신고하고 살았는데, 병력관계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남지역에 와서 다른데 산 데가 없어요. 이북에서는 신포읍 마량도 문암리라는 그

부락에 살았어요. 집이 한 삼백가구 되는데요. 여기 문암리 친목계가 있는데. 일세대가 나왔을 때는 한 삼십가구가 나왔어요.

처음에 청호동 전체. 그때 기준을 옛날에는 전성기에는 천이백세대까지 계산했거든요. 그때는 1965년 내지 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창했을 때. 전체의 60%정도는 함경도 사람. 피난민들이라고 봐야 하지요. 지금은 2세 3세대들 까지 생각하면 그렇구요. 그기 아니면 처음에 피난온 사람들은 다 갔지요. 이제는 아바이마을이 다 희석되가지요. 다 가구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인구 5천미만이니까, 없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특수지역이니 아바이마을은 특수지역이다. 없애서 되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유지시켰어요.

여기나와서 말이오. 우리 선조나 부모들이 거기서 살던 문화를 물론 가지고 나왔지. 나왔는데. 당시에 거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다 제쳐 놓은거야. 지금. 먹고 사는데 급급한거야. 그러니까 그기 전승이 안되고 연결이 안되거야.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풍습이야 이북사투리 그냥하지만 문화적인 승계는 별로 없다구.

우리가 여기나와서 주로 이북 단오가 쇠고, 추석도, 구정도 쇠고 이북에서 쇠었는데. 쇠다하더라도 지금 여기서처럼 농도있게 쇠거는 아니거든. 기껏해야 어느 고을에서 씨름대회한다든가, 읍면대항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 정도지. 여기서처럼 강릉단오처럼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여기뭐 전통적인 유교적인 제사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민들은 간단히 보편적인 절차에 의해 지내지요. 별로 뭐 심각한 것은 없어요.

초창기 여기는 참 어려웠지요. 속초가 말이요. 지금은 뭐 관광도시다 뭐다 하지만 수산도시로서 출발한 거이거든요. 수산도시로서의 출발이 우리 피난민들이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도시다 하지만. 지금도 속초는 말이지요. 관광객들이 많이오는 것보다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나아지 경기가 불어나지 관광객들이 와야 여기 소득이 있나요? 특정인들한테만 다 들어가지. 그

래서 사실상 관광도시라는 게 실감이 안나요.

피난민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수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속초경제를 개척했지요. 그때는 배가 뭐 큰 게 없었거든요. 주로 목선가지구 고기를 잡았고, 명태잡은 것만 기계 달아가지고 다녔지만 생계가 고기잡고, 말리고 하는 것이 전부지요. 이북사람들만 특별히 모인 것은 없고, 마을단위로 친목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신포읍민회가 있고, 우리가 살던 문암리 고향길이라고 하지요. 신포읍민회는 음력 9월 9일날 망향제 겸해서 총회를 하지요. 망향제단은 읍민들이 당시에 재정적인 모임에서는 임야를 사서 묻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사서 매장하고 했지요. 여기에 많지요. 원산시민공원묘지, 단천, 이원, 홍원, 신창, 신포도 있고 그렇지요. 망향제단이 주로 장천 올라가는 도로, 젬버리대회하던 고성쪽에 있지요.

초창기에는 북정군민들이 많이 나왔지요. 행정구역이 좀 군세가 좀크고, 비율이 많고, 해변가에 있으니까 나올 여건이 좋으니까 주로 많이 나왔지요. 주로 배타고 나온 거지요. 이념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요. 우리도 사실 아군들이 북에 주둔할 적에 우리가 부락에서 청년회라 해서 부락치안을 맡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다 잡아갈게 아니요. 이쪽 치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겁내서 내려온 사람이 많고, 당연히 우리를 다 조사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일반민들으는 사실상 공습을 하고 어찌구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락에 일하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덩달아서 피난나온 사람들이 많지요.

피난온 것은 생계보다도 불안해서 나왔다고 할까요. 당시의 전황에서 불안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피난나오니까. 또 가들이 와서 행패부리니까. 2세대 일부가 좀 나와있고 3, 4세대까지 현재 있지요. 그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도 들어가겠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기지요. 지금 나같은 이정도가 고향에 들어가면 고향을 어느정

도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데, “누구누구는 누구다. 너는 어떻다.”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못들어가면 역사가 끊겨버려요.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들어가야 내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인근에 있든 사람들은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되면 여기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통일되면 젊은 세대들이야 있겠지만, 여기 청호동이라는데 별로 뭐 정착할 만 것이 없지 않아요. 배를 안탄다면 별로 환영받을 만한 게 없지요. 내가 50년도 12월 12일날 집을 떠났어요. 부락의 간부들하고 가족은 거기 있고, 그때 나와가지구 이북에서 우리 형님들이 데구리배를 건조해 가지고, 나는 수송선을 타고 맹기다보니까, 처하고 딸하나 같이 나왔는데, 나온 배가 부락 청년들, 치안사업하던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1호선에 타고 우리가족은 2호선에 가족이 탔는데 우리 배는 덜 복잡한데, 가족들이 탄 2호선이 복잡하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함흥거기서 육지에 내려서 보니까, 3호선이라는 배는 나와도 좋고 안나와도 좋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덜복잡한데, 그래서 빼서 3호선에 가족을 옮겨놨단 말이요. 그런데 그 배가 나오다가 장전앞에서 도로 들어가고 우리만 나왔지요.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군부대 종사하고 있으니까 배에서 먹고자고 했지요. 배가지구 이북에서 사촌형님들이 피난나올 때 배를 하나 가지고 나왔지요. 옛날에 이쪽에서 정어리공장했다구하데요. 여기 나오니까 집이 완전하게 있는 집이 한 집하고, 파손되고 일부가 남아있는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요 위에 올라가니 한 집있고 세 집이 있었어요.

요 위는 우리집 있는데 신포마을이요. 거기 설악동 전상익 시의원 그 사람 아버지가 여기 살았지요. 그랬는데 나와서, 수복이 되어서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일반주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사람이 있다는게 저기 척산에 일부가 있었고. 여기 나와 있다가 그 시정이 되니까 주둔했던 군인들이 철수하고 우리는 여기 떨어져 있고 정착할려고 여기에 하

꼬방을 짓고 살았지요.

처음에 1953년 그때 병사들이 주둔할 의미가 없으니까 철수하고, 그때 내가 53년이나 54년도에 그때 내가 정착하고, 행정의 힘이 이끼지 미치지 못했지. 그러다가 피난민들이 하나씩 오니까, 내가 막 끌어다가 내 집에 재우고, 집도 지어주고 사람이 그립잖아. 옆에다 짓고 옆에다 짓고 그래서 그래 부락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중앙동에 행정구역이 속했지. 중앙동 3반인가 몇반인가, 그때 그래되었다고. 그래가지구 있다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부니까 옛날에 속초 5구라 했지요. 부월리 2구라 했다가. 그리구 청호동이 되었지요. 청호동은 청초호가 있으니까 이름을 1963년에 지었지요.

청호동은 갯배로 전체가 중앙동하고 연결되니까. 그땐 앵미리나고 하니 생활이 모두 그러니까 나룻배로 생활필수품을 수송하고 왔다갔다 했단말이오.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땐가 재향군인회를 육성한다고 해서 정부 시책을 떴는데. 나룻배가 수익성이 좋으니까 “재향군인회에 주자”, 그때 “우리는 거 못 준다.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이고 한달에 수입도 있으니 못준다.” 하니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사랑방 좌담같은 것을 했는데. 박경원 지사가 여기 와서 그러니 “주자” 그런데는 “요구조건이 뭐냐?”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면 주겠는데, 우리는 평생동안 나룻배 도선료를 낼 수 없다. 외지사람들에게는 받지만 우리 한테는 받지마라” 그러니 “좋다” “그런 조건으로 무조건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해서 재향군인회에 내줬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몇 년을 잘 벌어먹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량이 줄고 하니까 타산이 안맞고 인건비 쓰고 하니 그러니 안된다고 시에다 들여 밀었던 말이야. 시에서 운영할라면 고정 선부를 네 사람이상 써야하는데. 지금은 두 사람만 쓰는데, 지금은 시가 배주인이고 동개발위원회가 대행업자지요.

처음에 1954년 정착할 당시에는 갯배가 없었고 고때는 댄마선을 갖고 통행을 했고. 우리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피난민들이 인제 제일군단 민사처에

다 얘기해 가지구서 나룻배 만들 목재를 지원받았지요. 처음에 내가 들어와서 살면서 맨든 거니까, 1956년이나 57년 정도에 사람이 살면서 중앙동 3반 인가 인정을 받으면서 갯배를 만들었지요. 중앙동에 일개 반에 속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있었고, 그래 그때 김무림이 반장을 했고, 나중에 행정구역이 되면서 그 사람이 초대 동장을 하던 사람이지.

갯배는 현재의 그 자리 위치였는데 그때는 한 오십미터쯤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리를 거두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걸어댕기고 그때는 배도 별루 안다니니까. 그때는 이 아래서 청어도 잡고 별걸 다 잡았어요. 근데 여기 기계배들이 많이 댕기니까 밑을 파서 준설을 하고 고기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지요. 그래 한 오십년 되었어요. 우리도 놀려갔다가 저녁에 배가 없으면 옷을 벗어 허리에 동여매고 건너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배들이 다니고 여기 전성기에 꽁치나고 명태나고 할적에 속초 수협이 한창 전성기에 한 거지.

수로가 좁아서 안되겠다. 그래 백미터로 하자. 그 바람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조양동 새마을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 여기 사람들이이지. 수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싹 철거하여 새마을로 올라갔지요.

전용 댄마는 없고 어업에 종사하는 항구니까 조그만 댄마를 빌려 타고,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으니까 물동량도 별로 많지 않고, 사람이 별루 없었지. 사람이 점차 살게 되니까, 조그만 댄마를 빌려타고 왔다갔다 해지요.

그래가지구 맨 처음에 조막손이 영감이 그 영감이 덴마선을 가지고 나룻배를 시작했지. 돈받으면서, 손없는 영감, 조막손이 영감이, 그 영감이 댄마로 나르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으니까 안되겠다 해서 그때가서 나룻배를 만든거지요. 이 사실을 말이요. 내가 아니면 청호동에 나이 먹은 사람이 라도 모른다이.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이.

청호동 시장이 생긴 거는 68피해때이니까 시장지은 건물안에 이재민들을 수용했단 말이요. 그때 그 건물을 이용했으니 그때말이요 말 말아요. 그때 내

가 명태 건조했는데, 물이 축항밑에까지 왔는데, 해일 오고 파도가 오니까 명태 건조장 사람들이 축항밑에서 죽어요.

침수되고 선장실에 네 사람이 있더라고. 파도가 크니까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고 죽으니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요. 그때 재난가족이 전체 대상이었으니. 그때 5백가호나 되었는데, 국회의원이 김종호였는데, 시장에 거기 수용했는데. 쌀 한가마니 가져왔다고 했어요. 구호물자를 혼자서 다 배정할 수 없었어요. 구호물자 쌀 나눠주고, 청호동에 와서 살면서 참 여러 일이 많아요. 그때 배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주로 그때는 명태잡인데, 합동으로 하는 것이 명태인데, 그리고 봄에 나가서는 미역도 하고 했는데, 주로 명태를 잡아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잡아서 한꺼번에 계산봐요. 계산봐서 돈이 쥐어 쥐면 제일 첫번으로 가는 것이 쌀집으로 가는 거요. 쌀 열가마니면 열가마니 턱 쌓아 놓고 구석에다 자여놓는 거요.

우리가 청호동에 모든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중앙동에서 조달받았으니까. 그때 아주 초창기에는 연탄이 아니구 장재기를 썼지. 장작을 패서 쓰는데, 트럭에 한 차에 실어오면 그걸 한 차씩 산단 말이야. 통나무들을 그걸 패러 다니니 놈들이 서너명 있오. 그 놈들이 패서 장재기(장작)를 만들어서 재여 놓고 쌀재놓고 장재기 있으니 먹구 사는 거지. 그렇게 산 거지. 그러다가 산림 녹화 정책이 나와가지구 장재기를 못하게 되니까 연탄을 한거지.

처음에는 집두 아니고 움막이지요. 지붕도 처마도 저 땅에 대고 가운데는 온돌놓고 도라무강을 위에다 썩우고 펴고 깔고 그렇게 살다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60년대 중반이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붕개량하라고 그래서 슬레이트나 기름종이 루핑을 깔았단 말이요. 그래서 옛날집들이 없어졌지요.

-제보자:여석창(남.72), 1998.11.1 청호동9통1반

【이야기5】

함흥냉면집을 한 지는 한 10년정도 되었구요. 청호동은 내가 스물여섯에 왔으니까 한 삼십오육년쯤 살았지요. 그때는 참 청호동이 고기도 많이 나구 앵미리두 많이 나구해서 어민들 소득도 좋고, 건조사업도 잘되고 이려든기, 차츰차츰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 요새는 어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옛날에는 함경도 1세대가 많았는데, 지금 노인회관에 모이는 노인들 보면 몇 십명 안되는 것 같아요. 떠나고, 돌아가시고, 처음에 왔을 때 유권자가 삼천명이 넘었어요. 주로 나룻배 북쪽은 신포마을이라고 해서 신포사람들이 주로 거주했고, 고다음에 짹고치마을이라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흩어져 살지만, 저 위에가면 홍원사람들이 있고, 함흥사람도 있었고, 북청사람도 있고 몇 분씩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순전히 판자집이지요. 검은 루핑같은 걸 쳐놓고 살았지요. 바람막이하고 이다를 쳐가지고 살았지요. 점차로 돈있는 사람들이 고쳐서 살았지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바다고기가 많이 나니까요. 사람들 인심도 좋고 그리고 도둑이 없는데가 여기예요. 울타리가 없잖습니까.

청호동은 이주간에 거주하고 사니까. 주로 이북사람들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민속놀이라면 사자놀이하고, 명절은 다 쇠요. 강원도 사람들보다 더 잘쇠더라고요. 설하고 추석을 크게 쇠더라고요. 상례는 강원도 사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함경도 사람들은 말소리가 거칠지요. 통털어서 아바이마을이라고 하지요. 말이 억센트가 높으니까 따져보면 나쁜 소리가 아닌데 거칠게 들리지요. 여기가 옛날에 5구지요. 속초읍사무소가 생길 때부터 5구지요. 그 다음에 속초시가 되구 청호동이 되었지요.

갯배는 왜정때부터 봤어요. 내가 여기에 일곱 살에 왔거든요. 인공때 여기가 삼팔이북이니까요. 학교를 여기서 대녔으니까 갯배가 있었어요. 45년에도 있었는데. 인공때 학교다니니까 고때보니까 배가 있었는데, 팔이 짧은 조막

손 노인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쇠꼽으로 갈고리를 하는데, 옛날에 쇠꼽이 없으니까나 나무로 갈고리를 해서 끌어 맹겼다구요. 그래 소두 싣구, 차도 싣구, 차가 일루 맹겼어요. 다니는 데 가다가 빠진다니까요. 그때 두 도선이 있었어요. 그때는 낮았어요. 이 배가 노를 저으면 땅에 닿았다고요. 가운데가. 그래 옛날에 여기서 고기도 나구 참 물이 맑으니까 청어도 나구 그랬어요.

이북사람들은 음식은 냉면을 좋아합니다. 음식솜씨가 달라요. 떡을 해도 굵고 크게 만들고, 돼지고기를 썰어놔두 넓적넓적하게 굵게 썰드라구요. 우리 강원도 사람은 잘게 써는데. 이 사람들은 굵게 썰드라구요. 잔치 뭐해두 잘해요. 지금도 그런 풍속이 남아 있어요. 단체심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짹꼬치마을이면 짹꼬치계가 있고, 단천마을이면 단천계, 홍원사람들이면 홍원계, 한 이삼십명씩 모여서 친목으로 서로 돋는거구. 아들이 장가간다면 부조해 주고, 친목계지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 제보자: 김종문(남.63), 1998.11.1. 청호동 함홍냉면집

【이야기6】

함경도 홍원에서 6.25때 그때 왔는데, 열아홉살 때 였어요. 부모님 어머니는 거기에 냄겨놓고 형님하고 둘이서 나왔지요. 나왔는데 형님은 여기와서 돌아가셨고 혼자 남았지요. 처음 월남했을 때는 포항에 가 있었어요. 고향들어 간다 해가지고, 빨리 들어갈라고, 이짝 여기와서 오래 있었지요.

그래 포항에서 일년살고 죽변에서 칠개월 살고 여기와서 살았지요. 여기는 수복지구인데, 집은 여기위에 고냥 그대로 있어요. 그때 우리가 피난민이라고는 열 집밖에 없었어요. 그냥 솔밭이고 군인들이 꽉 차 있었고, 그때 일군단 보급소가 어협조합 거기 있었고, 그때는 민간인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군 소속으로 따라 들어왔단 말이요. 그때는 군인들 탄알을 싣고 오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따라 들어왔단 말이요.

저짝은 신포마을이고, 나룻배 이 위는 홍원마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오. 옛날에는 반이 없었고, 지금은 2통인데, 요새는 통수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갯배가 없었고 노를 저어가지고 다니는 아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조막손이 아바이 하나 있었는데, 그저 노를 저어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아바이가 돈은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뉘기 쥐어주면 그저 네م겨다주고 그랬어요.

그 아바이는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한 삼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 조그만 배가지고 노를 배겨가지고 댕겼단말이오. 갯배가 생긴 것이 오래지요. 그 아바이때부턴 이제 넘어가지고 댕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민간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넘어 댕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배를 타고 들어왔지요.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구, 전부 이짝은 군인들만 있고, 하꼬방 집을 치고 그냥 거기 있었지요. 처음에는 나무를 땠는데, 미군들 보급소가 있었단 말이오. 기름을 큰 띠배에다 싣고 들어오면 그 나무를 인제 바람불면 내 던지게 되면 그걸 줄어가지고 땠지요. 그때 들어왔을 때는 민간인들이 없었으니까 배를 타도 뭘 할 수 없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군인들 일하는데 가서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고상도 많았어요. 이것 저것하다보니 어느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구 살려다보니까 그렇게 댕겼지요. 이것 저것 닥치는대로 했지요.

그때 살던 건 말씀도 할 수 없지요. 고상많이 했어요. 그때는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내 절루 청호동이란데는 임자없는 땅이니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 일본아이들이 공장하던 자리가, 깨지고 하던데 정어리 공장하던데 집을 지었지요. 이북에서는 고향이 홍원군 전진이라는 데 해변가예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민간인이라는게 없었고 군인들만 있었어요. 땅은 이제 불하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보자:남원춘(남.67), 1998.12.20, 청호동

【이야기7】

내가 단천에서 창의배를 타고 1.4후퇴때 월남했어요. 배타고 주문진에 일차 상륙을 했다가 다시 후포까지 가서, 다시 북진해서 국군을 따라 주문진에서 주영국민학교를 다녔고, 주문진중학교 입학해서 몇 개월 다녔고, 그러다가 더 가까이 간다해서 속초와서 청호동에 왔지요. 그때는 집이 한 백호정도, 완전 판자촌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들어온 것이 52년말쯤되어서 청호동에 들어왔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집가의 방파제 모래사장에 집을 지어 가지고, 양미리를 모래에다 말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내가 속중 2학년때에 휴전이 났고, 그때는 갯배가 없었고, 덴마를 타고 지금 갯배 그쪽으로 다녔고.

장마지고 홍수가 났을 때는 청초천 그 물에 와서 항구내 물이 급류로 빠져 나갈때는 상천다리 조양동으로 해서 당시 부월리 1리, 우리는 부월리 2리였고, 그리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내가 1958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호동에서 배사업을 했지요.

청호동이 무인지경이였으니까, 항만부지가 대부분이고 소유자가 없으니까 판자집 지어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또 바닷가니까 안에는 내항, 밖에는 외항, 반도식이니까 그기 어민들이 배타기 좋으니까 정착하기 좋아서 한 두 사람씩 모여들고, 배를 타고 어민들이 주로 이동이니까 한 배에 오륙명 내지 십명이 가족과 같이 판자촌도 한데서 한 배 선원가족이 집단으로 모여 살기 그만이니까 배 한척이 다섯가족, 열가족, 백가족 이렇게 정착한거지요.

여기가 나룻촌이니까 그러면 피난민들이 북진하는데 가장 가깝고 무인지경이래서 집 지을 터가 많고, 잡은 고기를 당시에는 염장 이런 것도 못하고, 오직 말리는 것밖에 없으니, 모래사장 좋겠다. 미역 다시마도 뜯어서 모래사장에 펼쳐 말린다. 백사장에 건조할 장소가 크다. 판자촌이라도 움막을 짓기에 좋다. 바로 바닷가다. 어선을 접안시키기도 좋다 그래서 청호동이 형성되었고, 피난민들의 집결지가 되었지요.

피난민들이 여기에 온 것은 그때는 뭐 전쟁때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니까 그 부락에서 빨갱이는 국군이 북진하면서 그 공산당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쪽한테 쫓겨간 사람들이 학대받고 쫓겨간 사람들이 다시 중공군들과 같이 남진한다. 그러면 마을에 와서 다시 보복한다. 그런 통설적인 그것이었으니까. 다른 표현은 필요없고, 빨갱이 아닌 사람은 거의 다 사상적으로 몰았으니까. 그러면 그 보복은 내 앞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봐야지요. 요는 보복이다. 빨갱이는 무조건 사람을 보복으로 죽인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이다.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지요. 이 정신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탈출이다. 배로 가자.

바다로 못나온 사람들은 육지로 나오다가 나오다가 홍남에 와서, 단천하고 함홍사람들도 홍남에 와서 배타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홍남사람들만 배타고 나온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피란을 남쪽, 남쪽으로 오다가 홍남에서 엘에스티를 만나서 많이 왔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해안가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서 오고. 육로로 피난 가다가 홍남에 와서 배를 타고 왔지요. 우리 외삼촌도 홍남에 와서 엘에스티를 타고 왔어요. 단천서 홍남이 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제도에 갔지요.

-제보자: 최용문(남.65), 1998.11.1. 속초문화원 원장

【이야기8】

1.4후퇴때 월남했는데,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리에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삼부자가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는 놔두고 여자니까 “별일 있겠느냐. 곧 들어올 것이다.” 하고. 나왔지요. 신포는 항구라서 배타고 많이 나왔지요. 와서는 포항에 갔다가 여수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1군단에 근무했으니까 아버지 찾아서 속초까지 왔지요. 그 당시는 청호동에 판자집이 몇 집 있었고, 완전한 집이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속초에 오니까 이층집이 없어요.

농협 바로 앞에 간이 이층건물이 하나 있었고, 폭격을 맞았서요. 청호동에 신포마을이 생긴 원인은 뭔가하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 어선이 창의배라고 목선이 있었는데, 그래 목선인 창의배 타고 나오니까 한 동네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속초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대부분이 포항, 주문진 그쪽에서 올라왔거든요. 국군이 북진하니까 국군 따라서 빨리 고향 갈라고 속초로 왔단 말입니다. 속초에 오면 고향가는 길이 빠를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타고 가니까 훌어지면 같이 못가니까 한군데 모인거요.

그때는 아무 욕심도 없이 땅도 안차지 하고, 집을 따딱따딱 막 불인 거요. 판자집을, 그러니까 배를 같이 타고 갈려고 하니까 신포마을, 단천마을이 생긴거요. 그래서 그 마을이 생긴 원인 바로 거기예요. 고향 같이 갈라고. 그때는 전부 삼백가구 미만이지요.

청호동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고향 같이 가기 위해 한군데 옹기종기 땅차지할 사람도 전혀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휴전되고 시일이 오래걸리고, 자녀들이 크고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가게 되니까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되지요. 집을 늘클라니 땅이 있어야 늘쿠지요. 그래도 그런대로 집을 늘클래도 개축허가가 안나는 거예요. 개축 허가가 안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건물자체가 뭔가하니까 레이션박스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판자집도 아니고, 레이션박스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도저히 그기 안되니까 판자로 지었지요. 그때는 미군부대가 속초에 있었거든요. 청학동쪽에 미군부대에서 드럼통이런데 깔개 판자가 많이 나와요. 그 판자로 지어서 판자집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판자집이 도저히 추워서 안되겠거든요. 그래서 흙을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신포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식들 공부많이 시키는 게 원이예요. 그래가지구 아버지는 뚝에 올라가서 파도치나 안치나 자기가 보구 파도가 안치면 바다에 나

가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킬라니까요. 공부시킬라면 고기잡아서 그냥 상인들한테 넘겨주면 싸게 파니까 부인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소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청호동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안 보낸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호동 사람치고 대학에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육열이 높아요. 좌우간 자식교육시키는데 열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북청물장수라 해가지고, 신포도 북청군이니까 교육열이 높아요. 청호동에는 단천, 흥원, 태조, 신포, 양화마을, 고향사람들끼리 모여사니까 저절로 호칭이 붙은 거예요.

갯배는 처음에는 없었고, 일정때는 버스가 다녔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못 봤고. 수복되서 6.25 지나서 와보니까 거룻배, 노젓는 배타고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읍사무소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도선료를 청호동 사람들한테는 안받고, 제일 처음부터 줄로 맹기도록 만들었지요. 제일 처음 거룻배로 할 때는 배가 없으면 여기서 불려요. 그러면 사람이 노젓고 와요. 개인이 했어요. 그러다가 읍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안전하게 갯배를 만들었어요.

난 볼 때는 청호동 사람들을 물오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하루종일 바다에서 놀아요. 여름에 가보면 아이들이 놀 공터도 없고 하니까 바다에서 놀아서 수영을 참 잘한다구요. 청호동에 제일 처음에는 고향에 간다고 한군데 같이 모여 살았지만 주거지역이 너무 비좁다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어요. 주거지역이 밀접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그럴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호동 사람들은 억세다. 말씨도 그렇고, 그리고 따뜻한 인정미가 적다. 왜그런가 하니까 인정미가 생길 수가 없지요. 생존경쟁이 험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랬지요. 땅이 없으니까 공터가 없으니까 도로가 공터니까, 문이 도로로 났지요. 처음에 정착할 때는 도시계획도 없고, 건축허가도 없이 막 집을 지을 때니까 사람이 통할 정도만 내놓고 무계획적으로 집을 무질서하게 지었지요. 지금은 집같은 형태가 되었지만, 옛날에

는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청호동 사람들의 특징은 그 투지,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강한 투지는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직결되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반공정신이 강해요. 반공정신이 투철한 것이예요. 청호동 사람들 자랑거리는 교육열이 높다는 것, 반공정신이 투철하다는 것, 강한 투지력과 의지력이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74년 대화퇴 어장 조난사건때도 청호동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거리가 머니까 가는데만 삼 일 걸리는데, 소형선박으로는 거기 나가서 조업할 형편이 못되는데 근데 아이들 등록금 대고 학자금 보낼라니까 고기 잘 잡히는데 위험하더라도 무리하게 대화퇴까지 간 거예요. 가면 오징어가 노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오징어 못잡으면 난 죽는다” 이기예요.

“내가 자식 공부못시키면 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오징어와 싸우는 거예요. 단위생산고가 일본의 현대화된 어업생산고보다 세계 제1위예요. 단위 생산고 일본의 과학화된 어로방식보다 그 분들의 투지력이 세계 제1위의 어획고를 올렸다구요.

청호동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다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다 성공했어요. 다 자리잡았어요. 케이비에스도 다니고, 대학교수도 되고, 다 외지에 나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옛날식으로 모험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지 않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전에 테레비보니까 금강산 갈라고 벼르던 할아버지가 한 달전에 돌아가셨더군요. 다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일세대는, 이세대가 대도시에 진출해서 자리잡고 있지요. 일세대는 살던 터전이니까 여전히 버티고 있지요. 그분들이 오징어도 하던거니까 오징어도 건조하고 생선도 팔고 하지요. 제일처음에는 미역건조가 주업이었어요. 요 앞에서 미역이 많이 났거든요. 오징어하고 노가리같은 것을 말리고 살지요.

그러니까 청호동은 마을이 원래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대기하는 집결장소였지요. 그 당시에는 시내 여기에 아무데나 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물가에 있으니까 배타기 쉬우니까, 배떠난다 하면 바로 획 나오면 행동하기 쉽잖아요. 이쪽에는 땅을 차지할라면 그때는 마음대로 넓을 데를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로 비좁은데로 가잖아요. 배를 같이 탈리구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산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청호동 사람들이 거기에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거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지요.

청호동 사람들이 이북에서 넘어온 제일 큰 이유는 공산당이 싫어서 나온 것이고, 둘째는 자유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요. 자유가 그리워서 나온 것이고, 자유스럽게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나온 거지요. 구속을 안받고 간섭을 안받고, 북한에서는 고기 잡아야 다 뺏기고 이리 저리 공산당의 간섭받고 지시받으니까. 여기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청호동은 부자가 많이 나왔는데, 바다도 산과 똑같아요. 바다 밑도 분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고기같은 것이 계곡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형을 잘 알았다가 거기라면 고기가 노다지로 있는거요. 거기에서 낚시로 큰 고기 잡아다가, 큰 배가 아니라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요. 고급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부자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고기잡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기 속초사람들도 몰랐고, 지형을 잘아니까 도미가 있다, 송어가 있다. 고기도 평지에는 잘 안 있거든요. 암초가 있고 이런 데 있으니까 고급고기를 낚시로 많이 잡았어요. 거기는 지형이 험하고 바위가 있으니까 그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낚시로 잡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가지고 나온 생선이 마리수는 몇 마리 안 되도 큰 고기고 비싼 고기가 많지요. 시장에 나와서 팔았지요.

부인들이 근면한 정도가 아니예요. 오징어도 절대 그냥 안팔아요.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오징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구는 전부 저축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여기 모였다가 고향가기 위해서 임시 정착한 곳이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이북에 가면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생각 않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학비를 조달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 교육열은 보통 교육열이 아니에요.

청호동 사람들은 목숨을 걸구 자식을 공부시킨 거니까요. 파도가 아무리 세도 그걸 해치고 나가 고기를 잡아서 자식들 공부를 시킨 거니까. 그건 정말 숭고한 정신이에요.

-제보자:김호옹(남.66), 1998.11.1, 속초문화원 전임 사무국장

【이야기9】

여기 온 것은 포항에서 왔지만, 1948년도 북에 명태 무역하러 홍남에 갔다가 거기에서 불잡혀서 못나오고 있다가 1.4후퇴때 피난민들과 같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제도, 진해를 거쳐서 포항갔다가 사업좀 하다가 그래서 속초로 올라왔어요. 정착한 지는 44년인가 되요.

당시에 청호동은 말입니다. 거의가 백사장이라서 여기 기존 건물이라는 거는 몇 동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일정때 정어리 공장에 있었고, 여기는 백사장 땅이었는데, 여기와서 누구든지 피난민들이 여기에 집결한 이유는 백사장에는 국유지니 임자가 나서지 않으니 피난민들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것이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와서 말뚝만 쳐놓고 “내가 먼저 맡은 거요” 하면 자기 소유물이 되었으니까요. 여기 정착한 것은 거의가 아바이촌으로서 이북에서 피난나온 사람들이 집결한 동기가 어디있나?

당시에 1.4후퇴할 적에 유엔군들이나 국군들이 하는 이야기가 “3개월이면 수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빨리 고향을 찾아 가고 싶은 생각에서 그 당시의 말대로 고향가는 길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앞당겨 있다가 북진할 것 같으면 고향에 가겠다는 심산에서 모였고, 둘째로는 피난민로서도 함경도 출신이 많아요. 많은 동기는 함경남도 사람들이 거의가 바닷가 출신들이 많고 바닷가 출신들이 많다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아는 데서 하기는 쉽지마는 모르는 데서는 하기가 힘들 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의 말로 배운 도둑질로 하는 게 쉬우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게 쉬우니까 바닷가에 정착함으로써 어업에 쉽게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호동에 체류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6.25동란때 피난 나온 것은 피난민들이 북에 살 적에, 즉 말하자면 북의 정치를 지지 안했다 할까. 전부 거기에서 북에서 말하는 반동이라 할까. 결국 그 정치를 받들지 않고 반동적인 눈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배겨날 수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피난나온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사상적으로 결국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월남했다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여기 대충 70%가 여기 피난민인데, 함경도 출신들이 청호동 이 지역에 현재 전체 가옥수가 한 1,120여호 가량되거든요. 그리구 함경도 출신들이 530호 가량 되지요. 그런 정도가 지금 여기 함경도 출신들이 체류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13도 전국 도민들이 고루고루 섞여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 청호초등학교 통계를 뽑아보니까 전국 어느 도의 사람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삼천리 강토의 도민들이 고루 집결해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집결한 사람들이 함경남도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 올라와서 정착했는데, 바닷가에 앉아서 어업에 종사하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지금 현재 청호동 노인대상자가 400명 넘어요. 노인정에 등록한 사람들이 220명 정도지요. 여기서도 결국 함경도 사람

들이 태반 제일 많지요. 합경도 할아버지들이 등록된 사람들 남녀간에 120여 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 동네가 아바이촌이라는 호칭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아래 거제나 부산에 피난나와 가지고 있다가 거의 이리로 올라온 것이 합경도 사람이 많고, 이 지역 사정으로 보면 노력만 하면 밥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사는데 아마 피난민중에서도 거의가 35년이상 40년이상 거주했다고 보지요. 그렇게 모두 올라와서 살지요.

저 아래 수문 그 부근에는 보면은 측면측면 따라서 이웃에 집을 지으라 그래서 전부 판자집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 터도 넓게 안잡고 조금조금 아래가지고 그야말로 터가 넓었으면 생활이 좋았을 때 주택개량도 할 수가 있었지만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살다가 요번에 수문 확장한다 그래서 거기서 한 120세대가 청초호 매몰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일부는 저쪽 아파트나 편리한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지요. 현재 그런 실정이지요.

거기 지금 청호동 수문이 난다는 것은 청초호 안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청초호 물을 순환시켜 맑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모양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로로도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데, 정화적 차원에서 하는 모양이요. 수문만 날 뿐이지 축항 가까이 집들도 그냥 존재하고, 역시 매몰지역에다 이주시기니까 청호동 관내에 존재하는 셈이지요. 처음에 청호동에 모래사장에다가 집이라고 제대로 짓고 살았겠어요. 엘에스티 수송배들이 많이 오고 아래 가지구 수송물품 풀고 거기 같이 물건싣고 목재들도 싣고 오면, 전부 당시에 배에서 바다에 흘려 보내고 그기 물으로 밀려오니까 천하게 말하면 돼지우리처럼 지어서 사는 거지요. 당시에 입장으로서는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임시 오막살이를 해놓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북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시간이 연장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사이에 노동이라도 해서 조금조금 푼 돈이라도 벌어 모은 것을 집을 개조한 것

이 오늘날의 이런 실정이고, 당시의 초기에 지은 집은 옳은 건물이라고 인정 받을 집은 없어요.

-제보자:황화수(남.75), 1998. 11.2. 청호동 노인회장

【이야기10】

고향은 함남 북청군 양하면이 내 고향이예요. 1.4후퇴때 넘어왔는데, 여기 나올 때 부모 형제를 다 두도 나오다 보니까, 그저 바람부는 대로 저 부산부터 동해지구로 포구로 오징어 낚구 그래서 생활하구, 달리는 생활방법이 없구. 스물아홉살 때 피난 나왔는데, 여기 나온 지 딱 사십팔년이오.

나보다 나이 조금 더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돌아갔어요. 지금 내 나이가 고향 실향민들 중에서 많은 편이요. 그저에 한 두 살 더하거나 덜한 사람들 거의가 다 죽었오. 48년이라 하니까 참. 나올 적에 처자식, 부모, 형제 다 두고 서리 나왔는데, 누이동생이 하나 나와서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는 주로 그저 오징어하구 저 명태하고, 주로 그걸 잡았지요. 난 여기 나와서 북에 있을 때부터 기선 저인망을 좀 탔어요. 처음에 나와 가지구 기선 저인망 지금 데구리 데구리, 하잖아요. 그때는 고기는 많이 났지만 고기 값이 없으니까 이제 바쁘고 그랬지요. 돈도 못 벌구. 그랬지요.

처음에 여기 나와가지구서리 저 강릉 사람만나 가지구 살림을 시작하는데, 집도 없지요. 그래서 남의 판자집 셋방살이를 했지요. 나룻배 거기서, 나룻배 바로 옆에서 살다가 일차 수로확장할 때 그때 철거를 당해서 저 해수욕장 거기 외지에 삼십평씩 준다고 할 때 거기에서 살 것 같지 않아서. 나룻배에서 조금 올라와서 남의 마당을 열네평 사가지고 그래가지구 조금 벌어 가지구 일곱평을 사서 스물한평에 여태껏 살아오다가 신수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또 철거되었어요. 그래가지구 칠십평 대지를 배당받아 가지구 집짓구 이사온지 가 한 사개월되요. 여기 와서 남의 셋방살이 한 것 내놓구 내 집을 사가지구

옮긴 것은 세 번째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기 저, 대개가 외톨이는 못산단 말이여. 서로가 인줄인 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다보니까, 고향사람도 있고, 주변에 흥원이라든가, 단천이라든가, 여기 실향민들이 주로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보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된 셈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환갑이 넘어서 배를 안탔어요. 한 사십년 이상 배를 탔지요. 지금 우리 아버지랑 어업할때하고 내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발전된 걸 보면 달라지구 어구도 달라지구, 기계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전부 육체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우리 북에서 살적에는 북풍을 하늬바람이라고 그리고, 동풍을 샛바람이라 그리고, 여기서는 서풍을 하늬바람이라 그리고, 북풍은 대개 원산골 시라고 하지요. 그기가 여기서 본다하게 된다면 북서풍이 되겠지요. 주로 샛바람이 무섭지요. 북동풍이지요. 내가 베타기 전에는 백사장에서 할아버지들이 호랑이 얘기 도깨비불, 귀신불을 많이 봤다는데, 정말 있느냐 없느냐 관심을 두고 봤는데, 전혀 못봤단 말이요.

서해 조기바리 선원으로 서해를 갔지요. 소흑산도 가개도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섬으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불이 뵈여요. 가도 가도 가까이 아니지고, 가면 섬 근방에 가깝게 가니까 바로 배가 정박하지 못할 아주 큰 바윗돌 밑이라 그러니까. 선장하는 사람이 배를 정박하려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정박못하고 있으니까, 허깨비불에 훌려서 위험한 데로 들어온다고 그러드라고. 내가 어려서 들으니까 도깨비불은 광채가 나지 않구 불이 붉다고 합니다.

내가 선장이 되어서 울산 방어진 끝에 간절끝이라고 있어요. 그 바위안에는 암초가 많아서 배가 멀리 돌아요. 멀리 갔는데, 그런데 안개가 자욱 끼었어요. 그래 초행길이라 그짝 항해는 초행이라 가는데, 앞이 기선이 안개가 긴데 기선이 나타나요. 밤이니까 불을 많이 켰단 말이요. 그런데 그 배가 우리

앞을 지나서 육지쪽으로 들어가요. 기선이 있는데, 그래 우리 조그만 선박들도 안으로는 항로가 아닌데 하물면 큰 기선이 암초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게 더욱이 안개가 자욱한 게 거참 이상하다. 그 배 가는 걸 눈여겨 보니까 빙돌아서 동해바다를 빠져나가드라구요. 그기가 지금도 수수께끼요. 그기가 기선배냐, 저기 어째 배가 항로길이 아닌데 큰 선박이 동해로 나가나.

그러구 헛깨비불이라는 건 못보다가 한 번은 꽁치잡이를 하는데, 선장이 피로하다 그래서 교대를 해주려 들어갔는데, 서풍이 어찌 심하게 부는지 물이 막 날리고 파도가 막 꺾어서 나는 선장 키를 잡는데 파도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 보니까, 앞에 드문 드문 시퍼런 불이 보였다 없어졌다 그래요. 죽변 앞바다인데, 바다에는 헛깨비불이 있구, 귀신불이 있다는데, 귀신불이 아닌가 했는데, 찬찬히 보니까 해풍이나 고기같은 것이 시퍼런 불을 내요. 반딧불처럼. 대부분 날이 흐릴 때 귀신불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걸 보고 그랬구나 했지요.

그런데 이북에서 일정때 살아보고, 해방되고 인공때 살아보고, 여기 나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사람이 자유라는 게 사람사는데 잘 살고 못살고 잘먹고 못먹고 보다도 자유리는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사는 게 주로 함경도 지방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북식으로 그대로 살지요.

-제보자:박수길(남.77), 1998. 11.1, 청호동 노인회관

2) 어업민요

속초의 어업민요는 주로 노동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청호동을 비롯하여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등에서 전승된다. 청호동의 김형준(작고)씨와 장사동 모래기의 김봉준(65), 동명동 신재덕(81)씨가 잘 부른다. 어업민요는 뱃소리라고도 하는데 청호동의 경우 합경도 이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 많은 실정이고, 일제때부터 일본말로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잔재되어 있다.

예전에는 노젓는 배가 대부분으로 조업시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힘들게 고기를 잡을 때 박자와 홍을 맞추고 돋궈주는 소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고생스런 바닷일을 하는데는 소리꾼의 소리가 씩씩해야 일할 맛이 난다고 한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는 '허리도리'라 하는데, 힘이 센 앞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어부들이 후렴을 제창하는 형식이다.

청호동 어업민요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며 부르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텔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배끼소리」, 고기를 폐 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가 있으며,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채래식 이동 기구인 든대로 일을 하면서 부른 「든대질소리」도 전한다. 이것은 「배내리는소리」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배를 띄울 때를 「설망」이라 한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을 넣기 때문이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폐 담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며,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를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 제창의 형식이다.

【어업요1】 지어소리

헹-혜 헹-혜/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팔청춘 그립도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간다더니 왜왔던가/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울고가더니 왜왔더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을/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발편 잠이나 자구 가거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가지 만사를 생각하면/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오동추야 달밝은데/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님의 생각이 절루 만난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요차보자 지어라 내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가자가자 빨리가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수건너 배로가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배로함께 어서가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조그마한 자라 등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크다하는 저 달을 싣고/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우리 고향 언제가나/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이화같은 밝은 밤은/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저 달보고 울지를 마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사십리 해당화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잎이 피고 꽃이 핀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님아 님아 정든 님아/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요내 가슴을 만지어 보아라/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청천 하늘에 별두나 많다/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어업요2】 다리어소리

다리어라 내자/다리어라 내자 (후렴)
다리어라 내자꾸나/다리어라 내자
니가 내가 어찌하든/다리어라 내자
힘을 쓰고 용을 써라/다리어라 내자
동지설달 기나긴밤/다리어라 내자
누웠으니 잠이 오나/다리어라 내자
앉아 있은 들 님이 오나/다리어라 내자
잠도 님도 아니온다/다리어라 내자
배가 고파 받은 밥은/다리어라 내자
돌도 많고 니도 많다/다리어라 내자
어느 시절에 님을 만나/다리어라 내자
돌가리고 나가리나/다리어라 내자
동지설달 설한풍에/다리어라 내자
손발시려 내 못살겠네/다리어라 내자
원수로다 원수로다/다리어라 내자

악마금전이 원수로다/다리어라 내자
이내 팔자 기박하여/다리어라 내자
이 모양이 되었구나/다리어라 내자
동해동산 듣는 해는/다리어라 내자
저 산으로 일몰하고/다리어라 내자
우리 할 일 늦어가네/다리어라 내자
꽃같은 고운 님을/다리어라 내자
열매같이 맺어놓고/다리어라 내자
가지가지 뻗은 정은/다리어라 내자
뿌리같이 깊었구나/다리어라 내자
적설이 자진토록/다리어라 내자
춘소식을 몰랐더니/다리어라 내자
귀용덕이 천봉난이/다리어라 내자
와유생심에 수동요라/다리어라 내자
추야장밤도 길다마는/다리어라 내자
나만 혼자 밤이 긴가/다리어라 내자
어느 시절에 님을 만나/다리어라 내자
긴 밤을 짧게 셀까/다리어라 내자
구구청병 일인호야/다리어라 내자
부산이 둉실 높이떴다/다리어라 내자
양국에 잣은 안개/다리어라 내자
월봉으로 돌아든다/다리어라 내자
오월이라 단오날/다리어라 내자
양류속에 그네매고/다리어라 내자
그네뛰는 요 처녀야/다리어라 내자

한 번 굴러 앞줄 높아/다리어라 내자
두 번 굴러 뒷줄높아/다리어라 내자
삼사번 굴러대니/다리어라 내자
녹수청산 자진토다/다리어라 내자
말없는 청산이요/다리어라 내자
태가 없는 유수로다/다리어라 내자
값없는 청풍이요/다리어라 내자
임자없는 이몸이라/다리어라 내자
일락서산 해는 지고/다리어라 내자
월출동산 달이 떴네/다리어라 내자
간다 간다 나는 간다/다리어라 내자
임을 두고 나는 가네/다리어라 내자
내가 가면 아주 가나/다리어라 내자
아주 간다고 잊을쏘나/다리어라 내자
가실 적에 오마하더니/다리어라 내자
가고나니 그만이구나/다리어라 내자
우리부모 날 양할제/다리어라 내자
젖은 자리 마른 자리/다리어라 내자
이리 저리 가려눕혀/다리어라 내자
이런 고생 시킬려고/다리어라 내자
세 살 적에 중이나 쳤으면/다리어라 내자
이런 고상 없을텐데/다리어라 내자
금강산이 좋을시고/다리어라 내자
동해끼고 솟은 산이/다리어라 내자
일만 이천 봉우리를/다리어라 내자

구름같이 몰렸으나/다리어라 내자
천하명산 그 어디냐/다리어라 내자
장안사를 구경하고/다리어라 내자
만경대를 올라가니/다리어라 내자
마의태자 어디갔나/다리어라 내자
보고 보고 암만봐도/다리어라 내자
보배인들 배이어라/다리어라 내자
저기가는 저 놈봐라/다리어라 내자
나를 보면 손을 친다/다리어라 내자
손을 친데 밤에 가고/다리어라 내자
동네 술집은 낮에 가자/다리어라 내자
잘도 하네 잘도 하네/다리어라 내자
앞발을 벼티고 뒤로 자빠져/다리어라 내자
눕지 말고 부쩍부쩍 당겨주네/다리어라 내자

【어업요3】 베끼소리

베끼어라 보자 베끼어라 보자
해는 지고 저문 날에/베끼어라 보자
고빼없는 소를 놓고/베끼어라 보자
그 소 찾기 망경이다/베끼어라 보자
손 흔드는데는 밤에 가구/베끼어라 보자
동리 술집은 낮에 가구/베끼어라 보자
첫날 밤에 색시벗기듯/베끼어라 보자
이리저리 베끼어보자/베끼어라 보자

나는 좋네 나는 좋네/베끼어라 보자
처녀총사이 나는 좋네/베끼어라 보자
귀밑머리 치켜들고/베끼어라 보자
입맞추기 나는 좋네/베끼어라 보자
어이끼고 내자/베끼어라 보자
잘걸렸네 못걸렸네/베끼어라 보자
명주바지 잘 살걸리듯/베끼어라 보자
대추나무 연줄거리듯/베끼어라 보자
연못안 연당안에/베끼어라 보자
연밥따는 요 처녀야/베끼어라 보자
연밥은 내 따줄게/베끼어라 보자
내 품안에 잠들거라/베끼어라 보자
잠들기는 어렵지 않소/베끼어라 보자
연밥따기 늦어간다/베끼어라 보자
얻어먹다 빌어먹다/베끼어라 보자
집이란 걸 지어노니/베끼어라 보자
아들을 나면 효자나고/베끼어라 보자
딸이 나면 열녀나고/베끼어라 보자
소가 나면 특소나고/베끼어라 보자
닭이 나면 봉황나고/베끼어라 보자
개가 나면 삽살개고/베끼어라 보자
말이 나면 용마로다/베끼어라 보자
자지향이 황금출이요/베끼어라 보자
개문향이 만복래라/베끼어라 보자
동지섣달 긴긴밤에/베끼어라 보자

닭개는 잠자는데/베끼어라 보자
우리 팔자 무슨 팔자/베끼어라 보자
이런 고생을 하느냐/베끼어라 보자
이 놈을 쥐면 저 놈이 나오고/베끼어라 보자
저 놈을 쥐면 이 놈이 나온다/베끼어라 보자
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베끼어라 보자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에/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깐다/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 바람은/베끼어라 보자
손발이 시려서 못살겠네/베끼어라 보자
푸른푸른 봄배추는/베끼어라 보자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베끼어라 보자
옥에 갇힌 춘향이는/베끼어라 보자
이도령만 기다린다/베끼어라 보자

【어업요4】 산대소리

에라소 가래로구/에라소 가래로구나 펴실어보자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에라소 가래로구나
지멋에 젖어 축늘어졌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요/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 산대는 망주님 산대요/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에라소 가래로구나

이 산대 저 산대 다걸어 실었네/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뱃짐이 들었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몰이 한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에 들어서니/에라소 가래로구나
죽서루나 구경가서/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하면 죽서루여/에라소 가래로구나
삼척바다를 떠나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 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에라소 가래로구나
강릉 앞바다를 떠나가 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에라소 가래로구나
양양바다를 떠나가 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에라소 가래로구나
청간정을 지나고 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에 들어가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에라소 가래로구나
금강산이 좋을시고/에라소 가래로구나
동해끼고 솟은 산이/에라소 가래로구나
구름같이 보이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천하명산이 그 아니냐/에라소 가래로구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바다가 보이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리 저리 땅기다 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서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아가 동자야 술부어라/에라소 가래로구나
매일 장춘 먹고나 놀자/에라소 가래로구나
아니 먹고 아니쓰면/에라소 가래로구나
왕장군이 고잘래야/에라소 가래로구나
춘추시절은 적망인데/에라소 가래로구나
개고충은 넋을 잃었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에라소 가래로구나
인간청춘 늙어간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산도 설고 물도 설은데/에라소 가래로구나
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에라소 가래로구나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에라소 가래로구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에라소 가래로구나
살림 큰애기 안고 노는데/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런 고상을 하는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부자리 좋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왕구성 풍세 샛별 요강이/에라소 가래로구나
사람 간장 다 녹인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산수갑산 딱다구리는/에라소 가래로구나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저 멍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구나
뚫린 저 구멍도 못뚫는다/에라소 가래로구나

세상만사는 무과주요/에라소 가래로구나
술이나 먹구 놀아보자/에라소 가래로구나
이 산대 저 산대 거두시더니/에라소 가래로구나
우리 배가 만선이 되어/에라소 가래로구나
사공님은 배를 몰아/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항에 입항하여/에라소 가래로구나
이왕 지나왔던 곳에/에라소 가래로구나
원산시내나 구경가자/에라소 가래로구나
이 골목 저 골목 당기다 보니/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나리로구나/에라소 가래로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에라소 가래로구나
꽃이 진다고 서러워마라/에라소 가래로구나
내년 춘삼월에 다시 만나자 /에라소 가래로구나

【어업요5】 든대소리

자~ 자 자~ 자
우리 배를 내려다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 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 다 얼었구나
들어보세 들어보세
우리 배를 들어보세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로다

개고충이 넋을 잃었다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인간청춘 다 늙어간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림 큰애기 안고 노는데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이런 고상하는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보배 건지러 어서가자

-제보자:김형준(남.74), 1987.5.27, 1995.4.27, 청호동4통1반

3) 지명유래

- 갯배나루: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으로 5구 도선장이라고도 함.
- 당국호 마을: 박춘복씨의 배 이름이 당국호였으므로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당구코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청호동 5구 15반 지역임.
- 미리내마을: 원풍조선소 뒷편의 새로 조성된 마을, 청호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모하여 당선된 지명.
- 신포마을: 함경남도 신포읍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라는 뜻
- 아바이마을: 함경남도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청호동의 별칭.
- 오구 도선장: 속초읍이 되면서 속초리 5구에 있던 갯배나루
- 앤꼬치마을: 짹꼬치의 안쪽 마을이라는 뜻
- 짹꼬치마을: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의 지명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월남하여 청호동에 모여 있으므로 불려진 명칭
- 조도(鳥島): 새섬, 용초도라고도 함.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 5.16 군사혁명 직후 이용(李龍) 씨가 강원도지사로 재직시에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함. 현재 정자는 없고 등대가 서 있음.
- 청초호: 일명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함. 둘레 5km의 호수로 술단지처럼 생겼다. 어귀쪽은 동해 바다에 잇대어 있어 조선조 때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킨 일도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서 조선 영조때 지은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에 이곳을 관동팔경의 하나로 들었다. 이곳에 한 겨울에는 얼음이 마치 갈아 놓은 논두렁처럼 되는데, 이것을 가르켜 용갈이 또는 용경(龍耕)이라 하며, 얼음의 형태를 보아서 그 다음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고 함.

- 청초정(青草亭): 청초호 숫가에 있던 정자로 현재는 없는, 1926년 도천 면 『면세일반』에 소야팔경 기원설명에 청초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외에는 침산정(浸山亭)이 청초호 동쪽 해안에 있었다고 한다. 도암 이재(李緯, 1680~1746)와 양양출신 전참의 이휘진이 건립했다고 한다. 정자명을 침산정이라 한 이유는 이곳에서 청초호를 보면 설악의 봉우리들이 청초호에 잠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현산지(峴山誌)」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비선대(飛仙臺)가 쌍성호 동쪽에 있었다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데 현재 그 대의 자취는 남아 있지 않다. 청초호에 이러한 옛 정자를 복원하고 호수를 청정하게 하여 관동팔경의 옛 명성을 회복하면 청호동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해골동네: 청호동 1통지역으로 해수욕장옆의 마을. 이곳에 묘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홍원마을: 함경남도 북청군 홍원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서 불려진 이름.

IV. 청호동 언어의 특질

1. 머리말

속초시 청호동은 남북 분단으로 생긴 언어섬(language island)이라는 점에서 국어 방언의 특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6.25 동란 전에는 북한 지역이었다가 동란으로 인하여 남한이 된 강원도 38선 이북 지역은 실향의 고통을 가장 아프게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속초시 청호동 주민의 구성은 대부분이 함경도 월남(越南)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북청군 신포읍 지역민이 많다. 그래서 청호동을 신포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속초시 청호동 주민의 언어를 국어 방언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되, 함경도 북청 방언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북청에서 월남한 세대를 중심 대상으로 한 언어 조사를 토대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1950년을 기준으로 한 행정 구역에서, 북청군(北青郡)은 함경남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풍산군(豐山郡), 동쪽으로는 이원군(利原郡) 단천군(端川郡), 그리고 서쪽으로는 홍원군(洪原郡)과 신흥군(新興郡)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해(東海)에 접해 있다. 이와 같은 북청 지역에서 월남한 실향민들이 속초시 청호동에 집단 거주하면서, 옛고향의 민속과 생활습관, 그리고 언어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월남한 제1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청호동 개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조사되어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속초시 청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민들의 언어는 대개 월남 이전의 고향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유리된 생활로 인하여 많건 적건 간에 옛 고향의 언어와는 변개되었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면서, 그동안의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속초시 청호동에 거주하는 실향민의 언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속초 방언의 위상

속초(束草)는 조선 시대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도시이다. 그러다가 청초호(靑草湖)가 개발되면서 1937년에 속초면, 1942년에 속초읍, 1963년에 속초시로 계속 발전하였다.

강원도에 속해 있는 속초의 언어는 흔히 중부 방언으로 모호하게 분류되었으나, 이익섭(1981)에 이르러 강원도 방언을 영서(嶺西)와 영동(嶺東)으로 이분하는 방언권 설정에 따라 영동의 북부 방언권으로 속하게 되었다. 한편 김영황(1982), 황대화(1986) 등의 연구에 힘입어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상-강원-함경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방언의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특히 동해안 방언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강원도 영동 방언은 경북과 함경을 잇는 전이지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승녕(1967)이나 김병제(1988)에서와 같은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대방언 구획

- 가. 동북 방언 지역: 함경도 지역
- 나. 서북 방언 지역: 평안도 및 황해도 지역
- 다. 중부 방언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
- 라. 동남 방언 지역: 경상도 지역
- 마. 서남 방언 지역: 전라도 지역
- 바. 제주 방언: 제주도 지역

이러한 대방언권에 의하면 강원도에 속하는 속초는 중부 방언권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동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 및 동남 방언권과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음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드러난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속초 방언의 위상은 중부 방언의 성격과 동해안 방언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전이지역(複合轉移地域)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영동 방언권인 속초의 언어는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방언의 삼각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동 방언의 특성은 영동 방언만의 독특한 체계로서 기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속성 자체가 주변의 다른 방언과 항상 공통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적 성격으로 인하여 영동권인 속초 방언의 위상이 흡사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방언 연구의 충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동 방언권에 속하는 속초 방언은 같은 방언권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현식 1991).

(2) 속초 방언의 특징: 강릉 및 삼척 방언과 비교하여

- 가. 'ㅂ, ㅅ' 보존형이 우세하다.
- 나.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하다.
- 다. '-나?' 보다 '-니?' 가 우세하다.
- 라. '-니다. -니까?' 가 '-네다. -네까?'에 가깝게 발음된다.
- 마.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초의 북부 지역인 함경도 방언의 영향과 함께 한계령 및 진부령을 통한 영서 방언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이러한 속초 방언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될 것이다.

3. 청호동의 언어 특징

속초시 청호동 주민은 함경도 주민이 주류를 이루고 약간의 평안도 주민이 혼재해 있으며, 함경도 가운데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청호동의 언어는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방언이 섞여 있는 착잡성(錯雜性)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북청군 주민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실향민 언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청군 출신의 월남민을 주 제보자로 한 방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청호동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청호동 방언의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¹¹⁾

11) 방언 조사는 주로 강릉대 대학원생인 최승기(26,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강릉 출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글은 조사자가 제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자료와 기타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언 조사를 직접 담당한 최승기(崔乘起)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 청호동 방언 제보자

〈성명〉〈성별〉〈나이〉				〈원적 및 현주소〉
김성길	남	73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 속초시 청호동	
여석창	남	72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최옥순	여	68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 속초시 청호동	
이주선	남	76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 속초시 청호동	

3.1. 음운 체계

3.1.1. 자음 체계(子音體系)

자음 목록(子音目錄)은 중부 방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자음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9 자음 목록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ㅂ[p]	ㄷ[t]	ㅈ[c]	ㅋ[k]	
ㅍ[ph]	ㅌ[th]	ㅊ[ch]	ㅋ[kh]	
ㅃ[پ']	ㄸ[ㅌ']	ㅉ[ຈ']	ㄲ[ک']	
	ㅅ[s]			ㅎ[h]
	ㅆ[ㅅ']			
ㅁ[m]	ㄴ[n]		ㅇ[ŋ]	
ㄹ[l]				

3.1.2. 모음 체계(母音體系)

모음 목록(母音目錄)도 자음 목록과 마찬가지로 중부 방언에 기반을 둔 표

준어 10 단모음 체계와 차이가 없다. 표준어의 10 단모음 체계는 /i ü ɤ u e ɔə a/으로, 청호동 언어의 모음 체계도 역시 이와 같다.

(2) 모음 목록: 10 단모음 체계

이/i/ 위/ü/ 으/ɤ/ 우/u/
에/e/ 외/ö/ 어/θ/ 오/o/
애/æ/ 아/a/

청호동의 모음 체계는 (2)와 같이 귀납된다. '에'와 '애'의 변별성이나, '외, 위'의 단모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어휘에 대한 방언 조사를 통해서 10 모음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단모음 체계의 설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어휘

가. 위(ü)

뉘비[nübi]

휘다(hüda)

쉬다(süda)

취하다[chühada]

나. 외(ö)

외[ö]

괴기[kögi]

퇴끼[thök'i]

쇠경[sögjəŋ]

쇠추네[söchunö]

다. 애[e]

개[ke]

메[me]
베[pe]
세[se]
라. 애[æ]
개[æ]
매[mæ]
배[pæ]
새[sæ]

3.1.3. 성조 체계(聲調體系)

동해안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저(高低)에 의한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북청어가 중심인 청호동의 언어도 여전히 성조(聲調, tone)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¹²⁾ 동남 방언과 마찬가지로 동북 방언은 성조소(聲調素)로서 고조(高調)와 저조(低調)의 변별적인 두 성조소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조에 의한 변별 기능을 동남 방언인 경북 방언과 비교한 어휘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³⁾

(4) <어휘>	<동남방언>	<동북방언>
말(馬)이	고-저	저-고
말(斗)이	고-고	고-저
말(語)이	저고-고	고-저, 저고-저

12) 청호동 언어의 성조에 대한 기술은 성조를 밝힐 수 있는 방언 자료의 제약이 많은 탓으로 인하여 자세히 규명하기 어렵다.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준의 연구는 리극로(1963), S. R. Ramsey(1974), 전학석(1993), 최명옥(1998) 등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13) 해당 어휘 성조형은 최명옥(1998: 475~478)을 참조하였다.

꽃(花)이	고-저	저-고
집(家)이	고-저	저-고
물(水)이	고-고	고-저
달(月)이	고-고	고-저
거미(蜘蛛)가	고-저-저	저-고-저
다리(脚)가	저-고-저	고-저-저
구름(雲)이	고-고-저	고-저-저
까마귀(鳥)가	저-고-저-저	저-고-고-저
며느리(婦)가	고-저-저-저	저-고-저-저
무지개(虹)가	고-고-저-저	고-저-저-저
사다리(梯)가	저-저-고-저	저-고-고-저

그러나 이러한 성조형은 청호동 언어와 비교했을 때, 동북 방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성조의 변별 기능이 약하여 동북 방언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나 개인에 따른 언어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호동의 언어에 성조가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좀더 면밀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음운 현상¹⁴⁾

3.2.1. 비모음화(鼻母音化)

청호동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는 비모음

14) 음운 현상의 분류에는 공시적 현상, 통시적 현상, 순수 음운 현상, 형태 음운 현상 등의 제반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어휘 중심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화(鼻母音化)이다. 비모음화는 비음인 ‘ㄴ[n], ㅇ[ŋ]’이 주로 ‘이’ 모음 앞에서 앞 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탈락하는 현상이다. 우선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⁵⁾

(1) 비모음화의 용례

가. ‘ㄴ’의 경우

한번이지 → 한버~:이지

많이 → 마~:이

신북청면이라고 → 신북청면~:이라고

함경선이거던 → 함경서~:이거던

가마니 → 가마~:이

노존이라는 → 노조~:이라는

아닌 → 아~:이, 아니구 → 아~:이구, 아니지 → 아~:이지

농군이라 → 농구~:이라

나. ‘ㅇ’의 경우

큰 강이 → 큰 가~:이

신북청이 → 신북처~:이

고랑이라도 → 고라~:이라도

이랑이 → 이라~:이

이백 평이 → 이백 펴~:이

이백 평을 → 이백 펴~:으

질병이라구 → 지벼~:이라구

15) 비모음화(鼻母音化) 표시는 비모음이 되는 모음 뒤에 ‘~’를 표기한다. 용례는 부록으로 싣는 대화 내용에서 어절 단위로 보인 것이다.

우이정이다 → 우이저～:이다

구멍이 → 구며～:이

알맹이르 → 알매～:이르

고양이 → 고야～:이

방아 → 바～:

이와 같은 비모음화는 앞 모음이 비음화와 더불어 장음화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적 장음화(補償的 長音化, compensatory lengthening)라 할 수 있다. 음운 현상으로서의 비모음화는 모음에 대한 비음화와 비음의 탈락이라는 두 규칙의 순서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다음처럼 규칙화 할 수 있다.

(2) 비모음화 규칙

가. 모음의 비음화 규칙

[+음절성] → [+비음성] / [+비음성, -양순성] _____ [+음절성]¹⁶⁾

나. 비음 탈락 규칙

[+비음성, -양순성] → / [+음절성, +비음성] _____

비모음화를 유발시키는 비음에는 양순 비음(兩脣鼻音)인 'ㅁ'이 포함되지 않는다. 양순 비음이 비모음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조음체인 혀가 양순 비음에는 작용하지 않은 까닭이라 하겠다. 이것은 모음의 주요 조음체인 혀

16) 해당하는 모음은 거의 격조사인 '이' 모음이지만 'o' 탈락의 경우에 약간의 예외도 있으므로 [+음절성]으로 처리하여 둔다.

가 ‘ㄴ,ㅁ’의 조음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모음화는 모음의 비음화와 비음 탈락이라는 일련의 작용을 통하여 노력 경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양순 비음인 ‘ㅁ’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비모음의 장음성(長音性)은 잉여적(剩餘的)인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화하지는 않았다.

3.2.2.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치경음(齒莖音)이나 경구개음(硬口蓋音) 아래에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전설모음화하는 것은 동북 방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호동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에서 전설모음화라 할 수 있는 용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전설모음화가 기대되는 어휘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동북 방언에 기반을 둔 청호동 언어는 전설모음화에 적극적인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용례 및 반례를 각각 들면 다음과 같다.

(3) 전설모음화의 용례

가. 수→시

부수어가지고 → 부시기가지고

수수땡기 → 시이땡기

숫돌 → 시뚜리

대목수 → 대목시

국수 → 국시

나. 일어나지 않는 경우

머스마

쓸개

업써쓸끼야
승구다(← 심다)
음슥(← 음식)
점슴(← 점심)

특히 반례에서 ‘음식’이 ‘음슥’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것은 전설 모음화에 대한 저항이 이 지역의 특징인 점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3. 움라우트(umlaut)

움라우트는 흔히 ‘이’ 움라우트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후설모음(後舌母音)이 뒤에 오는 ‘이’에 동화되어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하는 음운 현상이다. 움라우트는 동화주(同化主)와 피동화주(被同化主), 그리고 둘의 사이에 끼는 개재 자음(介在子音)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움라우트 현상을 규칙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움라우트 규칙¹⁷⁾

[+음절성, +후설성] → [+전설성] / _____ [+자음성, -설정성] [이]

그러나 청호동 언어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개재 자음에서 경구개음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의 규칙이 청호동 언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움라우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개재 자음이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인 경우는 움라우트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설정성(舌頂性)] 자질로서 처리한 것이다.

(5) 움라우트 용례

다니는 → 대니는, 땡기는
방망이 → 방땡이
두루마기 → 두루매기
보자기 → 보재기
토끼 → 퇴끼
포기 → 꾀기
고기 → 과기
누비 → 뉘비

3.2.4. 전설고모음화(前舌高母音化)

전설고모음화는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에, 어' 가 '이' 모음화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동남 방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청호동 언어에서 전설고모음화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지만, 규칙으로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용례만을 보이도록 하겠다.

(6) 전설고모음화의 용례

어울린 데 → 어울린 디
짓는 게지(짓는 것이지) → 짓는 기지
이바비란 게 → 이바비란 기
이계 → 이기
그런다고 → 그린다구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봄에 → 보미(보미 나가서 해치게 되면)
먹이고 → 미기구

그런다고 → 그린다구

이렇게 → 이리키

처녀 → 치에

상투 → 상티

3.2.5. 구개음화(口蓋音化)

청호동 언어에서 구개음화는 ‘ㄱ’ 구개음화가 많이 발견된다. 구개음화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개음화는 남부 및 동부 방언의 특징으로서 특히 서북 방언과 구별되고 있다.

(7) 구개음화의 용례

가까우니 → 가차우니

키 → 치

밭이 → 바치

길게 → 질게

길마 → 지르매(고어: 기르마/기루마)

만들어내는 → 맨지라내는

길어다가 → 지러다가

곁에 → (져테) → 저테

끼리 → 찌리

길다랗게 → 지다라케

발길질 → 발찌질

가시다(洗) → 자시다

기저귀 → 지제기

거드랑 → 저드랑

형 → (성) → 성

구개음화의 동화주는 구개 모음(口蓋母音)인 ‘이’ 모음이지만, ‘가까우니 → 가차우니’ 와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곁에 → (저테) → 저테’ 와 ‘형 → (성) → 성’에서 ‘저테, 성’은 방언형은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3.2.6. 음운 및 음절의 탈락

청호동 언어에서 음운 및 음절의 탈락은 다양한 종류가 발견된다. 종류별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음운 및 음절 탈락의 용례

가. 조사의 말음 탈락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참대를 → 참대르

옷을 자를 적에 → 오스짜르찌기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느

나. 형태소 내부

울타리 → 우타리

만약에 → 마야게

강냉이 → 강네, 강네

항아리 → 하리

평양 → 피양

방앗간 → 바~깐

겨울이 → 겨리

다. 합성어에서

돌찌귀 → 도쪼기

오늘나조 → 오나조

라. 기타

어떻게 → 어테

때문에 → 따메

이렇게하면 → 이케하면

있지 않은가 → 있쨍가

음운의 탈락에 해당하는 것은 대개 비음(鼻音)이나 유음(流音)으로서, 청호동 언어에 많이 일어나는 비음 탈락 현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아울러 뒤에서 살펴볼 개음절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발음 간소화라는 일반적인 원리에 의한 현상이므로 어느 방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정한 원리로써 규칙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조사의 말음 탈락은 단순한 음운 현상에 덧붙여 형태론적으로 해당 조사의 형태가 탈락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론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3.2.7. 음운의 첨가

음운의 첨가는 조사 '-(으)로'의 열결에서 'ㄹ'이 덧생기는 현상이 발견된다. 용례만 간단히 보인다.

(9) 'ㄹ' 첨가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따로 → 딸로

3.2.8. 단모음화(單母音化)

단모음화는 '여, 와, 워, 위'와 같은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특히 '명절 → 밍절'은 전설고모음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단모음화는 특정한 음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발음 편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언 음운 현상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단모음화의 용례

몇이 → 메치

관념이 → 간녀미

부엌이 → 벽이

부어서 → 버서

사과 → 사가

과일 → 가일

기저귀 → 지제기

명절 → 밍절

3.2.9. 개음절화(開音節化)

개음절화는 종성의 파열음이 불파음화(不破音化)하지 않고 파열시키는 발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불파음화 현상은 국어사적으로 중세 국어 시기를 전후하여 완성된 음운 현상이다. 청호동 언어의 개음절화는 이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몇몇 어휘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다만 형태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접미사 '-이'의 연결과 관련하여 개음절에 대한 지향성(志向性)이 다른 방언에 비교하여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접미사 '-이'를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개음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개음절화의 용례

짚 → 지프

노존 → 노조느

집은 → 지브는

떡, 떡이라 → 떠그, 떠기라

저녁 → 지너그

3.2.10. 용언의 활용에서

남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청호동의 언어는 ‘ㅂ’과 ‘ㅅ’을 어간 말음으로 하는 용언이 ‘오/우’로 약화되거나 또는 탈락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ㅂ’과 ‘ㅅ’을 어간 하는 용언의 활용

가. ‘ㅂ’ 어간 말음

덥다 ~ 더버

매다 ~ 매버

그립다 ~ 그리바

나. ‘ㅅ’ 어간 말음

긋다 ~ 그서라

짓다 ~ 지서라

잇다 ~ 이서라

3.3. 형태적 특징

3.3.1. 조사의 연결

조사의 연결에서 청호동의 언어는 음운의 탈락, 전설고모음화, 개음절화, 그리고 접미사 '-이' 등의 특징적인 방언 현상에 의하여 다음과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사의 형태적 특징이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1) 조사 연결에 나타나는 각종 형태

가. 주격 조사

북청읍이 → 북청으비가

집이 → 지비가

하나가 → 하내

모음이 → 모으미가

나. 목적격 조사

북청군수를 → 북청군수르

참대를 → 참데르

다. 부사격 조사

여러가지로 → 여러가질루

가을에 가서 → 가으리 가서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느

어업에 종사하지 → 어어비 종사하지

중국에 → 중구기

라. 보조사

북청군은 → 북청구느는

바깥은 → 바카트느는

돈은 → 도느는

밭은 → 바치는

농한기에는 → 농한기에느

주격 조사의 연결에서 '집이가' 와 같은 것은 '-이'를 접미사로 처리하게 되지만, '하네(하내)' 와 같은 경우는 '하나+이(주격)'로 분석된다. 목적격 조사는 'ㄹ'이 탈락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부사격 조사는 음운의 첨가와 전설고모음화에 의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보조사 '-는'의 연결은 좀더 주의를 요한다. '돈으는(도느는)'과 같은 경우는 '도느'를 개음절화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농한기애느' 와 같은 경우를 참조하면 'ㄴ'이 탈락한 보조사 '-느'에 다시 보조사 '-는'이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3.2. 어미의 연결

어미의 연결에서 방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미 '-고' 가 '-구'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어미 '-고'의 연결

그래가지고서 → 그래가지구서

잘 한다고 → 잘 한다구

3.3.3. 접미사 '-이'의 연결

청호동의 언어에서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 접미사 '-이'를 연결시킨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특히 동북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접미사 '-이'를 연결한 형태는 해당 어휘가 개음절화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개음절화와 일정한 맥락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접미사 '-이'의 연결 형태는 그대로 주어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주격 조사 '-가'를 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서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접미사 ‘-이’에 의한 형태

이밥 → 이바비

멍석 → 멍서기

노블(노을) → 노브리

내굴 → 내구리

반딧불 → 반디뿌리

밭 → 바치

바람 → 바라미

3.4. 방언 어휘

3.4.1. 방언 어휘의 특징

청호동 방언 어휘의 특징은 함경남도 북청 언어의 어휘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용례를 조사하였다. 청호동의 방언 어휘는 옛고향의 언어를 잘 유지한 까닭으로 고어(古語)의 형태나 특수한 형태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달(다리), 고굼(학질), 아시나조(초저녁), 열(쓸개), 우티(웃)’ 등의 고어 형이나, ‘댕거지(고추), 노쟁이(여자), 노존(자리), 멀기(파도), 배재(울타리), 통골(소경), 홀기(그네)’ 등의 어원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누비(누에, 누이), 노블(노을)’ 등은 이들 어휘의 어원적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들이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는 ‘그립다’가 ‘부족하여 아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나, 부엌 공간이 방과 함께 위치하는 북부 지역의 주거 특성상 ‘정지’가 ‘안방’의 의미로, ‘봉당’이 ‘부엌’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색다른 것이었다. 한편, 바람(風)을 뜻하는 고유 어휘인 ‘셋바람’이 ‘동풍(東風)’이 아닌

'북풍(北風)'을 뜻하고, '갈바람'이 '서풍(西風)'이 아닌 '남풍(南風)'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3.4.2. 방언 어휘의 용례

여기에 소개하는 청호동 방언 어휘는 부록(附錄)으로 실리는 방언 채록물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방언 어휘에는 해당하는 표준어나 간략한 뜻풀이를 하였으며, 고어(古語)와 관련이 있거나 어원적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¹⁸⁾

- 가달, 가다리: (사람의) 다리 ☞ '다리(足), 분파(分派)'를 뜻하는 고어 '가魯'과 관련이 있다.
- 가마치: 누릉지
- 가매: 가마
- 가매목, 가매모기: 부엌에서 가마솥을 거는 부근, 부뚜막
- 가세: 가위 ☞ 고어는 '고애'
- 가스미, 가스이미, 가스어머이: 장모 ☞ 고어 '갓'은 '여자, 아내'를 뜻하는 말이다.
- 가스애비: 장인
- 가오뽀: 가오리
- 간: 반찬 ☞ 고어는 '곤'으로 소금 성분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 간나, 갈라: 계집 아이 ☞ 어원적으로 '갓(女)+아이(兒)'에서 생긴 말이다.

18) 방언의 체록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출판한 방언조사 설문지의 항목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기초 어휘에 대한 조사를 우선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갈바람, 갈바라미: 남쪽에서 오는 바람 ☞ '갈바람'은 원래 서풍(西風)이다.
- 강네, 강네: 강냉이
- 개개: 개개 ☞ '개개'의 어원은 한자어 '가가(假家)'이다.
- 개자리: 가장자리
- 개지: 강아지 ☞ 축소 접미사 '-아지'에서 비음(鼻音) 'ㅇ'이 탈락한 형태이다.
- 개파리: 개구쟁이
- 개패쟁이(개패재~이): 장난꾸러기
- 거두메: 벼 타작
- 거름뱅이(거름배~이): 거지
- 검데기: 굴뚝 검댕이
- 게시케: 게젖 ☞ '게(蟹)+식해(食)'이다. 생선젖을 뜻하는 '식해(食)'는 쌀밥에 엿기름을 넣어 만든 '식해(食醯)'와 구분된다.
- 게우닥질: 구토(嘔吐)
- 고굼, 고구미: 학질, 말라리아 ☞ 고어로는 '고봄, 고곰'이 함께 쓰였다. '고봄'과 '고곰'은 같은 말이다. 음운 변화에서 'ㅂ'과 'ㄱ'은 흔히 넘나든다. '거봄(龜)'이 '거북'이 되고, '솜(裏)'이 '속'이 되었다.
- 고방: 광 ☞ 표준어 '광'은 '고방(庫房)'에서 음운 탈락과 축약에 의해 생긴 말이다.
- 고토밤, 고토바미: 도토리 ☞ '꼬투리'의 고어인 '고토리'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생각된다.
- 곰배: 아궁이에서 재를 퍼내는 기구, 고무래
- 꽉찌: 팽이
- 구먹띠리: 굴뚝 부근

- 구묵, 구무기: 굴뚝, 구멍☞ ‘구멍’의 고어로는 ‘구무, 굵’의 쌍형이 있었다.
- 구세: 굴뚝
- 구시: 외양간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소의 여물통, 구유☞ 표준어 ‘구유’의 고어로는 ‘구슈, 구식’이다.
- 구세: 구멍
- 국뚜기, 국띠기: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기구, 고무래, 부삽
- 굳, 구디: 곳☞ 표준어 ‘곳(處)’의 고어는 받침이 ‘ㄷ’인 ‘곧’이었다.
- 그: 그곳, 거기
- 그립다: 아쉽다(예: 소금이 그리우니까, 물이 그립거든)☞ 청호동 언어에서는 ‘그립다’가 거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아쉬워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까마치: 누룽지
- 까세다: 셋다, 가시다
- 꼬장바지: 속바지
- 내굴, 내구리: 연기☞ ‘내굴, 내구리’는 ‘니(煙氣)’에 접사가 붙은 말일 것이다.
- 노블, 노브리: 노을☞ 표준어 ‘노을’의 고어는 ‘노을, 노울, 노울’ 등이지만, 아마도 ‘노블’이 근원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노쟁이(노재~이): 여자
- 노존(노조느): 깔고 생활하는 자리의 일종
- 놀가지: 노루
- 누비/뉘비: 누이☞ ‘누이’의 고어는 ‘누워’ 이므로 방언형 ‘누비/뉘비’는 어원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 누비고치: 누에고치☞ ‘누에’의 어원은 ‘눕-(臥)+에’이다. 그러므로

'누비'는 '누베'에서 전설고모음화를 거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뉘비'는 다시 '누비'에서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라 하겠다.

- 누이: 누에 ☞ 청호동 언어에서는 '누비'와 '누이'가 함께 쓰인다.
- 놈, 누마: 사내 남자를 이르는 말 ☞ 중세어에서 '놈(者)'은 비칭(卑稱)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平稱)이었다.
- 니비띠: 허리띠
- 담배 꽁데기: 담배 꽁초
- 대창: 조그만 창문, 환기창
- 대통: 담뱃대(주로 긴 것)
- 맹거지: 고추 ☞ '고추'의 방언인 '당가지, 맹거지, 맹가지'는 대체로 북부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당가지'로서, 어원적으로는 '당(唐)+가지'로 분석된다. '고추'는 가짓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가지'의 어원은 한자어 '가자(茄子)'에 있고, '고추'의 어원 역시 한자어 '고초(苦草 또는 苦椒)'에 있다.
- 덤바치: 퇴비장 ☞ '덤'은 '두엄'의 준말일 것이며, '바치'는 '밭' 일 것이다.
- 도쪼기: 돌찌귀, 문지도리
- 두가달방: 두다리 방아
- 두렁상: 둥그렇게 생긴 밥상
- 등기: 담는 큰 그릇
- 뒤비/디비: 두부 ☞ '두부'에서 음운 변화한 말이다.
- 뒷고방: 뒷광
- 디우란: 뒷마당
- 따꼽챙이(따꼽재~이): 자기것을 매우 아끼는 사람

- 멀기: 파도, 물결, 멀미 ☞ '멀기'는 강원도와 함경도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 어휘이다. '멀기'는 '물결'이란 의미 외에 '멀미'의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멀미'와는 같은 어원이라 생각된다.
- 메떼기: 메뚜기
- 몽디, 몽치: 봉동이 ☞ '몽디'는 '봉동이' → '몽두이' → '몽뒤' → '몽디'로 변한 말이다.
- 무끼, 무꾸: 무 ☞ '무'의 고어는 '무수'이다.
- 무릅고도리: 허벅지나 무릎 부위의 뼈
- 무스그: 무슨
- 무쪼리: 담뱃대(주로 짧은 것), 담배 파이프
- 물뚱기: 물을 길어 담는 통
- 미꿍, 미꿍이, 미꿍기: 엉덩이
- 바다챈처리, 바다천처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
- 바당: 부엌
- 바당문: 부엌문
- 반찻상: 서당의 훈장에게 바치는 진지, 또는 잘 차린 상
- 발찌질: 발길질
- 방(바~): 방아
- 방칫돌: 다듬잇돌
- 배재: 울타리 ☞ 지역에 따라서는 '바자/바지(경북), 바재(중부 및 북부), 바주(평안, 황해)' 등의 관련 형태가 있다. 이러한 방언 어휘는 기본적으로 '바자'라는 형태가 기본적인 것이며, 다시 '바자'는 한자어 '과자(笆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 배차: 배추 ☞ '배추'의 어원은 한자어 '백채(白菜)'이다.
- 벨, 배리: 창자 ☞ '벨'은 표준어 '배알'의 준말이다. '배알'의 고어는

'비술 흉'이다. 어원적으로는 '비(腹) + 술 흉(肉)'으로 이해되고 있다.

- 벳꾸비: 배꼽
- 벼치: 넙적한 질그릇
- 베랑떼: 경사진 벼랑
- 봉당: 주방 봉당(封堂)의 원래 뜻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를 훑바닥 그대로 둔 곳'이다. 청호동 언어에서는 '정지'가 '안방'의 뜻으로 쓰이고, '봉당'이나 '벽'이 '부엌'의 뜻으로 쓰인다.
- 부시기: 거짓말
- 비치각질, 빼치각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말참견
- 빼다지, 빼배: 서랍
- 빼지: 다래기
- 사막때기: 사마귀
- 사치: 새끼(줄) 새끼(草索)의 고어는 '속' 이므로, 고어 형태를 원형에 가깝게 보여주는 방언형이다.
- 상티: 상투 상투 '상투'의 어원은 한자어 '상두(上頭)'이다.
- 새뜨개: 사팔뜨기
- 새복: 새벽 새벽 '새벽'의 고어는 '새박, 새배'이고, 어원은 '새(新, 東) + 밝(明)'으로 추정된다.
- 새비: 새우 새우 '새우(鯷)'의 고어는 '사방'이다.
- 새옹: 총각, 시동생 중세어에서 '샤옹'은 '남편(夫)'을 뜻했다.
- 샛바람, 셋바라미: 북쪽에서 오는 바람 샛바람은 원래 동풍(東風)이다.
- 생지: 행주 행주 '행주'의 고어는 '횡조'이다. '생지'는 '행주'에서 '行 → 行' 구개음화와 전설음화를 거쳐서 된 말이다.
- 서나: 결혼한 남자 선스나 '선스나'가 줄어서 된 말로 생각되며, '서나'의

어원은 중세어 '순(壯丁)'으로 추정된다.

- 서답: 빨랫감 ☞ '서답'의 어원은 '세답(洗踏)'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 선스나: 남자, 사내 ☞ '선스나'는 동북 및 서북 방언에 분포하므로 한국의 북부 방언이라 할 수 있다. '선'은 '순(壯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스나'는 '사나이'의 고어인 '싸히(男子)'로부터의 변화한 형태로 생각된다.
- 성: 형
- 셀, 서피: 껍질 ☞ '셀'은 '셀나무(薪)'를 뜻하는 '셀'에서 온 말이다.
- 세치: 작은 이면수
- 소래: 세솟대야 ☞ 중세어 '소라(盆)'는 둥글넓적하게 생긴 큰 그릇을 뜻하는 말이다.
- 소케: 목화, 솜, 속, 고갱이
- 소케기, 소궤기: 하얀 배추속
- 솔검부리: 마른 솔잎
- 쇠추네: 작은 미꾸라지
- 순대구영: 하수도
- 슷가매(수까매): 슷구멍, 정수리
- 쉐미: 수염
- 시애끼: 시누이나 시동생
- 시이, 시이때, 시이땡기: 수수, 수숫대
- 신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 '신다리'는 북부 방언이다.
- 써개: 서캐, 이의 알
- 셀: 혀바늘 ☞ '셀 쓸다(혓바늘이 돋다)'와 같은 관용구 형식으로 쓰인다.
- 아궁지: 아궁이

- 아마이: 할머니(혈육간에는 사용하지 않음)
- 아바이: 할아버지
- 아시나조: 초저녁 ☞ '아시나조'는 '아시(初)+나조(夕)'에 의한 합성어이다. '아시'는 '애시당초'의 '애시'와 같은 말이며, '나조'는 '저녁(夕)'을 뜻하는 말로서 중세어에서 빈번히 사용된 말이다.
- 아재비, 아지비: 숙부
- 아지미: 숙모
- 아지미: 형수, 숙모
- 안고방: 안광 ☞ '고방' 참조
- 어기며케다: 어이없다
- 얼기: 큰 빗
- 얼라: 어린애
- 얼례기: 얼룩
- 에미네: 여자, 부인들
- 여수땡이: 사탕수수
- 역사질하다: 노력하다
- 연무기: 서까래
- 열, 여리: 쓸개 ☞ '쓸개'를 뜻하는 '열, 여리'는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언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이다. '열'은 중세어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며, '웅담(熊膽)'을 '고미열'이라 하였다.
- 열래: 서까래
- 염치개, 엽치개: 주머니
- 엽차개: 주머니
- 옹다: 넣다 ☞ '넣다'의 고어는 '옹다'이다. 그러므로 '넣다'에서 초성의 'ㄴ'이 탈락하면 '옹다'가 되고, 초성의 '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

모음 '이[j]'를 탈락시키면 '넣다'가 된다. 이것은 두음법칙(頭音法則)에서 초성의 'ㄴ'이 '이' 모음 앞에 오기 어려운 음운적 상황을 방언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 예장간/애장간, 예장간이/애장간이: 대장간☞ '예장간/애장간'은 함경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이다.
- 오나조: 오늘 저녁, 오늘 밤☞ '오늘'의 고어는 '오'로서, 어원적 분석은 '온(今)+울(日)'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오나조'는 '온(今)+나조(夕)'에서 동음 생략에 의해 'ㄴ'이 탈락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가달방: 외다리 방아
- 외기호미: 호미의 일종
- 우떼, 우떼니: 뒷마당
- 우티: 옷☞ '우티'의 고어형은 '우틔'이다. 원래 '우틔'는 '치마'나 '아랫도리옷'을 뜻하는 말이었다. 청호동 방언에서는 일반적인 '옷'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 웅디: 웅덩이☞ '웅덩이'에서 둘째 음절의 비음 'o'이 탈락한 형태인 '웅더이'에서 '웅디'로 변화한 말이다.
- 유거리: 거지
- 이민수: 이면수
- 이밥/이바비, 이팝/이파비: 쌀밥☞ '이밥, 이팝'의 '이'는 고어에서 '니'로서, '니' 또는 '니발, 니쌀'은 '맵쌀'을 뜻하는 말이다.
- 이차: 이내, 곧
- 자랑, 자랑이(자라~이): 어른☞ 함경도에서만 사용된다. 이 밖에도 '자란이, 자랑기, 자란사람' 등의 형태도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되므로, 어원은 '자라(成長)+ㄴ(어미)+이(접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새, 연짜새: 물레질할 때, 실 감는 기구
- 자시다: 셋다, 가시다
- 자신물: 그릇 셋은 물
- 자신통: 그릇 셋는 통
- 작디: 작두
- 작시: 지게 바치는 것
- 장물: 국
- 점바치: 점쟁이
- 정약깐: 변소
- 정지: 안방
- 조가지: 조개
- 조앙깐: 찬장
- 조밥: 조밥
- 종가리: 종아리
- 주디: 주둥이 ↗ '주둥이 → 주두이 → 주디'의 변화 과정을 거친 말이다.
- 지렁(지러~): 간장 ↗ 전라도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관련된 형태로는 '지랑(경북, 충남), 지례(함북)' 등이 있다.
- 지렁보시기: 간장 종지
- 지자마기: 참빗
- 지제기: 기저귀
- 질구벵이: 절름발이
- 질금, 질그미: 콩나물
- 짐치: 김치 ↗ '김치'의 가장 오래된 고어형은 '딤치'이며, 그 이후의 어형으로는 '짐치, 팀치'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짐치'는 '딤치'에서 'ㄷ' 구개음화를 거친 어형으로서, 결코 '김치'로부터 'ㄱ' 구개음화에

의해 변화한 말이 아니다. ‘김치’는 ‘침치’로부터 부정회귀(不正回歸)에 의해 생긴 어형이다. ‘김치’의 어원은 한자어 ‘침채(沈菜)’에 있다.

- **집나이**: 출가외인, 시집간 딸
- **철떡, 철떠그**: 찰떡, 인절미
- **첩시꾸비**: 접시의 일종
- **초리**: 꼬리 꼬리 ‘꼬리’의 고어는 ‘꼬리’로서 같은 의미로 쓰인 ‘초리’와는 별개의 말이다. ‘초리’는 표준어에도 ‘회초리, 눈초리’와 같은 말에 남아 있다.
- **초매, 치매**: 치마
- **초매띵이**: 부인, 시집간 여자
- **치매띠**: 여자(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 **치애**: 처녀
- **칠시깐**: 변소
- **크애비**: 큰아버지
- **큰애비**: 큰아버지
- **큰이미, 큰어머이**: 큰어머니
- **턱써기**: 명석의 일종
- **토새**: 지신을 모시는 것
- **통골, 통고리**: 소경, 장님 쇠경 ‘쇠경’이란 말과 함께 쓰인다.
- **하니바람, 하니바라미**: 하늬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
- **하리**: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에서 비음 ‘o’ 이 탈락한 형태이다.
- **할개**: 기지개
- **해자바리**: 해바라기
- **현거트**: 형겼 현거트 ‘형겼’의 고어는 ‘현것’이었으므로 제2 음절의 받침은 오히려 청호동 방언이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헤챙이(헤체~이): 언챙이
- 호부래비: 남자
- 호부리미: 여자
- 홀기: 그네 ☞ 함북 지역에서는 ‘굴기’라는 형태로 쓰이므로 ‘홀기’는 ‘굴기’와 관련 있는 형태이며, ‘굴기’는 고어 ‘글위’와 관련되므로, ‘홀기’의 ‘홀’은 ‘굴’에서 마찰음화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라도에는 어미라 할 수 있는 ‘-ㄴ’의 연결 여부에 의해 분화하고, 구개음화의 여부를 거쳐 각각 형성된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

4. 맷음말

속초시 청호동의 언어는 함경남도 방언(특히 북청 언어)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속초시 청호동 지역에서 함경남도 월남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나 언어에 동화되지 않고 고향의 민속과 언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호동 주민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면 강원도 속초 방언이나 표준어 어휘를 고향의 언어와 함께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속초시 청호동 주민들은 두 방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한 언어에 대한 복수의 방언을 기준으로 이중언어(二重言語)를 논의한다면,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모든 화자(話者)가 이중언어 사용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시 청호동 월남(越南) 주민들의 복수 방언 사용 실태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정도가 심한 복수 방언 사용자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호동 주민의 언어에서도 함경남도(특히 북청군)의 방언 특

징을 염두에 두고 청호동 언어를 기술하였다. 청호동의 언어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핀 바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동해안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북부 지역의 방언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가장 큰 언어적 특징은 성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구개음화의 현저한 진행 등, ‘ㅂ, ㅅ’ 불규칙 용언의 규칙활용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히 성조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모음체계에 있어서 ‘위, 외’의 단모음화와, ‘에, 애’의 변별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으나, 제보자 선정이나 관찰 태도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 사항은 본문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V. 청호동 방언 조사자료

(자료1)

- 바다까하고 농촌하고 어울린 디라고. 반농바너.
- 북청구느는 결구근 농토가 더 만치. 농사 진는 사라미 더 마나.
- 절반절반이라구.
- 벼농사 반농사. 주로 반농사는 조 다미 감자등가 수수등가 일따고.
- 계절별이라는 기 일녀니 한벼~:이지. 일녀니 한 번씩 농사 진는 기지. 이모작이라는 기 업 찌.
- 벼농사 왜 잘 뛰. 남대천이라는 큰 가~:이 일따마리야 남대처니 이씨. 그래 가지구서 농사가 잘텐다구. 엔마레 마리야 저기 북청군수가 마리여 윙? 북청군수가 나대 이바비 나대라고 이꺼든? 나대라는 디 윙? 동네 이름이라 마리여 나대 이바비. 이바비란 기 뱕미 쌀바비 란 마리여. 남대천 게, 남대천 도 게 난단 마리여. 그래 가지구 아니 민물게가, 민물게가 나 가지구 나대 이 바비 남대천 게저시 마시 들어 가지구서 북청군수로 안 떠난다 그래써. 그런 마리 이씨. 그러케 농사가 풍부하게 마~:이 나는 디라구.
- 북청에 일찌. 북청군 소재지란 마랴 북청으비. 북청으비가, 북청으비가 어떠케 뛰 인는가 하며는 이러케 뛰 일따고. 이기 철또가 시방 합경서~:이거 딘? 합경서니라고. 서울서부터 여거 원산 그다미 함홍 지내서 여기 쭈욱 드러 간다 마리여. 이 저: 회령까지 드러간다 마리여. 두만강 그까지 간단 마리여. 그런 철뜬데 여그서 신북청~:이란 디 이씨. 그거또 북청구~:이라구, 신북청 며~:이라고. 그런데 신북처~:이서 북청으로 아래 올라간다구. 이 산쪼그로, 산쪼그로 올라가 여기 북청군 소재지가 일따구. 요건 간서~:이라구, 외

선이라구. 그러치. 여기 신복처~:이서 갈라서 여그로 드러간다구. 여가 종쩌
미 뒤 가지구 여기서 니리오고 올라가고 한다구. 그리 뒤면 복처~:이 여기서
저 후치령, 후치령이라는 영이 일따고. 지도채게 보게 뒤면 합경산매기 일찌?
그기 영이 여기에. 여기 너머가게 뒤며는 갑쌍, 갑싼. 갑싸니 나오게 마리여.
크지, 그럼 상당이 크지. 적찌, 그럼 북청군 소쿠며~:이니까. 그러니까 북청
구~:이가 군소재지니까 마~:이 더 크지. 리가 십싸개 십쌈개든가 시비개든
가 그려케 뒤. 소쿠며~:이가 보자 창성리 간평리 그 담:빼니… 마~:이 이저
머거씨. 학청리 그 담:빼니 연주리 오매리 현금리 남호리 으호리 한 시비개
나마 월끼야.

- 뜨리 는쏘. 그럼 벼농사도 마~:이 진쏘.
- 벼농사 마~:이 절찌. 그리고 또 농한기애느 또 고기도 잡꾸. 바다 가차
우니 가까우니까.
- 그래 노 저 땅기는 배니까.
- 땅파는 사비일찌. 그걸 가래라 그래. 가래도 여러 가질루 일따고.
- 슬리프 끄러 피우는 거 각째.
- 철싸로 엔나래 참대로 대나무 쪼가리 내 가지구 부리다가 훠워서 여꺼
가지구 만든다 마리여. 대나무 일낀 일찌마는 만치 아나씨.
- 대장까느 이북말로 뭐라 그랬따? 예장가니 거서 연장 모두 만드는 거 카
리라든가 호미든가 나지든가 도끼든가. 예장간 훈: 뭐라 그래?
- 양쪼그로 뒤 인는 기라구 여기는 외길로 월찌? 이거는 양길로 꼬 이부그
느 이런 외기호미 업씨.
- 작시는 지게바치는 거 작시라 그래. 지게르 이레 노쿠서 그 아피다 지게
작때기 바치는 거 일찌. 그게 지게 작시라 그래. 지게는 지게라 그리고.
- 도리깨는 도리깨라 그린다구. 콩 마~:이 나지 반농사 마~:이 하거든?
그러니까 콩~:이 난다고. 두부도 마~:이 만들지.

- 방아 일찌. 바~:까니지. 디딜방아로 디디서 이런거 마~:이 한다 마리여. 방아 어찌케 뛰 인는가 하믄 아래 쭈욱 와 가지구 양쪼기 이리 일따 마리여. 나무때로 이케 하면 돌로 구멍판 기일따 마리야. 사라미 이거 부짬꾸 발로 디디구 그리 뛰면 올라간따 내리간따 하면서 찌어진다 마리여.

- 무을 뜨는거 드리바기. 마으리 우무리 일찌 적땅한 고세 한 구디나 두 구디 일따 마리야. 드리바그를 이러케 핸따구. 양철 부리 가지구 끄은 다라 가지구 아래 가지구 물 푸지.

- 망태기는 망태기라 그래.

- 지프 집:. 그건 지피라 그래 벼 입싸귀 거 지피라 그래. 거 지부~:이다 인다 마리여. 초가지비서는 그거 지붕~:이다 인다 마리여. 수수 때르 가지구서 우타리 배재르 만든다 마려. 우타리르 배재라 그린다고 거기 수수때는 길다 마리여 기려. 그거 여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타리르 만든다 마리여. 거기 말루 배재

- 새다리는 나무 가지구서 소나무지. 주로 소나무 만커든? 참은 일찌만.

- 치:. 싸르 마리야 껍떼기하고 딸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 치:. 조 가루를 내·부시기 가지고 조 이파리르 이꺼던? 도리깨로 쳐서 거 부시기 가지고 바람을로 날리든가 그러지 애느면 칠로 껍떼기르. 조. 수수, 지장 다 그런 기 만치 콩, 팬, 팬츠 패키라 그래

- 주로 거치라 한다구 쌀 연는 건 가마~:이. 턱썩기도 일따 마리여. 턱썩기라는 거또 지프 가지구서 싸를 말리 는느 명서글 턱썩기라 한다고. 똥그러 캐 만든다고. 질게 만드는 거또 일꼬.

- 건 나까리라 한다구.

- 노조니라는 기 머인가 하믄 자리라구. 대 껍떼기 가지구서 껍쭈리 가지구서 고 약끼해 가지구서 영는다구. 여꺼서 노조느 자리르 만든다 마리야. 아~:이야. 거는 여르미는, 여르미구 겨우리구 이런 장판 안한 지브는 자리다

깔구 거기서 자기도 하고 밥먹꼬 그런다 마리여 자리를 노존이라 한다 마리여. 멀로 만드란나 하믄 참대로 만들었다 마리여. 치:두 참댈루 만드는 견뚜 일꼬, 그리구 갈때로 만든 그런 거또 일찌. 멍서긴 턱썩기. 이 멍서기하구 노존하구 달라. 자리하고 달라. 이 노조~:이라는 거는 자리는 사라미 주거지에다 깔구 자구 거서 생활하는 그걸 노존이라 그래. 옌날 자리라 그래.

- 베로 짜는 견뚜인꾸 여서처럼 베트르 가지구 만들지. 삼 가지구 농사지비서 삼도 마~:이 만든다구. 삼농사르 마~:이 한다구. 보미 전부 거느 보미시면따가서리 가으리 가서 버히 가지고.

- 가마~:이 틀. 그러치 가마~:이 짠다구. 가마~:이 틀 일챙가? 가마~:이 짜는 거 그런 거 반는가? 이 참대 마리여 대에다가서리 먼저 새끼주르 새끼줄 까 가지구 요려케 야카게 까 가지구 먼저 주르 만든다 마리여? 그래 가지구서 이짜기서 여케둬고 지피 또 이짜그로 나온다 마리여. 그러면 탁니리 누르고 또 이짜기서 짠다구. 기 거치르 만드는 거라구. 무시르?

- 짐 실코 땡기는거. 소계빼

- 돈 좀 바꿔주게.

- 머~:이라는 건 우차. 소가 끌구 땡기는, 짐 실쿠 땡기는 달구지 일찌? 소 모기다 올려 논는 거. 양바끄루 만드러서 그래서 소가 꺽께 만든다구.

- 소죽 세:주글 미간다고. 거는 겨리, 겨레 푸리 업쓸 쪘게 지풀 써러 가지구서 거기다가 콩두 여ку 그래서 삼는다구. 살마서 그래 미간다구. 여르메는 맨 푸르. 아니 아니 소 구시라고 일따구. 소가 멍는 구시라구. 나무르 흠 파서 소그 파구 그래 가지구 거 아래 한다구. 오양깐에다가서 아래 거려논다 마려. 그래 뒤면 소가 오양깐에 드려와 가지구서 그만 먹찌.

- 마른 드무러 마른 그리 업따구. 마란장은 마란장이라 하지. 거 옌나레 짐 실코 땡기는 거 지르매 지르매 하긴 해. 그러치만 근 어떠케 웬는가 하며느 이러케 뚵그려케 생겨 가지구 말 등이다가 안쳐 가지구. 그리구 양짜그루 짐 시

러서 둘이 맨다 마리여. 끌쿠 대년서. 거는 우차 아~:이구 우차는 구르마. 쇠가 끌구 맹기지.

- 오디. 처미는 파라타가 그 다미 뺄개따가 그 다미 까매진다구. 거 오디라 그린다구. 뽕나무에 열리는 열매로 오디라 그린다구 마실씨.

- 모카느 소케. 소므 소케라 그래. 실 맨지러내는 건 물레라 그리구. 그 다미 그 짜는 건 틀로 짜지. 맨 처음 실 내 가지구서 짜거든. 기: 물레라구.

- 자세도 일따. 감는 기 기: 연짜세. 거느 이리키 이가기 뛰는 거뚜 일꾸. 육끼기 뛰는 거뚜 일꾸. 사가기 뛰는 거뚜 일따 마랴. 자기가 만들기르 간단 마리야.

- 고라:~이. 골시라도 하고 고라~:이라도 하고, 그기 이라~:이 고라~:이지. 한가지야.

- 더미. 비로르 더미라구. 푸르 쎄끼 가지구 푸르 쎄끼든지 그리자느면 푸리다가서 소또~:이나 그런거 머 여 가지구 푹 눓께 만든다구. 공기 안 드려 가게 잠재와 가지구 그려게 뛰면 기 한 열매쯤 얻께뒈면 싹커든? 싹는다 마리야. 거다 인분도 거다 처여코 그리케 뛰면 푸리 싹커든. 거 이지 보미 나가서 헤치게 뛰면 비로가 웬다 마리여. 퇴비낸다 마리여. 그럼 퇴비르 다 그리키 만드렁찌.

- 왕겨는 베뚱지. 베 껌떼기르 베뚱지라 그래. 나 더러 이저 머걷씨 몰라. 싸르 마리야 현미르 찌케 뛰며는 포도로그한 지가 나오게 뛰장가? 여는 게라 그리잔능가? 그는 지. 쌀 지. 거 주로 소도 미기구. 돼지도 미기구. 개도 미기구 그러거든.

- 거기는 마다~:이 너르단 마리야 그리니까 화장실 여피다가서리 그래 논다 마려 그리고 화장실 변두 항상 부민서 그리카지. 그러면 더미 웬다 마리여. 덤바치 거 농사찌비서나 그리지. 농사찝 아

~:인 지비서는 그리 아~:이 해. 우리두 반농사도 지꾸 논농사도 마

~:이 지찌. 일 뭐 나이 어리니까 일 마~:이 몽해찌. 부모드리 마~:이 해찌. 그때는 그저 학교 조립 맡고서 직짱 뭐 아무띠나 막 댕겨써.

- 누이치. 뽕. 누비고치. 뻔데기. 뻔데기르 머라 그리드라?

- 농사 마~:이 진는 지베 가보게 뛰면 마리여. 나끼리 여기는 나끼리라 안 그리지? 거기는 베나끼리라 또 일따구. 또 조:이 나끼리 곡씨그 떨 채는 곡씨, 가을만 해 가지구 와서 이파리르 안 편 곡씨기라구. 그거 마리야 다느 무꺼 가지구 차근차근 자인다구. 자이서 보미 나가서 사이 날 찌개 헤치 가지구 조:이는 이사그 짤라서 드드리구, 배는 또 베끼겔구 후꾸 그러깐다구. 농사 마~:이 진는 지베 가보게 뛰며느 그런 나끼리가 마리야, 여러 개 있는 지비 가 '아 저 지비 농사 마~:이 진는 부자찌비다' 알 쑤 이씨.

- 타작할 찌기 벼끼게 일찌. 나라그 띠는 기게 일찌? 벼끼게라 그래. 타자 그는 거두매라 한다고. 마당질, 거두매하고 마당질하고 한가지야.

- 하리가리가 천 이백 페~:이 하리가리거든? 농토르 하루가리 천 이백 페~:으 하리가리라 한다 마리여. 마야게 나한테 농토가 일따 마리여. 그리 뛰면 한 구디 일꼬, 또 한 구디 이꺼든? 그러면 이건 하리가리짜리다. 하리가리 모때는 고롱기다, 이틀가리짜리다 이런 기 이싸. 기기 하루가리라는 기 기기 천 이백 페~:으 하리가리라 한다구.

- 목쑤가 딸로 일찌. 목쑤는 기술잔데? 대패 또 나물 깡는 거 자구 일찌? 자기라 그런다구. 기기 서서 나무 채치든 길게 해 가지구서 나무르 깡는 그기 자구라구. 여기 시방 짜구, 조그만 손짜구 일찌? 그느 손짜기라 그리구, 큰 거는 큰자기라 그리구. 거 목쑤드리 하는 기야.

- 대목. 큰목. 대목쑤라 그리지. 대목씨라구.

- 시뚜리다 갈지. 여기서느 수또리라 그리지? 도리 일찌. 시뚜리 만드는 도리 이써요. 사네 가면 딸로 이써요. 그런 건 더러 구해 온다구. 여기처럼 저런 시뚜리 아~:이지. 엔나래는 그런 업씨딴 마리야. 목쑤드를 그런 시뚜리 일찌

르 사서 써딴 마리여.

- 감자 농사느 마~:이 진는다고. 거기 감자느 마리야 아주 새미 일따구. 새마리는 게 머인가 하며느 찌그찌그하지 앵코 푹시푹시하다고. 거기 감자느 맨감자 머거두 모기 막 민다구. 감자농사, 조농사, 수수농사, 콩농사 그런 거 마~:이 진는다고. 감자르 산꼬리서느 감자떡. 감자떡기 마리야 여기 인절미 보다 쿠리 더 일따구. 꺼먼 거 그거느 생감지르 가지구 하는 기구. 생감지 감 무르 내 가지구 가라 가지구. 또 감자 마~:이 지니까 더러 쟁는 게 이꺼던? 쟁는 거 하리다. 하리라고 일뺑가? 하리라는 게 장 당구던지 큰 하리 일뺑가?

- 물뚱기. 우리 거기서는 무르 지러다가, 그 물뚱기 이리 크다구. 거다 무 르 버서 머꺼든? 옌나레느. 시방은 몰라 시방은 다 바应急预案. 그럼 물뚱기 라구 또 딸로 일따구.

- 벼치라구 여기 양재기처럼 생긴 그런 벼치 또 일따구. 거 좀 큰 거 벼치라 구. 짜근거 머라 그러더라? 더러 이저 머걷따.

- 베뜨리라 그런다. 보시기 찬 다마 멍는 거, 건 보시기. 등기. 물 베다 멍 는 거느 물뚱기.

- 무도 마~:이 심찌. 배추도 마~:이 심찌. 배채. 무는 또 무끼 무꾸라고 도 그래.

- 깍뚜기는 고추가루 여쿠 당구는 기 깍뚜기지.

- 소케. 소궤기. 배추 소글 하얀 기 일찌? 그걸 소궤기라 한다구.

- 외. 무뢰. 차매 일뺑가? 차매르 차매라 그리지. 그래 과이리지. 오이는 무뢰

- 고초르 고추르 맹거지라 그래. 고추르 시미 먹찌.

- 강네도 만치. 그래 그런 건 자기네 씨까므로 딸로 다라매서 말리서. 보미 다음 보미나 씨르 한다 마리여. 살믄 건 살믄 기지. 살믄 강네 옥쭈수라도 하고 강네라도 하고.

- 시이땡기라는 기 수수때란 마랴. 시이땡기.

- 콩나무르 질그미라 그래. 마따 질그미라 그린다. 그 미티다 구녕으 뚜려 가지구 그래 가지구 거다 콩 노쿠서, 물 잘 주면 자라 올라온다 마리야.

- 대다쓴 그라믄. 그만 다 만는다. 간장으 지렁. 지렁 담는 거 쪼끄만 거… 종지라 그리지.

- 콩깔기.

- 사과 마~:이 난다구. 저 러시아두 가고 이부기두 마~:이 간따. 우리 고향 소쿠며~:이 사과 주산지라구. 오매, 현금, 저 호만포 사과 구리라구. 대구 사관 아무거뚜 아~:이라구.

- 복싸.

- 임공때 마리야 파리로 해방뒈 가지구서 배에다 시러 가지구 저 청진 그 짹 가서 모두 파라 가지구 콩하구 바까오는 그런 기 마나따고. 마~:이 난다구 사과 아주.

- 누른 바브 누릉지르 가마치. 무르 마라서 페재 가지구 그래야 잘 흐터지거든? 또 마른 거 머글 때도 일딴 마리야. 마른 거뚜 일꾸 또 그거 무르 버서 페재서 그걸또 바블 멍는다구. 마지마계느 다 머거. 그러재느면 내띨 쑤 업꺼든. 그거뚜 쌀바빈데 버리잰다 마리지. 누릉지는 말린 거 말래서 그냥 홀터명는 거 누릉지라 해.

- 국쭈 마라 먹찌. 국쭈 마~:이 먹는다구. 국씨르 밀까루 가지구서. 국씨르 엔나레는 시방은 기계에다 하지마는. 엔나레는 아까 이마난 나무통 여기다가서 반죽해서 여 가지구 여러 사라미 누른다구. 눌리게 뒤든 미테서 국씨주리 주르르 나오게 뒤지.

- 무르 지려오는 건 물또~:이라구. 무르 펴다 저장하는 거느 물뚱기. 크다구. 가매뚜꺼~:이.

- 밥 다마쨍가? 바리보깨.

- 기둥. 지두~:이라구.

- 이 어가느 마간따 마리야. 이 어간 막꾸 이중찌비 웬따 마리야. 여 봉다~:이거든? 이 정지구. 요 봉당. 정지. 그리ಡ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 중가네 망는다 마리야. 막께 뒤면 이 이주~:이 웬다 마리야. 아라 드러썩? 이 뒤에, 이거는 암 전며~:이고, 요주르 근 저짜기가 된며~:이 웬다 마리야. 그럼 여기 골방, 고:방. 여기서 골바

~:이라 하지만 고바~:이라 한다 마리야. 이거는 암 방. 이건 그저 바~:이라 마리야? 이건 뭀뜰방. 그리구 여기 봉다~:이지. 그리 뒤면 이지 오양까느 이러케 진는 지비 일꾸. 여기다 부치 진는 지비 일꾸. 또 요기다 여글서 이리키 이리키 나가 진는 지비 일따 마리야. 그리 뒤면 여기다 소르, 소지비라 마리야. 소지비. 그 구시르 여기다 쪽 매달른다 마리야. 그리 뒤면 소가 여기서 여무르 먹꺼든? 여기두 이짜게다 이레 소 구시르 여기다 노케 뒤게 뒤면… 소지비라 마리야? / 그래 그리게 뒤면 여기서 불 때게 뒤면 마리야. 여기서 불 때게 뒤며는, 이 방 전부 덥따구. 전부 더버서. 여기두 아주 덥께 뛰지. 그려치마는 이 정지, 여기서부터는 사라미 자는 디라구. 먹꾸 자는 그런 디라구. 봉다~:이서는 바비나 하구, 여자드리. 여기는 자는 디 아~:이라 마리야. 불만 때구 밥 하는 그런디… 그리믄 밥 머글 썩기는 여기 모두 쪽 이레 안자서. 그 다음 물뚱기. 물뚱기는 여기다 이레 노쿠서. / 여기 추운 지바~:이니까, 여기 물뚱기 가차운 디 놔야 뒤거든? 그러니까 물또~:이르 물 이다가서 여기다 벼 노쿠 그래 가지구 미칠 또 그거 멍는다구. 먹꾸서 업써질라 하게 뒤면 또 지러 오고 그런다 마리야. 그다미 이지 불 때면, 여기 이기 굴뚜기지. 굴뚜기라 마리야. / 굴뚜그 구새. 구새라구. 연기는 내구리라구. / 채. 꼬름 그기 재란 마리야. / 꼬스레미는 그건 표주너지. 그러치만 재는… 그리구 불 여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뚜 재라 그러구. 여기 꺼며키 안는 거뚜 재라구. / 벼께. 아궁이르 벼께라 그런다구. / 벼따지.

김성길(남. 73세, 전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자료2)

- 첨씨처럼 생겨쨍가? 첨시꾸비. 첨시라는 기 머인가 하게 뒤믄 가느 다마
멍는 납쭉한 기 일쨍가? 이 반찬 담가머글, 밥 머글 찌그 반찬 담는 거 아튼
거, 야간 빤빤할랑 기 일찌? 거 첨씨, 접씨. 거 첨씨라 그래.
- 글씨 그기 첨씨꾸비라구. 첨씨처럼 생겼따구 첨씨라구.
- 허벅찌르 신다리라 그린다구.
- 요 양짜기 사채기.
- 수까메. 상티. 그리구 수까메라는 기 머인가 하게 뒤므느 얘기드리 가지
나게 뒤므느 요기요기 팔락팔락하게 뛰는 디 일찌? 요르 수까메라 그린다구.
표준말로 여기 머라 그리는가? 가메느 여기 이거 가메라 그리구. 요고 또 팔
락팔락하는 디 얄븐 디 일따고. 얘기더리 어른더른 구더져서 먼 하지마느 얘
기더리 숨 실 찌그 보게 뒤므느 요 팔락팔락한다구. 고기 수까메야 수까메.
이거느 가메, 쌍가메. 가메 두 짜리 일꾸.
- 똥 나오는 디 미꿍기. 엉디, 궁디라구. 그기는 표준말로 궁덩이지. 그리
치마느 엉디 엉디하지.
- 말쎄쓴다구. 말쎄르 쓴다구. 글쎄 그기 무슨 뿔따지나 뿔따지라 한다구.
- 잠 자고나게 뒤므느 허연기 나는 거. 벼지미는 시꺼먼키 꺼먼키 부튼 기
일쨍가? 이런 거 벼지미라 그리지. 글씨 그기 벼지미라 마리야. 꺼먼케 나는.
자네 요런 거 벼지미라 그래. 주근깨. 벼지미.
- 종가리는 이 다리로 종가리라 그래. 종가리르.
- 여리. 쓸개르 여리라 그래. 쓸개빠진 노미라 그리지?
- 털썩부리.
- 똥쏘개. 똥쏘개 만난따구 그런다구. 고구미느 거느 하루 전네 알른 거.
거 고구미라 그린다구. 그런 거느 머인가 하므느 질벼~:이라구. 질병이구 아
주 그 다시 말하믄 절염벼~:이랑 한가지라 마리야.

- 셀 쓰렁따구. 세 무슨 나게 뭐게 뛰믄 아프지? 아파서 샌때 셀 셀쓰렁럼 따구. 샌때로 셀 쓰렁따구. 씨리라는 기 무시기 그런 거 난 기란 마리야. 쓰리 날따구.

- 에이 저 누마 개페재~:이 한가지라구. 아주 그 장난질 심하게 하거나 뭐 라게 하는 그런 애드르 보구서 저 누마 개페재~:이라구.

- 새쓰게. 정신 엄는거 새쓰게라 한다구.

- 부기르 쓰지마라. 부기쓰지마라.

- 삐치각찔하지 말라 그래. 넌 내 마랄 띠 삐치각찔하지 말라 그래. 간섭하지 말라 그래. 삐치각찔하지 말라 그래. 말하는데, 우리 두리 마닐 말하는데 저테 안자서 머라고 잡땀하게 뛰므 '야 넌 삐치각찔하지 마라' .

- 머르?

- 턱씨기. 그거느 노존. 그럴 짜근 나무르 막 때리지. 그 몽두~:이르 그저 몽디:라 그리지. 몽디:. 몽치라두 하구. 몽디:라두 하구 한가지야.

- 생이르 생진. 니 생지니 언제니?

- 오나조느 오늘 바미란 마리거든? 오늘 저녀기라구. 오나조.

- 투전이라고 어테 생견는가 하게 뛰므느 요레 생견따구. 요 요러키 마분지. 마분지 그런 걸루 여그다가 그림 그린따구. 그리미 마닐 일째라 하게 뛰믄 일째가튼 그림 여쿠. 열까지 그림 그리 가지구서 뭉치 쥔다구. 모두 열 뚜자 ~:이든가? 모두 뭉치 쥐구서 그래 가지구 이례 쳐 가지구 지금 화투처럼 돌리지. 우리도 그저네 해'Brien씨. 그런데 그 그리미가 잘 모르겠씨. 다 이저 머걸 씨. 고 새처럼 고리키 그린따구. 그 하나 아피 디슨짱 씨기든가 여러개가지. 열뚜 장 삐아주구서. 그리구 이지 삐개 뛰믄 화투나 한가지라 마리야. 그거뚜 이례 마추지. 일째면 일째찌리 마추고 이째면 이째찌리 마차서 그리 뛰면 다 만는 기 돈따는 기 그거지. 도느는 그리니까 그때는 돈드리 모두 그리우니까 담배르 노튼지. 그리 재느믄 성녕 성낭깝 성낭까지 이런 거 모두 하나씩 씨기

가지구. 우리 기느 우리 고향 뭐이 이썩가 하기 뛰믄 내 해군 겨낙 가 쓸 써게 보이까. 행정 사법 계그를 증경도라구서 여다 주르 이리 쪽쪽 근꾸서 여기다 뭐르 연는가 하게 뛰믄 이 카니다가 옌날 장과느 벼슬아치드르 계그브 우이 저~:이면 우이저~:이다 자이저~:이면 자이저~:이다 그래 가지구. 으금부 으금부라구 또 일딴 마리야. 기 파지기 마지막에 계그비 요 보해처럼 생긴 요 런 거 만드러서 하나짜리 일꾸, 구며~:이 하나짜리 일꾸. 또 두 개짜리 일꾸 디슬깨까지 하거든? 그래 구부리서 하내 나오면 하나는 여그서 마야계 우이 저~:이면 우이저~:이 간다. 또 두리면 무슨 으금부에 간다 이리키 이리키 헨따 마리여. 그러케 하는 노름도 이씨씨. 증경도라구. 언제 해구네 가니 해 군드리 그거 들구 대니더라. 아니아니 내 어느 때 간강으 가니까 간강으 가니까 해군 지내 거기서 우리르 이순신장군 구경실 찍 보니까 해군들 그거 들고 맹겨. 야 저기 징경도라구서 그거 일떠라.

- 책싸~:이라 그리찌. 으자. 걸쌍. 상. 사~:이라는 건 이건 두렁사~:이 일 꾸, 똥그랑 거 우이가 똥그랑 거 두렁사~:이라 그러구, 모이 난 거는 고져 상.

- 서라블 빼다지라 그러구, 빼배라고도 하고 똑까튿 기리구

- 머스마하고 선시나하고 가튼 마리야. 여자는 가시나. 가시나라 그리능 게 아~:이라. 무시기야 갈라. 간나라는 기 지방에 따라서 간나리구 할 때두 일꾸. 우리 북처~:이서느 주로 갈라 갈라.

- 그때는 우리가 나기를 소화 원년에 나꺼든? 대정 시보녀네 날따 마리야. 그래 그때느 머스미야 아주 부자찝 농사찌비 머스미 일끼야 이썩찌. 머스므로 뭐이라 그리게 뛰는가 하믄 농군. 일꾸느 농구~:이라 한다구. 농군 둔다구. 그저니야 이썩찌. 우리 그 다음부터느 업씨씨.

- 대토~:이란 엽초르 뿐시 가지구 말라서 엽초 담배나무 담배풀리 일찌? 자라는 기 일쨍가? 그거 말리 가지구서. 엔나레느 이런 담배가 귀하이까 마리 야 노인드른 전부 엽초르 말리아 가지구서 부시거든? 그래 가지구 대통으 지

다마케 해 가지구 대토~:이다. 마라자면 연기로 풀풀 낸다 마리여. 그러치만 절은 사람 드르는 그거 이런 조~:이다가 마라서 마라 피운다고. 이건 대통 꼭찌라 그리구. 이 전체르 대통~:이라 그리지.

- 전빠~:이라고도 하고 개게라도 하고 가게라도 하고.

- 소케. 배차소케. 이 나무 또 마리야. 나무 소케 또 일따 마리야. 나무도 소기 있는거 빨간 기 일쨍가? 그거 나무 소케라 그린다구. 거 엔나렌 지름 내 가지구서 불두 때따구 불 편따구. 그리구 나무에서 나오는 지름 일쨍가? 송지, 소나무서 나오는 송지 일찌? 그거 엔나레는 거기다가 고무르 끄리서 그 송진하고 석꺼서 씨벌따고. 송진 송진이라 그래. 거는 다 모두 화학을루 만든 기라구. 그러치마느 순 송지느는 아무거두 안 연는 기라구. 소리서 소나무에서 그냥 따다가서리 그거 끄린다구. 그거 끄리야 뛰지 그냥 씨브믄 안 뛰. 그거 끄리 가지구서 고무르 또 여 가지구서 그리게 뛰면 또 오래 또 썹는다 마려. 기 송진. 소케~:이도 어때든지 나무에 알매~:이르 빨간 기 일따구. 거 소케~:이라구.

- 검부리. 나무 입싸귀서 말라서 가으레 나겨비 뒤챈가? 거 솔검부리.

- 그거 글씨 우리서느 나무열매 따며글러 가자구.

- 짜리 또 딸로 일찌. 그럼 짜리는 나무가 푸리서 나게 뛰믄 여 아리 요리 뛰 가지구 소게 씨르 내빼리구, 소게 씨두 잘 빼야 여가리 서피가 터지잔다 마리여. 서피란거는 요 둘레르 서피란다 마리여. 서피 떠려 안 지게서리 소그 잘 짜 가지구 요려케서 소그 내빼리구 고 껌떼기만 가지구 썹는 거. 그거 짜리라 그런다 마여.

- 진두배기라는 푸리 이씨. 그건 진두배기라 그래. 새끼리가 그거는 이파리가 조금 넘따구. 보미 나가게 뛰면 푸리 일꺼든? 도다나는 천벼네.

- 무근 녹띠. 녹뚜. 도토리 가지구두 만들구 도토리를 고토바미라고.

- 멀기. 딸기. 사니서 나지. 산딸기 그런 거 일따 마리야.

- 가무지는 기기 수수에서 나는 긴데, 새까만 까만 기 일따고, 거는 벼~:이지. 병 일쪼~:이지. 까마까마한 기 걷뚜 멍는다고. 벼에도 그런 게 이셴째?
가무지라 그래. 거 멍는다구. 걷뚜 멍는다구.

- 잔디. 떼는 여서 떼라 그리지? 거 잔디라 그래.

- 씨르 빼멍는 기 일따구? 아, 해바라기. 해자바리. 마자 그 씨르 멍는다구.
그 해바라기 씨르 먹째니? 거 쏘련 싸람들 러시아 싸람드르느 그저네 러시아
쏘련 군대들 나온 거 보게 뒤므는 까멍는다구.

- 거 군대로 우리 모 깔찌며. 군대 웨정 때 나이 모자라서 우리 삼기거든?
군대 나갈 기하~:이가. 근데 삼기 뛰서 우리 몬 나가구. 나: 생이리 이른 사
람드른 나가씨. 그리구 인공 때는 군대 도피르 해서. 그래 여기 피란 나완찌.
군대 아주 총 쏘 몬 빨따구.

- 지낭비.

- 이 배타는 사람드르느 동쪼글 바다라 그리구, 서쪼글 서쪼근 서쪼기라
하구. 남쪼그는 마쪽이라 그르구, 북쪼근 새쪼기라 그르구. 새빠라미. 남쪼근
갈바라미. 서쪼개서 부는 바라믄 하니바라미. 돌개바라미.

- 민속노리 시글루 하는 동네 일꾸, 거 아~:이 하는 동네 일따구.

- 그러치 백싸자~:이 일찌. 모래바티. 백싸장에 나무가 설짼가? 그걸 솔
바티.

- 번개. 베라고는 번개처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머이가 다치먄가? 그런 거
벼락친다구.

- 베랑. 급경사 진 디르 베랑때라 그린다구. 베랑때. 아주 경사가 심하먄
가? 그런 거 베랑때라 그린다구.

- 도~:이 튼다구. 동빠리 튼다구. 도~:이 튼다구. 새벼근 새벼기지.

- 노으른 노으리지. 너브리진다구. 저녁 너브리 진다구. 아침 너브리. 저녁
너브리.

- 오늘 지녀기. 오늘 지나기. 오늘 저녀기 오나조라도 해.
- 아시나조는 초저녀그 아시나조라 해. 아시나조.
- 허구~:이 허야~:이라도 하고 한가지지. 다르지 아나.
- 더버, 덥따. 추버, 춥따. 매버.
- 여자르 호부리미라 그리구. 남자르 호부래비. 호러머니르 호레미라 그리지. / 따꼽째~:이는 내 건만 애낄라 그리구 자기 껴 양보르 아~:이 해주구 자기 사용만 챙기는 그거 따꼽째~:이라 그런다구. 나쁜 마른 아~:이지. 사람 성껴글 간따가서 평까하는 기지.
- 개종패.
- 유거리 거름배~:이르 유거리라 한다구. 그러치 몰려 살지. 밥 어더 멍는 사람 유거리라 그런다구. 그러치 집찜마다 드러와서 문 아피와서 머이라 중얼거리지. 그리 데믄 밥 내다 준다구.
- 서나라 그러나? 가만 이씨봐 여자 인는 남자르 시나라 그리구, 거는 결혼하지 아는 남자는 다시 말하면 총가기지? 총가그는 머스마라 그러나? 아:라 그러나? 한가지지. 한가진데 서나는 여자인는 남자르 서나라 한단 마리야. 겨로난 남자르 다시마라면 실라~:이란 그 마리지.
- 아바이라구. 하라버지르 아바이라 한다구. 아마이. 늘그마기
- 새쓰개
- 제 정신 아이니까네 오마~:으 쓴다구.
- 노재~:이. '이 노재~:이, 저 노재~:이.' 여자르 노재~:이라 한다 마리여.
- 누이미. 누니미. 니비라도 하고
- 매누리.
- 쟁취. 쟁취지스 한다구.
- 형수르 아지미라 한다구. 그러구 삼춘대기두 아지미라 한다구. 우리선 삼추느는 혀~:이라구두. 그 다음빼니 시애끼. 동생으 시애끼라 한다구. 삼추

느 아재비라 한다구. 아재아재 하잰가? 시동생은 시애끼. / 짐나이라 그런다구. 짐나이느 따리 시집 간쨍가? 출가외인이니까 그러니까 짐나이라구. 지를 나갈때해서 짐나이라 한다 마리여. 짐나이 왈따고.

- 얼라. 얘기를 얼라.

- 치신디~:이란 거는 자기가 밥 먹꼬 배불른디두 와서 무슨 머글 껴 달라 하든가. 자기 처신 챙기지 모타는 거 기: 치신디~:이라고.

- 여동새~:이 부를 찌개는 그러니까 내 동새~:이지? 오래비. 오빠르 오래비라구. 형으부를 찌기 서~:이. 그러나 여자드리 부를 찌개 시~:이에. 시~:이에 한다구. 서~:이르 시~:이에. 시~:이에 한다구. 새오~:이. 여자드리 장가 안 간 총각 부를 찌기 새옹~이라 부른다구. 장가가두 지 아래 마야 게 남펴느 동새~:이 남펴느 동새~:이르 새오

~이. 새오~:이 그런다구. 아~:이지. 남펴느 동새~:이니까 시아재비. 시아재비는 이상 싸라므 시아재비라 그리구. 지 아래는 새오~:이. 새오~:이 한다구.

- 외아지미. 외아재비.

- 가스이미, 가스애비. 가스여머이, 가시미 가시미 한다 마리여 가스 어머 이르. 아버지느 가스애비나… 개~:이 또 합경도 사투리로 만날 거 또 쓰겠따 또. 여기서 그거 만날 써 가지구서 맹깨멍는데.

- 점 친다구. 점바치. 점재~:이르 점바치라구. 엽찐 그런 거 가지구서 훌던지구. 무슨 싸르 가지구두 하구, 나이는 절믄 걷뚜 일꾸 나머근 걷뚜 일찌. 처녀두 일찌 그럼.

- 크내비. 크니미. 큰아버니르 큰애비. 큰어머이르 크니미. 치에. 처녀르 치에. '이 집 치에 밑싸린가?'

- 난재~:이. 졸매~:이.

- 가매. 밥까매.

- 가새. 가이르 가새라 그래.
- 고:방. 뒤꼬방 안꼬방.
- 허드까~:이라고 또 일따구. 창꼬르. 작디까느는 소 머기르 써는 거. 오양까느는 소 연는. 소 자는 디르 오양까~:이라고.
- 이 대차~:이라구. 대차~:이 쪼꼬만 무~:이거든?
- 그기 허드까~:이라구.
- 구새. 굴뚜그 구새라 한다구. 구무기. 구예~:이 난기 구무기라구. 그 통으 구새라 하구. 연기 나가는거 구무기서 연기 나간다구. 내구리 나간다구. 연기르 내구리라 하거든.
 - 개자리. 여기서부터 굴뚜기 가서 올라간다 마리여. 그럼 요자리르 원 가장자리르 개자리라구. 구무기 연기나가는 구영으 구무기라고. 구묵떠리란 기이 시방 지비 일께 뛰게 뛰므로 이 연기 나가는 구새 선꺼든? 그럼 이 근방을 구묵떠리라 그린다 마리여. 굴뚜기 나가는 쪼기라 해서 구묵떠리라 한다 마리여. 그리구 이 우타리 뒤르 된마당을 우때~:이라 그린다구. 우때니. 우때니라구 이 원 지비 앤가? 이 지비 여기 배재 일쨍가? 그럼 이 된마당을 우때~:이라 그린다구. 이 아피 마당은 마다~:이라 하구. 넘찌 그럼. 그러치 넘찌.
- 내차~:이라 하기두 하고 대차~:이라 하기두 하고.
- 문쪼기. 돌쪼기. 돌쪼기 일쨍가.
- 행주르 생지라 그래.
- 세순때. 소래라는 건 그기 세순땐데 양푸~:이라도 하고. 소래라는 거는 양철로 만든 거 그거 소래라 그리고. 놀끄르스 가지고 놀끄릇 가지고 만든 거 양푸~:이라 그리구.
- 가매뚜꺼~:이
- 보깨. 대재비 대접. 덥깨.

- 우띠~:이. 우띠. 우때~:이라도 하고. ‘우땐가서 뭐 가져 오너라’.
- 마을회과니 이썹찌. 도처~:이라고 북청도처~:이라고 이써써. 시그믄 모두 해사~:이 웬써. 그리고 일씨력. 그 다미 한 중동에 와서는 일씨리라고 리에서 동네씨라미 뵐우는 시리 일씨리라 그래써. 일씨리.
- 정지. 가매모기. 가매르 건 요 근방을 가매모기라 그린다구. 그리구 이짜 그는 읔구띠. 우이 쪼기리구 읔구띠라 그리구. 여그는 또 아랜구띠. 읔구띠 아랜구띠.
- 바~깐. 바~깐에 뭐 찔라 간다구.
- 조앙깐.
- 열래. 서까래 서까래르 열래라 그래. 영무그는 영묵이라도 하고 열레라도 하구.
- 성녕.
- 순뿌리. 순 재라도 하고 불 인는거 순뿌리라 그리구, 부리 엄는 거는 순재라 그리구.
- 열쇠. 쇳때. 열때.
- 구드로 쓴다구.
- 옹기. 옹기르 연다구. 지프 가지구서 덤는 거 옹기르 연다구 그래. 이엉을 예는거 그거 옹기르 엔다 그래.
- 바다서 나는? 새비.
- 그건 가재미라 그런다구.
- 도루메기라 그래. 으니. 도루메기르 으니라 그래. 그건 민물꼬기라 그래. 쇠추내가 옹고지 이르미리구. 그기 옹고지리구. 쇠추내라구. 여는 옹고지라 그리지? 여서는 옹고지라 그래. 거는 쇠추내.
- 강아지르 개지라 그래. 고예~:이. 가마귀. 까치는 또 까치라 그래.
- 거마리. 꿈찔꿈찔하면서 사람 피르 빠라 멍는 기 일짼가? 거 거마리라 그

래. 거마리 물린다고.

- 골배~:이. 논꼴배~:이. 굼버거지라고 또 이씨. 그건 안 머거. 약 혹씨 말랴 가지구 어린애들 무슨 야글로 더러 쓴다구. 굼버거지.

- 메떼기. 메떼기두 일꾸. 또 사막떼기도 일꾸. 사마그 뜨더멍는 거. 다리 지다만 기 일짼가? 그기 사막떼기야.

- 나라댕기는 부리 일찌? 반디뿌리라도 하고. 거 머라고 외운다고. 개똥부리. 개똥부리라고.

- 거 머리 이두 일꾸. 써개도 일꾸. 써개라는 기 머리 초리다가서리 아르 쓰려논는 그거 써개라 그래. 거서도 비시라 그래. 그러구 얼가~:이 너르잰가? 너르구 큰 기 일짼가? 그거는 얼기라 그리구. 여자들 큰 비스로 빙는 거 얼기라 그리구. 그리구 그 지다만 기 일짼가? 그거 참비시라 그래. 그거뚜 머리르 후터내는 기라구.

- 달그 모시르 준다고.

- 소새끼 송아지. 말새끼 망아지.

- 서당은 옌나레 이썰찌. 우리 이쓸 때까지두 이씨씨. 그러치만 우리가 학교 드러가구 초등학교 드러가구 그 다음부터는 차차 그기 서다~:이 엄씨저씨. 서당으 댕길찌. 천자무느 배우고 우리는 천자문만 배우구 그리구 이내 학교 드러가씨. 훈자~:이 이례 쭉 안치노쿠서 아침마다 새복마다 배와준다 마리여. 또 저녀기두 한 번씩 배와주구 자기가 배운 거 그 이튿날 훈장한테 일거서 받친다 마리여. 그 다 받치줘야 그다미 차차차차 올라간다 마리여. 월싸금 안 내. 월싸금 안 내구 동네서 훈장을 바브 쳐주지. 밥쌍을 아주 그 반치싸~:이라구서 그 선생한테는 한 지비 마약 그 서당으 댕기는 애드리 지비서 마약 아치미 그 지비서 밥 해쓰면 다으미는 저녀기는 딴 집써 밥 해서 그 선생한테 받치지. 그러케 뒤면 선새~:이 그거 잡쑨다 마리야. 웬찌?

김성길(남. 73세, 전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자료3)

- 학새~:이 여자아이가 대학워니 서울대학 대학원 냉긴다는 앤데 여기와서 한 오개월 나마 이씨씨. 청호도~:이 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무슨 청호동 아바이 무슨 자기 논문쓴다구 도와달라 그래서 해준 이리 이킨 인는데. 그후에 논문 어테 웬는지 모르게찌마느.
- 가가 여기서 자료르 오개월뚱안 빼가서 마~:이 빼가쓸낀데. 내 열락처 모르게씨. 어디 인는지. 학생하고는 명함도 업꾸. 여자 아인데, 쪼그만 애. 저 공부방에 가면 혹시 이쓸 쑤 이쓸끼야. 거기 가서 먹꾸자구 그래꺼든?
-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마량도란 서미 이씨, 마양도. 문암리라는 디 이씨. 거 가로치고 문암리라 그래.
- 거기서 우리 선친드리 선친드른 어어비 종사해찌. 거긴 농사란 기 업꾸 주로 대부분 어어비 종사하구 그래찌.
- 그기 서미라 하더라도 리로서는 오개 리가 이씨요. 오개 리. 오개 리에 인구가 한 이천여명 사라쓸 끼야. 아~:이, 마량도란 섬 자체가. 크지, 커요. 그기 서미 그기 자네드른 모를끼이까. 서미 꿰 큰 딘데.
- 학째~:이 시가~:이 여란시 바니 회의가 인는데 거기두 가따 와야 뛰. 아마 한 두시쯤. 한시에 또 결혼시기 이꾸 하니까 한 두시쓰믄 뛰야 될끼야. / 두 시쯤? / 그래 내가 시가~:이 쪼끼서 그래.
- 갑짜기 이레 오이. 가위가튼 거. / 어너. 사투리가튼 거 마라는 기구마. / 거게 사투리들 만치 애너. 내 저버네 중구기 가서 하도 심심해서 사투리를. 여기 속초에서 또 서락째 할 째는 사투리 경연대회를 하거든? 그래서 심심해서 내, 거기 중구기 가니까 중구기서 이북책 주두래니. 그래서 봤는데, 그래 두 사투리두 만치. 그런 기 마나. 전체는 아이지마는 내 생각 나는 거만 대소 하루짬 자바 가지구, 내 중구기 가 한 사시빌 이따 와꺼든. 심심해서 써내려 간는데, 여기 그런 기 마나요. 여기서 드찌 모탄 그런 말드리 만치.

- 이건 자네가 자료를 펴요한 거만 불려요. 그럼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이야기할께.

- 우리 이부근 이거 가위. 가위는 가새라 그러구.

- 가마소트 마리야? 가매.

- 방구조는 이 여기처럼 안빵하고, 대체저그루 거기 집떠리 여기에 부어기 이꾸. 소트 걸구. 가매 건다 마리야. 거 안빠~:이 이꾸, 골바~:이 이꾸. 이거는 여기 경계가 업써. 막찌 안는다구. 이건 업써, 벼기 업써. 벼기 업따 마리야. 그러구 여기에 문 내구. 여기에 문 내구 여기서 이짝 빵 드러가는 거 문 내구. 이기 이제 기까 이 안빠~:이구, 이거 바~:이구. 우리서는 골바~:이라 그래, 골바~:이라구. 이기 부어기구. 부어그는 안빵하구 만 부터따니까. / 여기 자지. 그때는 대가족뜨리 살 때니까 요런 디는 메눌가튼 기 고런 사람드리 절믄 사람드리. 골바~:이서 두 부부가 살구. 그리구 주로 만메눌, 큰메눌 드리 이쓰믄 여 안빠~:이서 자구. 아침 일찍 밥 해야 돼니까. 그러구 부모드 른 여기 와 자구. 그려치. 추립무~:이 여기 이꾸.

- 바까트는 거기두 동닙 가오기 이꼬, 열립가오기 이꼬 이러니까, 마약 동닙 가오그 만들 찌기 대무느 이쯤 맨드려 노코, 화장시르 여기서는 변소고 우리는 칠시까~:이라고도 하고 정약깐. 이기 순전히 거기 마리야. 칠시까~:이라도 하고 정약까~:이라구두. 이기 변소란 마랴.

- 부어기지 그저. / 굴뚜기 여 나 이꺼든? 굴뚜기라 해는데. / 온도르 온도리지. 이리 다 드러가서 일루 나가지. / 굴뚜글 거서 그런 예기 해요. / 굴뚜그 자체는 구새라 그리구, 이 일때를 구먹떠리라 그린다구. 이 일때를. 구먹떠리라구. 완전히 구새느 굴뚝…

- 우리는 농초네 안살구 어초네 살기 따무네 엄는데. 농촌가튼 데는 이런 데다 부속 건무를 지찌. 근데 전형찌긴 농초네 가 보며는 이 부억 이짜기다 다라매 노치. / 외양까~:이라 그래 가지구 축싸지. 이거 완전히 축싸라 그러

는데 여기다 소 여물 끄리서 주구 주구, 밥토~:이 이러키. 이 전형찌긴 농촌 스타이리구. 우리 어초는 이런 기 업따구. / 어초는 주로 이기지. 이기구, 수 사넙하니까 수사너비란 기 이런 부속건물 업찌.

- 고기 말리는 거는 이제 지바피다 하는 기 아~:이라 변두리에 공지가 이 쓰며는 명태가튼 거 기둥 세와 가지구 거기다 너러서 말리구 그래찌. 특빼란 시설이란 건 업꾸.

- 고까~:이라는 건 창꼬르 고까~:이라고. / 더러, 어? 니 완니? / 고까 ~:이란 게 여기서 주로 보며는 우리 어초느서 볼 쪘는 창꼬고, 농초느서 보 므는 싱냥 저장하는 그런 창꼬가 뛰고, 곡씨기랑 고까~:이고.

- 작디까~:이란 기 여기에 부터인는 거지. 여기에, 여기 외양까네. / 아 ~:이지, 소 지풀 써는 거 작뚜라 그러거든. 그리이까 소 급씩쏘를 맨드는 디 지. 작디를 노꾸서 거르 써는 디지. / 작디까~:이란 별 딴 여카리 업찌. 소 멍 는 지풀 써는 거 작디라 그러거든. 그 작디 써는 카늘 작디까~:이라 그러지.

- 모르게씨. 우리 사는 디는 아주 농촌도 아~:이구 아주 떠러진 어촌도 아 ~:이구. 우리는 중간 지점 정도에 그런 어초~:인데./ 우린 농촌 생화리 익 쑤카지 안타 보니까 그런 건 자세한 건 모르게씨.

- 대차~:이란 기 창문. 환기차~:이지 그러니까 대차~:이. 사람들 추립 모타고, 우리 공기 나가는, 환기시키는 쪼꼬만 문, 쪼븐 문, 거 대차~:이라구.

- 도깨란 거는 우리 마르 처음 드려.

- 구새라 그러구. / 그기 구목띠리라구. 이 일대를. / 검데기. 여기서 꺼먼 분지니 있는 거. 거 우리 거기서 검데기라구 그래.

- 세수할 때, 겨울가튼 때 주로 부어기서 하고, 여기선 주로 우리 살 짜게는 상수도 시설 업찌 가지구, 물 아남네들 기러다가. / 우물 이찌. / 물 퍼 올리다 동이다 버서 이구 온다 마리야. 그래 지비다, 도기다 벼노코 거기서 또 쓰지. / 우무른 자연 그대로 예날 재래시그로 파 가지구 거다 주위에 돌로 싸: 가지

구, 이래서 수시미 기픈 디는 한 십 메다씩 더 내려가지. / 모르지, 엔날부터 쓰던 디니까. 산미테기다 하지. 그저네는 인구가 저그니까 어지가~:이 파가 주 자나서는 부역뒈지마는 어디 산미테기타튼 디 웅디 파노면 무리 고이면…

- 세수 소래라 그래. 여기서는 대야라 그리지만. / '소래 가주 오나' / 우리 는 농초네서 안 사라끼 때무네 이부기는 벼농사를 진는 사라미 얼메 업꺼든. 사낙지대가 만쿠 이래서, 우리 거기에는 주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드른 이팝 이란, 헌 바블 이파비라 그리거든? 이파비라구. 이파블 멍는 다는건 명절 때 나 제사 때나 이때나 어더머거찌 평상시에는 조팝, 잡꼭잽 마~:이 머거찌.

- 조가튼 건 바치 마느니까 / 거기 조야 마~:이 숭구지 / 노니 업쓰니까. 평지가 업쓰니까 노는 쫌 부조카지마는 바치는 사낙지대니까 마~:이 해니까 잡꼬근 만치 머.

- 거기는 유명한 그런 이름인은 산드른 업씨꾸, 지방~:이서 부르는 그 지방 나름대로 저:서 부르는 무슨 노름보~:이다라든가. / 그 연유는 모르게찌. 우리는 어른드리 부르니까 따라 불런는데, 노름보

~:이 이꾸, 등대사~:이 이꾸, 등대 인는 디니까 등대사~:이라구 그러 구. 머 그럭키 그저 불러찌. 어데 무슨 행정구여글 정한 채로 먼저 명명한 그런 사~:이 아~:이라 마리야. / 노그미 뒤게쏘 이제?

- 마당. 우리는 디우란. 마다~:이라구, 디우라~:이라구. 압떡~로 그래 구 분하구 암마다~:이란 말두 안해요. 마다~:이라 그리지. 마다~:이면 암마다~:이구 된마당은 디우란.

- 울타리. 배재라 그러거든 우리는. 울타리를 배제라 그리구. / 그거는 그 짜개는 여러 형태가 이써찌. 이 수수때를 여꺼 가지구 울타리라 그러는 거뚜 이꼬, 나무판자를 하는 거뚜 이꼬, 나무를 시어서 울타리라 하는 거뚜 이꾸. 거 머 일쩡하지 아니요. 돌로 울타리하는 거뚜 이꾸 그리이까.

- 거기는 잡꼬그 마~:이 시므니까 그런 거 마~:이 나지. / 시이때라 그래

시이때. 시이라 그리지. 여기는 수수라 그러는데 시이라 그리지. 시이라구.

- 마을회과니 업써써요 그때는. 마을회과니란 기 업써써요. / 도처~:이란 기 업써써요. 도처~:이란 기 업꼬 여기서 회관가튼 건 업써꼬. 보며는 누: 지 베 큰 진베 큰 사랑빵가튼 기 하나 이쓰며는 그런데 모아서 놀구, 그런 디가 이씨찌 특빼란 시서리 우리가 사는 데는 업써써요. 마, 큰 부라게는 더러 이 써쓸끼야. 정자가튼 거 맨드러 노쿠 거기 모인다든가. / 인는 디 이꾸, 엄는 디 이따 마리야.

- 가매모기라 그리지. 아~:이 그리이까 여기에 이러케 뛰며는 이 부어기는 사라미 서니깐 아무래두 나찌 아니요? 여기가 뚜글 쯤 노핀다 마리여 이러 키. 그래 가지구 여다 소트 걸거든? 그리이까 요 부부들 가매모기라 그리지. 가마소테 인는 모기라 그래서 가매모기라 그리지. 가매소티란 건 여기 나와서 하는 예기지. 거기서는 주로 가매라구.

- 여기는 무~:이 업찌. 여기는 무~:이 이찌. / 도쪼기. 아, 무느 여러따 다다따 하는 경처를 마리야? 그걸 도쪼기라 한다구. / 문은 그저 무~:이라 그리지 거는. / 벽 무늘 드러갈 쪘기 바당무~:이라 그래. 벽 드러오는 무느 바당무~:이라 한다구./ 그리이까 이치에 명칭을 부치자면 바당무~:이요, 요는 정지무~:이요, 우리 안빵을 정지라 그리거든. 정지무~:이요 무슨 골방 무~:이요, 이리키 이치에 따라서 문짜그 부치는 거지 거다가. / 경처를 도쪼 기라 그리지. / 아~:이야 무~:이야 무~:이지.

- 바:깐. 바:까니 일찌. 잡꼬글 마~:이 머그니까, 잡꼬근 바~:이서 마~:이 쪘야 머꺼든? 여기처럼 정미소가 이써서 한꺼번에 딱 해서 저장해 노코 머 그면 뛰는데 거기는 잡꼬그 마~:이 명는 디구 농촌 변두리 도~:이니까. 그리니까 수시로 거져 며칠씩 머글 꺼만 아냥네드리, 그 찌짜면 힘들거든 방아 르 찐는데. / 바~:이란 기 일짜나 그런기. 나무루 이리키 웬걸 큰 나무를 해다가 여기다가 바~:이 찐는 걸 맨들구 여기다 흄: 맨들거든? 이리키? 그래

이 내리가지. / 돌로 맨드러. 이러케 해가지구 이거는 우이서 부뜨는 걸 하구, 여기 여자드리 이걸 발바 가지구서 누르면 이기 올라가구 노:면 내리가구. 그리민서 이 아네 곡씨그 찐는 거지. / 바~:이 무거우며는 그런데, 게와 고야 아냥네 도:선 나가서 하면 뛰지. 여기 한사람 부터 일꼬, 쌀 미려야 뛰니까, 여기 여자드리 둘, 여자드리나 아이드리래두 가치 이러케 해서 찌:면 뛰구. 바~:이 무거우면 애드른 안 뛰지. 외가달방두 이낀 이싸. 다리가 하나짜리 방두 일따 마리야. 주로 두 개로 하지, 이 다리를. / 우리는 외가달바~:이라 그리지. / 한 가달, 이전 두 개니까 두 가달. / 그리이까 이거두 방아로 세면 다리가 뛰거든?

- 불: 여치, 부어기다가. / 거 벼파지라 그러지. 부어따지. 부어따지. / 또 까튼 예기지. 우리기선 부어따지라 그리고 이 아네 마~:이 때면 재가 남짜나? 재르 며치례 한 번씩 끄러 내야 뛰거던? 그거 곰배라 그러구 끄러 내는 거 곰배라 그러구. 벼파지는 나무 하나 가지구 쭉 하지마는 곰배라는 건 이 나무 아피다가 갈구리를 맨드 런따 마리지. 국띠기라 그래씨. 그래서 끄러 땅 기면 이러키 뛰면 끄러 땅긴다 마랴.

- 조양까~:이구. 여기서는 찬짜~:이구 머이구 하지마는 우리 기서는 조양까~:이라 그리지.

- 연무기란 건 서까래. 이거 연무기라 그리지. 이거는 대들뽀고, 이거는 기두~:이라 그리구.

- 기와찌븐 그때 좀 그때 당시는 잘 사는 사람드리 기와찌브 지얻꼬, 일반 민드른 지풀 예는 기 일짜나? 지프. 여기서는 농사르 벼농사를 안 지니까, 지풀 저 초네가서 벼농사 진는 디 가서 지풀 싸다가 그래 지블 지구. / 사다 이구 그리구 생화리 날따는 사라믄 양철, 도다, 아연 도다 아연판. 거는 쯤 장사하는 사람들 하니까.

- 서랍 마리지. 빼다지라 그러지. 빼다지나 뼈비나 한가지야. 우리두 뼈비

란 말두 해요. 주로 뼈비라 마~:이 하지. 여기 나와서 우리 빼다지란 소리 짬
뽀~:이 뛰쓰니까. 빼다지란 말도 쓰는데 볼래 이부기서는 뼈비라 그래. 그러
니까 이북뚜 고을고을마다 방어~:이 다르니까.

- 수다~:이란 거기는 빼쓰도 좀 그리원꼬. 주로 기차지. 기차구 배를 좀
이용하구 우리 섬가튼 디는. / 그리고 먼 여행을 갈려면 기차지 주로.

- 스타칭친다. 스타치~:이란 기 돌리는 기거든? 경운기가든 데두 돌리는
기 일짜나? 기 스타치~:이란 마랴.

- 물, 버린 무르는 구정무리라 그려구, 생활폐수를 마리지? 통으 노쿠서
구정물토~:이요, 그 아네 내온 무른 구정무리요.

- 하수도를 말하는 거지. 거서는 하수란 마를 별루 안쓰구. / 순대구여~:
이라구.

- 할머이는 우리보다 거리 좀 먼디. 단천. 단천하고 우리하고는 거리 좀 일
쓰니까.

- 내구리라구.

- 구새야 이거 굴뚜기구. 역싸지르 해서 노력한다는 마리야. 노력하는 거
역싸질한다 그래씨. 연기는 내구리라 그리구, 엽차게는 주미니. 엽차게라 그
리구 간장을 지러~:이라 그리구. / 지렁보시기라 그래. 보시기라 그래. 요만
한 거. 꼬추는 땅거지라 그리구. 여자 고무신바르는 코시~:이라 그리구. 집
뒤뜨리다가 디우라~:이다가 모시는 무슨 그런 기 일따구. 시늘 모시는 기.
사당처럼 만드는 기 아~:이라 지풀 여께서 이리키 세와 논는 기 일다구. 지
시느 모시는 거. 거는 이부기서 토새라 그려구. 주방은 부어긴게 아~:이라
봉다~:이라 그래. 봉당. 부어긴게 아~:이라 봉다~:이라 그래. 그러구 무슨
불쑤시개 아께 부운땡기라두 하고. / 국뚜기. 소트 가매라구. 다드미또른 방
침또리라 그려구. 어서어서 하라는 거 인차해라. 빨리하라는 거야. 인차해라
그리구. '야 거 빨리 인차해빠래!', 칠씨까~:이란 게 변소. 칠시깐하구 쟁약

깐하구. 시이땡기 여폐 수수깡. 시이땡기. 배제는 울타리를 말하는 기구. 불끄러 땅기는 건 국띠기라 그리구. 어이업따 그러자나? 어기매캐서 그런다 그래. 둔마당을 디우라~:이라 그리구. 지그미란 기 우리 이부기서는 시방. '야. 시방 빨리 머 해라.' 그 다으미 돈 일 처년 이 처년 하는 기 일짜너? 우리 거기 양쳐너~:이라 한다구. 양배거~:이라 그리고. 그 다메 방해하는 거 해꼬지한다 그래. 해꼬지. 해코지. 방해를 하는 거 해코지르 한다 그래. 무시기 엉더~:이를 밀꽁기라 한다구. 밀꽁. 밀꾸~:이라 한다구. 밀꽁이. 밀꽁기. '그 놈 미꽁기가 아주 더럽따' 든가. 미꽁기라구. 이 발로 차는 거 발찌질이라 한다. '저 놈 발찌질 한다'고. 아이드리 쌈할 짜게 발찌질 차자녀요. 그 다으미 기가 마켜서 하는 거이 어이업따. 다라글 시거~:이라 그러구. 김치는 여기서 김치라 하는데 거기서는 짐치라 그런다구. / 소께. 소께기. / 남자르 마리야 사내라 구두 하구 누마라구두 하구. 누마라 그린따구 주로. '이 누마 저 누마' 그러거 든? 여자는 이 간나 저 간나 그런다 마리야. / 한가지 마린데 지바~:이 따라서 간나라 하는 디 일꾸. 갈라라 하는 디 일꾸. 말하는 사라메 취향에 따라서 하니까. '야 이 갈라야. 야 이 간나야' 하는 기 일꾸. 갈라나 간나나 대동소이 하니까. 여기서 당초에 썰찌. 이북싸람드른 여기서 주로 이북싸람들 모여 사랄꺼든. 그래 우리가 마르 아직까지 이북 사투리를 버리지 모탄 이유가 여기에 동향인드리 가치 살기 따메 가치 그 말만 쓰다 보이까 마리 바까지지 안치.

- 여기에 이 마으를 신포마으리라 헌따구. 사람 마~:이 사람끼 따무네 지 그믄 메치 업씨. 이제는 호납 다 뛰 가지구 메치 업씨. / 우리 신포만 말구. 신포만? 신포만 맨싸람 안 뛰. 신포만 우리 부라게 사는 거만 한 열싸람. 한 이십싸람. 여자까지 합쳐서 한 이십명 내오가~:이야. 다시 말하면 일쎄는 거 이가 업고 이세가 지금. 우리가 이세지. 그리구 삼세 우리 아드르는 이부게 대한 그런 개념조차도 업씨. 가드른 통일뒈두 안 드려 갈끼야. 우리만 거 드러가 뺐쓰면. 과거에 고향에 미려니 나맡끼 따무네 거 드러가 뺐쓰면 하는 히

망으 가지고 있는 거지. 개들 삼세들부터는 아무런 그런 간녀미 업다구.

- 하라버지를 크라바이라 그리구 할머이는 아마이라 그리구 아버지는 애비라 그러구 어머니는 에미라 그러구 오빠는 오래비라 그러구 숭모는 아지미라 그리구 숙뿌는 아지비라 그리구 조카는 조캐라 그리구 처녀는 치~:애. 총가그는 새오~:이라 그리구. 어르는 자라~:이라 그런다구. 어르느 자라~:이. '자라~:이 마르 왜 안 듣나?' 구 한다. 가스애비. 각씨 애비란 마리지 그기. 근데 각씨 애비라 아~:이 해. 가스애비라 해. 가스에미라 그리지. 와크라바이라구. 외아마이구.

- 엔나레 꼴로서 맨든 돋자리가 이썬따 마리야. 자리 이런게 업쓸 짹게. 노조~:이라 그리구. 거진마른 부시기라 그리구. '저 새끼 부시기 마~:이 쓴다' 구. 거진말 하는 거. '부시기 쓰지 마라라' 그런다구. 여기작거린다는 거는 빈중거리는 거르 여기작부린다구 그래. / 담배 꽁초는 담배 꽁대기라 그리구. 담배는 담배라 그래요. 대토~:이라고 영감드리 무는 거 대토~:이라 그리지. 여기서는 장주긴가 머인가 그리지? 빠이쁘를 무쪼리라 그리구. 담배 무쪼리라구. 엔나레 무쪼리는 이런 거는 업썩꼬 주로 참대를, 참대 가는 거 빠이쁘에 만는 거 그런 거 이제 까까 가지구. 그래서 지그믄 우리는 이런 시글루 물지마는 옛날 사람들 작업하는데 연기가 누네 드려가니까. 그래 기 뒤에서 담배 꼬자노코 이러구 가는데, 주로 그때는 월려늘 여기다 께면 월려늘 피우는 사라미 얼마 업씨따 마리야. 모두 마라피지. 그러니까 엔나레 월련 지금처럼 이런 월려늘 피우는 사람 상류츠~:이지.

- 여자드를 주로 부인드를 통트러서, 이 부인들 노는, 에미네들. 여기서 에미나이드리라 그리자나? 그 에미네드리라 그런다구. 저 에미네들 저기서 논다구 마리야. / 에미네라구. / 여피찌비라구.

- 여자드를 가지고 또 머이라 하는가 하믄 치매띠라구. 치매띠들. 여 초매를 이별따 해서 '저 치매띠드리' 라구. / 치매라구.

- 파도르 멀기라 그래. 멀기가 마~:이 센다고. / 우내. 우내라는 기 어터
게 말하면 구름 운짜 바다 해짜거든? 바다에 구루미 떨따는 그런 예기거든.
우내라는 기. ‘우내 마~:이 펜따’ 그리지.

- 목표무를 정하자나. 서락싼 대청봉 그기 목표무리다 하며는 바다에서 그
목표물 지정할 쪘게 거 머이라 하며는 알기라 그래. 배 항해할 쪘게 그 목표
를 하구 드러온다 마리여. 나는 배 안 타구 선천드른 배 탄찌. / 바를 떠 내는
거 박쭈리가 그런다구.

여석창(남.72세, 전주거지: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자료4)

- 아직까지 이북 사투리를 모빠리자나요./ 근데 우리드른 안 이져버려지드라. 부모가 이북 사라미니까 맨 한데, 여 한동네에 그런 사람드리 모여사니까 그 마르 이쳐 안지드라. 우리는 어디 가 말하면 표가 나자나 그래서. / 우리드른 네 사라미 피란 나왔는데도요 이러케 말하는 거, 억양을 드러보며는 일부 게서 왠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를 모빠리게띠라구. 그래 그저네 가니까 주문진 고모랑 그러드라구. '야 너네는 이상하게 이북마를 쓴다'는 거야. 우리는 일부기서 피란나와두, 이제는 이북말 안쓴데 우리 고모랑두. / 주문진 싸람드리 모여사니까 주문진 말씨를 금방 쓴다는 거야. 강능 그쪽 말씨를. / 그런데 우리드르는 아직까지 이러케 쓰자나요.

- 최옥순. 창성리. 소쿠면 창성리지. 창성리다 거는. 소쿠며~:이지. 육썹여덜비요. 스무사례 나와씨. 겨론 열일곱싸레 헌는데? 엔나례는 다 그래찌요며. 거리 내리가면 이북 아주미들 마나요.

- 아들 딸루가 일꾸 지베 하나 일꼬. 하라버님 도라가구 업씨요. 심년 너머ಡ요. 그럼 가치 나일찌. 가치 나와서 아들 따르 여덜브 나코 도라간 지 십쌈년ಡ요 이저는. / 왈끼는 만쏘. 그런데 요사이 간강가고 업씨요. 놀려 짹 가구 업꾸, 나 허리 아파서 안가구. / 그럼 가야 뛰는데 허리다채 가지구 장녀네 허리다채 가지구 그래 아파서 나는 안가구. / 전국 일쭈르 오늘 지누기 올꺼라.

- 이루기서? 이루기서 밥 할 때 뭐 쌀도 먹꼬 족살도 먹꼬 콩도 먹꼬 감지도 먹꼬 마~:이 먹찌요. 감자 또 대두미 콩 또 곡쓰기 많이 먹찌. 콩지름 짠거. 고생하이까 그런거 밥 미티다. 쌀 미티다 까라 가지구 그거뚜 먹꾸, 무밥 두 해먹꾸, 옥쑤수밥뚜 해먹꾸 다 해먹찌 뭐. 무우 무우 씨러 가지구 미테다깔구서 우이다 쌀 언처 가지구 그래 가지구 썩꺼먹꾸.

- 소테다 하지. 이런 소테다 안 하구 불 여쿠 때구. 그런 소테다 해먹찌. 그럼 가마소체다 해 머걷찌. 우리 이쓰 짜게는. / 그럼 까마치지. 누룽지라구두

하고 까마치리구두하고. 우리 이북서는 까마치라 그래.

- 오스 짜르 쪄기? 그거는 가위로 짜르지. / 그럼 가세라 그리지.

- 방이 버기하고 한구데 맘부터써. 방 이러케 맹기게 뛰믄 이러케 해노코. 저기 방이구 고방이구 또 아래빠~:이구. 저기 방이라면 버기 맘 부터써. 맘 부꾸 여서 밥해먹꾸 거서 부뚜마기라고도 하고 가매모기라고도 하고 가매모 기라 그래.

- 국띠기. 국띠기 일찌. 불 나가는 국띠기. 불 때는 거는 아궁지구.

- 우리는 무~:이라 그랜는데?

- 화장실가튼 거는 뭐 우리더르는 모르겠는데. 저 시골씨는 뭐이라 하든가? 빈소라고도 하지만도 어떤 사라믄 척썩깐? 우리는 그래도 거기는 그러케 아주 초~:이 아~:이니까.

- 화장실가튼 거는 백싸당, 삐싸자~:이다가 갑자도 숭구고 뭐, 산꼴서는 갑자도 숭구고. 그러지만 우리더러는 산꼬례 아~:이 일꾸 나리까에서 사이까 고기잡고 그런 거 신경 마~:이 썬찌.

- 담구지. 짐치야 마~:이 담구지요. 짐치를 거기는 소금도 그리웁꼬 그러 이까 바단무리 다 씨쳐 가지구 바단무리다 담가 날따 바단무리다 씨쳐 가지 구 그래 가지구 짐치르, 여기처럼 짐치는 거런 거는 마~:이 해요. / 양염이야 간꿍물 그런거 좀 여쿠 그러구 꼬추끼리 여쿠 해 담구지. / 짐치는 마신께 하는 디는 마신께 해요. 업는 사라믄 업써서 그러치. / 이루기야 배차 짐치 마~:이 담구지요. 담구는 사람더른 마이씩. 마는 사람드른 마~:이 담구고, 짐 치르 마이 머그이까 짐치는 마이 담구지요

- 소궤기라 그래요. 소그 궤기라구.

- 그럼 상추도 일찌.

- 물외르. 오이르 무뢰라 그래. 무뢰라 그래. / 나물뚜 해 먹꾸, 냉국두 푸 러 먹꾸, 무치두 먹꾸, 오이는 여기처럼 그래. 오이가튼 거는. / 강네.

- 일찌요. 사탕수수는 이써써. 우리 그런 거 꺽꺼 마~:이 머거써. / 여수때 ~:이라 그래. 콩나무른 지비서 해 멍는 집 만쿠. 싸멍는 집뚜 임꾸 그려치. 모르겐는데 그거는.

- 콩 가루낸 거? 그럼 콩까리라 그리지.

- 지름? 까만 거는 깨르 그리나?

- 간장은 지러~:이라 그래 지러~:이. / '여다 지렁 좀 노라' 그래. 살다 놀 찌기 '여다 지렁 안 논나?' 그래.

- 대접할 찌기는 이부기는 식따~:이서 아~:이 하구 지비서 주로 주로 마~:이 해. 지비서. / 음슥 장마는 지비서 하지. 떡뚜하구 반찬두 하구. 그래 가지구 지비서 대접하지.

- 국씨도 쌈찌. 메미리 아~:이지. 저 시장 막국쑤 그런거 마~:이 해. 시골가튼 디는 모르지 메밀국씨도 더러하겠찌만.

- 송진. 송지느 씨벼찌 송진두. / 그럼 그양 씨벼찌. 껴미 거기는 그런거는 그리브이까 그거 송지느 뜨더 가지구 챙꾸. 또 멍는 거뚜 또 그너므 솔 껌떼 기 베키리 가지구 해 가지구 그 껌떼기르 쌀마 가지구 떠기다 여쿠 해 머그면 송기떡이라구 또 그려케두 해먹꼬.

- 마시 조타 그려겠찌. 냄새 조타 그리지.

- 까마치 끄리따 그리겠찌

- 누룽지 무르버서 맹기거든? '저 까마치 글거온나' 그래. 아~:이지. 타믄 누룽지 뒤지. 바브 푸게 뒤믄 소테다 하게 뒤믄 바비 누러. 그거 누룽지라 그리구, 그 누룽지를 끄리서 밥처럼 명는기지.

- 코~:이 만치. 코~:이 마~:이 나. 콩밥 마~:이 해 머거요. / 거도 두부라 그리지. / 두부르 가지구 디비라 그래. 말 사투리 디비라두 하구 두부라두 하구. / '두부 싸오나' 그리지.

- 무르 도~:이다, '물뚱이 가지구 무르 이어 오라' 그리겠찌. 등기는 무

르 이다가 벼 논는 둑기 이씨. 아래 큰 하리가. 이런 짐치 딴자 큰 기 일짜나?
그리기 큰 거 크게 해 가지구 물딴지 떨루 이씨. 여그는 수도 직씨느로 나오
이까 그런게 업찌마네도. 이부기는 물 드레박 우무리 가 펴다가 이다가. 도
~:이다 이다가 그 둑기다 벼노코 머거. 무리 그립꺼던 이부기는. 그럼. 한
꺼벼네 이다가 먹찌. / 무르 웅구리 가 이어 오지. 웅구리. 땅 파노쿠 물 나오
는 디 가 이어 온다구. 드리박찔해서 펴 가지구. / 따바리.

- '밥 아래모계다 무더 놔라' 그리지. / 바리떠깨라 그래.

- 만치요 거기는. 거기는 사가 이런거 마네. 사가를 능금이라 그리지. 거
이북 능그미 마시씨. 배두 일꾸. 사가두 일꾸. 그런 가이리야. 가이르는 여기
처럼 만치. 복싸도 일찌.

- 누이도 일찌. 우리더르는 누이를 크게 보지를 모태도 누이도 이씨. / 몰
라. 멍는거는 모르겐는데 우리 누이 키우는 거 가 봄 귀경으 핸는데. 이러케
굴거. 이례 뽕나무 따다주면 거 멍는데 이러케 굴거. 이러케 허연 거. 허연
기. / 우리더르는 아~:이 해씨. 우리더르는 바다까에 일쓰이까 그런거 안 하
고 소니 아래. 농사진는 데 구경하이까. 이러케 국떠라구 굴근 거. 뽕나무 따
다주무 그거 막 가라 머거요. / 뻔데기는 이부기서 우리는 몯 빠써요.

- 술.

- 고등어 마~:이 나지요. 겨우리 가튼 때는 명태 마~:이 나고. 또 한 유
월따리 뛰 그때 가게 뛰면 고등어 마~:이나. 고등어두 이리 큰 거 그런거
마~:이 나구. 그리고 뭐 도루매기. 고기는 이부기는 고기는 마나. 참치두 이
러키 굴근 거. 오징어도 자폐지. 오징어두 잡는데 여기처럼 부르 안 키구 이
리키 목씨~:이 나가 자바 오이까. 자바는 와두 이리키 마이는 몯 짜바와.

- 명태는 게다 말리운다고. 드럼을루 한 드럼씩 낀다구. 스무마리씩 그래
서 끼 가지구 드려오문 그 따서 건조해 이러케 더그 크게 매 노쿠 서리. 매노
쿠 건조해 가지구. 그거 전 드려므로 이리키 거려 노으믄 나리 추우니까 어렵

따 노간까 이리키 마른다구. 마시꾸. / 그럼 그기 황태지. 그거 그래 가지구 여기 이나메 나와 우리 파라 가지구 드려가구 그래씨. / 가마~:이 배에 실 꾸 나와 여기나와 파라가지구.

- 그럼 구워두 먹꾸 써서두 먹꾸 그리지. / 하리다 꿉째. 이부기는 할또~:이라 그래. 이 불 피야노코 굳는 거. 이부기는 추부이까. 모두 집찜마다 이러 캐 부르 피야 논는 하리. 할또~:이가 이씨. 거기다가도 구버 먹꾸. 고기 그런 데 구버 먹찌. 하리. 할또~:이서 구버 먹찌. 방에 일찌만 고기르 구불 쐐 게는 베:게 내 노쿠 굽찌. / 구정무리라 그래. 구정물. / 그르스 처으미 까시지 안쿠 논 무르 자신무리라 그래. 그르시다 떠 노코 까시거던? 싱크대가 이부기는 그런 기 업쓰이까 저기 그르시다 떠 노쿠서리. 그저네 이부기 이 그르스 떠 노코 그를 까새는 거 해 논 거 자시토~:이라 그래. 거기다가 떠 노코 그를 까새는 거 그거 자신무리라 그래. / 그래 노쿠 시처 노쿠 그 물 내비리구 그리지. 그러구 '구정물 내비리라' 그리지. / 베 가지구두 그를 까새고 그램찌. 이부기는 그래씨. / 세수할 때는 세수때다 떠노코 하구. / 다 지마큼씨기까. 동니동니 사는 기 따이까.

- 떠그는 여기처럼 고루 이씨. 여기 인절미르 찰띠기라 그래. 절펴느 핸 건골미띠기라 하구. 또 쉬谝도 해먹꾸 머. 별끼 다 일찌. 떠그는 여기처럼 떡뚜 그래. 시리띠그는 아더르 돌 때 하는 거. 시루다가 찌는 거. 시루띠기라 그래. 시리다가 씬다구 시리띠기라 그래. / 시루도 일찌. 이부그는 대강 지비서 마~:이 해 먹찌. / 인절미두 도리다 노쿠 친다구. 땅미르 가지구.

- 뾰시기다 무스그 다마 가지구 머 해. 양여모 한다구.

- 꾸미라는 건 꿈뀐다 꿈뀐다 그려겐찌. / 아~:이야.

- 지너그 머그라 그리지. 지넉때 웨니까 지너그 머그라구. / 점심 잡쭈라 그리지. / 그건 또 아치미라 그리구.

- 조가지라 그래. 여기서도 우리는 조가지라 부르거든. 어떤 사람드른 조

개라 부르는데 우리 이북 싸람드른 조가지라 그래. / 우리는 다 여기 이북싸
람들하고 사기 따무네 마리 빙할 쑤 업씨. / 이제 다 죽꾸 우리 친구드른 엄메
나 업씨요. 여 사는 사라믄 대여선 명 인는데 짹 놀러가구 업꾸.

- 밥쭈개라 그래 거는. 우리 이부기는 저런 조개르 조개 큰 거 이씨. 가리
비가튼 그런 조개 큰 거 이씨. 그거 가지구 밥 푸고 그래씨. 박쭈기라 그러구.

- 술 바다먹찌. 수른 뭐 지전제도 바다오고. 수빼~:이다도 바다머꼬.

- 단지라 그리지.

- 대기 그거는 새 이르민데? 요러케 쪼그만 새 이씨 그런기. 그저네는 이
부기는 저런 백싸자~:이 이썬꺼든? 고 대기란기 맹긴다구. 백싸자~:이서.
그럼 그거 대기라구

- 남자들 바지, 당꼬바지 그런거 마~:이 이별찌. / 꼬장소꼬지는 여자드
리 입는건데 소계다 입꾸. 시집갈 때는 잘 사는 사람드른 꼬장소꼬지란 거또
이씨. 소계다 입는 거. 미티 째계 진 거. 그런 거 거져 꼬장소꼬지라 그래.

- 글쎄 그거는 무리 묻꾸 나며는 얼레기 가는, 인는 거 얼레기라 그리지. /
그래 오시 무르 무드믄 얼레기 가는 쳐~:이 이씨.

- 우티라구. / 다리미르 다지지. 손따리미르. / 넓꺽하게 생긴 거. / 부르
답는 디는 쇠로 뒤 일꾸, 지구 이러키 하는 디는 나무 뒤 일꾸. / 윤디는 또 요
러키 쪼끄만 기 이씨. 쪼끄만 기 인는데 오스 해 가지구 요래 갈래노쿠 다리
는 기 쪼끄만 거 이씨. 윤디.

- 그건 자바~:이라 그러지. 마서~:이라 그래, 마성. / 자방치미라고도 하
지 그기 미시~:인데 자방치미라구두 하구, 미싱~:이라구두. 장방트리라 그
러기두 하구. / 우리? 여기서 쓰는 마리? 여서 쓰는 마른 미싱~:이라 그러기
두 하구 자바~:이라두 하구. 우리 이부기서 하던 그 마르 그양 여그와 하지.

- 돌찌르. 우이 입는 거 돌찌라 그래. 이례 걸쳐 입는 거 돌찌르 입는다 그
래. 그런 거는 시작 그려케 안 해. / 아무 쳐~:이나 망근 거 입는 거 돌치라

그러나? 돌찌라 그러나?

- 이거 주머이라 그래. 거는 신바리 그리바. 집씨느 마~:이 신꾸, 고무시~:이란 기 흔하지 몯 하이까. 우리 나올 때두 흔하지 몯 하이까. 우리더른 시집을 때 고저 고무시느 크게 몯 시네바씨. 집씬두 신꾸 맹기구. 아무기래두 꺼믄 고무신두 신꼬 맹기구 그랜찌.

- 여자들 이븐 거는 입는거야 여그처럼 일끼야 인는 사람드른 잘 입꾸, 업는 사라므는 몸빼두 해 입꾸, 업는 사라므는 마~:이 모 이벌찌. 인는 사람드르는, 이부기두 인는 사람드르는 잘 입꾸 맹기지요. / 치매두 입꾸, 몸빼두 입꾸. / 이건 짹 바지지만 몸빼는 그저네 아래또리 이리키 하구, 이부기서 그저네 전쟁 이러날 짹게도, 거 간딴하게 입느라고 몸빼르 해 이브라 해 몸빼르 해 이벌짜나. / 지버 이브라 그래. 그거 지브라 그래. 구여~:이 뜰벼져서. / 헌거트, 헌거트 헌거티라 그러지. 오슬 망그는 이런 헌 거는 헌거티라 그래.

- 방빠다그 땅는 기는 헌거틀로 딱찌. 우리는 이런거 안 하구, 그저네는 이 참대로 가지구 맹긴 거, 그런 자리르 까라. 거 노조~:이라 그래, 노존. '노조느 까랄따, 깔자' 그래.

- 주머니르 염치개라구두 하구, 주머이라두 하구 그래. / 그럼 그저네는 염치개라 그래.

- 가메 타구 가. / 연지곤지 찌겁찌. / 쪽또리. / 오슨 한복 입꾸 완찌. / 고름.

- 골미. 여는 아~:이 해. 바느질 해야 골미르 쓰지. / 이제 다 싸입꾸 그러치. 무슨 안 해. 이제 끼매도 안 입꾸 다 내버리는디 무슨.

- 단추 구영으 단추구여~:이라 그리지. / 궁기라구 하는 캄谮데. 단추구여~:이라 하지.

- 허리띠. / 모르겠는데 니비띠. 니빈 거 띠이까 니비띠라 하겐찌. 그런데 주로 허리띠라 그러지.

- 니비이부른 거서 니비이부리라 그래 이부기서. / 엔거, 아래 쪽쪽 엔거.

- 다드미질한다구. 방매~:이로 디디리지, 방매~:이. 방치또리란 걸또 이리키 놈. 방치또르 노쿠 이리키 다드미질하는 방매~:이 일쎄. 그거 까주 이리키 디디리. 이부기는 그거 마~:이 해.
- 다리매 매겐찌. / 한보그 이브무 바지 입찌 머. 바지르 입꾸, 조고리 입꾸 그러치 머. 두루매기 입꾸. 거도 잘 싸는 사람 두루매기두 입구. / 틀리지.
- 꼬장바지란 건 소기다 임는 거 꼬장바지라 그래. 속빠지르.
- 거도 보재기라 그래. 보따리라 그래.
- 비네르 지르지. 비네.
- 서답 빨려 가자 그래. / 거기는 개울까에 가서 마~:이 빠라. 이르미는 업쎄. 거저 개울까에 가 빠는 기지. 우리 거:는 니리까는 무리 이레 이쓰이까 거서 빠라. 웅구리서두. 웅구르 무르 이다가 빠라 먹꾸. / 그건 방치또리 아~:이구, 방매~:이질 해 빨지, 거 도리 인는 디다.
- 개구재~:이라 하겐찌. 대포재~:이라구 그런 건 모르겠는데? / 개파리라 그러지. 개파리라 그래, 개파리라구. 저 개파리 보라구.
- 이부기는 잘 사는 사라믄 여기처럼 지재기르 해서 하지만 해두, 이부기는 이런 기 그리부이까, 현 오스 뜨든 거 가지구 아들 지재기 바치구 마~:이 그래써.
- 일끼야 일찌요. 머글 꺼 파는 디 다 일찌. / 그거는 머 이부그는 그때는 게니 그런 디 팔구, 또 저런 또 그런 파는 디 일낀 이썬는데 모르겠데? 다 이저 뿌리구. / 그럼 개게 파는 기 마날찌. / 시장가서 싸오고 그랜찌. / 예, 시자~:이 일찌요.
- 밑 뿐~:이 안 뛰. / 네, 이라러 맹기구, 여는 노는 사람 업쎄. 나두 이랄려 맹기는데, 오늘 배 안 나가이까 지비 일찌.
- 고기 빼길라두 가구 그러지. / 이 아피서 하는 사람, 저 미티서 하는 사람도 더러 일꾸, 더러 장사땡기는 사람도 더러 일꾸, 머 지비 이전 인는 사람

두 크게 업써. 오징어 손질하려 땡기는 사람두 일꾸. / 할복짱 거 모케 가무,
오징어 거러 노은 집뜨르 가게 뛰믄 만치.

- 내 말때르 거서 가. 사람 마~:이 그럴라 갈라무. 노인회관 가란데, 거기
여자들뚜 만쿠 나마느 이들 거기 다 뵈와 논다구. 여자들뚜 일꾸, 남자들뚜 일
꾸. 거 노인화과네 노인회관 알죠? 거기 가게 뛰므 이북 싸라미 다 뵈아 드러
노라. / 나 여기 허리아파 안가요 거기는. 우리는 안주그 이러케 나: 그러케
육썹 님, 칠썹 다 먹찌만 해도 우리보구 나이 마는 할머이들 다 거기 노인회
드러 가지구 논다구. 점슴도 거기서 잡쭈구. 점슴두 해 잡쭈구 모두 그건또
하고, 화토도 치구, 하라비지들 화토 치구, 마작또 노고, 골패도 노고. / 골패
라고 몰라? 요러 쪼끄마케 생긴 거 그런 거 가지고 노는데 골패라 그래.

- 통일뒈 이 지비 가 보게싸? / 우리 친정찝 씨끼는 거기 다 이썬는데 이젠
마~:이 도라간찌 머. 시집씨끼는 우리는 다 나와써요. 거기는 크기 업써요.
/ 이 청호도~:이서 사십오 여~:이 뛰니 사십오 연도 더 뛰요. / 이 맨 백싸
자~:이지. 저기처럼 백싸자~:인 디다 지브 전따구. / 백싸자~:이다 그양.
지비 업쓰이까 그양 그저니는 이러케 아~:이 진꾸 하꼬방 지얻찌. 하꼬방으
는 그저니 여기 외리시대 때르는 마~:이 땡기민서 너르 쪼사 가지구, 너리
여기 무리 드러오는 거 쪼사 가지구, 저 바다까에 떠 드러오는 거 쪼사 가지
구 맨 널찌브 진 기, 판자찌브 진 거지. / 쪼끄마게 쪼끄마게 저썬찌. / 그때는
우리더른 크게 마~:이 업썬찌 뭐. 마넨찌 뭐. 우리 요 카네서 우리 식끼 열
식끼 사라써요. 요 조 카니만. 조거 방 망구고 요러캐 해 가지구 그러다 요기
르 고치 진거지. 이제 진 지 십 밑년 뛰지. 그저네는 저:서 다 자란따구. 아:
여덜브 큰딸만 주문진서 나쿠 크나들부터 여그 와 이 집터에서 난 기여서 일
구브 날따구. / 예, 시장 링절 때 뛰믄 지비 방이 이러키 커두 명절 때 뛰므 쪼
바요. / 옌날 이예기 할 끼 뭐 이써? 할 싸람두 업써 우리두 형제 가~:이 오
형지 나완는데 다 도라가구 시동생 하나 뿐이 업써. 하나 인는 겉뚜 아파 가

지구 서울 병워느 간는데, 우리 시동생으는 열 메싸례 열 다선 싸렌가 나완는데, 여기나와 핵교르 그양 드러가 가지구 저 검찰처~:이, 서울 고려대핵 땅기 가지구, 거기두 시험 안치구 그양 드가써. 공부를 자래 가지구. 그래 가지구 여 검찰처~:이 일따가 여기다 삼업싸르 챙기 가지구 나완는데 바래미 와 가지구 서울 가 병워네가 인는데 이제 다 도라가구 이제 쓸만한 사람 다 도라가구 업쎄 이제.

- 성함이란 기 무슨… 거기 노인회 차자 가란디 그래. 거 가게 데믄 김태술 하라버지두 거기 일꾸. / 거 우리 한고향 싸람드리야. / 거기 가게 데믄 마나! 내가 무려보지 말구 거기 가서리 무려 안데르? 할머이들또 거기 마이 뢬아드려 논단디. / 점슴때 대므 이씨. 점슴 잡쭈구 거서 남자더른 눌더라 노라. / 거그 가게 데믄 할머이들 거그 밥 해 디리는 할머이들뜻 이씨. / 거기 모두 이부기서 나온 사람 마나.

- 그 가서 김태술 하라버지 차서 노치~:이두 그거 거기서 한고하~:이서 나완는데 노치~:이두 인는지두 몰라. / 업쓰믄 그 하라버지 가 무려 지비 가구. / 칠씹 너인가?

- 글씨 철거 된다 한데 언제 뒤젠는 지 모르지
- 글쎄 어디 가젠는 지 땅 주는 디르 또 가야지.
- 모르게씨. 여기는 안주 여기 싸라믄 안주… 요 중간 마리는 저 우이다 지브 더러 진 지비 이씨.
- 그럼, 바까테두 나가구. 저 우이 엔나레두 여기 지비만 해씨. 여기 다 헐 구서 저 우이두 가구.

최옥순(여.68세, 전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지구 서울 병워느 간는데. 우리 시동생으는 열 메싸례 열 다선 싸렌가 나완는데. 여기나와 핵교르 그양 드러가 가지구 저 검찰처~:이. 서울 고려대핵 땅기 가지구. 거기두 시험 안치구 그양 드가써. 공부를 자래 가지구. 그래 가지구 여 검찰처~:이 일따가 여기다 삼업싸르 챙기 가지구 나완는데 바래미 와 가지구 서울 가 병워네가 인는데 이제 다 도라가구 이제 쓸만한 사람 다 도라가구 업쎄 이제.

- 성함이란 기 무슨… 거기 노인회 차자 가란디 그래. 거 가게 데믄 김태술 하라버지두 거기 일꾸. / 거 우리 한고향 싸람드리야. / 거기 가게 데믄 마나! 내가 무려보지 말구 거기 가서리 무려 안데르? 할머이들또 거기 마이 뢬아드려 논단디. / 점슴때 대므 이씨. 점슴 잡쭈구 거서 남자더른 눌더라 노라. / 거그 가게 데믄 할머이들 거그 밥 해 디리는 할머이들뜻 이씨. / 거기 모두 이부기서 나온 사람 마나.

- 그 가서 김태술 하라버지 차서 노치~:이두 그거 거기서 한고하~:이서 나완는데 노치~:이두 인는지두 몰라. / 업쓰믄 그 하라버지 가 무려 지비 가구. / 칠씹 너인가?

- 글씨 철거 된다 한데 언제 뒤젠는 지 모르지
- 글쎄 어디 가젠는 지 땅 주는 디르 또 가야지.
- 모르게씨. 여기는 안주 여기 싸라믄 안주… 요 중간 마리는 저 우이다 지브 더러 진 지비 이씨.
- 그럼, 바까테두 나가구. 저 우이 엔나레두 여기 지비만 해씨. 여기 다 헐 구서 저 우이두 가구.

최옥순(여.68세, 전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자료5)

- 오금. 가다리라는 건 이거 펼쳐쓸 때 이거를 가다리라 그려구. 오그미란 요 관절 부부늘 오그미라 하구. 가다리란 다리 펠친 기 한가달 두가달 그리지?

- 여기서는 겨드라~:이라 그리자나. 저드라~:이라 그래. / 우리는 저드라~:이라 그랜찌. 여기나와 겨드라~:이라 마~:이 쓰지. / 그러니까 이북말 쓰다가 아무래도 이짝 마리 표준마레 가차운 쪼그로 겨드라~:이라 바꿔쓰지. 말 그래캐서 바껴 가지구. 이제는 습까니 뛰서 겨드라~:이라 그리지. 그저네 초창께에 저드라~:이라 그랜찌.

- 고르미라 그리지.

- 꼽새.

- 토하는거 게운다 그리지. 게우닥찔한다. 토해쓸 찌긴 게완따 그리지.

- 체핸따 그리지. 여기서는 언챈따 그러자나. 체핸따구.

- 거기서는 그때야 지금처럼 의수리 발딸 안 한 때구 하니까. 보통 초네 민간 요빠브로씨 사와늘 친다 그러자나? 바늘로 찔러서 피 뺀다 마리야. 사관 논는다 기래. 침 논는다는 기 사관논다. 심할 찌기는 요도 노코. 혀를 통하는 거지.

- 귀통으 때린다 그리지. 귀통. 여기서는 뺨때린다 그리자나? 그리구 귀때기라 그리구. / 귀뚱, 귀때기. 주로 거기 귀통~:이라 마~:이 그랜찌.

- 귀멕째~:이라구.

- 귀창.

- 여기서는 퀸빠비라 그리는데, 그거는 머라 그랜는 지 모르겠따.

- 기미. 아~:이지. 지미하고 기미하고는 다르지. 기미라는 거는 요리케 까마케 사바~:이 짹 까매지는 거. 지미라는 건 군데군데 시꺼먼 기 벤기 일짜나? 그거 지미라 그리구. 여자드리 임신할 때나 껴머케 뛰는 거 일짜나. 그거는 기미라구. 지미라는 건 우리 몸 주위에 어떠한 특쑤부위에 시꺼먼 기 하나

썩 배기자나 그거 지미라 그리지. / 검버섯. 거기는 그거 저승꼬치라 그리지.

- 할개핀다구.

- 까치거름. 깨끼거르미란 걸또 이써요. 비스탄 예기지. 지역마다 표혀늘 하는 기지.

- 빼지라 그러지. 여기는 뾰드라기라 그런다구. 거기서는 빼지를 어떡하드라. 눈써블, 눈써풀 뽑는다 그런거 가태. 따라끼라도 하고 여기서는 따라끼라 그러지. 빼지라 그러는데 그 치료 방버븐 잘 몰라.

- 대머리를? 거기서는… 기어기 잘 안 난다. 주벼네 그런 사라미 별루 업쓰니까. 우리가 일본마를 막 쓸 써기니까 하게다마 그랜찌, 대머리를.

- 등. 주로 거기서 사투리 등때기 가렵따 그리지. 등때기 가렵따. / 거기서는 대나무 가지구 이려키 맨든 기 아~:이라 수수, 옥쑤수 속 일짜나. 그걸 옥쑤수 소글 옥쑤수 다 빼먹꾸 소케 남짜나. 가운데 가서 작때기 나무꼬재~:이지버여쿠 그거 마르면 빽빽하자나. 그래 가지구 이려키…

- 강예~:이. 강예. / 주로 쌀마 먹찌. 지금 이루기서는 그걸루 싱냥하라 해서 써서 옥수수 쌀 맨드러 가지구 그걸 밥 해 멍는다 하는데 우리는 그려케는 안 먹꾸 간시그로 머건찌.

- 무우. 그럼 싱냐~:이 부족할 써기 그랜찌. 무우 채를 써러서 밥해서 밥하구 해서 머건찌. 일뚱 싱냐~:이지. 지금 싸람드른 배고푸고 라면 끄래 머거라 어찌라 그러는데,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러치. 그때는 사실 어려운 사람드른 데께 어렵께 사라꺼든. 정말 사네 가서 나무 목피를 빼께다가 이려케 먹꾸 대두바기란 기 이씨. 콩기르를 짜고 난 까리, 찌꺼기. 그건 정말 뛰지두 잘 안 먹꺼든. 그런데 우리가 머거 반는데, 일째 말려베 그거 머건는데, 모쿠녕에 너며 안 가.

- 까리란 건 이베 소리를 내는 기 일짜나. 요기서 고무를 가지구 똥그라케 만드러 가지구 한 쪽 구녕 내가지구. / 응 꽈리를. 그거 까리라 그래. / 거기는

그때 당시는 고무로 맨든 기 업썹꼬, 여 파리 나무가 일짜나요. / 까리나무 이 써. 까리 거 새빨간 열매가 열린다고. 고걸 소니다 노쿠 자주 비비면 말랑말 랑해진다 마리야. 그래 똑 떼면 뗀 자리가 일짜나? 고기다 무슨 성냥까지가 튼 걸루 잘 비비 여 가지구 그래 돌리서, 그 아네 씨를 짹 빼는 거지. 그 아 니 인는 걸 씨가튼 걸 짹 빼. 그러면 나중에 잘 빼며는 그기 똥그라케 불거지 구, 그래 그걸 대구 씀는데, 아무래도 수집품 아~:이구 자연 나무열매니까 쪼금 하면 아구리가 터지지. 그러면 이제 소리가 안 나지. 주로 그걸로 마~:이 훈찌.

- 새 주둥이. 주디. 개도 주디라 하고.

- 땀때. 땀떼. / 거기는 머 야기란 기 주로 땀떼가튼 기 나며는 우리는 주로 해변까에 사라쓰니까 바단무례 모욕이나 하고, 그리키 해서 그때 머 약째란 기 일쓸 쑤 업찌.

- 붙는다 그리지. / 뾰드라자. 우리두 엉디가튼 디 나는 거 뾰드라자라 그리지. 여기서도 주로 뾰드라자라 그리자나요?

- 무릅. / 신다는 이거 신다리라 그리지. 그래서 지금 마리 여자드리 무슨 여기만 봐두 어디를 뵙따 그리자나. 신다리가 여자들 국뿌에 가차운 기 그런 표혀늘 마~:이 하지. 허벅찌 그러니까.

- 무릅 고도리라 그리지 요기를. 전체저그로 보는 기 무르피라 하는데, 요 거 무릅고도리. 무릅 꽁다리란 예기겐찌. 무릅 고도리.

- 우리는 철뚜꺼비란 마른 모르겐는데? 뚜꺼비란 아마 무릅 고도리 움지 기는 요고를 말하는 모예~: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게씨. 그런 생활용어 그 런 건 별루 엄는데. 무르피면 무르피구. 무릅꽁다리면 무릅꼬다리구 그러치.

- 병어리. 반빙어리. 벼버리.

- 방기. 여기서는 무스그 점잔케 방구라 하는데, 거기는 방기. / 몰라 그 리이까 내가 생각할 써기는 노을 방째라. 나간다는 방째. 재හ떤거 나간다는

시그루, 기가 나간다는 그거지, 기가. 그런 푸리로 하면 웬끼야.

- 밴꾸비라 그래. 여기는 밴꼬비라 그러자나. 밴꾸비, 밴뿌기, 밴꾸비지.

- 복사빼라 그리지.

- 사타구니란 기 아까 그기 이기라니까. / 그러니까 가다리는 이거 전체를 말해서 가다리라 그리고, 사타구니란 바로 이 부부들 사타구니라 한다구. / 사채기. 사리라 그리지.

- 사파리 말하는 거지? 우리는 새뜨개라 그래 우리는. 새뜬다. 거 무슨 뜨신지 모르게쓰나 새뜬다 그래. 눈 한짜기 눈 촐찌미 맘찌 안는 사람을 새뜬다 그리지. 새뜨개라 그리지. 그런 사람. '저 새뜨개 새뜨개' 그리지.

- 질구배~:이가 썰루배~:이. 다리가 썰룩거리는 사람. 거 우리는 썰루배~:이라 핸는데 질구배~:이나 한가지야.

- 상티. 여 상투란 기 거는 상티라 그래써. / 감투란 거는 머리에 쓰는걸 감투라 그러구. 요거 달린 건 상티라 그리지. 감투라는 거는 쓰는 모자가튼 거. 쓰는 거 감투라 그리지.

- 그건 피양도 마리고, 정거자~:이라 그리지. 피양도 마른 정짜르 더~:이라 그리구. 지은 바치므로 정짜로 바름한다 마리야.

- 점잔케 마를 하면 장니미라 마를 하지마는 거기서는 소겨~:이라 하지. / 쉐경. 쉐겨~:이가 사투리 쪼개 가깝찌.

- 쉐미.

- 서로가 무슨 조치 안케 말할 때는, 무슨 점잔케 말하자면, 외눈배기던가 그러케 하지마는 거그서는 사투리로 막 지꺼리고 아이들 장난하고 이럴 쪘제는 통고리라 그래. 통꼴. / 그런 뒤꾸누~:이란 건 업꾸, 물론 표혀늘 누~:이 그러케 하니까 그러치만. 우리는 그거 통고리라 그래. 누니 이 잘몰に戠 사람을 통고리라 그래.

- 언채~:이. 여기서는 거 언채~:이라 하는데. / 어, 마자 해채~:이. 해

채~:이라 그래. / 아~:이. 여기 그러니까 빵꾸 난 기지. / 구멍난 기 아~:
이라 입쓸 자체가 이러케 돼 일따고. 째게 절따고. / 해차~:이라고.

- 항무는 우리가 주로 이거 자체를 엉더~:이라 핸찌마는 더 사투리로 미
꿍기라 그랜찌.

- 똥으는 똥으로써 그냥 해쓰끼야. 개똥, 쉐똥하민.

- 정개~:이란 아마 여기를 정개~:이라 할꺼야. 종아리가 정개~:이.

- 뾰드라지.

- 버서시라 그러는데 마른버선. 버서시라 그래. 마른 버선. 진버선.

- 이가 마난찌. 부모들, 어머이드른 저녀게 하는 이리란 게 밤난 애들 옷
빼께서 이 잠는 기 그기 일파라니까. 그리니 이가 얼메나 마난는가 하며는,
지금 아드른 이라는 거 구경을 모태씨. 이야 때로 오슬 빼께노으면 손녀애가
튼 거 빼께 노며는 하나하나 이리키 잠는 기 아~:이라, 화론뿔 일짜나, 화론
뿔 일짜나, 화론뿔 롤파가 노코, 그기다 오슬 빼께서 양쪼글 든다구. 들며는,
이가 뜨거우니까 거서 막 떠러지거든 응? 떠러지면 그기 떠러져서 탁 터져서
푸득푸득 소리가 난다구. 이가 떠러져 터지는 소리가. 그래 가지구 그거를 움
지기는, 그려재느믄 아주 째끄만 거는 아예 거기서 그냥 말라 부터 죽떤지 그
러케 돼고, 이가 깨지 모탄 이 알 마리야. 그걸띠른 떠러질 쑤 업짜나요 지금.
그래 그거는 어터 하냐믄 처들 한소늘 아래 물구서 씨버. 이러케 씨브믄 그
게 씨페서 모두 터지거든. 그러케 해서 모두 방멸하구 옛날 그러케 핸찌. / 그
러치 이 새끼지. 이 알. / 그거는 머리꺼는 머리 이는 또 까매요. 새까매. 오
세 이는 하얀데 머리 이는 가매. 그러니까 그걸 비슬. 그러니까 머린니가 머
리에 알 쓰리노커던? 그리구 그건 도저히 자블 쑤 업짜나요. 그래 어머이드리
안자서 무슨 머리를 하나하나 훈는다 마리여 이러케. 그래서 주기구주기구
하는데 부지자세루거든. 거 언제 다 잡께써. 그러니까 비, 챔비시라는 기 일
짜나. 챔비 아주 가는 비. 그걸루 빼스면 써개가 더러 무더 나온다 마리야. 그

래서 그거 부리다 터려 여ку 잡꾸. / 글쎄 그건 모르게써. 그걸 뚜 무슨 은신수 린지 두 모르지 머. 까만 디는 잘 보이지 아느니까. 까만 디 힌 이 이쓰면 이차 보이니니까. 동물들 다 현장에 저궁하느라 그리겠찌며. / 써개는 아예. 이 머린씨개도 하예. 까만 기 아~:이라. 아이들, 궁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애들 볼 때면 머리가 부모들 잘 가꾸어 주지 안는 아드른 하예요 써개가.

- 그때 비누가 그리원찌. 그때는 우리가 이쓸 찍만 해두 비누가 좀 그리원지. 좀 어지가~:이 먹꾸 사는 사라믄 빨랠빼누래두 이썬는데 여기 싸람 그런 거 업썬찌. / 이빠른 소그므로 딱꾸 그랜찌. 그걸 뚜 이빨 당는 사람 얼메 뒤나? 거이가 안 딱꾸 지낸찌. 모욕또 안하고 거저 지비서 거저 여르미면 바다에 나가 모욕하고 그리고 지비선 더울 때 무를 언저라 이카민서 좀 베끼구 그랜찌. 여기처럼 정기저그로 내 위생관념을 위해서 목욕하거나 그런 건 업썬다 마리야.

- 아~:이지. 거기서는 소금을 바단무리서 언는게 아~:이지. 소그믄 어디까지나 상인들한테 싸멍는 거지. 자체 생사늘 모태써요. 그 염저~:이라구 저 아랠템에 염저~:이란 디 일짜나요. 그래 그쪼근 기후가 더브니까 염저~:이가 뛰는데. 북쪼근 기후가 차니까 염저~:이 잘 안 뛰거든? 그러니까 천상 소그를 싸며 걷찌.

- 거기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우리 속초를 기주느로 한다면. 속초보다는 좀 늘찌. 기후가 좀. 그리이까 겨:리 좀 길고 여르미 좀 늘꼬. 그래 지금 거기는 아직또 좀 기후가 차지, 이짜개는. 북쪼그는 이러케 올라가면 기후가 바까지니까 아무래도 그짜기 좀 늘찌.

- 거기에 감나무는 별루 모빠써요. 기후가 잘 맏찌 안는 모야~:이야. 그래 우리는 명절때 차례지낼 써게 보며는 어쩌다 감가튼 거 홍시가튼 기 올라온다 마리다. 그래 그거 하나 어더머그면 큰 행우~:이지. 그리원따고. 물론 그 때는 모든 거시 그리원지만 계란 한개 어더먹째두 차례를 지낸다든가 명절나

리나 그때나 어떠케 잘하믄 반쪼기 째긴 계란 한개라두 머겁찌, 몬 머겁찌.
그래 그런 속따미 일따고, 손니미 완는데 밥쌍, 손님 밥쌍 채리서 방에 드리
난따 마리야. 근데 아이드리 보이까 밥싸~:이다 계란두 차리노쿠 그랜꺼던.
손님 밥싸~:이니까 잘 채리쓸꺼야 반찬. 그래 아들 문꾸영 드리다 보다가
그거 나므믄 머글까 하다가, 그 손니미란 게 그 마지막까지 하나 딱 찌버 머
겁따 마리야. 그리이까 바끼서 '아이고 다 명네!' 그리드래, 소리 철때. 그리
이 제 머글 껴 업따 그런 예기지. 그 정도로 그리원쓰니까 지금 싸람들 그런
이야기하면 거진마리라 하지.

- 엔날 이야기 머, 사아네 따라선 다르지마는, 특뻔히 무슨 이런 데 내놀
만한 그런 기란게 별루 업찌, 구전뒈 내려오는 그런 예기드리… / 그거는 이
제 구전뒈 내려오는, 엔나레 하라버지드리 손주들 안치노쿠 거진말하는 거.
그런 기 대부부~:이지, 전설찌르루 내려오는 그런 예기, 그런 겉뜰두 일찌마
는, 그건 특뻔한 그런 지역이래야 전설찌그로 내려오는 그런 예기 일찌 일반
찌그로는 그런 기 업씨요.

- 그런 겉뚜 일찌, 수수께끼가튼 거 일찌, 인는데 벨루 그때는 머 무슨 그런
여유드리 업씨찌. 무슨 그런 거로 정서생활하고 어찌고 하는 기 벨루 업씨따구.

- 배리.

- 열 일찌, 그건 여리라 그래. / 사라미나 동무리나 모두 여리 일쓰니까. /
아~:이 쓸개지.

- 샌때, 샌때라 그래 우리는. / 샌때라 그리지. / 그거는 샌때 이거는 ㅅ때.

- 쓰리라 그래. 도다나서 아픈 거 마리지. / 쓰리 쓰련따 그리지.

- 호레미, 가부, 가부라 하니까 호리미라 그리고. / 호래비, 호부래비.

- 따꼽째~:이라는 건 그거는 성지리 좀 퀘바칸 사람, 깍재~:이 노르슬
한다든가 그런 거지. 잘 통하지 안는 사람 말할 쪽게 그래. 자기 꺤만 자기 끼
라 하고 일반찌그로 잘 어울리지 아늘라 하고 그 따꼽째~:이라 그래.

- 그런 거는… 머이라 그리나? 우리는 그런 생활을 잘 안해서, 개종으 피운다 그리지. 그래 그런 사람 욕할 짜게는 개종재라 그러거든. '야 이 개종재 새끼야!' 쌈할 짜게 마리야 '야 이 개종재야!'

- 그거는 친구끼리니까 농담하느라 그리는데, 다시 말하면 애교인는 요기지. 그러나 모르는 사람보구 그럴 짜기는 요기뒈구. 아는 사람 할 짜기는 애교저긴 대화의 한개 방버비구.

- 노르미라 그리지. 좀 점잔케 말하면 투저~:이라 하는데, 그건 좀 유시칸 사람들 하는 예기구, 그저 일반처럼 노름이라고… / 노름 여기하고 가태. 그런데 옌나레, 지그믄 화토도 일꼬 도람프도 일꼬 하니까, 옌나레는 부기서 자랄 짜게는 투전할 짜게 마분지, 마분지에다가 마분지에 화투 쪼그마케 짤라 가지구, 여기다가 일리삼사를 써가지구 그거를, 그거 가지구 한다든가. 그리믄 업써쓰니까 일리삼사를 써서 그걸로 맘차서, 무슨 지금 직구때~:이두 하구. 찍꾸때~:이 화토란 걷또 꼬치가 다 순짜를 표시하는 기니까 보통 찍꾸때~:이가튼 거, 사람 사람수에 따르지. 보통 스무장 가지구 하는 걸두 일꼬. 화투가 마흔 여덟짜~:이거든? 마흔 여덟짜~:인데 찍꾸때~:이 쓰지 모타는 똥하구 비 여덟짜~:이거든. 그리니 사십 짜~:이란 마리야. 그러니까 사람 저글 짜게는 스무장으로 하고, 마느면 사십짱으로 하고. / 마자기란 거 이부기서두 해써요 우리가. 우리가 이부기서 어려쓸 때부터 마작 배와 가지구 하긴 핸찌. / 그러치. 저 루르가 만타구. 그래 머리 잘 쓰면 상대바~:이 동향을 잘 캐치해야 뒤지. 저 사라미 이런 글짜를 떼쓰니까 가연 어떤 걸 맘추고 간다. 그런 걸 상대바~:이 캐치를 잘 해야 뒤. / 바꾸라고? 바꿀 또~:이 업겠는데? 내 동통 아네 업면가? 거기 얼매 업찌. 요거 오처너~:이야 요거. 거돈통 아네 봐요. 돈통 아네 인는대로 써봐요. / 거 루른 다양해서 여기서 이 예기 모태. 맘추는 거는 이제 그걸또 루레 하나에 드러가는데, 저 보며는 일리삼사 일만 이만 삼만 아래 만째를 쓴 기 일꼬. 똥꼴배~:이를 표시한 기 이

꼬 그러타 마리야. 그래 혼합해서 맘치는 기 인는가 하며는 또까튼 거로만 만
째면 만째구, 똥그래미 똥그래미 고걸 분간해 마치는 걸뚜 일고, 또 맨 한문만
맘추는 걸뚜 일고, 또 세쪽씩 맘추는 기 인는가 하며는, 두쪽 또까튼 걸 두쪽씩
맘추는 걸뚜 일꼬. 그 머 루르가 다양해. / 저 마자근 옌날루 맨처음 배울 짜게
는 좀 째끔 좀 배와 노며는 바메 귀가, 잠 잘 짜기 누우며는, 천자~:이 모두
마작 쪼기 왈따간따 해. 그만큼 추이두 일꾸. 그러구 한참 노:다가 아버지가 주
걷따 해두, 노턴 치르 마주 노:고 가는 기 마자기라구. 아버지가 이러케 임종
할 때다 그래도, 노턴 치르 마주 노:고 그래 갈따구. / 놀던 그 파늘 마주 뜯내
노코 간다 마리야. 그만큼 그런 매려기 일따 마리야. 매려기자 마려기야.

- 어? 어 내 가주 드러와씨. 뛰겔따 여기. 자 요거 오쳐년.

- 떠러져 다치는 거 낭매라 그리구. / 거 이부기서는 주로 낭메르 하게 뛰
며는 어지간하면, 이 허리가튼 거 다친다든가 이럴 짜게는 개소주란 거, 개똥
을 그 개르 자바 가지구 개 이이다가 개똥을 여 가지구 그걸루 수르 맨드려.
그래 그걸 메긴다구. 개똥수를 해 메긴다 마리야. 그러기두 하구. 다으메 뿌려
지면 약 쳐먹꾸, 호야씨라구 인는데 풀씬데, 그걸 이제 다려서 메기기두 하구.

- 그 이제 불찌. 분는데 그기 이제 이부기서는 그때는 어떠케 핸는가 하며
는, 이 뿌려진 사람들한테는 구리. 동 그걸 이제 가라서 메겐따 마리야. 그 다
시말하면, 철분가튼 거 메기서 처리 드러가서 부터서 연결 웬다고. 지금 가타
서야 어디 먹끼야 하게씨? 금속, 중금소인데.

- 엔나렌 피분뻥가튼 거 마~:이 날짜나. 그러며는 야기 업찌. 그리이까 수
운 일짜나, 우리 이부기는 시운 시운 그러는데, 저 수운 저걸뚜 궁нят기란 마리
야. 그거는 어턱하느냐 하기 뛰므는 오강가튼 그런 단지를 노코 그 아니다 불
피우구 시우늘 태운다 마리야. 부르 폐서, 그래 그 시우니 타는 연기를 온모
메 씨운다 마리야. 완저~:이 궁야기지 그기. 그래 이부를 꺼꾸로 쓰고 몽만
내노코 꼭 덥꾸. 이 아니 연기가 차게끔. 게 그러케 해 가지구 피부뻥을 아주

극따네 참 무지한 치료 방비비열찌. 게 수우들 시우니라 그리구.

- 술두 밀쭈. 수리야 똑까튼 수리지. 근디 어트게 맨드느냐 하는 기. 그때는 주로 밀쭈가튼 거 마~:이 핸찌. / 밀 가지구 누루기란 걸 요기 지금 이스튼가 머인가 하는 그런 빠~:이다 연는 거 풍풀 푸는 거. 그런 자공하는 누룩 밀 가지구, 누루기란 건 이제 쪘서 그걸추 뺑처럼 맨드러서 노으면 발효ENCED다 마리야. 그래노코 이제 쌀 죽쑤 가지고 그 아내서, 발효 텔꺼 아니여? 막 써꺼서 겐다 마리야. 그러면 그걸 여기서 술 빼는 거처럼 일딴 공가니다 여 노코 불 때게 뛰면 증기가 수증기가 올라가 술루 빠진다 마리야. 고 바드면 쏘주가 뛰게 대지. 근데 주로 초네서 그러케 해서 먹고, 그거 쏘주지? 막걸리를 주로 마~:이 맨드러 먹찌. 배도 고프니까 막걸리 먹꾸 벤씸도 든든하게 해서 주로 농초네서 막걸리를 마~:이 해 먹찌. / 그러치. 거기다 누루기란 그거 여 가지구 그래 바료시켜 가지구 체에다 걸려 머그면 그기 막꺼리 뛰는 거지.

- 노는 사람 노는기구. / 그기 남자를 표현하는 기 선스나란 마리지. 선스나. '저 선스나 새끼들 논다'고 남자 아들 노는 건 선스나 새끼들 논다고. 선스나라 그래. 여자는 갈라라는 거는 주로 처녀가튼 걸, 어린애들 이런 여자를 간나라 그러는데. 이게 시집까고 그런 나메 부인더르는 초매띠~:이라구두 그러구 예펜네라두 그러구.

- 그건 양바느 집뜨리서 존충해 하는 예기지. 짐나이란 건 상다~:이 존충 해서 하는 마리지.

- 늘그마계.

- 오래비. 내 동새~:이라 그러며는, 이부기서는 주로 어터게 뛰나? 무슨… 그냥 내 동새~:이라 그리지. 그리키 촌충하는 거태, 여라래도.

- 거서는 주로 누니미라 그러는데, 그거는 벨루 거런 무슨 사투리가 업파구. 누이 누이 그러지. 우리 누이 어쩌구 저꺼구. / 누이 누비. 지영마다 쪼끔 씩 그런 차가 있찌. / 어째뜬 자기를 중시므로 한, 주로 누비란 건 윤싸리를

말하는 기고, 우리 누이들, 누비들.

- 빨리빨리 하라는 거는 얼릉얼릉해라. 그런 사투리지.

- 야 이 언디:야. 좀 모잘란다.

- 서~:이야. 동새~:이 나를 부를 짜게는.

- 그때는 주로 이름 부르지 머.

- 그거는 시동새~:이라는 거는 내 처가 내 동생을 부를 짜게 그럴 짜게 시동새~:이라 부르지. / 시액끼하고 시동생하고 마찬가지지. / 시누이두 나를 중시므로 한 내 동생드를, 동생 여자드를 거 시누이라구. / 아~:이. 할머이가 자기 직끼가족뜨를 머 시누이요. 시액끼요 그려케 안 부르거든. 시액끼란 거는 내 처가 내 동생을 부를 짜게 시액끼라 그리지. 할머이는 주로 이르를 부르고 그랜찌. '야:야. 아무개야' 머 이러키 불린찌.

- 아지미란 거는 내 동새~:이 내 처를 부를 짜게 아지미.

- 시형? 시혀~:이란 건 머야? / 시성~:이라 그리지. 내 동생 처가 나를 부를 짜게 시성님 시성님 그리지. 그건 내 동생 처가 나를 부를 짜게 시성님이라고…

- 시애비라 그리지, 시애비. 여기는 시아버지라 그리지? 시애비 시애비. / 시애미. / 내가 아버지 부를, 그: 아버지지. 애비라 하든지. / 아바이란 건 자기. 여기서 그러자나. 여기도 그런 기 일찌. 주로 우리 메눌가튼 사람더리 저 세대가 박꺼서 나를 부를 짜게. 내가 볼 때 시아버지니까. 아버님 아버님 해야 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집뜨리서는 자기 아버지를 아바이 아바이 그려거든. 동네 싸람드른 나를 아바이라 그리지. 혈육간계가 아닌 사람드른. 늘근 사람 부를 짜게 아바이라 그리지. / 내 직께 부모는 그려케 안 부르지. 애비든 가 아버지든가 부르지마는 동네싸람드른 내 아버지 부를 짜게는 아바이 아바이 하지. / 할머이가 아마이. 하라버지는 아바이. / 자근 아버지는… 큰아버지는 크래비 크래비 그려거든? 자근 아버지는 아재비 아재비 그런다구. / 아

지미. 그 아지미란 기 마~:이 통한다구 우리는. / 얼라는 얘기를 얼라라 하는데. 갈라란 건 여자를 갈라라 그리구. / 얼라는 통상 마귀서 얼라라 그리구. / 장모는 장모라 안 그리고 가스에미, 가스애비. 가스애비는 장인이구, 가스에미는 장모고.

- 처녀가 하든지.

- 거기는 풍어제를 여기처럼 요란하게 이카는 건 안 지내고, 풍어제라고 별또로 이러케 호하스럽게 지내는 게 아~:이라 부라게서, 부락 자체에서 어떠한 통터른 제사. 연중 한개에 행사랄까. 거기서 소위 예시~:이라, 예시~:이 지낸다 그래 예신. 시늘 지낸다 하면 예신 지낸다 그래. 그때는 이제 부라게서 뛰지 자브믄 뛰지잡꼬 소 자브면 소 잡는 디 일꼬 지영마다 다른데, 예신 지내는 나리라 하며는 부락 싸람들 집찜마다 양재기 그릇하구 숟까락하구 가지구 나간다구. 그래 가지구 나가서 제사 다 지낸 다음 그 꿈무를 촘 어더서, 밥 어더서 디비서 어더 먹구 그램따구. 그기 합챙도 부락 자체의 제사지. 동네 안위를 기원하고 고기두 마~:이 잡꾸 농사진는 데는 대풍오기를 빌구.

- 태풍은, 여기서 태풍이라 명칭 안 하구 샐빠라미다 갈바래미다 바다 천저리다 그런 시그루 통해꺼든. 바다천처른 바다에서 직접 쟁 드러오는 바람.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바다쪼께서 직접 드러오는 바라를 바다천처리라 해서 그거 젤 무섭따구. 거 샐빠라미란 거는 북쪼께서 오는 바라미 샐빠라미라구. 서쪼께서 나라오는 건 하니바라미라 그리고, 남쪼께서 갈바람.

- 무당 일찌. 무당은 무당이라 해.

- 점바치. / 복채를 도늘 얼메 노코, 그리재~면 점칠 째 공무를 상에다 언저 노코 점친 다음 무다~:이 가주 가는 거지. / 우리는 외가가 볼래 기독교 장노지기고, 우리 부친도 이 미시~:이란 걸 잘 안 믿뜨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안 핸따고. 안 핸데 다른 집뜨리서 하는 거 보게 뛰면 그러케 하드라고. 돈도 복채도 얼메씩 노코, 제사 지내고 구시나 저미 끈나면 그 무다~:이 모

두 거 들고가고.

- 새비.

- 가오리를 몰라. 가오리를 잘 모르게써. 거기는 주로 가오리쁘다 상어가 마~:이 날찌. 회 간파 치면 상어회 칠찌. 다르게 지금처럼 일반찌긴 회는 안 머걸꺼든. 상어 상어라고 일짜나? / 근데 상어란 기 일짜나 자근 기 일꾸, 큰 기 일꾸 한데. 자근 건 요막씨한 걸또 이씨. 고런 거 자바 가지구 회치구. 빼 가 무르고 해서 참 마시씨. 엔나레는 상어회나 칠찌, 여기 나오니까 무스그 심지어 엉미리회까지 맹태회까지 쳐 멍는데 머. 여기 나오이까 몬 멍는 회가 업 씨. 다 먹찌. 거서는 주로 상어회.

- 명태는 그려 회를 안 칠찌. 건 주로 말랴서 두드려 쓰지. 부거로 해서 그냥 먹꾸. 또 생태 찌개는 국 끄려 먹꾸 그램찌.

- 가재미두 거기서는 그러키 여기처럼 그러키 갑씨 업썰찌.

- 으너. 여기 두루메기지. / 그러치 고걸또 여난에서 알 쓸려 부화할라 드려 왈따가 해초에다가 알 쓸거든.

- 엉미리란 기 어느 지여계 분는 고시 일따고. 해아네 다 분는 기 아~:이 라 엉미리는 보게 뛰믄. 모래 백사장이 인는 그런 디 분꺼든. 그래서 자기 모를 모래 소개 드러가 파무더 몸 숨기구 일따 마리야. 그래 거 살란기에 드러 와서 모랜쏘개 가서 알쓰려 노쿠 그러구 나온다 마리다. 그래 그때 잠는 기지.

- 이민수를 새치라 그래. / 바단무레 살지. 그 새치란 기 쪼꼬만 거슬 새치라 그러구, 큰 거이 이민수라 그리고.

- 뱀장어. 뱀장어도 무리서 나는 큰 기 일짜나. 아나고라 하는 거 마리야. 그거 뱀장어라 그러고. / 칠씽고기란 거또 그러캐 생겼꺼든? 칠씽고기. 칠씽 어란 기 부산에 가면 자갈치 가면 그런 기 만치. 그리구 여기서 쓰는 아나고란 기 다른 거고. 월래는 마시 아나고란 기 마시 인는데. 그거 잘 몯 머그면 칠씽고기가튼 질 떠려지는, 칠씽고기가 똑 아나고처럼 생길따 마리야. 그래 그

걸 소케서, 가까이 비니까 모른다 마리야 그래 가지구. 부산 자갈치 시장은
잘 몯 머그면 칠썽고기 먹꾸와서 머 아니고 머걸따 그러드라구.

- 우리 이부기서는 별루 그런 거 몯 빠따꾸. 추어타~:이란 거. 여기 나오
니까 머 추어탕 어쩌고. 쇠추네라 그리지. 아~:이 여기서 미꾸라지 말구 옹
고지란 기 일짜나. 미꾸라지보다 자근 거 요마탄 거, 거 우리 거기서 쇠추네라
그래. / 그런 거는 우리 별루 몯 짜바 받따니까. / 농초니서 주로 핸찌.

- 여기서는 노루 노루 하지만 이부기는 놀가지 놀가지.

- 거 개새끼지. 개지. 개지란 기 개에 저근 노를 개지라 그러구.

- 고야~:이.

- 쥐는 또까태. 거기서는 주로 쥐란 게 우리 인간 생화례 해만 주는 기다
이러케 봐서 무조껀하게 쥐 잡는데, 주로 고야~:이 마~:이 키와 가지구, 그
래 쥐를 자연찌그로 잡꾸. / 덜또 더러 노킨 노치. 월래 마는 데는 덜뚜 노쿠
잡는데, 그 쥐덜 한번해서 걸려 주그면 다시 그 쥐데 쥐가 걸리지 안는다
고. 그래서 상다~:이 거 드트 놔서 잡긴 잡찌. 그러나 주로 고야~:이가 마
~:이 잡는다구.

- 딱따구리 일찌. 딱따구리란 기 나무 구영파는 그기 일짜나.

- 뽕나무 일찌.

- 여보세요? 어, 어. 할머이 업따. 할머이 어디 놀러 나가씨. 업씨. 거 어디
나? 어, 어: 예 거기 어디니? 론때 월드르? 그래 놀다 와 빨리? 어, 할머이
업씨. 어 아라씨. 마~:이 놀구와.

- 그기 뽕나무란 기 오디 나무라 그리지. 거 까만까만 기 열매달린 기 일짜
나. 거 이부기서는 오디라 그러는데, 거 오디나무라 그러지.

- 근데 북쪼개는 거 누에 잡어본 별루 안 핸따고.

- 케는 두리고, 여기서는 한 개 짜리를 또라 그러자나. 거서는 머라 그랜
는지 모르그씨. / 컬. 쟁. 모하고.

- 궁민학교 다니는 애드리 땅먹끼를 그런 기는 하고 일찌.
- 그네 타는 거. 그네는 홀기라 그래. 후린다 해서 그런지 몰라두 홀기라 그래. / 월따 간따 하는 걸.
- 몯치기라고 어떤 긴가 하며는, 이 대모슬 가지고 이레 가지고, 일챙한 워늘 그레 가지고 거기다 따~:이다 드리방는 거지. 이러키.
- 자세를. / 보통 꼬리연하고 네모난 연. / 방패연하고 주로 그기지. / 연싸 움도 하지. / 그때는 거기서 모 태반는데, 주례다 유리를 가라 가지구 풀 해서, 주리다 올리 가지구 그래 가지구 그걸루 싸우다… 우리는 모태바씨.

여석창(남.72세, 전주거지: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자료6)

- 배재. 그 배재르 멀루 가지구 만들게 뛰는가 하므는 수순때 일찌. 그 수순때르 여꺼 가지구, 올타리 배재를 만든다구.
- 보시기.
- 벼따지. 불 아래 피울 써게 쑤시는 거. 벼따지.
- 점바지.
- 솔뚜꺼~:이. 가매뚜꺼~:이. / 가매떠깨. 가매떠깨라 그러는데… / 솔뚜껑을 가매떠깨.
- 빼다지. 서랍 빼다지. 빼배.
- 차차차차 기어기 난다구. 사투리 더러 이저 머거써. 여 와서, 여 와 마르 이리저리 혼하愧 말 하이까. 이북 사투리 더러 이저 머근 견뚜 마네.
- 피투서~:이가튼 거는 머, 그런 거는 거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 그러키 말 안 하는데? 우리 그런 말 써 몯 빼는데.
- 호래비르? 호래비르 머라 그래? / 호부래비. 마자. / 가부는, 가부르 머이라 그려든가? 가부르 우리 기 말로 머라 그리든가? 하부리미. 하부래비는

남자르 호래비라 그리구, 하부래비라 그리구, 또 여자는 호부리미. 호부리 엄마. 흘로 일따 해서… 여 와 안자. / 내 미처 기어그 모타는 거 좀. / 이사람두 북처~:이서, 북청 신포라구. / 신포 일쓸 끈데. / 북청군 신포으비 뛰서 업쓰 끼야. 거 면만 나오지. / 양화서 남쪼그로 나온다구. / 소쿠면하구 한 사심 리… 한 이심리 차다. 양화하고 이십리. 거기는 사십. / 어, 양화르 사이 끼구 일따구.

- 상저미라 그러지. 아~:이. 상저미라 그래.
- 미시끼리.
- 가매.
- 무스기… 지낭비. 지낭비라구.
- 지부~:이다 이지. / 거 나래라 그러든가? 나래.
- 가마~:이라두 하고 가마스라도 하고.
- 새치르 가지구서 여끈 거 건치라 그리지.
- 작띠. 지프 짜를 때.
- 가세. 조~:이 짜르는 거.
- 맹거지. 고추르 맹거지라 그래.
- 아끼 간장 말 핸째? 기: 지렁. 간장을 지러~:이라 그래. 여기서두 더러. 경상도서도 지러~:이라 하든데?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지. 산까지. 산까지야. 가으로 가스리.
- (이주선) 모, 쟁, 떼, 컬, 캐.
- 또이라 그리지. 떼. 여기서 떼라 그리지? 거기는 또이. / 캐. 모, 아~:이 다. 거리 쟁, 모.
-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슬깨, 여슬깨, 일곱 깨, 여덟 깨, 아홉 깨, 열 깨. 그러게. 하나 둘 서이 너이 닫써 열쓰 일고 여덟 아홉 열 그리카지.
- 이처너느 마리지 이처너느 돈 이처년 애~:인가? 이처너느 머라 그레게

뒈는가 하며는 양처년. 이배거는 또 양배건.

- 혜장님 이제 오신다.

- 맵따 그리지. / 그거는 그 어조에 따라서, 어조에 따라서 매우 할 짜게 두 일꾸, 맵따 할 짜게두 일꾸.

- (이주선) 근데 이북뚜 함경남도하고 함경북또하고 마리 쫌 딸라요.

- 그러니까 머~:인가 하게 뒤며는 그 마야게 밥 먹따 '아이 맵따', 지 아렌싸람하구 마랄 짜기나 지 칭구가네 마랄 짜게 그 때는 '아이 매워'. 그 다음, 이상싸람하구 마랄 짜게 '좀 맵씀니다' 그러지. / 아~:이야. 어, 매버 매버 그래.

- 니비. 이상두 니비라 그리구. 그러니까 마리 우깁찌? 말 우습째? 거는 할 쑤 업따구. 지방 사투리가, 나미 나올쑤록 서울 표주너가 마~:이 나온다 마리여. 또 함경남도 가게 뒤며는 마리 또 더 어렵따구요. 더 어루와.

- 담嬖때르 대토~:이라 그런다 마리야. / 담배라 그래.

- 문짜글? 문트르 그리젠티. 문트르 거런 건… / 아~:이, 아~:이 거 돌짜 기란 거는 문 저기, 이 다달따 여렬따 하는 무니, 여 돌쪼기 일찌? 그거… 거 머라 그려든가? 문쪼기르 머라 그려든가? 문쪼기라 그래. 문쪼기.

- 대창. / 당반 일찌. / 아~:이야. 선바~:이 그거 표주너구. 당바~:이라 그래. 그 물건 직찝 올레 논는 거.

- 머르? / 버들개라는 건 고기 이르민데? 민물꼬기 이르민데. 버들개라구 일따구. 화~:이처럼 생긴 버들개라구 일따구. 황어처럼 생긴…

- 물또~:이. / 따바리. 고 미티다 바치는 기 일꺼든? / 물또~:이. 물또~:이 일꾸, 무르 다마다가 거다 분는 디. 이리 큰 기 일꺼든? 무르 거다 저장해 노쿠 지반서 물 쓴다 마리야.

- 나지, 나지라구. 밤나지라구.

- 거기 며 모두 나완꾸마. 틀린 기 만타구? 그만그만 나완네.

- 굴뚜그… 벼께 부억 아구리르 벼께라 그리구. / 구새. 구새 마자. 구새라 그래.

- 감기… 그건 고져 감기지. / 숭감. 감기르 숭가미라 그래.

- 꼽째. 여기서 꼽쎄라 그리지. / 거진 거지거지 마자가.

- 재장개.

- 지나가는 개르? 개새끼라… / 개지새끼. 큰 개.

- 탕. 쥐탕. 버미타~:이나, 노루타~:이다. 탕으 녹는다구서. 여기서 거 머라 그러는가? 저기… 여기서 머라 그려드라… 사니다가 이러케 뚽그러케 만드려 가지구 거기 지내 가면 걸리는 거 일째는가. 더시. 여기서는 더시라 그리지. 더치라 그러지. 거 타~:이. 탕.

- 탕 나 가지구 잡찌. / 그러니까 거기두 여기랑 한가지지. 거기 토끼나 노루나 그런 기 주로 마네. / 마자. 노루는 놀가지라 그러구. 토끼는 퇴끼라 그리구. 퇴끼.

- (이주선) 고 상가네 끄티가 틀린다니. 마라는 기가.

- 토끼. 퇴끼.

- 어서는 하두 오래 뛰나서. 우리 어터케 웬니? 여기 나와서. 나온 지 오심년 뛰는데. 오심년 다 뛰이까 마르 다 이저 머거써.

- 아마이. / 할머이드리 주로 마~:이 씨. 아바이더르도 한가지야. 하라버지덜두. 하라버진 아바이라 그러거든? 할머이는 또 아마이라 그러구.

- 가마치. 가마치 무르 숭뉴~:이라 그러구. 여기서두 숭뉴~:이라 그러지 머.

- 벼께. 부어그. 부르 때는 거. 거 부어께라 그리구. 사라미 자는 디르 정지라 그런다구. 바~:이 일꾸, 아랜빠~:이 일꾸, 윤빠~:이 일꾸. 또 둘빠~:이 일꾸. 또 고바~:이 일꼬.

- 그런데 부억하구 방하구 그 어가는 막찌 아나. 안 망는다구.

- 주로 이중찌비라구.

- 내구리. / 거진 다 만는구나.
- 아, 빈둥쓴다구? 빈둥쓴다는 거는 마야게 내가 이 양반한테 무슨, 머라하게 뒤든 '아, 거 좀 빌리달라'고 그러거나, 호근 또 무슨 재롱 피우게 뒤든 거 빈둥쓴다 그런다구. / 빈둥쓴다 그리지? 애더리 어른들한테 빈둥쓰는 기일땐가? 그래 가지구 용뜬 타내 쓰거나 하는 그런 거 빈둥쓴다 그런다구.
- 바달빠람. / 하니바람. / 남짜께서 오는… 갈바람. / 북쪼께서 오는 거 샌빠람. / 샌빠라미라구. / 하니바라미. 서쪼그서 부는 바라므 하니바라미라 그린다구.
- 가스윌? 가시서 살랑살랑 부는 바라므로 가시바라미라 모두 그런 말 더러 일찌. 거 어지가~:이 다 만는다구.
- 지라지라. 지라지라 빨리 가라는 마리지. 지라지라.
- 거져 부린다 그러지. / 뿐린다구. / 숭군다. 모는 심군다. 모는 심는다. / 숨는다.
- 모이. / 비라 그램따구. 비. 비농사라구.
- (이주선) 대부분 이부기서 베농사라 그리지.
- 게:나. 젠: 걸리, 젠: 걸리구. 여기서 도라~:이라 그러지?
- (이주선) 여기서 저짜글루 너머 가재두 게:느 걸리구.
- 게:느 걸리구. 젠: 너미 젠: 이쪽 저쪽 그런다구.
- 대부분 이부기 저 촌가튼 디 가보게 뒤면. 여기 집 일꾸 저기 주로 게:나 일꺼든. 그러면 '빨리 젠: 너머 가' 그저 그 마리야.
- 저우르? 무게를 다루는 거? / 저우리라 안 그러는데? 저우리라 안 그래.
- 거진마르는 부기르 쓴다구. '니 거진말, 부기르 쓰지? 너 거진마리지? 너 거 부기지?' 거져 부기르 쓴다구.
- 케기. / 개개기.
- (이주선) 여기선 한가지 말하는 기 도치라구 일짜나? 도치라구. 거 우리

거서 오로시라 그려거든. 신투~:이].

- 요저네 테레비 나오는 거 보이까 이밍수라 그려거든. 그러구 숭티~:이 두 그거 오로시라 한다 마리야.

- (이주선)이부기서두, 여기서 새치라 그려는데. 우리 기서는 이명수라 그려거든. 그러치요. 거 이부기서는 이명수라 그려거든.

- 미리치. 그거는 그저 미리치.

- 메리치.

- 쉴때. 여기서는 열쇠라 그려지? 쉴때.

- 띠.

- (이주선) 때.

- (이주선) 무스거 이저 머거씨? 장가브? 내라 갈 찌개 줄께. 내 곰차 날씨.

- 곰차난니?

- (이주선) 곰차난따구.

- 이렁.

- 시아버지. 여자에 아버지르? 친정아버지라 그려지 머. / 가스아버지. 가스어머이. 남자가 여자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스아버지 가스어머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이를 가스아버지 가스어머이라 그려지.

- (이주선) 여기서는 자~:인 그려지.

- 오래비.

- 잔치.

- 제기차기. 제기차기라 그려지. 쫑고리? 그런 말 어디서 들낀 드린는데 나두. 쫑고리찬다구.

- 서~:이. 모두 서~:이, 서~:이. '서~:이예 서~:이예' 한다구.

- 부실텔.

- 구새. / 내구리. / 꺼스르미. / 소질… 후터낸다구.

- 지비서. 자기 지른 자기가 가지구서.
- 빼배. / 빼배 여린따 다단따 그러지.
- 쇠때 채완따. / 쇠때 여:라 그러지.
- 비게. 여기는 벼개라 그러잰는가? / 이런 이처럼 나물루 만든 기 일따구.

난짬 잘 찌기 비구 자는 기 일꺼든? 그거 몽치미.

- 낭그.

- 목치미라 안 하구 몽치미라 그런다구. 거 모그 거다 올리 노니까.
- (이주선) 대분 나자시드리.
- 난짬 잘 찌기는 그거 비구자. 저 나무통, 요 우리 저기 나무통 가지구 만든 기 일따구. 네멘, 저거처럼 네멘하게 만드려 가지구. / 몽치미. / 아마 그런 뜨신가 보지.

- 겨으레 덤는 이부리 이름 업꼬, 여르미 덤는 이부르는… 그거 아~:이구… 여르미 덤는 거는 하부리라구. 하불이부리. 여르미 덤는 건 하불이부리. 여르미 덤는 건 엽꺼든. 업따 마리야. 겨으레 소케이부리. 소므 소케라 그런다 마리야. 그래 여르민 소케르 안 여쿠 솜 안 여쿠 그양 이 걷 하구 맨 천만 가지구서 가지구 만든 거 하불이부리라 그래. / 소케바지라 그리지.

- (이주선) 배바지두 일꾸 머… / 속꼬시라두 하구. 소기다 임는 거 속꼬시라 그리지.

- 가마 이씨… 뺀츠말구… 뺀쓰 아~:이구, 머라 그러더라?…
- (이주선) 사리마다라 아~:이 그레씨?
- 사리마다. 뺀쓰르 사리마다. 뺀쓰르 사리마다라 그래 / 아~:이 사리마다. 사리마다 올타. 거야. 거 그런 마르어서 다 이저 머걸따.

- 마루 나와 일찌. 말루 딸루 일찌 / 마리! 마루르 마리라 그래.
‘마리에 안자 노라라’ 그런다구.
- 다음빼네 오개 뛰믄 할머이들 초대할께. 초대 말 시키께.

- 그러니까 여기 오징어 건조가 주로 한다 마리야. 그래서 할머이들 거 까서, 놀 사이 업써. 나: 머거두 모두 거기 나가 일한다 마리야. 할복뚜 하구, 또 그거 말리야. 말리우는 데두 손지르 여러 손질 마~:이 한다 마리야.

- 구십 다스스 머근 노인 이씨. 최고려~:이라구. / 술 우리 모태.

- 일쎄라 하기 웨며는, 이세까지두 사투리로 가정에서 더러 써난끼 따무네 요려 쓰는데, 삼세더른 안 쓴다구. 삼세들까지는 안 씨. 이 나미 마르 마~:이 쓴다 마리야.

- 북청 도처~:이라구 이씨씨. 저게 건네에 이썬는데… 근데 시방 그 사람들 다 혜처씨. 외지루 서울가든 디 이주르 해 가꼬… 북청 사자노리 일찌? 그 사자노리 그 사람드리 여기서 발굴한 기라고. 그래 여기서 발굴해 가지구서 서울 같따고. 서울가서 시방 그 사람들 모두 다 살구 이씨.

- 그래 도청 거그서 나와 이씨때씨. / 업써 업써. 그런 거 하나 이씨쓰면 하나 드레쓰면 조肯는데 업씨. / 업씨 업씨.

- 다를 쑤 일따고. 여자들 말 쓰는 거 하구 남자들 말 쓰는 거 하구 또 다를 쑤 일따고.

- 이 객찌 마~:이 땅긴 사람더르는 주로 서울가 마~:이 일면지. 그러치 아느믄 경상도나… 그 사람더르는 표준어를 마~:이 쓸라 하는데, 어디 객찌 나가지 모탄, 딱 지방만 이썬면 사람더르는 순저~:이 거기 사투리로 마~:이 쓴다 마리야. 거 알뜨란 사투리로 나온다고.

- 업써 업써. 그저네는 정월 보르메, 음력 정월 보르메, 더러 동네 땅기민 서 멀 핸데, 지그믄 안 해. 지금 머 개방둬 가지구서.

김성길(남.73세, 전주거지:북청군 속후면 의호리)

이주선(남.75세, 전주거지:북청군 신포읍 문암리)

[참고 문헌]

□ 민속분야 □

강릉대학교 박물관(1997),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 동해출장소(1995), 「강원 어촌지역 전설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1995), 「강원도 시장민속」

문화재관리국(196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8책, 강원편

문화재관리국(198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5책, 향토음식편

문화재관리국(199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책, 산속편 하권

북청군지편찬위원회(1970), 「북청군지」

신북청면지편찬위원회(1986), 「신북청면지」

속초시(1971), 「통계연보」 제9회

속초시(1991), 「속초시지」

속초시(1994), 「속초시 30년사」

속초시(1997), 「속초시 통계연보」 제35회

장정룡(1987),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장정룡(1992),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장정룡(1992), “속초의 어로민속” 「속초문화」 8호

장정룡(1996), “속초지역문화발전과 개발방향” 「설악연구」 2호 속초지역개발연구소

장정룡(1997),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주상훈(1990),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합경남도지편찬위원회(1968), 「합경남도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구비문학대계」 2-4, 2-5(속초, 양양편)

□ 언어분야 □

금성출판사(1996)「국어대사전」

김무림(1992)「국어음운론」 한신문화사.

김무림(1995) “영동방언의 ‘ㄱ’ 음 개재고 – 국어음운사의 측면에서
–” 「한남어문학」 20.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김병제(1980)「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병제(1988)「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영황(1982)「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태균(1986)「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국.

김형규(1974)「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남광우(1997)「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민현식(1991) “제3장 속초의 방언” 「속초시지」 속초시.

사회과학출판사(1992)「조선말대사전」

유창돈(1965)「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이기동(1987) “합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원.

이상규 · 백두현 외(1996)「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전학석(1993)「합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최명옥(1980)「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1998)「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최학근(1990)「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홍윤표(1994)「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황대화(1986).「동해안 방언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S. R. Ramsey(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국어학』2, 국어학회.

[부록1] 청호동 소재 특집 방송

제목: 청호동 일기(제작, 강릉MBC 임명철 프로듀서)

-1994년 9월 30일 방송 강릉MBC 라디오방송

-1995년 한국방송 프로듀서상수상, 방송대상수상작)

-프롤로그

고향,

고향엔 무엇이 있는가?

고향의 한 가운데에 자신이 태어난 집이 있고,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

자신이 뛰놀던 자연과 함께 자랐던 벚이 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 오듯이,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한다.

(배석권의 수필 중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청호동 일기'

이 프로그램은 강릉MBC 임명철 프로듀서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0일

까지 약 한달 동안 실향민들의 집단 거주지인 속초시 청호동에 기거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들을 그날 그날의 일기로 정리한 생생한 현장 기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실향민들의 생활상과 애환을 통해 우리 민족 분단사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가슴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화요일-

대학 노트 한 권과 녹음기 한 대를 들고 청호동에 왔다.

(effect:갈매기 울음)

바닷물이 넘나드는 청초호를 건너기 위해 갯배를 타니 마침 벽안의 프랑스인 한 명이 함께 타고 있어 갯배 탄 소감을 물어 보았다.

(컷:처음엔 놀랐는데 타고보니 재미있다)

갯배를 '움직이는 다리'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인은 갯배를 무척 신기해 한다. 이 배가 청호동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사연을 안고 있고, 청호동과 시내를 연결해 주는 텃줄같은 것인지 그가 알 리는 없다.

주민 4천명 중 실향민 가족이 70%나 되고, 특히 함경도 출신들이 많아서 '아바이 마을'로 불리고 있는 곳, 청호동!

크고 작은 어선들이 빼곡히 정박하고 있는 선착장이 대부분 사람들이 바닷일에 생계를 걸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

(effect: "방 한 칸 얻으려 왔습니다" "네, 이 방이 어떤지요?")

10만원을 주고 방 한 칸을 얻었다. 하지만 바다가 잘 내다 보이는 아늑한 방이다.

객지에서의 첫날 밤. 집주인이 원통에서 사온 막걸리와 야생 호도를 먹으며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다. 마당에는 더덕꽃이 노랗게 피었다.

하늘에는 별, 바마다에서는 쉼없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effet:파도)

-8월 25일, 목요일-

어제와 오늘, 청호동 사람들의 조금은 경계심 섞인 눈길을 받으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나 역시도 툭툭 말을 건네가면서, 앞으로의 한 달을 위한 탐색을 했다. 짧으

면 1주일, 길면 두 세달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월남했다가, 휴전선에 막혀 고향길이 끊긴 지 어언 40년. 세월은 물처럼 그렇게 흘렀지만 청호동 사람들의 가슴에 박힌 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알았다. 굴절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8월 27일, 토요일-

오늘은 청호동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동문성 씨를 만났다. 고향 가까이 살려고 청호동에 모여든 것이 1953년. 실향민들은 척박한 모래땅을 맨 손으로 다져서, 선사시대의 움막같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 사람이 찾아오면 자신이 자리 잡았던 땅을 나눠주며 함께 살자고 했다. 그때에는 정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가웠었다. 지금도 청호동의 집들이 고작 일곱평 남짓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고향 사람끼리 용기종기 모여살다보니 마을 이름도 신포마을, 짹고치마을, 영홍마을 같은 함경도의 마을 이름을 부르고 있다.

(컷: 청호동의 역사, 함경도 사람들의 메카)

요즘 청호동 사람들은 이 실향민들의 메카가 곧 철거된다는 소문 때문에 가슴이 시리다. 오염된 청초호를 살리기 위해 새로 물길을 뚫는다는 이유로 마을 중간에 있는 백서른 여섯집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후 점차 모든 집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거라는 얘기다.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닌데가 집도 허술해서 보상비는 기껏해야 천만원 안팎이다.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땅 사고 집 짓고 살 것인가? 그것보다 어떻게 고향 사람들하고 헤어져 살란 말인가? 그래서 청호동 사람들은 심각하다.

-8월 30일, 화요일-

청호동 실향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한국전쟁의 산 증인들이다. 오늘 낮,

마을 중간에서 만난 일흔 네 살 이월계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전쟁의 혹독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일생은 책으로 써도 한 트럭분은 될거라고 말했다.

함경도 이우언에서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고 살던 할머니의 비극은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어느 설달밤, 넷째 자식을 벤 만삭의 몸으로 피난을 나왔다.

(컷: 막달 데 나왔다. 눈위에서 애낳고 이빨로 탯줄을 끊었다. 그리고 또 걸었다.)
깨고 보니 어느 초가의 헛간. 그곳에서 고추장 넣고 끓인 미역국을 먹었다.
며칠만에 넣은 곡기였다. 그리고도 몇번인가의 기절 끝에 어느 해안 마을에
닿았다. 남편이 생계를 위해 배를 타려 나갔다. 처음 배타러 간 날 남편은 배
의 피랫줄에 감겨 바닷속으로 잠겼다. 남겨진 건 펫덩이 막내를 포함해 네
명의 자식 뿐이었다.

동냥도 하고 사정도 해서 한두끼씩 때우곤 했지만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렇게 내려간 곳이 경상도 안동, 밭둑에서 아무 풀이나
뜯어 먹고 죽기로 맘 먹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신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았다. 할머니는 맘을 고쳐 먹었다. 그래, 살자. 내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고 이 자식들은 살리자.

할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다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속초 청
호동으로 왔다. 그리고는 어판장에서 고기를 주워서 몇 십리 산골로 들어가
쌀이나 잡곡으로 바꿔오는 생활을 시작했다.

(컷: 길위에서 자고~눈에 맨발, 다 열었다.)

지금도 할머니의 손과 발은 온통 얼어 있고, 앞니는 모두 빠져 버렸다. 그렇
게 키운 자식들은 모두 서울, 경기도 등지에 흩어져 살고 할머니는 혼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

-9월 1일, 목요일-

텔레비전에서 IRA가 모든 테러와 군사 활동을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한다.

(컷:TV뉴스 IRA 테러 중단 선언)

남아프리카의 흑백 분쟁도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인종, 종교분쟁도 모두 막내린 이 시점까지 낡은 이념의 외투를 걸치고 있는 남과 북의 대립을 생각하니 답답할 뿐이다.

-9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바닷가에 멀치떼가 잔뜩 몰려왔다. 고등어떼에 쫓겨 육지 가까이 도망왔다가 파도에 휩쓸려 백사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중공군에 쫓겨 1.4후퇴때 내려온 함경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9월 5일, 월요일-

(effect: "안녕-, 멀미약, 이걸 불이세요…")

약국에서 멀미약을 샀다. 오징어잡이 배를 타기 위해서다. 3.8 따라지 함경도 아바이들은 아직도 많이들 배를 타고 있다.

오후 3시. 7톤급 오징어 배 '유양호' 호 몸을 실었다.

(effect: 선박엔진음)

'유양호' 선원은 모두 여섯이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바이 셋과 젊은 뱃사람 셋이다.

밤 7시.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집어등을 켠다.

(effect: "불켜요~")

한 촉당 1500와트인 집어등 예순 개를 모두 켜니 9만 와트. 삽시간에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진다. 여기저기서 다른 배들의 집어등도 별처럼 켜진다. 하늘에서 보면 오징어 배들이 아름다운 별자리를 이룰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그네의 낭만적인 생각일 뿐. 이곳은 목숨을 건 생존의 현장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effect: "이 배, 어느 배요. 거기 끼어들면 어떻게 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리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드디어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다. 낚시줄을 던지고 낚아채기 시작하자 오징어들이 척척 먹물을 뿜어대며 떨려 올라온다.

찌푸렸던 하늘에서는 비가 뿌리기 시작한다. 해풍과 소금끼와 하염없이 내리는 빗물,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 속에서도 어부들의 손길은 노련하다. 전문가다운 숙련된 고기잡이 모습이 예술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니, 그보다는 원시 시대 남자가 사냥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삶의 엄숙함을 느끼게 된다.

새벽 1시. 밤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파도가 더 거세진다. 배멀리 때문에 무력해진 채 멍하니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선장인 김재영 씨가 라면을 끓여와서 먹으라고 한다.

(컷: '방금 잡은 오징어를 회쳐서 만든 회라면인데 맛이 기막힐 겁녀다.' "쩝쩝. 정말 맛있는데요.")

뱃사람들의 야식인 '회라면'은 새로운 맛이었고, 먹고나니 기운이 좀 났다. 이 배에 탄 아바이들의 나이는 일흔 다섯, 예순 여덟, 그리고 예순 네이다. 이 일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들이다. 예순 여덟 먹은 이시현 노인에게 고향을 물으니,

(effect: 고향 어디? 북청…)

갑자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고향'이라는 그 한마디가 감성을 그렇게 자극했다는 얘기다. 이시현 노인을 보면서 문득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을 떠올려 본다.

이 배 '유양호'의 젊은 벗사람 중 둘은 형제다. 김재영 선장과 김종선 선원인데 아버지는 역시 실향민이다. 아버지는 지금 다른 오징어배를 타고 이 바다 어딘가에 떠 있다. 그래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아버지와 두 아들같이 낚시를 한다.

밤새 작업을 마치고 새벽 6시 30분. 오징어 100두름을 잡아 귀항한다. 출항한 지 열여섯 시간 반만의 귀향이다.

(effect:"호루루기, 박스 박스 박스, 낙찰가 부르는 소리 위로)

오징어는 한 두름당 13,000원에 낙찰되었다. 이시현 노인은 밤새 10두름을 잡았지만 선주 봇인 5두름을 빼면 노인 앞으로 떨어지는 건 5두름. 돈으로 치면 6만원 정도다.

-9월 7일, 수요일-

청호동 벗사람하면 벗사람 중에서도 알아줬다. 최철호 할아버지는 올해로 50년째 배를 타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화된 운항 장치와 어군 탐지기, 조류 감별 장치 같은 기계 덕분에 얼마나 편리한가?

최철호 할아버지가 한창 팔팔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진짜 벗사람이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한다.

(컷:별을 보고, 방향 잡고 위치 알았지)

그렇다. 기계라곤 나침반 하나에 노를 짓거나 둑을 이용해 고기잡이 다니던 시절.

할아버지는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육지의 산 모양을 보면서 항해를 했다. 어디가면 무슨 골뱅이가 많고, 어디가면 명태가 많은지 느낌으로 알았다.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레 날씨가 어떨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봄에 첫 천둥이 친 후 백일째 되는 날에는 꼭 태풍이 오고, 음력 9월말이나 10

월 초에 큰 풍랑이 있다는 것도 뱃사람들 사이에 불문율로 인식되곤 했었다. 그렇게 맨 몸으로 파도와 싸우면서도 결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고향에도 못가는 서러운 신세라고 몸을 막 굴렸는지도 몰랐다. 아니, 그보다는 당장 자식들 입에 밥을 넣어 주어야 했다. 파도를 무서워 할 여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래도 그때는 뱃노래가 있어서 그것이 고된 육신과 정신을 달래주곤 했었다.

(컷:뱃노래-)

-9월 9일. 금요일-

청호동을 소재로 해서 詩쓰기를 고집하는 이상국 시인이 청호동에 왔다.

(컷:안녕-! 청호동에 자주 오는가?)

매운탕에 소주를 마시며 청호동 사람들에 대해 서로 보고 느낀 바를 얘기한다. 얘기는 결국 우리들 인생이며 꽃이며 바다. 섬에 대한 얘기로 끝없이 이어진다. 나는 그의 청호동 연작 시편들 중에서 '떠도는 청호동' 이란 詩가 좋다

떠도는 청호동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 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끌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도에 매어 놓은 배들이 빼걱거린다.

-9월 12일: 월요일-

(effect: "돈돌날이" 노래-)

함경도에서 부르던 노래 '돈돌날이'를 부르는 실향민들을 부둣가에서 만났다. 일흔 살 가량 된 안철무 할아버지는 고향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컷:아름답다. 눈감고도 다닐 수가 있다)

고향의 맛을 못잊어 집집마다 함경도식 식혜를 담가 먹는 청호동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는 수제비가 먹고 싶다.

-9월 15일, 목요일-

노인회관에 갔더니 노인들이 고스톱을 하고 있었다.

(effect: 고스톱 현장음)

이제는 생활 전선에서 은퇴한 아바이들이 세월을 보내는 방식이다. 작년 6월 1일부터 130개국 1700만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노인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

(컷:기대 안한다. 방북신청 안한다.)

통일원에서 접수하고 있는 방북 신청에 속초 전체에서 일곱 명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뉴스도 들린다. 실향민들의 체념과 절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실이다.

그동안 무슨 무슨 남북 회담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때마다 남북 당

국은 과연 최선을 다했던가? 실향민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정상회담을 앞둔 김일성의 죽음과 북한 핵문제로 화해 분위기가 급반전한 채 이상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요즘 실향민들의 절망감은 더 깊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제는 통일 논의가 적게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니 한 번 희망을 가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노인회관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9월 20일, 화요일-

오늘은 추석,

제 3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고인이 된 실향민들의 묘소가 가득한 망향 동산에 갔다.

해마다 새 무덤이 늘어나는 이 곳

(effect: '엉-, 엉-, 엉-')

(컷: 그토록 고생, 이제 좀 살만하니 갔다. 고향도 못가고 –울먹–)

각 집안마다 성묘가 끝난 아침 11시. 실향민들이 함께 모여 망향제를 올린다.

(effect: '望鄉祭文')

망향 동산을 다녀온 뒤, 짐을 싼다. 어느새 청호동에서 한 달을 보낸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나는 무척 외로웠다. 가족을 떠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마치 내가 마른꽃처럼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을 자주 가졌었다. 청호동 사람들의 외로움도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착잡한 감회에 젖어 짐을 싸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추석특집으로 고향 노래들이 흘러 나온다.

(M:그 날이 오면)

한반도는 그 전체가 우리 민족의 고향이 아닐까?

백두산 천지가 남한 사람의 고향이고, 제주 유채꽃밭이 북한 사람들의 뜨락
이 아닐까?

백두산에 가고 싶고,

제주도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묶여 있는 지금.

누가 있어 우리들의 묶인 마음을 풀어줄 것인가?

자유롭게 해 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되는 세상이 온다면.

맨발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걸어도 좋지 않겠는가!(끝)

제목: 청호동 사람들(제작, 강릉KBS 배대준 프로듀서)

- 1991년 9월 18일 강릉KBS TV

특집 다큐멘터리방송

이곳, 청호동.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된지 47년. 그리고 수복 40년을 맞는 청호동 사람들에게 지나온 세월들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면 기다림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망향과 실향의 아픔은 2세, 3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 망향의 기다림과 현실의 삶이 청호동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려져 오는 이 시대의 모습일까?

새벽 2시. 아직은 깜깜한 한밤중이지만 청호동을 쳐다보면 곳곳에 불이켜 있고 아낙네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새벽을 두드리는 부지런한 목소리로 여느곳보다 빠른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청호동이다. 언뜻 억새보이는 청호동 아주머니들의 선잠깬 손놀림이 유난히 부지런해 보인다. 이런 모습들은 이곳 청호동에 뿌리깊이 살아있는 청호동 사람들의 모습이다.

덕장에서 말려지는 오징어가 햇살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남보다 더 부산을 떨어야 한다. 오징어가 많이 잡힐 때에는 동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지방 오징어가 많이 건조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원양 냉동 오징어가 많이 건조된다.

현재 140여 가구가 오징어 건조업에 종사하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요 소득원이면서 청호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모습들이다. 아낙네들의 오징어 할복 손놀림이 한창일 무렵 이곳 부두에서는 바다로 가나가는 고기잡이 배들이 출항하기 시작한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배들의 엔진 소리는 이젠 친숙한 청호동 사람들의 심장박동소리처럼 들려온다.

바다로 나가는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여운이 잔잔히 남아있는 새벽 4시. 청호

동 갯배 나루터에도 나룻배가 첫 운행을 서두른다. 리어카에 가득가득 마른 오징어를싣고 청호동 사람들은 건너편 중앙동 부둣가 새벽 오징어 번개시장으로 건너온다.

새벽시장에는 벌써 전국 각지의 오징어 도매상들이 미리 도착해 있어 곧 시장이 형성된다. 동해안에서도 청호동이 양질의 마른 오징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한 푼이라도 덜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밀고 땅기는 만남의 활기찬 모습들이 이곳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마른 오징어 가격은 오징어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오징어가 팔리면 대부분 현금대신 전표를 받게 되는데, 한 장의 소중한 전표로 바뀐다.

오징어 시장이 형성된지 한 시간이 되면 벌써 파장이 된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다. 누구든지 한번쯤 이곳 청호동에서 생산된 오징어 일 것이다. 조금은 소란스러운 부둣가는 다시 평온한 새벽으로 조용해지고 청호동으로 돌아가는 빈수레소리만 들려온다. (이하 줄임)

[부록2] 청호동 소재 문학작품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이상국

혹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 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이
퍼들썩거리며 튀어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의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앉았고
우리들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 아바이

장 승 진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 줄 알았다
어찌면 그 놈이 마지막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씁스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잠기는 밧줄 건져 올리며
힘있게 벨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 못한 눈동자 핏발같은 헷살로
따스해져 오는 속초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리진 나무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녀석들 웃음소린 줄 알았다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 덤불도 해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깨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 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데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또 어디예요
갈매기들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돋은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청호동 일기

김 영 준

물은 모여도 이곳에서

모래를 끌지 못한다

새들은 새쉼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주둥이 가득 거품만 물고 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술잔을 달래고 있을 때

고인 물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파도가

오늘도 다만 침묵하고 있다

아픔이라고 하자

하얀 생채기 같은

우리들 끊겨진 길이라 하자

아침과 아침의 말을 고이 보내고 난 다음

청호동 네 굳은 어깨 너머

기침 같은 소주만 보이고

물은 모여도 이곳에서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

청호동 나무

김 춘 만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어 모래뿐인 땅위에 피는
소금꽃 나무들은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이 세상 한
복판 낯 선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비린 안개와 모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싸늘한 소금밭에 지난 날을 묻어 두고
흰 뼈의 통통선은 어디로 가는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 속에서 맨 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장난질 속에서 펄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 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뿐어내요.

청호동 바람

채 재 순

새벽을 건져올리던 바람이
어지러운 물살로 뒤척인다

어느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물질을 기다렸던 명태가
비릿한 바람으로 걸려들고

청호동 마실을 따라 나란히 선
단천상회, 북청이용소 간판이
네 이놈, 네 이노움
뚫어지게 내려보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햇살로 깔깔거려도
설악산 대청봉 바람에
손발이 시린 청호동은
아침이 오지 않는 한
캄캄한 바람, 어두운 대낮이다

청호동 그 부재의 섬

이상국(시인. 설악신문 편집인)

김일선. 1926년 생. 본적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 후위리. 1950년, 동란이 나고 겨울이 왔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전선이 밀리면서 대대적인 철수가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잠깐 피했다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 끝에 무작정 남으로 가는 목선을 탔다. 1.4후퇴였다. 주문진, 삼척지나 부산, 거제까지 훌러 갔다가 차츰 북상하는 전선을 따라 어찌어찌 수소문해 만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속초까지 올라왔다. “됐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 가면 고향이다.” 그 임자없는 백사장이 청호동이었다. 그리고 휴전이 되었다. 그 이후 그는 모랫벌 깊숙히 빠진 생애를 거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청호동. 동해와 청초호가 양쪽에서 밀어 올린 모래밭이 남북으로 약 1km, 동서로 너비 80여m의 긴 띠를 이룬 10만 평 가량의 백사장. 전시엔 경비행 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버려진 땅이었다. 앞바다엔 미역바위가 많아서 우선 미역 따다 널어 말리기엔 그저 그만한 곳이었고, 그것이 밥이 되어 주기도 했다. 그곳에 움막을 지었다.

부서진 배에서 밀려나온 널조각과 레이션박스로 벽을 만들고 루핑으로 지붕을 이었다. 본능적으로 고향 가까운 곳으로 몰려든 함경도 피난민들은 모두 그렇게 모래밭에 난민촌을 만들어 갔다. 고향을 코 앞에 두고 하루가 일년이 되고 십년이 지나고 50년 가까운 세월이 훌러갔다. 영홍에서 나온 비슷한 처지의 처자에게 새장가를 듣 그는 백사장에 3남 4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일흔이 훨씬 넘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향가는 버스는 오지 않고 이북에 남겨 두고 온 아내의 얼굴로 이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분하고 기가 막힌 세월이었지만 모두 부

질없다. 그러나 이 말라 비틀어진 육신에 무엇이 남았길래 부모와 고향 이야기 끝에 망령되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는 그 눈물이 부끄럽다.

청호동은 속초시 조양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북쪽으로 곧장 뻗은 모래로 된 곳이다. 서북쪽으로는 속초의 내항인 청초호가 누웠고 동쪽은 동해가 가로 막고 있다. 갯배머리에서 지금은 망가진 사료공장 터까지 나무 한 그루 살지 않는 삭막한 동네. 속칭 '아바이 마을'에 거주하는 1천여 가구 5천 4백여 주민의 8할이 함경도 월나인 가족들이다. 전쟁 중에 넘어 온 월남 1세대들은 거반 세상을 떠 '망향의 동산'에 가 누웠지만 그들 말마따나 함경도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함경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포 사람들이 1백여 세대나 모여 살아 '신포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갯배 머리에서 청호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골목골목 낮고 어두운 지붕아래 사연은 각기 달라도 그렇게 월남한 북청, 단천, 홍원, 영흥, 원산, 안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나라를 선택하여 태어나지 못한 이유 하나로 고향을 잊고 기나 긴 깨지 삶을 사는 사람들, 남북의 온 겨레가 통일을 외치고 살기를 반세기, 그러나 아직 통일이 오리무중인 것처럼 그리고 남북이 점점 서로 다른 나라처럼 되어 가는 동안 청호동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한복판에서 부초처럼 떠 다니는 섬이자 부재하는 사람들의 거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호동의 하늘은 낮다. 그리고 길은 겨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물들을 좌우로 거느린 채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다. 그 길로 리어카와 자동차가 다니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어른들은 해바라기를 하거나 오징어를 손질 한다. 이 나라 산간벽지 구석구석까지 버스가 다니는 세상에 아직 시내버스가 없는 이상한 동네. 국경일이면 그 낮은 추녀 끝에 태극기가 걸리고 몇차례씩 오징어바리 나간 아바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때과부들이 생기고, 그들 또한 아바이들처럼 억세게 그들 운명과 삶을 리어커처럼 끌던 곳, 집집마다

걸리던 오징어와 억센 사투리, 그리고 절망적인 기다림이 들끓은 곳….

시내에서 청호동을 가자면 '갯배' 라 부르는 원시적인 나룻배를 타야 한다. 동력이 없는 명텅구리 배가 와이어 로프에 의지하여 백여 미터되는 청초호를 건너 다닌다. 승선 정원 35명, 속도제한은 없다. 와이어 로프에 잡아 당긴 힘만큼 나간다. 통일보다 느리고 여유있게, 그 반시대적 속도를 가지고 50년 가까이 청호동 사람들의 한과 서러움, 고통과 분노를 하염없이 실어 나르고 있다.

똑같이 세금내고 선거권 피선거권 다 가지고 살아 하지만 청호동은 어쩐지 낯선 곳이다. 말하자면 이남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랑하고 아이들 낳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청호동 사람들이 지칭하는 '이북사람' 이란 말에는 이데올로기의 냄새와 색깔이 묻어 있음은 물론 '3.8따라지'라는 모멸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걸려 있는 오징어를 보면 안다. 그것은 뿌리 뽑힌 난민들의 밥이었으며 냉전의 철조망에 허리꺾인 조국의 모습이자 청호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낮고 낮은 지붕과 떠도는 비린내,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 제일과 축일들, 혼적만 남아 있는 연탄가게, 60년대의 풍경화가 아직 걸려 있는 낡은 이발소, 길이자 마당인 곳에서 번들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앉은 노인들, 알게 모르게 그들을 감시하고 불편하게 만들던 이데올로기의 그림자처럼 바다와 모든 길을 통제하는 녹슨 철책, 밤마다 백사장을 이잡듯 뒤지는 탐조등, 나고 먹고 자고 하는 삶 전부를 분단체제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청호동은 그 모든 것을 온 몸으로 견디며 역사와 현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유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 그들 집이 무허가이듯 그들 삶 역시 무허가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분단과 전쟁 등 우리 현대사와 민족사의 고통과 치부를 고스란히 껴 안고 사는 청호동은 역사의 피사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마을일 뿐이다.

그러나 통일이 오든 말든 청호동은 새로운 변화 앞에 술렁거리고 있다. 청초호 안이 매립 개발되고 청호동 한복판에 신수로가 뚫리고 나면 청호동 사람들은 살 자리를 찾아 다시 뿔뿔이 흩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모래밭 위에 무허가로 지은 그들의 보금자리는 헐리고 거리에 호텔이 들어서고 술집과 노래방이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저 길에 뻗친 외길과 기이한 형태의 집들, 떠도는 비린내와 숨막히는 기다림과 내동댕이 칠 수 없는 희망을 통하여 청호동은 이미 과거가 아니라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현재'다. 한 세기가 저물고 그 세기를 지배했던 광기에 의해 만들어져던 청호동. 그 모든 인과를 제공했던 냉전체제는 붕괴되었고 또 세계는 재편되었다. 그러나 청호동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동해와 청초호의 물결이 자꾸 모래밭을 늘려 가듯 더 크고 낡은 청호동이 계속 만들어져 가듯 말이다.

한국이 지구상에 남은 동서냉전의 마지막 오지라면 청호동은 그 마지막 무덤일지도 모른다. 소위 풍요와 번영 속에서 통일이나 민족 혹은 그와 유사한 말들이 구시대적 언사로 들리듯 청호동은 이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들의 땅이다. 그러나 함경도는 강원도가 아니듯 단천사람들이 속초사람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은 꿈이거나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 청호동 사람들은 살아서는 고향에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기약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떠 올리는 일이야말로 이 땅의 예술가들이 분단시대의 모든 김일선 씨와 조국에 진 부채일 것이다. (임상빈 사진집, 「청호동 가는길」에 수록된 글)

[부록3] 청호동 소재사진

엄상빈 사진전 (속초아바이마을, 청호동 가는 길) 1997.2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철조망은 끝간 데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남긴 고통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청호동을 기웃거리며 제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피난 나와 임시로 지은 판잣집 지붕을 짓누르는 역사의 무게와 방문열고 내려딛는 곳이 바로 길이고 뜨락인 골목들, 녹슨 철조망이 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처마 밑에 옹기종기 가꾸어 놓은 화분들과 손바닥만한 마당 구석이라도 있으면 연탄재로 땅심을 돋워 상추나 고추를 심어 먹는 피난민들의 심성을 보며 함경도를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청호동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에 떠밀려 오십여 년 살아온 바닷가 허름한 보금자리를 곧 떠나야 합니다.

통일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또 어디론가 밀려나야만 하는 그들의 삶을 증언하는 기록으로서 〈청호동 전〉을 마련합니다.

여기 몇 컷으로 보여지는 사진의 이면에는 실향민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있고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엄상빈 -



엄상빈 사진, 청호동 가는 길



엄상빈 사진

【발 문】

어떤 사정으로든지 고향에서 떠나있는 사람은 외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사는 곳이 곧 고향이라고도 하고 제2의 고향이라는 말로 위로하지만, 실향민들에게 고향은 잊어버린 것이 아닌 잊혀지지 않는 남다른 무엇이 있는 듯하다. 속초를 고향으로 둔 나는 이북을 고향으로 둔 아버님보다 행복하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옛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그리고 지금까지 부친의 한을 느끼며 자랐다. 지금도 가끔씩 아버님의 시선이 북쪽 어디론가 향할 때 나도 함께 외로워진다. 그리고 그리워진다. 그 무엇들이.

청호동에 가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생각난다. 친구따라 갯배를 타고 건너면서 마치 홍길동전에 나오는 울도국 섬과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나의 판단은 이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좁고 어두운 골목, 잘 알 수 없는 북한 지명을 걸고 있는 간판들, 그리고 궂기를 송곳처럼 찌르는 짙고 강한 함경 사투리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내게 소중한 추억이고, 동시에 잊혀져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이다. 실향민 문화는 속초의 문화적 줄기며, 동시에 청호동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나둘 뺨갱이를 피해서 창의배에 몸을 싣고 잠시 피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언젠가 떠날 채비를 하며, 갈매기처럼 임시 둥지를 틀고 있는 이곳은 속초의 섬아닌 섬이다. 그래서 청호동은 사람들 생각사이에 결코 정박하지 않는 표류하는 부래도일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내 어깨위에 납덩이처럼 올려져 있던 과제를 풀어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청호동에 신수로가 생기면서, 해일에 피해서 이주했던 난민들이 또다시 서너차례 거주지를 옮겨가야 하는 시점에서 어쩌면 영원히 잊혀질 청호동 난민문화를 정리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청호동 여러 아바이들이

고맙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이미 돌아가신 함경동 1세대분들의 구연자료도 함께 수록하여 추모의 정을 담았다.

그리고 이 일을 성사되도록 애써주신 최용문 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바쁜 가운데 '청호동 언어의 특질' 을 써주신 김무림 교수와 '청호동 방언' 을 조사한 최승기 대학원생, 또한 방송자료를 제공해 주신 임명철 강릉문화방송 프로듀서와 청호동을 영상으로 옮겨놓은 귀한 사진을 제공해주신 엄상빈 사진작가님, 청호동 관련 시를 모아준 채재순 시인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나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청호동 갯배와 아바이 마을은 보존되어야 한다. 거울을 닦아놓은 듯하다는 청초호를 딴 청호마경의 청호동과 아바이의 만남, 그것은 역사라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따라서 청호동은 함경도 문화촌으로 다시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피난민의 역사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바꾸는 청호동으로 새롭게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속초에 사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가난의 상징인 초가집을 없애고, 우리는 정신적 빈곤은 민속촌에 가서 박제화된 문화속에서 찾고 있다. 지금 청호동 아바이 마을이 사라지고 만다면 속초역사의 일부가 사라지고 말 것이고, 그 부분은 영원히 우리들의 더 큰 아픔으로 남을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자료의 한계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이번 작업이 누군가에 의해 청호동 역사가 다시 쓰여질 때 작은 언덕이라도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 부족한 점이 많음을 용서바라며, 지속적인 과제로 청호동과 실향민 문화의 탐구를 약속한다. 그리고 실향민들을 위해서라도 남북통일과 민족화합의 큰 세계가 열리길 바라마지 않는다. 금강산 구경도 가고 고향에도 달려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아는가! 아바이들이 금강산에 가지 않는 이유를….

1998년 12월 28일, 장정룡

【저자약력】

장정룡(張正龍)

속초태생

강릉대 국문과 교수, 문학박사

문화부·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설악문화제연구단 연구위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기획위원

저서:속초의 향토민속

속초시 어로민속지

강원지역사회문화론 등

김무림(金武林)

보성태생

강릉대 국문과 교수, 문학박사

저서:국어음운론

우리말 어원사전 등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인 쇄 / 1998년 12월 15일

발 행 / 1998년 12월 20일

저 자 / 장정룡, 김무림

펴낸이 / 최용문

펴낸곳 / 속초문화원

인쇄처 / 강원미디어

0391-644-4141

